관아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2015. 6.

문화재청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관아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대표 이동범

관아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참 여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이동범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 참여연구원

연구원 남선영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보조원 조대호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보조원 장승호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 자문위원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종영 티엠새한 연구소장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경영학과 교수

최호운 수원시청 도시디자인과 경관사업팀장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필요성 ····· 3
Ⅱ. 연구의 목적 ····· 7
Ⅲ.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1
Ⅳ. 연구의 방법 ····· 13

제2장. 관아문화재 현황

Ⅰ. 관아문화재의 이해 ····· 17
1. 관아란 무엇인가? ····· 17
2. 관아문화재의 특징 ····· 20
3. 관아의 직제 ····· 25
4. 관아의 수령, 목민관의 이해 ····· 26
5. 관아에서의 주요 공식 행사 ····· 28
6. 관아의 공간구조 ····· 31
7. 관아 속의 가치 ····· 48
8. 기록과 전설 속의 관아 ····· 54

Ⅱ. 관아문화재의 현황 ····· 58
1. 관아의 조직위계 및 분포현황 ····· 58
2. 관아문화재의 활용현황 ····· 71
3. 관아문화재의 활용가능성 점검 ····· 93

목 차

제3장. 관아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전략수립

Ⅰ. 관아문화재의 정책환경진단 ····· 99
1. 관아문화재 활용의 대내외적 정책환경 ····· 99
2. 관아문화재 활용의 SWOT분석 ····· 101
3. 종합분석 및 정책방향 ····· 106

Ⅱ. 관아문화재의 활용전략 ····· 109
1. 핵심전략 및 정책목표 ····· 109
2. 관아문화재 브랜드 네이밍화 ····· 110
3. 주요 추진과제 ····· 111
4. 연도별 추진 전략 ····· 113

Ⅲ. 관아문화재의 활용모델 개발 ····· 115
1. 군사 중심형 ····· 115
2. 행정 중심형 ····· 121
3. 문화 중심형 ····· 128
4. 경제 중심형 ····· 133
5. 교통 및 경관 중심형 ····· 139
6. 팔도감영의 지역통합 추진행사 ····· 141
7. 관아의 공통추진사항 ····· 144

Ⅳ. 관아문화재의 활용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149
1. 제안사업비의 근거기준 ····· 149
2.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150
3. 활용모델별 예산 ····· 157
4. 사업추진예산 종합표 ····· 176

목 차

제4장. 결론

Ⅰ. 결론 ····· 179

Ⅱ. 관아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81

부록

Ⅰ. 관아문화재 지정현황 ····· 187

Ⅱ. 개별 관아문화재 실태조사 ····· 192

1. 팔도감영(5개소) ····· 192
2. 부와 유수부(5개소) ····· 202
3. 대도호부와 목(11개소) ····· 213
4. 도호부(13개소)····· 235
5. 군(10개소) ····· 256
6. 현(38개소) ····· 269

Ⅲ. 현장 점검 및 자문회의 사진 ····· 313

Ⅳ. 참고문헌 ····· 314

제1장. 연구 개요

孝友里
下無等乃村
加良
道路里村
五等生里
鋤隱道村
社稷
南門
東門
大成殿
明倫堂
書院
東齋
西齋
尊經閣
射亭
東門
嘉賓亭
萬壽亭
沙峯
鼎峯
山底村
健入浦
大濱浦
翠屏峽
伐卸浦

Ⅰ. 연구의 필요성

1.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가유산의 기본축 정립

관아는 국가의 통치체계 중 하나로서 궁궐과 더불어 한 축을 담당해왔다. 조선조에 궁궐은 중앙정부 역할을 했고 관아는 지역정부 역할을 맡았으니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적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이 넘도록 일부 관아만 활용될 뿐 대부분의 관아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채 있거나 수리 복원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910년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들을 파괴하고 변형시켰으며, 전국의 읍성과 관아들에도 '읍성철거령'을 내려 모두 파괴 변형시켰다.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경복궁 장기복원정비에 들어가 광복 65주년인 2010년에 330동 중 89동을 복원(25%)하고, 이후 '살아 숨쉬는 궁궐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의 원래 모습을 찾아감으로써 상처 받은 국가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정립해가고 있다. 또한 수원 화성행궁과 광주의 남한산성 행궁 등 임시궁궐 역할을 했던 관아들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세계유산 등재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복원 활용 노력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지방관아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2. 관아를 지역 전통문화의 근거지로 복원

그동안 관아의 경우 일부 활용이 활발한 해미읍성 등을 보더라도 지역축제와 행사(곤장맞기 등) 프로그램 등이 비슷하거나 획일적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아(감영 등) 및 관아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적 대표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다. 팔도에 있는 감영만 봐도 감영이름, 감사 명칭까지도 모두 달리 고유화 되어 있을 정도였음을 볼 때 그 활용의 정도는 미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방관아 고유의 특장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재가 그러하듯 관아 역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고도성장기 등을 거치며 파괴되거나 소외되어 왔다. 특히 일제강점과 동시에 시행된 읍성철거령으로 전국의 각 지방에 분포했던 관아와 읍성들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지방관아의 복원 정비 및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대부분의 관아들은 철거된 채 방치되거나 초등학교 등 다른 건물이 세워져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삼국, 고려, 조선을 거치며, 전국 각지마다 팔도 고유의 감영들이 있었고, 지역의 역사·경제·문화 등의 조건과 인구규모에 따라 부(府)·목(牧)·군(郡)·현(縣) 등 다양한 위계 및 형태를 갖춘 관아들이 있었다. 또한 관아 외곽에는 외침에 대비하고 내치의 효율을 위해 읍성을 쌓았으며, 한양도성 축성 시 유교적 질서에 따라 도시설계에 좌묘우사(左廟右社)를 적용했듯, 성황단·여단·사직단·문묘 등 삼단일묘(三檀一廟)를 읍성 내에 관아 및 향교와 함께 계획적으로 설계 배치하였다. 관아의 문루 앞에 시장을 둔 것 또한 읍성의 도서설계 구조상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일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를 철저히 조선의 실정에 맞게 소화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녹여 형성 발전시켜왔던 관아와 읍성들을 폭력적으로 해체시켰다. 우리 고유의 지역문화를 말살하고 식민지로서의 문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문화국가로서의 융성을 위해서는 관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복원과 활용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관아격인 천수각은 우리나라의 관아와 역사적 배경은 다르나 일본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훼철되었다. 그들의 천수각이 예로부터 보존된 곳은 12곳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 천수각의 활용 가치가 높다는 인식 하에 많은 복원과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에는 100여 곳이 넘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부쉈던 천수각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시 일본내 지역문화 발산의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매김시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손으로 해체된 관아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하고 특색있는 지방문화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3. 관아로 역사성 있는 지역문화공간 만들기 : 관아 르네상스

관아는 지역문화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심공간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즉, 관아는 전통적으로 지역문화의 대표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텅빈 공간이자 죽은 공간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문화재라는 위치 때문에 지역개발을 규제하게 되어, 주민들은 관아를 오히려 골칫덩이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 수원화성 사례를 보면, 화성과 행궁(화성유수부) 때문에 주변 행궁동 마을은 타 지역보다 낙후하고 개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처럼 관아문화재는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불만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역공간을 다시 옛날처럼 활력있는 공간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요소가 되기도 한다.

수원에서는 문화재보호지역의 낙후된 마을(행궁동)을 문화재와 어울리는 경관으로 탈바꿈하여 도시재생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수원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문화재보호지역의 경관만 정비하였다고 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민과 수원시가 합심하여 다양한 문화적 요소 개발, 향유노력이 선행되어 더욱 품격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거 조선시대의 관아와 주변 마을처럼 활력있는 지역공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활용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에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겐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유산의 향유와 관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대표공간으로 비로소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아문화재의 활용은 '지역의 역사문화공간 복원'이라는 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도시재생'이라는 실용성, '지역 관광영역 확대'라는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문화부흥(르네상스)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 관아는 문화 다양화에 가장 중요한 상징

관아는 과거에도 지역 중심지였지만, 현재에도 최소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 중심지이다. 향교 및 서원은 교육과 제향기능 등 문화적 가용요소가 부분적이지만, 관아는 지방 문화가 총망라된 대표유산으로 향교나 서원보다 좀더 포괄적인 문화요소를 담고 있다. 따라서 관아가 갖는 장소성은 지역의 대표유산으로서 손색 없다.

고을의 특산물과 진상품은 각 읍지와 지리지에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보면 수백년을 이어 내려온 특산물이 있어, 고을 특산물에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 특산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 감귤과 같은 경우는 좀더 특별한데, 빛깔 좋고 맛이 있기에 성균관 유생의 학습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감귤을 이용하여 황감제(黃柑製)를 지냈고, 감귤 봉진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는 한편 이름난 선비들이 저마다 감귤 등 특산물에 대해 제영(題詠)을 남기곤 하였다. 관아에는 이처럼 고을마다 달랐던 지역 특산물을 비롯하여 관청(官廳)의 음식문화, 교방예술, 기록문화 등 지역 내 모든 문화요소가 있다. 따라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슬로건은 이미 관아 속에 담겨 있으며, 이를 지역 브랜드화에 활용할 수 있다.

5. 국민과 함께 하는 고유의 관아 및 목민관 상 구축에 활용

지금까지 관아 활용프로그램들은 옥사 체험 및 곤장맞기 체험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옴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아는 곧 '형벌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있다. 관아와 원님(지방관)이 나오는 활용 프로그램에서는 일률적으로 형벌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아는 형벌을 주는 무서운 공간으로 각인시키는 식이다. 관아의 기능 중 형옥을 통한 징벌은 여러 역할 중 하나이며, 그 속에서도 징악(懲惡) 보다는 권선(勸善)을 위한 여러 제도적 기능들이 많았다. 관아는 이외에도 여러 정치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민속적 요소들을 망라하는 지역문화의 대표 공간이었기에, 사람들이 관아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인식을 해소하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중앙정부인 왕조가 지방통치를 할 때 강력한 왕권으로 관아를 통해 지역 말단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더불어 고을의 엘리트인 사족(士族),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향리(鄕吏)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살기 좋은 고을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즉, 관아는 행정적 기능과 더불어 의정기능을 하였던 곳이다. 물론 일부 잘못된 목민관이 학정을 일삼았던 경우 또한 존재하나, 이들 때문에 관아의 기본적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관아는 사족과 향리 등 다양한 계급을 포괄하고, 문화예술을 담당했던 교방이나 재무 및 음식을 담당했던 관청 등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산업 및 문화분야를 조직했다. 따라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아가 민의를 모아 역사문화행정을 추진해왔던 상징적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와 문턱 낮은 대중행정, 역사문화에 기반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아는 매우 유용한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해줄 것이다.

Ⅱ. 연구의 목적

1. 관아 활용의 초석 마련 : 관아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 발굴

현재 대부분의 관아 문화재는 관아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이렇다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관아 활용의 개발 진행 단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관아 활용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별 관아별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개별 관아별 조사 연구와 특색이 정리된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아는 육방(六房;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을 통하여 지역의 모든 요소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관아와 지역문화 연계가 가능하다.

관아의 기능조사	관아 콘텐츠 발굴, 활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첫 단계 관아만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능적 조사와 분류 필요
개별관아별 조사	각 관아만의 특색을 다지기 위한 단계 개별 관아의 기록(관찬사서, 각 읍지 등)을 심도있게 조사
지역문화의 조사	관아에서 관장하였던 지역문화요소 조사 목민관, 특산물, 지역예술, 민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요소

<그림 1-1> 관아의 콘텐츠 발굴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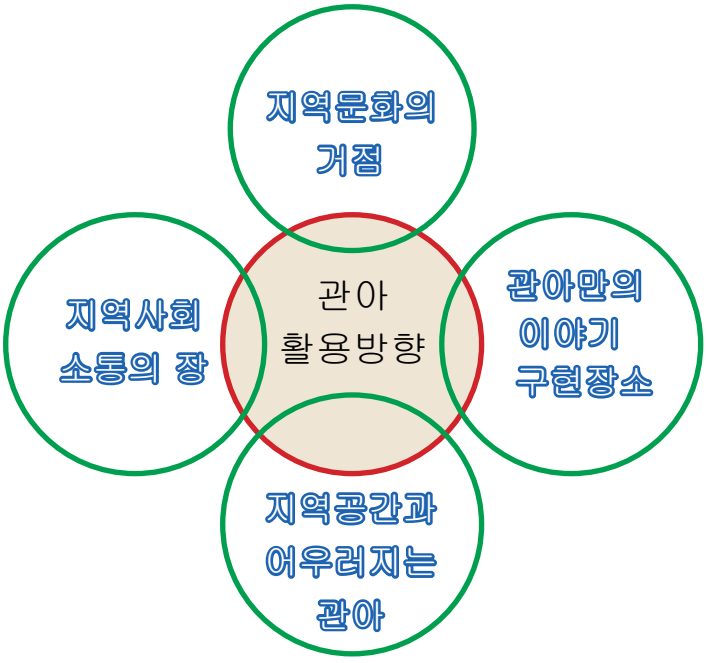
2. 지역문화의 대표공간인 관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본고에서는 연구 진행 단계의 한계상, 관아의 기초기능 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유형화한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현재 관아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활용 프로그램에서 관아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

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아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활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관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교방문화·민속문화), 경제적 요소(장시와 상업활동), 행정적 요소(지방관과 사족·향리 등의 의사결정), 군사적 요소(고을의 치안과 위협 방어), 교통적 요소[1](고을을 이어주는 객사, 쉬어가는 누정), 크게 다섯가지 요소로 나누어 활용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3. 관아문화재의 활용방향 마련

지역에서 역사적 문화적 대표성을 띄는 문화재인 관아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아문화재의 특징에 기반하여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관아의 정체성에 맞게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관아문화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올바로 구현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아문화재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다음의 4가지 특징에 맞게 추진방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2> 관아문화재 활용의 추진 방향

1. 경관적 요소를 포함함. 이하 내용 동일

1) 지역 문화의 거점

관아의 안에는 여성 문화예술의 산실인 교방, 지역 특산물로 맛있는 지역음식을 만들어내는 관청, 고을의 행정업무자료와 역사적 사건 등을 기록을 보관하였던 책실, 관아의 밖에는 고을 사람들의 신앙처로서 풍요로운 고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던 사직단, 성황단, 여단과 함께 문묘가 있다. 이 밖에도 성문 바깥에는 고을 사람들이 특산물을 거래하는 시장, 고을의 치안을 유지하는 읍성과 장청, 고을 사람들의 공익을 누리기 위한 자치규약인 향약, 바깥 손님들을 맞이하여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객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을의 모든 문화가 집중되고 관리되며 발현되는 곳이 바로 '관아'라고 할 수 있다. 관아는 과거부터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었듯이, 오늘날에도 지역문화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소통의 장

현재 '관아'의 공간 이미지는 오늘날의 '법원', '경찰서' 등 사법기관이 연상되어 딱딱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의 행위는 사또와 재판, 곤장맞기와 형벌 등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뿐이다. 하지만 서두에도 이야기하였듯이, 관아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 향촌사회의 엘리트층인 사족,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며 고을의 공익을 대표하는 향리, 그리고 일반 백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즉, 관아는 향촌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담당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관아가 주고있는 선입견을 바꿈과 동시에 '향촌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담당하였던 관아의 가치를 올바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지역사회의 열린 소통의 장'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관아'라는 공간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중 어떤 사람이라도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공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관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구현하는 장소

서원·궁궐 등의 유적이 해당 장소만의 역사성을 갖고 있듯이, 관아 또한 관아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관아는 관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

다. 개별 관아별로 내제되어 있는 수많은 기문과 제영, 금석문 등 고유자료 뿐 아니라 지리지 및 지도, 관찰사서, 고문서 등 관련자료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아만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다 차별화된 구성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야 한다.

4) 지역공간과 어우러지는 관아

관아는 이처럼 지역문화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이며, 관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관아는 그저 옛것, 이른바 '구닥다리' 관제건물로 현대화된 도시와 도시 속의 현대 문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관아는 물론 옛 유적 중 하나이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전통문화를 배우는 선으로 그치면 안될 것이다.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레트로 트랜드는 우리에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대중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관아의 가치와 정체성을 잘 추출하여 현대문화의 발산과 함께 현대 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공간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아 주변 경관을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이미지로 경관정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Ⅲ.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의 대상

관아는 고려시대 이전 관청 및 공무시설, 군사방어시설 등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나, 시대의 특성상 조선시대 관아가 이전 시기의 문화유산에 비하여 잘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아의 통합적, 실질적, 유형별 활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행정기능을 담당하였던 관아'를 대상을 삼되, 건조물 등 역사적 기념물이 일부 남아 문화재로 지정된 관아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지방의 관아 중에서 일부는 행궁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행궁의 특성상 지방행정관과 연계되어야 지속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궁을 겸하는 관아도 본질적으로 관아문화재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조선 고종 32년(1895) 이전으로 한다. 고종 32년에 지방관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편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이후 15년 뒤에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며, 관아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조선의 고종시기 이전까지 수백년간 전국을 도, 부, 목, 군, 현으로 구분 유지하였던 시기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로는 마을 수비의 기능을 우선하였던 읍성 및 관아의 성곽과 그 주변까지로 한다. 그러나 지역 외곽에 지역의 유명 누정이 있다면, 지역문화의 문학적, 교통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조선시기 서울을 지키는 배도(陪都)로서의 성격을 갖는 유수부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화성행궁과 같이 왕궁(임시)의 지위를 갖더라도 평시에는 관아(유수부 등) 업무를 보았던 문화재도 포함한다. 유수부는 일반 관아와는 다른 특수한 개념으로, 향후 유수부 문화재끼리 연계한 활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감영은 일반 관아와는 성격이 다른 영아(營衙)로서 관아와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으나, 지역적 중요성 및 사회통합적 활용을 위하여 팔도감영을 포함하며, 감영 활용의 중요성에 따라 감영지(경기감영 등)도 포함한다.

강진 병마절도사영과 같은 병영(兵營)이나 보령 충청수영 등 군통치권과 관련한 영아(병영, 수영 등)는 주된 활용 대상이 아닌 연계안을 위한 문화유산으로 설정할 것이다.

Ⅳ.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1) 유형별 활용프로그램의 구상

현재 관아는 대부분 객사, 동헌, 누각 등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존건물의 기능적 차이에 의한 장소성뿐만 아니라 위계에 따른 체계의 차이, 역사적 조건과 풍수, 스토리, 무형문화 등 각 문화재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유형별로 묶어 활용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활용프로그램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관아 건물(복원 포함)이 여럿 보존되어 있는 관아 문화재가 될 것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 계획,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검토

현재 관아 문화재의 관리·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사항을 검토하여 발전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아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선한다.

3) 활용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 위한 문헌자료 정리

관아는 지방행정기구로서 특정 지역과 연계될 수 있으면서도 지방관으로 부임한 인물에 대해서도 연계가 가능하다. 활용 콘텐츠의 확보를 위하여 관아의 기문, 현판, 제영을 비롯하여 기초적 문헌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간적, 범위상의 한계로 ≪신증동국여지승람≫, ≪각 지리지≫ 등과 같이 관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및 주요 역사사건이 집대성된 ≪조선왕조실록≫을 주요 사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자료의 정리는 추후 연구에서 개별 문화재별로 심도있는 성과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헌자료 속에 숨어있는 콘텐츠를 추출할수록 더욱 심도있고 의미있는 활용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역 내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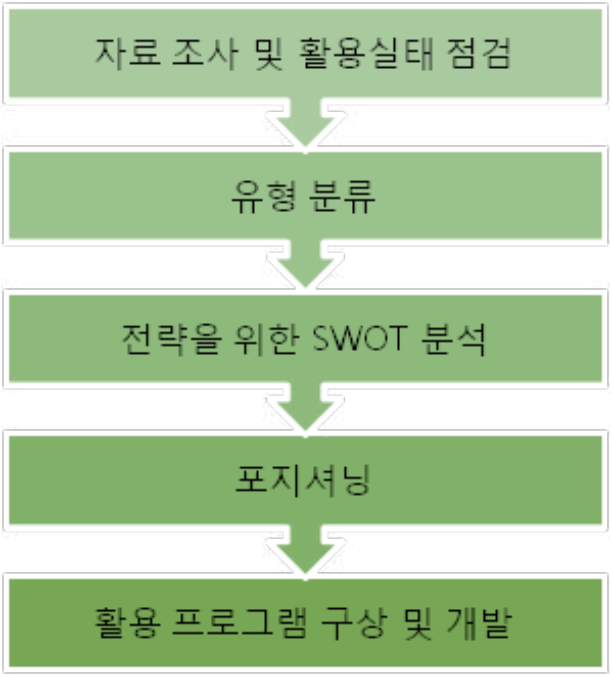
현장 점검으로 관아 문화재의 제반 우수사항과 문제점을 동시에 조사 가능하다. 우수점을 모범사례로서 적용·발전안을, 문제점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동시에 제안하여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5) 사업 구상 및 재검토, 각 분야별 자문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활용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로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적정성 및 오류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안의 추진가능성을 높인다.

자문단의 구성은 역사적 사실이나 올바른 가치전달에 관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창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관아문화재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가, 활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것이다.

2. 연구 수행 절차



<그림 1-3> 연구 수행 절차

제2장. 관아문화재 현황

Ⅰ. 관아문화재의 이해

본 항목의 목적은 관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어 활용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발굴을 위해서는 먼저 관아의 뜻과 성격, 기능, 구성, 관아가 갖는 장소성과 지역성 등 기본적 내용을 파악하고, 관아와 고을에 관련된 기문(記文), 현판(懸板), 당호(堂號), 제영(題詠)을 비롯한 관찬문서, 지리지, 지역전설과 같은 원형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관아의 종합적 활용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기문, 현판, 당호 등 기본자료 및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종합 지리지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관아(官衙)란 무엇인가?

1) 조선 지역방어체제 속의 관아(官衙), 영아(營衙), 진보(鎭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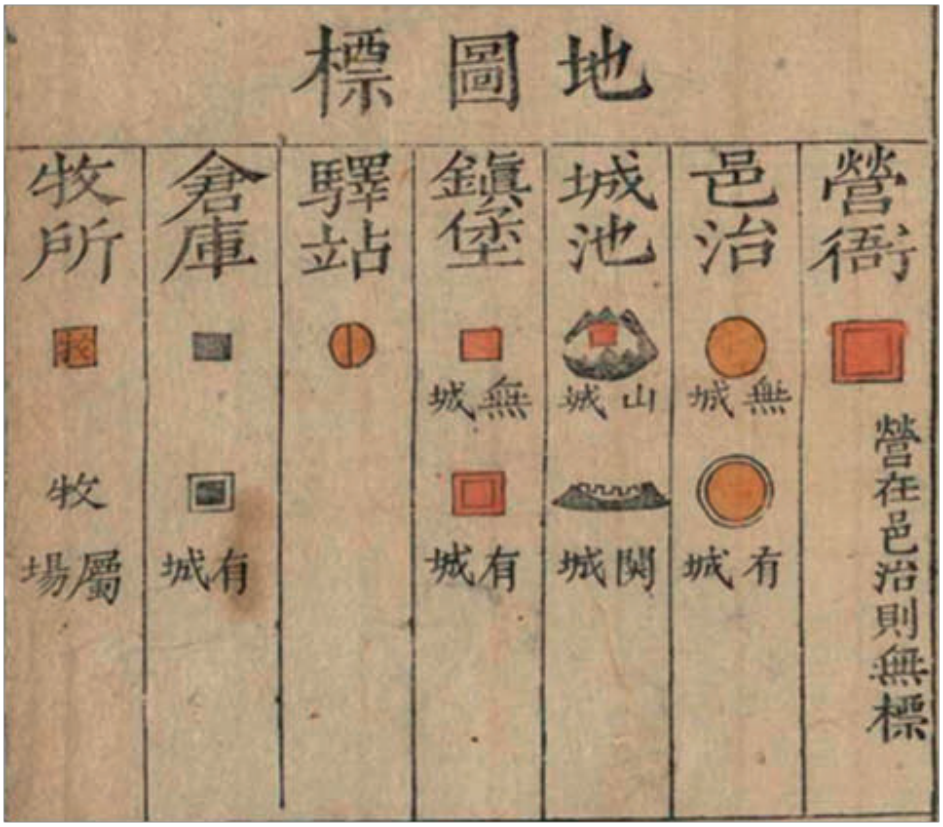
관아는 지역사회를 다스리고 소통하기 위하여 관원들이 정무를 보던 기관이다. 관아가 등장한 때는 아주 오래전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 그들을 다스려야 하였을 무렵에 이미 관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농경의 발달로 식량이 확보되고 무기의 발달로 인원들의 힘을 갖추어 대규모 통제가 가능해졌을 때로 보이나,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에 '관사옥사(官私屋舍)'[1]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관아'라는 뜻이 내포되고 있다. 관아는 관부(官府), 관청(官廳), 관서(官署), 공서(公署)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관아의 책임자인 지방관이 영아의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사시 지역방어체계로서 기능을 하였다.

영아(營衙)는 도별로 분포된 감영, 병영, 수영, 통영 등을 지칭하며, 어느 한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는 일반 관아와는 다르다. 감영과 병영, 수영은 모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광역 공간별로 통할(統轄)하고 있다. 예컨대 전라감영의 전라도 관찰사는 전라도라는 넓은 공간과 지방관들을 총 감독하였으며, 삼도수군통제영의 통제사는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수군을 통할하였다. 경상우도병영의 병마절제사는 경상우도 지역의 육군을 통할하였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 등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1. 삼국사기, 흘해이사금, "夏四月 大雨浹旬 平地水三四尺 漂沒官私屋舍 山崩十三所."

진보(鎭堡)는 영아의 하위 체계로, 이름 그대로 군사 진영을 이야기한다. 국경이나 군사적 요충지에 진보를 두어 방비에 대비하였다. 북쪽에 접한 중국 부근이나, 남쪽에 접한 일본 부근에 진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발장군이 임진왜란의 첫 전투를 치룬 부산진, 미국 아세아함대와 일본 운요호를 맞이하여 싸운 초지진, 이순신이 만호로 있었던 고흥 발포진 등이 유명하다. 진보는 첨사, 만호, 별장 등이 관할하였으며, 진이 보보다 크다.

《대동여지도》 등 지도 속의 영아는 관아가 있는 고을과 구분지어 표시하고 있다. 이는 '영아-관아(고을)-진보'로 지방을 구분한 지역방어체제 진관제도(鎭官制度)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관제도는 폐단이 있어 제승방략(制勝方略)으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지만,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원인이 되어 진관체제의 재정비가 촉구되었고, 속오군(束伍軍) 체제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역방어제도의 변화와 상관 없이, 영아-관아(고을)-진보의 구성 자체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그림 2-1> 영아-읍치(고을)-진보 등으로 구분된 지도표 ©대동여지도

2) 지역토착세력과 관아와의 관계

고을에는 크게 일반 백성과 사족, 향리, 중앙파견 지방관이 있는데, 향리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도와 마을의 정무를 관장하였으며,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향리의 세력은 막강하여 지역사회에서 힘을 떨치는데, 지역 사족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때문에 향리는 중앙 지방관과 지역 사족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세력이었다.

이러한 향리는 향촌사회질서의 흐름에 따라 지방관과 사족 사이에서 무게균형이 저울질되었다. 비록 지방관은 임금에 의하여 직접 파견되었지만, 향리와 사족들이 지방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펼치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여론 형성을 통제할만한 기구나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는 사족이 주도하게 된다. 지방 사족이 점차 중앙정권에 진출하였으며, 고을에는 향청(鄕廳)이라는 향리 통제 기구가 본격 강화되었고, 지역세력 내에서는 영향력을 키우고 여론을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선조-광해군-인조 대에 있었던 국난이 계속 이어지며 향촌질서는 변화하게 된다.

이후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부농 등)이 나타나자 향촌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하게 된다. 부농층 등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고을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어 관아에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의 상품경제발달과 신분 변화는 우리의 고전이야기인 <흥부전>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흥부와 놀부는 같은 형제이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이른바 요호부민饒戶富民), 한 사람은 영세민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절대적 신분이 아니며 물질적 요소에 따라 생긴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흥부전>의 놀부처럼 지역내에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여론몰이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향족(鄕族)이라 하며, 타향에서 이주하여 온 신흥 세력인 신향(新鄕)이라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향촌사회의 질서는 사족 중심에서 향리 및 향족 층으로 돌아간다.

그간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 사족, 향리, 향족은 힘이 강성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은 일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들은 고을 사람들의 중간 계층으로 그 역할을 하여 고을의 문제점을 좁혀나갔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았다.

이렇듯 관아는 지방 토착세력인 향리와 사족, 일반 백성, 중앙 파견세력인 지방관이 한데 어우러져 모두의 공익을 고려하여 편안히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복합적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관아문화재의 특징

1) 장소성 : 관아 활용의 지리적 이점

관아(官衙)는 과거 지방행정기구의 청사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중심지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관아는 조선시대의 유산이지만, 조선 관아가 위치하였던 곳은 고려시대 전후에도 중심지였다. 오늘날에도 관아가 위치한 곳은 최소 읍·면 단위 이상의 중심지로, 관아 건물을 지역 청사(면사무소 등)로 삼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역내 거의 대부분의 관아 문화재는 지역 거점에 위치하여, 국내 존재하는 그 어떤 문화재보다도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적 향유를 전파하기가 용이하다.

<그림 2-2> 과거 면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직산현 관아©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2-3> 읍사무소, 시청 출장소와 가까운 선산 객사

<그림 2-4> 무장면사무소, 면내 중심지역과 가까운 무장현 관아

<그림 2-5> 나주 버스터미널 및 시가지와 가까운 나주목 관아

2) 지역성 : 관아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

관아는 지리적 위치 면에서도 중심에 있지만, 지역 문화유산적 위상에도 관아가 중심에 있다. 지역 내 어떤 문화재보다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무엇보다도 관아라고 할 수 있다. 시도유형문화재도 관아의 공공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그 어떤 문화유산보다 빨리 지정된 결과, 문화재번호 제1호, 제2호 등 앞번호는 주로 관아가 차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2-1> 시도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관아

지정종목	문화재명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부평도호부청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울산동헌 및 내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선화당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징청각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동래부 동헌 충신당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호	위봉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	조양루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금성관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는 특징은 소프트웨어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관아 안에는 지방관의 집무실인 동헌(東軒, 팔도 감영의 경우 선화당宣化堂)과 향촌교화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향청(鄕廳), 육방 구실아치들의 실무 공간인 작청(作廳) 등의 행정적 사무공간과 더불어, 지방관의 살림공간이자 인물의 내면성이 담긴 공간인 내아(內衙), 관아의 자료실이자 지역 기록문화 공간인 책실(冊室), 지역 여성 가무악(歌舞樂) 예술문화의 산실인 교방(敎坊), 지역 특산물과 음식을 관장하였던 관청(官廳), 고을을 수호하는 읍성(邑城)과 장청(將廳), 사신 및 관원들이 숙박하는 공간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객사(客舍), 지역 풍광을 대표하는 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누정(樓亭)과 문루(門樓),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문루의 바깥에 위치한 장시(場市), 지역 민속문화의 상징인 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 문묘(文廟)까지 관아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요소가 담겨 있다.

또한 동헌, 향청, 작청을 설명하며 언급되었듯이, 관아에는 중앙 파견 지방관, 지역 엘리트인 사족(士族), 관아의 실무자인 향리(鄕吏), 그리고 일반 백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관아는 특산물과 음식문화, 기록문화, 교방문화, 고을 민속문화를 넘어서서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이며, 행정의 중심이자 군사적 중심이며 교통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지역문화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공간이 바로 관아라고 할 수 있다.

3) 브랜딩 : 관아는 지역브랜드와 연계 및 활용 가능

이처럼 관아에는 다양한 문화요소가 숨겨져 있는데, 이 요소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와 연계 또는 활용한다면 보다 고품격으로 지역특성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된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華城)과 행궁(行宮)은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 읍성과 관아인데, 수원의 상징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수원 화성과 행궁은 성벽이 헐리거나 파괴되고, 관아 건물 중 낙남헌(洛南軒)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으나, 성벽과 관아 건물을 대부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수원에서는 복원된 화성과 행궁에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 향유를 위하여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기록된 무예 24기를 재현하는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생산하여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개설되었던 성문 바깥 시장(수원 남문시장 등)도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화성과 행궁뿐만 아니라, 행궁동 주변 마을, 성문 시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함께 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원에서는 복원된 수원 화성과 행궁으로 낙후된 원도심(행궁동 일대)의 재생과 함께 문화공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생태교통 2013 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행궁동 마을의 경관이 크게 개선되어 화성과 행궁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두어, 낙후된 행궁동 마을에는 공방, 카페 등이 신설되고 예술가들이 몰리며 주민 스스로가 경관개선에 자비를 들여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수원을 찾는 사람들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이 공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수원 사례를 보면 지역브랜드 활성화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성곽 및 관아 문화재의 대대적 복원이 있기는 하지만, 관아 안과 밖, 주변 마을과 시장 등 관아와 연관이 있는 공간 모두를 종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점을 좀더 눈여겨 보아야 한다. 조선 지방통치체제(부·목·군·현 등)[2]의 위계를 떠나서 모든 주요 지역에는 관아가 존재하였고, 관아가 남긴 흔적과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관아의 현존 건물이 몇동 남아있지 않아 볼거리가 부족하더라도, 과거 관아의 관할 영역이었던 읍성, 시장, 주변 마을 등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활성화 되었을 때 수원의 행궁동 마을 사례처럼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관아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2-6>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장안문 일대

<그림 2-8> 화성행궁 앞에서의 무예도보통지 재현

<그림 2-7> 화성을 상징으로 한 수원의 심볼마크

2. 조선 지방통치체제는 주부군현(州府郡縣) 등으로 표현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부목군현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러할 때 관아와 관아 일대를 지역의 주력 관광사업공간으로 이끌 수 있으며, 수원처럼 지역의 주력 브랜드로 삼을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브랜딩의 장점은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만큼 도시의 전통과 품격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4) 정체성 ; 관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체계적 활용안 마련

관아는 이러한 중요성 속에서 현재 복원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는 활용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관아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관아가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권력 집행기능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관아를 '곤장을 때리고 형벌을 주는 엄격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관아나 관련 문화재에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이 '형벌'에 맞추어져 있다보니, 사람들은 관아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서, 관아는 권위적인 공간이고 형벌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만을 떠올리는 낙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관아인 해미읍성[3]이나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TV방송에서도 관아가 등장할 때 관아의 수령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호통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축제(행사)나 방송, 유사 문화재 등에서도 사또가 등장할 때면 곤장이나 호통치는 모습이 항상 수반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관아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관아를 '곤장을 때리고 형벌을 주는 곳'만으로 인식한다면 매우 곤란하며, 반드시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만 한다. 물론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관아의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관아의 주요 기능은 그것만이 아니다.

관아는 오늘날 시청, 군청과 같이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정무를 보던 공간이다. 관아에서도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동헌의 현판 등에 그러한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홍산현 관아 동헌에는 '제금당(製錦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제금'은 좌전(左傳) 양공(襄公) 31년조에 나오는 말로, "비단옷은 기술이 탁월한 사람에게 짓게 해야만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며, 어진이가 수령의 자리에 올라 고을을 잘 다스리겠다는 포부를 비치고 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 일부 수령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학정을 펼쳤다고는 하나, 고을과 소통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하여 수령의 각오를 현판에 당당히 공개하고 정

3. 해미읍성은 충청병마절도사영과 공존하는 내상성(內廂城)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문화재명으로 널리 인식된 명칭인 '해미읍성'을 사용함. 따라서 해미읍성과 조건이 비슷한 관아 및 읍성 또한 '문화재명'을 사용하며, 문화재명이 특정 관아를 지칭함에 혼동을 가져올 경우,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 지칭하도록 함.

무를 보려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관아는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장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장소성에 근거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관아가 단지 '형벌을 주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림 2-9> 광안리 어방축제
'민속마을 체험' 중 곤장체험[4]

<그림 2-10> 낙안읍성에 재현된
무릎꿇은 사람과 이를 지켜보는 아이

3. 관아의 직제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나 지리적 중요성 등에 따라 부·목·군·현으로 나누었다. 각 고을별로 중앙 정부에서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람을 파견하여 임기에 따라 다스리게 하였다. 파견되는 지방관은 부·목·군·현에서도 세부적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각도 관찰사(종2품), 유수(정2품 또는 종2품), 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으로 나누었다.

4. 뉴스쉐어, 2013. 4. 30. "어방축제에서 맛보는 곤장"

<표 2-2> 조선 지방체제와 지방관

지방체제	지방관	품계	주요 지역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	종2품	경기, 충청, 경상, 전라 등
유수부(留守府)	유수(留守)	정2품 또는 종2품	화성, 광주, 개성, 강화, 춘천
부윤 관할 부	부윤(府尹)	종2품	전주, 경주, 영흥, 의주, 평양
목(牧)	목사(牧使)	정3품	진주, 여주 등
대도호부(大都護府)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	강릉, 안동, 창원 등
도호부(都護府)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	울산, 인천 등
군(郡)	군수(郡守)	종4품	낙안, 서산 등
현령 관할 현	현령(縣令)	종5품	양천, 문의, 용인, 영덕 등
현감 관할 현	현감(縣監)	종6품	과천, 직산 등

4. 관아의 수령, 목민관의 이해

1) 선정을 베푼 지방관의 고을 통치 모델 [5]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해당 지역의 출신이 아니었고 임기마저 대체적으로 짧아 고을을 충분히 다스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지방관은 나름의 통치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 노력하였다. 이들은 칭송받는 목민관으로서 선정비가 세워지는 한편, 만인산 등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오횡묵의 《총쇄록》은 각지마다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한 그의 행적이 담겨 있다. 그는 함안, 자인, 정선 등 여러 고을을 통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함안은 재직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4년), 나름의 통치 방식이 정식화되어 전형적으로 나타났기에 주목할만 하다.

<1단계> 시정 정보의 획득 및 지역 현안 파악
<2단계> 토호 발호의 억제 및 관치 구도의 확립
<3단계> 관속 관리 및 관내 법질서의 확립
<4단계> 지역민의 이익 조정과 이들의 행정참여 확대

5. 김성윤, 조선시대사학보 53권, <오횡묵을 통해서 본 수령 군현통치의 과정과 전략 -'선정' 목민관의 모델과 관련하여> 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함.

2) 지방관의 일상 업무와 근무 방식[6]

▣ 지방관의 출퇴근

지방관 및 관원의 출퇴근 시간은 묘시(卯時, 오전 5시~7시)에 출근하고 유시(酉時, 오후 5시~7시)에 퇴근하되, 해가 짧은 때에는 진시(辰時, 오전 7시~9시)에 출근하고 신시(申時, 오후 3시~5시)에 퇴근하도록 <<대전회통>>에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 지방관은 이러한 출퇴근 시간을 어기지 않았으며, 업무에도 열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수였던 오횡묵의 경우 업무 시작을 묘시에 시작하였다.[7] 천안군수 이유간, 전의현감 등을 지냈던 황윤석 또한 아침식사 후 출근하였고, 퇴근 후에는 석식을 먹었다.[8] 아침식사는 보통의 아침식사보다 이른 때로 전제되는 경우 묘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본다면 대부분 법전에 규정된 출근시간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업무가 많고 바쁠 때에는 평소 출근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며칠간 계속되는 업무로 병이 났다고도 한다.[9]

▣ 지방관의 일상 업무

지방관은 수령칠사는 지방관이 맡아야 할 7가지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이는 업무에 대한 포폄(褒貶)[10]의 기준이기도 하였다. 농상(農桑), 호구(호적과 호패, 환곡, 부역 등), 군정, 학교, 사송(詞訟), 부정척결 문제와 더불어 건물의 개축문제 등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일에 관여하여야 하였다.

동헌은 지방관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령칠사에 따른 지방관의 대표적인 업무로서 점고(點考)가 있다. 신임 수령은 부임 후 객사에서 망궐례를 행한 후 동헌으로 자리를 옮겨 대점고를 시행하였다. 평시에는 대점고보다 작은 규모의 점고를 정기적

6. 이선희, 역사민속학 18, <우곡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수령의 일상업무> / 이선희, 사학연구 제92호, <조선후기 수령의 출퇴근과 근무방식>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함.
7. 정선총쇄록, 1887년 윤4월 20일.
8. 신재란고(頤齋亂藁), 1779년 12월 17일 ; 1780년 1월 27일, 2월 8일. 특히 이유간의 경우, 일기에 거의 매일 출근 여부를 좌(坐), 부좌(不坐)로 표시하면서 출근장소를 밝혔으며, 또한 아침식사 전에 출근한 경우는 특별히 부기하기도 하였다.
9. 우곡일기, 1610년 5월 15일, 22일, 25일
10. 포폄: 8도의 감사가 고을 수령의 치적을 검사하여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1년에 두번씩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했다. 이 평가는 상벌의 기분이 된다.

으로 행하였다. 점고는 관청 관속에 대한 점고, 군정에 대한 점고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전, 호적, 호패 등의 성책(成冊) 업무와 사송 업무가 대표적이다. 성책 작업 중 양전관련 성책이 중요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송은 노비와 산송(山訟)에 대한 경우가 많았다.

객사에서는 망궐례 의식과 더불어 객사를 방문하는 관원을 맞이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궐례 의식은 지방에서 왕을 직접 알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전패 앞에서 왕에게 올리듯이 행하였다. 망궐례, 배전의(拜箋儀)[11] , 영내향의(迎內香儀)[12] , 영교서의(迎敎書儀)[13] , 중국 황제와 왕의 제사 등이었다. 망궐례의 경우 삭망에 행하였으며, 동지와 한식에도 행하였는데 이때는 망하례라고 하였다. 또한 지방관은 망궐례와 다른 제례가 겹칠 경우 망궐례를 우선하였다.
객사에 손님이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방관은 미리 객사로 출근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맞이하였다. 손님이 제때 오지 않는 경우는 온종일 기다릴 때도 있었다. 이 밖에도 객사에서 행한 주요 업무로는 인접 수령과의 형사 동추가 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찰사가 인접 고을 지방관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여 해당 고을의 지방관과 함께 추문하도록 하였다.

동헌과 객사 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평시 업무보다는 특별한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환곡 업무처인 창고나 현장의 업무처인 빙고(氷庫), 또는 관아의 건축 현장 등이 있었다.

5. 관아에서의 주요 공식 행사[14]

관아에서의 공식행사는 거의 지방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방관의 부임과정부터 취임 이후 이루어진 주요 공식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관의 부임

- 제배(除拜) : 관리가 지방관의 벼슬자리에 임관발령을 받는 것
- 궐내행하(闕內 行下) : 지방관이 부임차 임금께 하직인사를 여쭙는 날에 액례(掖隷;대전별감)와 원례(院隷;승정원 사령)가 지방관에게 억지로 받아내는 돈으로 많게는 수백냥에서 50~60냥 정도 된다. 관행처럼 된 풍습인데 다산은 이를 없애야 할 악습으로 비판하였다.

11. 국왕에 전문을 올리는 의식
12. 향촉을 하사받는 의식
13.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
14.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참조

- 고을사람들이 수령을 맞이하는 예절로는 첫째로 지장(支裝; 신임사령을 맞을 때 고을 아전들이 바치는 그 지방 산물) 바치는 일, 둘째로 수령이 기거할 사택(舍宅)을 수리하는 일, 셋째로 깃발을 세워 들고 나가 영접하는 일, 넷째는 풍헌(風憲; 오늘날의 면장이나 이장)과 약정(約正;조선시대 향약의 임원)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는 부임 도중에 문안하는 일이다.
- 부임길의 치장 : 의복과 안마는 옛 것을 그대로 쓴다, 동행자를 최소화 한다. 이부자리와 의복 외에 책을 많이 싣고 간다.(다산은 책 한수레를 실으면 청렴한 선비행장이라 했다)
- 사조(辭朝) : 조정에서 올리는 하직인사. 이때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경(署經; 관리의 직계/모계/처계의 4대행적을 살펴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을 끝내면, 부임 관리는 조정에 하직인사를 올리는데, 임금과 공경, 대간,장신, 전관 등에게 부임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계행(啓行) : 임지로 떠나는 여행길.

2) 지방관의 취임

- 상관(上官) : 수령 자리에 취임하는 의례.
- 망궐례(望闕禮) : 신임 수령은 객관 밖에 도착하면 의복을 갈아입고, 뜰 안으로 들어가 망궐례를 행한다.
- 참알례(參謁禮) : 신임 수령은 취임하는 길로 고을 아전들의 인사를 받는다.
- 알성(謁聖) : 참알례를 끝내면 이튿날 향교로 나아가 성현(공자 등)의 사당에 참배를 한다.
- 사직단(社稷壇) 봉심(奉審) : 향교의 문묘에서 알성을 끝내면 고을의 으뜸신을 모시는 사직단에 나아가 공손히 제를 올린다.

3) 지방관의 정사(政事)

- 개좌(開坐) : 모든 관원들이 모여 자리를 펴고 공무를 봄. 신임 수령의 취임식이 끝난 이튿날에는 모든 이속(吏屬)과 아전(衙前)들을 각기 자리에 배치하고 공무수행에 들어간다.
- 현고(懸鼓) : 신임 수령이 영(令)을 내려 백성들에게 몇 가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바깥문의 문설주에 특별히 북을 하나 걸어놓는다. 이 북은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소장을 가져올 때 혹 형리나 문지기가 가로막을 경우 바깥문 문설주에 매달아놓은 북을 두드려 수령에게 직접 아뢸 수 있다는 것이다.
- 적력개록(適曆開錄) : 책력에 맞추어 작은 책자를 만들고 해당사항마다 기한을 정해 기록해 나간다.

- 작도게벽(作圖揭壁) : 신임 관리는 다음날 노리(老吏 ; 일 처리가 노련한 아전)를 불러 화공으로 하여금 고을의 사방 관내도인 본현사경도(本縣四境圖)를 그리게 하여 벽 위에 걸어 놓는다.
- 각인반우제향(刻印頒于諸鄕) : 신임관리는 나무도장 몇 개를 파서 모든 향에 나눠준다. 향촌, 풍헌, 약정에게는 도장이 없으므로 상관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위조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나무도장을 새겨 먹으로 찍은 것을 신표로 삼고, 그 인장은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케 한다.

4) 지방관의 봉공(奉公)

- 임금의 말씀 포고 : 임금의 말씀(綸音)이 고을에 도착하면 수령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수령의 입으로 친히 포고하여 임금의 덕의(德意)를 알게 해야 한다.
- 국가의 경사를 알림 :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조정에서 교문(敎文)과 사문(赦文)을 반포하는데, 수령은 교문과 사문이 고을에 도착하면 그 내용을 쉽게 한글(土書)로 발췌 요약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하여 알린다.
- 망하례(望賀禮) : 국가의 경축일에 수령이 전패에 절하는 예식을 말하며, 먼동이 틀 무렵에 행한다. 보통 초하루(朔)와 보름(望)에 하는데, 임금의 탄생일이나 나라의 경축일에도 한다.
- 망위례(望慰禮) : 고을 수령이 국상이 났을 때 대궐을 향하여 조위(弔慰)하는 예를 말한다. 국상 소식을 들으면 수령은 즉시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천담복(淺淡服)이란 제사옷에 흑각대(黑角帶)를 두르고 관정(官庭)에 나와 일곡(一哭)을 한다. 다음으로 바깥 뜰에 나와 상복(喪服)으로 갈아입고 다시 관아에 들어가 이곡(二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오곡(五哭)까지 의례주해(儀禮註解)에 따라 행한다.
- 국기일(國忌日) : 국기일에 수령은 일체의 공무를 폐하고 형벌을 주지 않으며, 악기를 울리지 않되 모두 예법대로 행한다.

5) 지방관의 애민(愛民)과 교민(敎民)

- 양로연(養老宴) : 연로한 노인에 대한 공경으로 떡과 국 등을 대접한다.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따르면 “60세는 세 접시, 70세는 네 접시, 80세는 다섯 접시, 90세는 여섯 접시”를 대접한다고 한다.
- 자유(慈幼)와 진궁(賑窮) : 자유는 어린아이를, 진궁은 가난하고 곤궁한 백성을 보살핌을 말한다. 이는 목민관의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었다. 홀아비·과부·고아·늙어 자식없는 사람을 4궁이라 하였는데, 과년(過年)하도록 혼인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하였으며 혼인을 장려하였다. 이는 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휼전(恤典) : 유행병으로 죽거나 그와 비슷한 곤궁한 일로 고초를 겪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흉년 또는 춘궁기에 환상미(還上米)를 대여해주고 이를 풍년 추수기에 반납시키기도 하였다.
- 관질(寬疾) : 병든 사람을 위하여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 정표(旌表) : 효자, 열녀, 충신, 절사 등의 칭송할만한 행실을 정표를 통해 널리 알렸다.
- 향음례(鄕飮禮) : 어진 선비를 모아 잔치를 치렀다.
- 향고례(饗孤禮) : 고자(孤子)들에 대하여 접대하였다.
- 향사례(鄕射禮)와 투호례(投壺禮) : 흥학을 위하여 활을 쏘거나 투호놀이를 즐겨 학습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6) 지방관의 제사

- 석전제(釋奠祭) : 문묘에서 공자께 올리는 제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거행하였다.
- 기우제(祈雨祭) : 지역에 가뭄이 들면 비가 오도록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
- 일식과 월식의 구식(救蝕) : 일식과 월식의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해나 달을 향하여 기도하며 자숙하였다.

7) 지방관의 접대

- 빙례(聘禮)와 공식례(公食禮) : 빙례는 빙문(聘問)에 대한 예식이며, 공식례는 외부 손님에 대한 접대를 말한다. 변(籩)·두(豆)·궤(簋)·형(鉶)의 수는 손님의 계급의 고하에 따라 규격에 맞추어 격식을 갖추었다.
- 관찰사의 순행 : 지방 관할 고을의 점검을 위하여 관찰사는 순행하였다.

6. 관아의 공간 구조[15]

관아는 지방 지역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자리잡았다. 대개는 풍수지리학적인 면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고을의 주변에 산천을 끼고 사방에 도로가 원활이 통하는 수려한 곳에 위치한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아의 입지를 두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이전 왕조의 관아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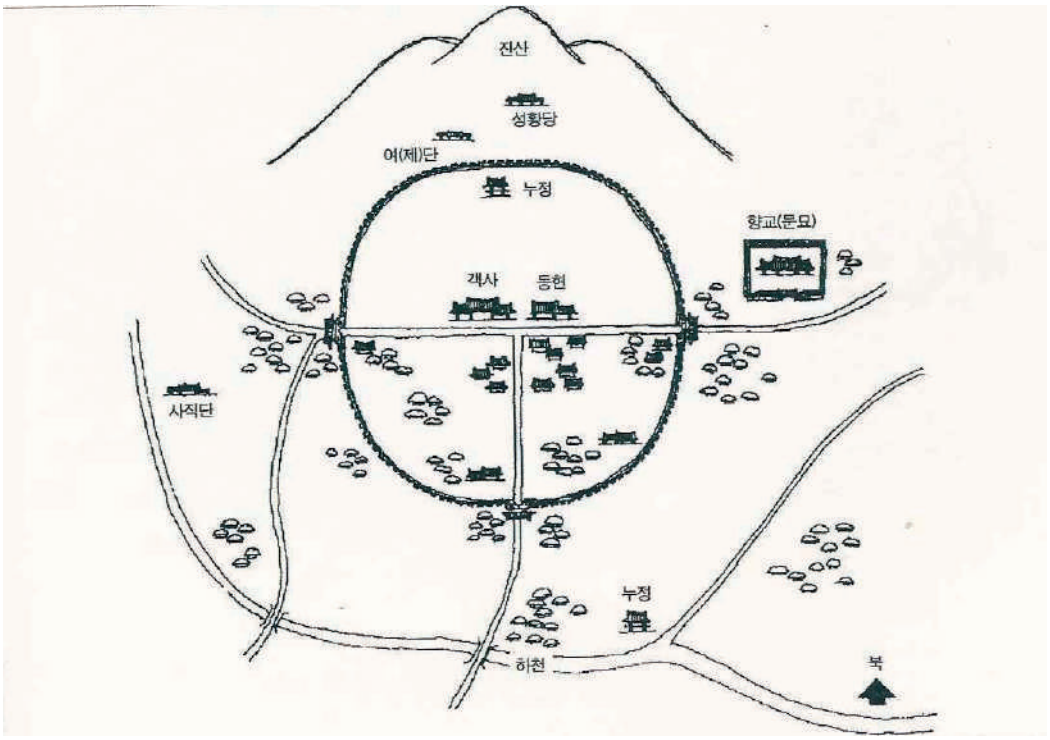
15. 본 항목은 김종영의 자문과 함께 그의 연구자료(조선시대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등)를 참조, 인용함.

고을의 중심에 지방관의 집무실인 동헌, 중앙 파견 관원이나 사신 등이 거처하며 전패(殿牌)를 모시는 곳인 객사를 배치하였고, 중간관원의 실무공간을 주변에 두었다. 고을의 무사안녕을 빌기 위하여 고을을 읍성으로 감쌌고, 읍성 주변에 이른바 삼단일묘(三壇一廟)라고 불리는 성황단(城隍壇), 사직단(社稷壇), 여단(厲壇), 문묘(文廟)[16]등을 두어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지형에 따라 관아 및 읍성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읍성, 도로 등은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부 관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 읍성의 남문을 들어서면 관아로 들어가는 홍살문이 보이며, 외삼문, 내삼문을 거쳐야 동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방관의 살림공간인 내아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동헌에서 더 들어가야 하였다. 이처럼 '읍성의 남문-홍살문-외삼문-내삼문' 등으로 공간적 구별이 되어 있으며, 관아의 모든 건물 또한 근무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건물 규모, 높이, 지붕과 처마 등을 다르게 설계하였다.

▣ 기본개념도

① 읍성과 관아



<그림 2-11> 조선시대 읍성의 공간구성 ©읍성의 보존관리 매뉴얼

16. 문묘는 관아 옆에 있는 향교 안에 배치되어 있다.

<표 2-3> 관아의 공간 분할 구조

관아의 공간 분할 구조									
통과공간	읍성남문	→	홍살문	→	외삼문	→	내삼문	동헌	내아
공간구조	1문	성내민가	관아경계	진입공간	다락문, 익공, 팔작지붕	육방청, 행정사무 공간	솟을삼문 (중문)	수령정청	수령 살림채
상징공간			벽사, 전궐패		하마, 문지기			내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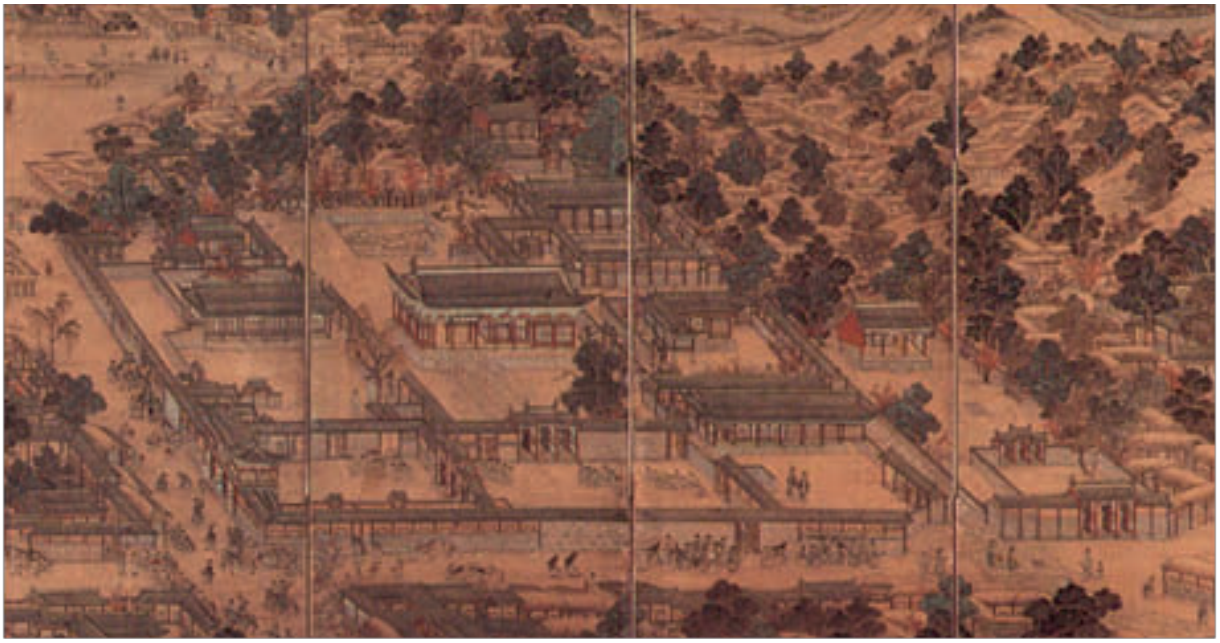
관아는 동헌, 내아, 객사, 삼단일묘 뿐만 아니라 고을의 종합적 업무를 분담하는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관아 하면 흔히들 연상되는 향리들의 공간인 작청, 죄를 다스리는 형방청과 형옥과 더불어 근무자의 식당 역할을 하는 관청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관아 인근의 마당에는 오랜 역사를 묵묵히 지켜봐 온 노거수가 서있다.

② 관아 내부

"관아와 감영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있는가", 또한 "어떤 건물이 어느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여럿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지도(보물 제1586호), 진주성도(보물 제1600호), 거제부도(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135호), 화성행궁도 등 관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 자료와 경기감영도 병풍(보물 제1394호), 동래부산도병(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0호), 화성행행도(보물 1430호) 등의 병풍에 남아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보물 제652-2호)와 같은 화첩에도 그 모습이 남아 있다. 읍지 속의 지도 중에서도 관아의 배치를 비교적 자세히 그려낸 것이 있어 참조가 가능하며, 읍지 내용에는 건물의 명칭이나 규모를 자세히 기록한 경우가 많아 관아의 내부를 좀더 세밀하게 추측하여 그려볼 수 있다.

<그림 2-12> 탐라순력도 - 건포배은©국립제주박물관

<그림 2-13> 전주지도©규장각



<그림 2-14> 경기감영도 중 선화당 부분©리움박물관

<그림 2-15>
원행을묘정리의궤 - 화성행궁도©규장각

<그림 2-16> 해미읍성의 구조
-조선 후기 지방지도 ©규장각

<그림 2-17> 직산현 관아의 구조

<그림 2-18> 청도읍성 주변의 삼단일묘
- 경상도읍지©규장각

<표 2-4> 관아의 주요 공간과 기능

건물명	건물 성격	비고
동헌	관아 수령이 집무하는 건물	독자적인 당호를 갖고 뜰과 법정을 거느림
선화당	감영의 정청으로 관찰사의 집무실	동헌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함
아문/문루	관아의 공간영역을 나누는 곳이자 출입구	
포정문	감영의 공간영역을 나누는 곳이자 출입구	관아의 아문/문루와 기능적으로는 동일함
내아	관아 수령 및 식솔의 살림채	
객사	전패 등을 모시며, 사신, 관원을 맞이하는 시설	마을간 거리의 기준점
향청	좌수와 별감이 집무하던 곳(=향회)	고을 양반들의 징세기구
작청	육방 구실아치들의 집무처(=질청)	이두 전승, 판소리/탈춤
장청	군장교가 집무하던 곳	
교방	관기들의 대기소	예술의 산실, 수청의 질곡
관노청	노복들을 관리하던 곳	부역에서 신분세로 변화
형옥	죄인을 다스리던 곳	
관청	근무자의 식당 역할	지역 특산물과 연계 활용 가능
장시	고을의 물물거래 현장	지역 특산물과 연계 활용 가능
성황단	나라의 제사를 하던 곳	마을신앙처로 민속문화 축제화
여단	불길한 징조를 막기 위하여 제사받지 못한 귀신에게 제사를 하던 곳	마을신앙처로 민속문화 축제화
사직단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던 곳	마을신앙처로 민속문화 축제화
문묘(향교)	유교의 성인을 받드는 곳	향교 제향과 마을민속문화의 연계
고목	관아의 주변에 오래도록 간직된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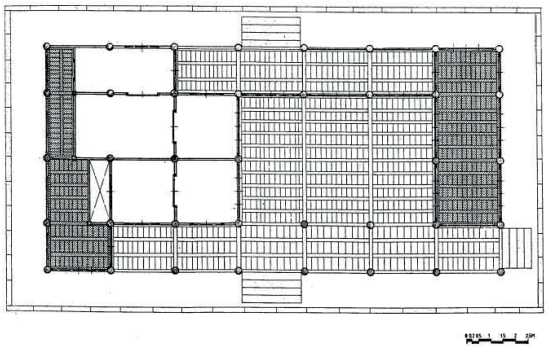
1) 동헌(東軒) 및 선화당(宣化堂)

동헌 및 선화당은 지방관의 정청으로, 관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관아의 수령이 집무하는 건물이 '동헌'이라면, '선화당'은 8도 감영의 관찰사 집무실인데, 건물의 위엄과 크기가 궁궐에 맞먹을 정도로 웅장하다.

<그림 2-19> 공주 선화당

<그림 2-20> 청안 안민헌

동헌 및 선화당의 모양은 장방형(長方形)에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물은 부목군현의 규모별, 지역 경제력 별 등으로 건물의 양식이나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강릉 칠사당과 같은 경우 누마루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충주 청녕헌과 같은 경우는 대청에 부분적으로 단을 높였다. 거제 동헌과 같은 경우는 건물모양이 'ㄷ'자 형이며, 동래 충신당과 같은 경우에는 우물마루만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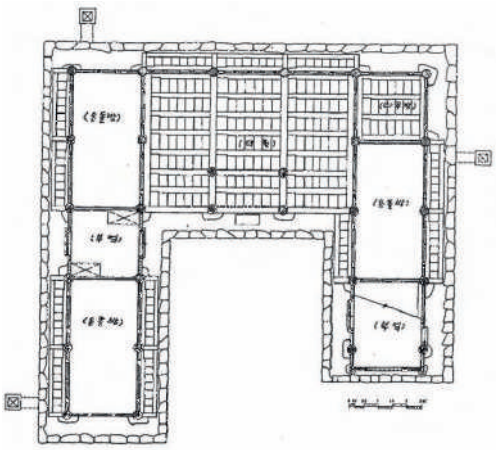


<그림 2-21> 충추 청녕헌 실측©김종영

<그림 2-22> 강릉 칠사당

2) 내아(內衙)

내아는 수령의 살림공간이다. 동헌이나 객사 등 일반 관아 건물과는 달리, 내아가 살림 공간임을 고려하여 상류층의 안채와 같은 양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식을 띄기 보다는 살림공간으로서의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앙으로 대청을 두고 주변에 온돌방, 마루방, 부엌 등을 배치하였다. 회인 내아와 같은 경우 'ㄱ'자형, 김제 내아의 경우 'ㄷ'자형, 직산 내아와 같은 장방형 등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림 2-23> 김제 내아 실측©김종영

<그림 2-24> 회인 내아

3) 아문(衙門) 및 문루(門樓)

문루 또는 일반 문 형식으로 되어있는 아문은 앞서 해미읍성과 직산현 관아를 예로 든 것처럼 공간분할의 역할을 하였다. 일반 아문의 형식은 안쪽 공간인 내삼문, 중삼문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문루의 형식은 바깥 공간인 외삼문이나 읍성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외삼문이나 읍성의 문루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방관은 문루 위에 올라 백성들의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

고을의 규모나 경제력에 따라 관아문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특별한 인물이나 사건은 없었지만 농업, 상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력이 있었던 김제 관아의 아문은 다른 관아보다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감영의 문은 포정문(布政門)이라 하여 일반 관아문과는 크기나 모양 면에서 격이 다르다.

<그림 2-25> 대흥 임성아문(내삼문)

<그림 2-26> 공주 충청포정사문루(포정문)

<그림 2-27> 서산 서령군문(외삼문)

<그림 2-28> 김제 외삼문 앞의 시장©김종영

4) 객사(客舍)

객사는 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객사는 지역거점의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 간의 길을 잇는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객사들 간의 이동통로로 인해 삼남대로, 영남대로, 관동대로, 의주대로 등 조선의 주요 대로가 형성되었다. 지역과 지역 사이 중간에는 마필을 공급하는 역(驛)과 숙식을 제공하는 원(院)이 배치되었다.

또한 이곳은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를 모시고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기능을 하였다.

객사의 건물형태는 중심부 정당을 기점으로 양 날개(서익西翼, 동익東翼)를 활짝 편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객사의 양 익실은 대체로 크기가 상이한데, 현재 보존되고 있는 객사는 양익실이 동일한 모양으로 복원되거나 날개부분이 손실된 곳이 있다.

<그림 2-29> 전주 풍패지관

<그림 2-30> 인천 객사 망궐례 재현

5) 향청(鄕廳)

향청은 조선 전기에 '유향소(留鄕所)'로 불리었으며, 향촌사회의 질서를 고르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향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세워진 공간이다. 조선 향촌사회의 질서 기구는 지방 세력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유향소는 지방 세력인 사족의 회합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고을의 대소사를 논하였는데, 고을 내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임금과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에까지 미치기를 꾀하여,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에게 유향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유향소의 지방 여론은 막강하여, 두 세력간의 충돌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은 자명하였다.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

는 불평불만이 치솟게 되고, 결국 지방세력이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시애(李施愛)의 난이다. 조선 와조는 함경도에서 벌어진 이시애의 난이 평정되자, 유향소를 폐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유향소와 향촌사회의 문화는 이미 뿌리를 내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고, 결국 성종대에 향청이 설치되었다.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외지인인 탓에 고을의 사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토착민이 향청에서 지방관을 보좌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향청의 장은 '좌수(座首)'라 하여 고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두었다. 고을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향회(鄕會)를 가졌고, 자치 규약으로써 향약(鄕約)을 실시하였다.

<그림 2-31> 상주 향청

<그림 2-32> 태인 고현동 향약

6) 작청(作廳)

작청은 '질청(秩廳)'이라고도 하는데, 육방 구실아치(향리)들이 관아의 실무를 관장하는 공간이다. 향리는 국가에서 호장·부호장·창정·병정·호정 등의 직책과 대상·원윤·좌윤 등의 작을 받았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성만은 대흥현 호장 출신이기도 하다.

향리는 실무적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족과 더불어 그 위세가 대단하였으며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고을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향리계층은 마음만 먹으면 지방관의 눈을 가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가 쉬웠다. 향리층은 한때 사족층의 출세 덕에 세력이 약화되고 통제를 받았으나, 조선 후기 상품경제발달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진 향리층이 다시 득세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방'의 이미지처럼 향리가 고을 내에서 악습만을 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과 지방관 간의 중간자적 입장으로서 서로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림 2-33> 거제 작청

<그림 2-34> 대흥 이성만 형제 효제비

7) 교방(敎坊)

교방은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고을의 가무악(歌舞樂)을 담당하였다. 즉, 음악과 춤, 노래(가창)가 함께 생산되는 예술의 산실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장악원(掌樂院) 소속으로 아악(雅樂)을 맡던 좌방(左坊)과 속악(俗樂)을 맡던 우방(右坊)을 아울러 '교방'이라 불렀다. 현재 관아에는 교방이 남아있지 않고 터만 있는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전통가무악은 전승되고 있다. 교방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진주교방'이라 할 수 있는데, 진주교방 굿거리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이다. 정현석(鄭顯奭)이 진주목사로 재임(1867~1870)하며 정리한 ≪교방가요(敎坊歌謠)≫는 진주교방에서의 가무악이 종목별로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림 2-35> 진주교방 굿거리춤

<그림 2-36> 교방가요에 수록된 포구악(抛毬樂)의 춤과 필요인원 등 - 1941년 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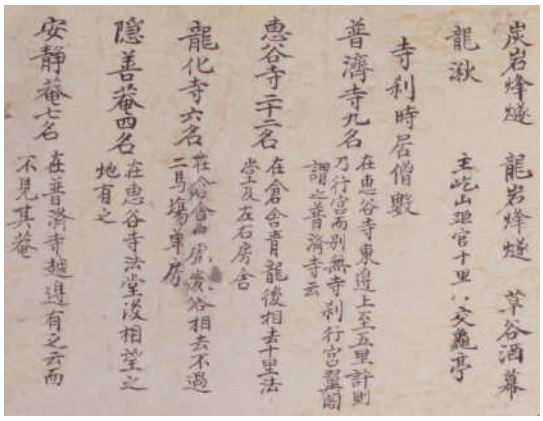
<표 2-5> 관아의 주요 공간과 기능[17]

교방가요 항목	내용
육화대(六花隊)	소기(少妓) 4인, 동기(童妓) 2인 등이 여섯개의 꽃을 표현
연화대(蓮花臺)	동기 2인, 백학 1쌍, 연화 1쌍 등으로 불교의 연화대를 표현
헌반도(獻蟠桃)	선녀와 동선(童仙), 노기(老妓) 등이 반도(蟠桃)를 바치는 모습 표현. 헌선도(獻仙桃)
고무(鼓舞)	소기 등이 북을 활용하여 추는 춤
포구악(抛毬樂)	포구문 속에 채구를 던져 성공하면 꽃을 받고, 실패하면 얼굴에 먹칠을 당함
인무(刃舞)	쌍검을 들고 추는 칼춤
선악(船樂)	배떠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
항장무(項莊舞)	유방(劉邦)과 항우(項羽), 장량(張良) 등의 역할을 맡아, 초한(楚漢)의 격돌을 재현
의암별제가무 (義巖別祭歌舞)	진주성 촉석루에서 연행되기 시작한 논개 제사용 노래와 춤
아박무(牙拍舞)	양 손에 아박(牙拍)을 들고 울리며 표현하는 춤
향발무(響鈸舞)	향발(響鈸)을 양손에 들고 치면서 추는 춤
황창무(黃昌舞)	신라 소년 황창(黃昌)이 칼춤을 추다가 백제의 왕을 죽인 것을 표현하는 춤
처용무(處容舞)	처용(處容)을 표현하여 추는 춤
승무(僧舞)	스님의 옷차림을 하여 추는 불교적 춤
단가(短歌)	단편적인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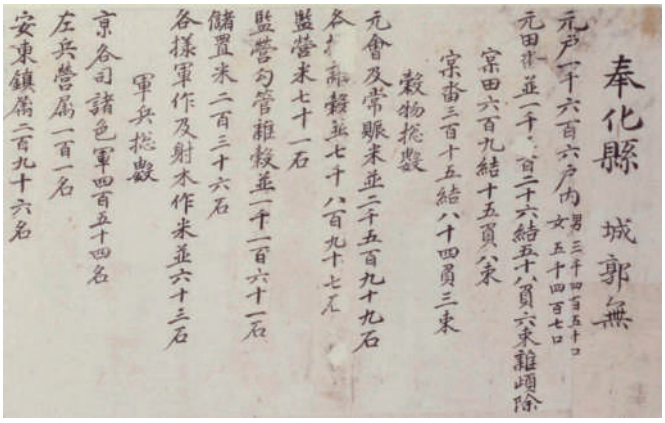
8) 장청(將廳)

고을에는 고을의 군사적, 치안적 수비를 담당할만한 인력이 있어야 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장청'으로, 장교(將校)가 근무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난으로 고을의 병사 숫자 등 군사적 현황 점검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실태가 지도 내에 반영되었다. 1750년대 제작된 관찬지도인 해동지도에는 군 관련 담당 인력, 호구수, 곡물 총수, 군병 총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천연의 요새로 불리우는 문경현의 지도 내용은 흥미로운데, 유사시 인근 사찰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사찰의 위치와 각 사찰별 스님의 숫자 등이 명기되어 있다.

17. 본 항목의 내용은 1941년본 교방가요를 참조



<그림 2-37> 문경새재 인근 사찰의 인원 등의 정보 ©해동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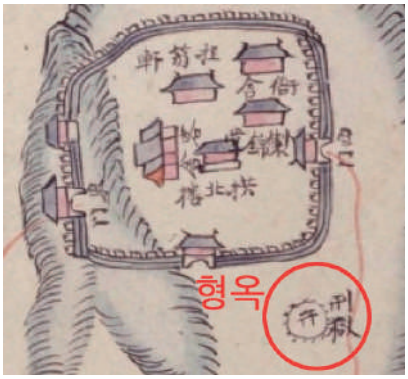


<그림 2-38> 봉화현의 인구, 식량, 군사 등의 종합 정보 ©해동지도

9) 형옥(刑獄)

형옥은 말 그대로 감옥의 기능을 한다. 형옥은 보통 원형 공간으로 '원옥(圓獄)'이라고도 하였다. 원옥은 네모형태 등 각진 공간보다 감시자가 감시하기도 편하였으며, "원은 모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순화를 위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여겼다. 옥사 내에는 여옥과 남옥이 있으며, 관아에서 주어지는 형벌은 모두 대명률을 따르도록 하였다.[18]

죄인들에게 형벌은 불가피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거나 조선시대 형옥제도의 본질이 징벌보다는 순화를 목적으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산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정약용(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진상파악이 어려운 사건은 규명하기가 어려우니, 용서하는 것이 천하의 착한 일이며 덕의 기본이다."[19]라고 하였다. 정약용의 의견과 같이 지방관은 공명정대한 송사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백성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2-39> 청도읍성의 형옥©해동지도

<그림 2-40> 청도읍성의 형옥 현재 모습

18.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19. 목민심서, 형전. "疑獄難明, 平反爲務, 天下之善事也, 德之基也."

10) 삼단일묘(三壇一廟)

삼단일묘는 고을의 신앙을 담당하였던 공간으로 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 문묘(文廟)를 지칭한다.

정약용은 삼단일묘에 대하여 목민심서에서 "군현에서는 삼단과 일묘에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대상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마음에 향함이 있고 마음에 향하는 바가 있어야 재계하고 공경할 수 있다."[20]고 언급하였다. 목민관으로서 삼단일묘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삼단일묘는 고을에서 없어서는 안될, 또한 그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삼단일묘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앙적 기능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을, 성황단은 고을의 수호(守護)를, 여단은 질병 등의 불안요소 퇴치를, 문묘는 교육과 학문의 필요성을 기원하고 있다. 이 네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으로서의 삶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을 사람들은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삼단일묘를 중시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예전 6조 중 제1조 제사조에서는 사직단, 성황단, 여단, 문묘에 대하여 그 기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정약용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표 2-6> 삼단일묘의 뜻과 기원

공간	뜻	기원(목민심서, 예전, 제사조의 내용을 인용)[21]
사직단 (社稷壇)	풍요로운 식량 생산을 위하여 토지의 신과 농업의 신에게 제례를 지내는 공간	사(社)는 토지의 신으로 공공씨(共工氏)에게 구룡(句龍)이라는 후손이 있는데, 구룡이 후토(后土)를 평정한 공이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토신(土神)인 사(社)에 배향하였다. 직(稷)은 농업의 신으로, 열산씨(烈山氏. =신농씨神農氏)의 아들 주(主)가 직(稷)이 되었다. 이후 하나라가 쇠망하자, 주나라의 기(棄)가 그 뒤를 이어 백곡을 번식시켜 그를 직(稷)으로 삼았다.
성황단 (城隍壇)	백성의 안전과 고을의 수호를 위하여 제례를 지내는 공간. 서낭당이라고도 부름.	성(城)은 백성을 보호하며 도적을 막아서고 안팎의 통행을 제어하는 것, 황(隍) 은 해자로, 성과 마찬가지로 내부를 보호하는 것이다.[22] 한나라 장군 기신(紀信)이 형양(滎陽)에서 죽었는데, 이곳에서는 기신을 성황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정약용의 말을 빌리면, 성황은 농사와 관련한 팔사(八蜡)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성황에 제사지내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20. 목민심서, 예전, 제1조 제사, "郡縣之祀. 三壇一廟. 知其所祭. 心乃有嚮. 心有所嚮. 乃齊乃敬."
21. 제사조의 삼단일묘에 대한 기원을 게시한 출처는 "춘추전", "제법" 등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출처를 "목민심서, 예전, 제사조"까지만 표기함.
22. 황(隍)의 기원의 경우, 목민심서 예전 제사조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여단 (厲壇)	돌림병이나 불길한 징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에게 고을에서 제사 지내 주던 공간	귀신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여(厲)가 되지 않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귀신은 혹시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정약용의 해석을 빌리면, 여(厲)란 열(列)의 뜻으로 옛 사람을 구별없이 늘어놓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여(厲)라고 하며, 익사자, 압사자, 형벌로 죽은 사람, 불에 타죽은 사람 등을 모두 여(厲)로 여겨 제사지낸다고 한다.
문묘 (文廟)	향교, 문선왕(文宣王) 공자 및 유교 명현(名賢)에게 제례를 지내는 공간	향교의 석전제(釋奠祭)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이다. 경국대전에는 "모든 제사(문묘)를 수령이 몸소 행하지 않거나 더러운 제기를 사용하거나 찌꺼기를 제물로 쓰거나 향교를 보수하지 않는 자는 죄를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석전제는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행하고 있음을 목민심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방 사직단의 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남원의 사직단을 들 수 있다. 성황단은 청안현 동헌(오늘날 충청북도 괴산)의 인근에 있는 문당리 성황단[23]이 대표적이다. 여단은 대체로 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관아의 주변에 있는 여단으로는 제주 여단 터를 들 수 있다. 문묘는 제례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유림들의 교육기능까지 담당하였으며, 지역세력의 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도시별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관리 및 참여주체가 삼단(三壇)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재도 지역별로 석전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삼단일묘는 고을의 신앙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

<그림 2-41> 남원 사직단

<그림 2-42> 괴산 문당리 성황단

<그림 2-43> 제주 여단 터

<그림 2-44> 청주향교 석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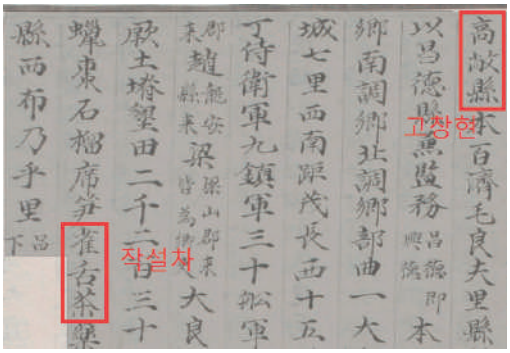
23. 괴산 문당리 서낭당이 문화재명이나, 편의상 성황단으로 지칭함.

교 등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 전통문화로서의 고을신앙을 재현하여, 미신이 아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로서 접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1) 관청(官廳)

관청은 관아의 식당 및 식사관련(회계, 조달 등) 업무 기능을 담당하여, 오늘날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고창읍성 내에 관청이 자리하고 있다. 관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관아지역의 역사적 유래가 깊은 토속 특산물이나 진상품, 주요음식을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삼을 수 있다.

고창의 경우, 《고창군읍지》나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창조에는 고창의 주요 산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차(茶)를 주요 산물로 꼽고 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작설차(雀舌茶)라고 명기하였는데, 작설차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창의 특산품이다. 그 밖에 고창의 주요 특산품으로 석류, 은구어(銀口魚), 꿀 등을 표기하였는데, 고창 인근지역의 해당 특산품이 있다면 연계 활용하거나, 고창에서 직접 산물을 개발하여 고창읍성 관청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진주교방음식을 참조 및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아 관청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림 2-45> 세종실록 고창현의 특산물 중 작설차 기록

<그림 2-46> 고창 특산물 선운사 작설차

<그림 2-47> 고창읍성 관청 현판

<그림 2-48> 진주교방음식

12) 장시(場市)

장시는 오늘날의 시장(市場)으로, 물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 공간이다. 조선시대에는 권농(勸農)의 분위기 때문에 상업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생활에 있어서 경제 활동은 필수였다. 이에 따라 장터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출입문 주변(읍성문, 관아 외삼문 등)[24]에 설치되기에 이르렀으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장터의 숫자는 늘어났다.

특히 읍성문 주변에 조성된 장시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장 이름 중에 '남문시장', '동문시장'과 같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문루 주변 시장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시장이 형성된 만큼 역사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시장이 매우 많다.

시장에는 지역민이 생산물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였다. 고을 내 진귀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시장마다 특색이 있다. 앞서 관청(官廳)에서 언급한 특산물/진상품 활용을 장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 동문시장 역시 관아 주변 전통시장으로 역사가 깊은 곳이다. 이 곳에서는 제주 감귤을 비롯하여 옥돔 등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아와 함께 연계 활용 가능하다. 과거 제주 감귤은 육지 사람들이 구경하기조차 힘든 맛좋은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육지 특산물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감귤은 서울로 봉진되어 당대 엘리트였던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학습 증진을 유도하고자 황감제(黃柑製)를 실시하여 감귤을 나누어 주었다. 황감제에서 귤을 먹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다. 또한 귤을 맛보거나 구경한 선비들은 저마다 귤을 예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유의(李由義)는 감귤을 보고 맛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향기가 발에 스며드니 귤이 있는 것을 알겠고, 바람이 빈 집에 불어오니 가을 기운이 나는 것을 깨닫겠다." 하였다. 또한, 서거정(徐居正)은 제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영(題詠)을 남겼다. "땅이 선도(仙島)에 연하였으니 사람 살기가 좋고, 공(貢) 바치는 것이 조정에 들어가니 산물이 풍부하도다. 이름난 기마(驥馬)는 이미 대완(大宛)의 요뇨(騕褭)[25]보다 낫고, 향기로운

24. 출입문 중 북문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남문을 정문으로 이용했으므로, 남문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지형의 특성상 서문이나 동문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25. 대완마는 중국에서 이름난 마필로, 크고 잘생기면서도 힘이 좋아 천리마로 유명하다. 요뇨를 바로 천리마로 지칭한다.

감자(柑子, 감귤)는 한(漢) 나라 포도보다 더 좋다."라고 하였다.[26] 여기서 '감자'가 바로 감귤이다. 제주마와 함께 극찬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시는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장시가 현재도 관아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연계 활용안을 마련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림 2-49> 제주목 관아 옆에 있는 동문시장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그림 2-50>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속 황감제(KBS2)

13) 역사기념수로서의 노거수(老巨樹)

고을마다 관아의 주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나무로 수백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다. 이 노거수는 그간 관리가 잘 되었는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으며, 나무 또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관아 속의 나무는 풍수적으로 비보역할을 하도록 위치하여 식재하므로 경관고고학에서 말하는 지표식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아의 노거수는 '역사기념수'라 할 수 있다.

서산 해미읍성 안의 회화나무는 충청남도 시도기념물 제17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미 옥사에 수감된 천주교 신도들이 이 나무에서 고문을 당하였다고 한다. 청주 관아터에 있는 압각수(충청북도 시도기념물 제5호), 충주 관아터(현재 관아공원)에 있는 느티나무(보호수 충주 91호) 또한 이곳이 관아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관아 주변 나무가 비록 역사적으로 뚜렷한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간 관아에 의하여 관리가 되어왔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들은 관아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부각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휴게목을 육성하고 가지치기나 태풍에 의한 골절로 폐목 발생시 이를 기념품이나 안내판 제작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조 참조.

<그림 2-51> 해미읍성 회화나무

7. 관아 속의 가치

우리가 관아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건물의 현판이며, 제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수령의 마음가짐(수령칠사)이다. 또한 관아 건물 속에는 건물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문, 고을의 풍광과 역사를 묘사한 제영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관아가 품고 있는 기본적 가치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수령칠사(守令七事)

수령칠사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고을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으로,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관아 수령의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에 현판 이름에 연관시킨 경우가 많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수령칠사의 내용

항목	분야	내용
농상성(農桑盛)	농업	농사와 양잠 등 농업을 성하게 함
호구증(戶口增)	인구	지역 인구를 늘리는데에 힘씀
학교흥(學校興)	교육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에 힘씀
군정수(軍政修)	군사	군정실태를 점검하여 방비에 힘씀
부역균(賦役均)	세무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배분함
사송간(詞訟簡)	재판	소송을 간명하게 함
간활식(奸猾息)	부정척결	간사하고 교활한 일을 그치게 함

조선시대 지방관은 어진 정치를 지키기 위하여 마음 속에 수령칠사의 뜻을 머금고 정무를 행하였다. 강릉대도호부 칠사당의 경우, 지방관이 수령칠사의 뜻을 펼쳐보이겠다는 당당함을 현판에 걸어두어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하려 하였다.

<그림 2-52> 강릉 칠사당 현판

2) 제영(題詠)과 기문(記文) [27]

제영은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자연물, 또는 인공물을 보고 선비들이나 해당 고을에 부임한 사람들이 제목을 붙여 지은 시로, 이것이 지역별로 남아있다. 고을이나 관아의 건물을 보고 노래한 제영문에는 각 고을별· 관아별 특징이 드러난다. 제영은 고을의 특징으로서 현재의 고을 모습과 옛 모습을 비교하여 조화시킨다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중수기, 상량문 등 관아의 기문은 당시의 건물 규모 및 관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총정리한 자료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다.

27. 기문, 제영의 해석문은 모두 한국고전번역원의 내용을 참조 및 인용함. 이하 동일.

제영은 앞서 제주 감귤을 보고 남긴 시문과 같은 것이 있다. 제주에서는 감귤을 노래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저마다 자기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주(慶州)의 경우, 김조(金銚)는 다음과 같은 제영을 남겼다. “고개 숙인 기장과 벼가 축축 늘어진 모두 농가(農家)인데, 유적지마다 절들이 많네. 오래된 나라 천년에 조시(朝市)가 변하였건만, 산 꽃은 여전히 봄을 차지했네.” 라고 하였다. 짧은 시구에 경주지역의 특징(불교문화, 신라문화, 경주의 당시 풍경 등)이 모두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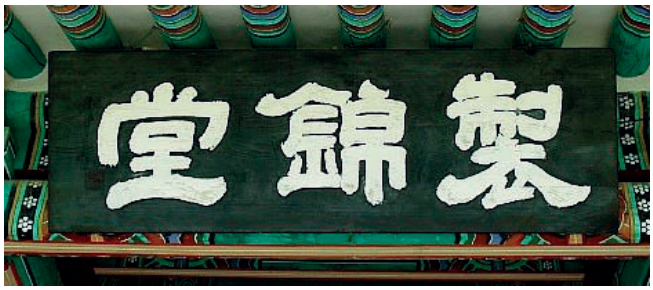
기문을 예를 들자면 김종직(金宗直)의 인동 객사 중수기의 서두에서는 “인동(仁同)은 백실(百室)이나 되는 고을이다. 그 땅이 낙동강(洛東江)의 동쪽 가에 있어서 실로 영남(嶺南) 중로의 요충 지대이었으므로, 조정 사신이 남방에 정치적으로 계속 오갔을 뿐 아니라, 일본(日本)·류큐(琉球:오키나와)·큐슈(九州) 삼도(三島)의 외국이, 구슬을 받들고 거듭 통역하여 오는 자가 많아서,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맞이함이 사서를 통해 끊이지 않았었다. 그 음식 제공이나 숙소의 마련이 궁벽한 고을에 비하여 매우 커서 고을은 비록 작으나, 그 객관은 허술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28] 라며 객사를 중수하게 된 이유가 나온다. 이 밖에도 객사 중수의 진행 과정 등이 나오는데, 이는 관아 건물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3) 현판(懸板)

관아는 건물마다 독자적인 당호를 갖고 있어 이를 현판에 새기고 있다. 그만큼 건물별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고을의 옛 지명이나 고을의 특징, 지방관의 고을 통치에 대한 각오, 이른바 시정지침이라 할 수 있는 통치방향, 건물의 활용 방향 등 그 뜻은 다양하다.
제주 정의현 동헌은 일관헌(日觀軒)인데, 일관(日觀)은 ‘해돋이를 가장 먼저 바라보는 곳’을 뜻한다. 정의현은 제주도 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일관’이라는 명칭은 중국 태산(泰山)의 세 봉우리 중 동쪽 봉우리 이름을 지칭한다. 조선시대 때 제주를 인식할 때에는 크게 서쪽의 대정현, 중앙의 제주목, 동쪽의 정의현으로 보고 있는데,[29] 이는 태산과 제주가 지리적 위상 면에서 비슷하다. 충남 홍산현 동헌은 제금당(製錦堂)인데 이 뜻은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8. 점필재집, 인동객사 중수기, “仁同, 百室之邑也. 其地濱于洛之東涯, 實據嶺南中路之要衝焉. 非惟皇華之使敷政於南服者, 往來相繼也. 如日本流求九州三島之夷, 奉琛重譯而至者, 朝而送, 夕而迎, 四時不絶. 其厨傳供帳, 比之奧郡, 爲甚鉅, 邑雖小, 而其賓館不可自同於鋪遞之制也.”
29. 해동지도 중 제주도는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로 묶어 표현하였다.

<그림 2-53> 정의 동헌 일관헌 현판



<그림 2-54> 홍산 동헌 제금당 현판

관아 건물의 현판에 대하여 홍산현의 자료가 비교적 상세히 남아있는데, 아래에 제시한 홍산현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명칭처럼 건물별로 독자적인 당호를 갖고 있다.

<표 2-8> 홍산현 관아의 건물별 현판명[30]

건물	객사	동헌	내아	책방	장청	사령방	작청	외삼문	향청	형청
당호	비홍관 (飛鴻館)	제금당 (製錦堂)	도정당 (道正堂)	유한당 (遊翰堂)	대산장청 (大山將廳)	승령청 (承鈴廳)	한산연방 (翰山椽房)	집홍루 (集鴻樓)	괴죽헌 (槐竹軒)	비홍추청 (飛鴻秋廳)
뜻	지명관련	지방관의 각오	심신수양	건물기능	건물기능	건물기능	지명관련	지명관련	주변풍광	지명관련

관아의 현판은 유명인사가 직접 지은 경우가 많은데, 보령 해산루의 경우 이산해가, 홍산현 관아의 현판과 같은 경우 흥선대원군이 친히 지었다. 고을과 관련 인물간의 연관성을 찾아 또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활용 콘텐츠가 생산될 것이다.

4) 금석문(金石文)

관아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금석문은 선정비이다. 각 고을마다 세워져 있는 선정비는 고을과 관아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각지에 퍼져있던 선정비는 대부분 근래에 관아 앞에 모아두어 활용 및 안내에 유리하다. 선정비는 고을 수령의 업적을 만천하에 떨치려는 욕구 때문인지 그 위세에 따라 선정비의 재질이나 크기, 내용 등이 각각 다르다.

30. 호서읍지, 홍산현 공해조

<그림 2-55>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른 역대 통진현감(부사)의 선정비군

우선, 제목부터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로, '수령의 선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양과 크기에서도 볼 만한데, 크기가 크거나 귀부와 이수가 있는 것은 예삿일이다. 지역 내에서 공수하기 힘든 무쇠로 만든 선정비가 있는가 하면, 절벽에 비석모양을 새기는 경우도 있었다. 절벽 선정비는 이른바 '마애선정비'라고 한다.

<그림 2-56>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그림 2-57> 문경현감 홍로영 무쇠선정비

<그림 2-58> 상주목사 이익저 마애선정비

아무래도 고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거나 비문과 비석을 만들어 줄 후원처가 있을 때, 선정비가 더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선비가 죽은 후 그의 후손 중에 잘된 사람이 있을 때에 크고 멋진 비석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 생각된다. 물론 비석 내용의 주인 가문이 원래 가세(家勢)가 좋다면 당대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선정비와는 별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유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인산(萬人傘)과 송덕병(頌德屛)이다. 만인산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만든 양산(陽傘=일산日傘)으로, 선정을 베푼 고을 지방관에게 주는 선물이다. 표면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새겼으며, 가장 중심에는 지방관의 이름을 넣었다. 송덕병은 병풍으로, 만인산과 구성 면에서 비슷하다.

관아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금석문으로 읍성의 표지석을 볼 수 있다. 과거 고창읍성의 경우에, 읍성을 짓기 위하여 함평 등 인근 고을주민이 동원되었는데, 고을별 작업구간을 표지석으로 표시해두었다.

또한 관아 건물 기단부 등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고을의 트레이드마크 등에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무장현 송사지관의 경우, 기단부에 꽃 모양이 새겨져 있다.

<그림 2-59> 초산도호부사 이만기의 만인산 자수 ©한국 자수박물관

<그림 2-60> 고창읍성 축성 표지석

<그림 2-61> 무장 송사지관 기단부의 꽃 무늬

관아에서 볼 수 있는 현판이나 관아 건물의 역사를 담은 기문은 고을의 특성을 노래한 제영, 기문을 더불어 금석문 등은 관아 활용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8. 기록과 전설 속의 관아

본고에서 모든 문헌자료를 조사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문헌조사는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관아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추후 심도있는 관아 활용을 위하여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자료를 집중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

<표 2-9> 관아 활용을 위하여 조사해야 될 주요 자료

항목	주요 자료	비고
각 지리지, 읍지 및 지도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호남읍지, 호서읍지, 해동지도, 조선지도 등	고을별 읍지, 8도별 읍지, 종합 지리지, 지도 등. 지리지에 고을별 종합정보가 담겨있음.
관찬사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각 고을의 장계등록 등	
관련 고문서	해유문서, 감영일기, 지방관의 문학작품(총쇄록, 목민심서 등) 등	
구전 전설	임경업전설 등	구전 설화 및 전승문화, 민간신앙 등 조사 필요
무형문화와 관련자료	진주교방 굿거리춤(교방가요), 평택농악 및 양주별산대놀이(각종 민화) 등	현존 전통문화(무형문화재)와 민화 등 그림과의 접목 필요

1) 지리지 및 지도 속의 관아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으로 대표되는 지리지는 모든 고을의 산천형승, 제영, 관아 및 관련 누각의 기문 등이 담겨있어 각 고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관아의 활용에 1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관련자료로는 호서읍지, 각 도별 지리지, 해동지도 등 조선 종합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도는 고을과 관아에 대한 모습을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지도마다 각 고을 중에서 특징이 될 만한 점을 크고 명확하게 그리거나, 특색있게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를 고을과 관아의 강점으로 부각하여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양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지도에서 온천을 크게 그리고 임금의 온천행로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여 눈에 띄게 하였다. 또한 남원은 광한루와 춘향전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를 반영하듯이 광한루와 오작교를 크게 그려내었다.

<그림 2-62> 온양 어로(御路)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충청남도읍지

<그림 2-63> 광한루와 오작교가 유독 크게 그려져있는 1872년 지방지도

또한 지도에서 눈여겨볼 점은 풍수지리학적 관점이다. 조선이 건국되며 명산대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명당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것이 고을 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제 같은 곳은 전형적인 평야지대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아주 명당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에서는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억지로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억지로 풍수지리를 표현한 지도를 보면, 평지보다 약간 높은 동산 정도의 둔덕을 마치 높은 산처럼 표현하여 고을을 감싸고 있다. 김제의 경우, 김제 관아의 뒤를 지켜주는 산은 성산(城山)인데, 해발 48m의 작은 산에 불과하다. 옛 지도와 현재의 지도를 비교하면 그 표현이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풍수지리학적인 관점 때문에 관아 뒤에는 항상 주산(主山)이 있다. 김제의 사례처럼 주산이 높지 않은 수준의 둔덕이더라도 주산은 주산이다.

<그림 2-64> 김제 성산이 높게 표현되어있는 전라북도각군읍지

<그림 2-65> 김제 성산이 높게 표현되어 있는 해동지도

<그림 2-66> 성산과 김제관아가 있는 현재 지도

이 밖에도 풍수지리학점 관점에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전주의 경우에는 풍수지리학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기존 덕진연못을 파서 물길을 더 내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덕진연못은 후백제 견훤이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에서 더욱 길게 만들게 된 것이다. 전주가 조선 임금의 성씨인 전주 이씨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미있고 특이한 요소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2) 관찬사서(官撰史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각 고을의 장계등록 등은 대표적인 관찬사서로서 역사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에서의 역사적 사건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역대 임금이 통치하던 시절마다 임금 및 조정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록이므로, 역사적 영향력과 관계가 깊어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지리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구성과 같이 산천형승 등 각 고을의 지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능하다.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등이 담긴 의례행사 수록 자료도 참고 가능하다. 《세종실록》 내에 있는 오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등의 자료에 의례 행사 내용이 상세하여 이를 재현할 수 있다.

3) 관련 고문서

관아와 관련된 고문서가 현존한다면, 관아와 고을의 실상을 어떤 자료보다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산현감 해유문서>는 관원이 교체될 때에 후임관에게 인수인계하는 서류인데, 당시 홍산현의 인원, 무기 등 실상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당시 홍산현의 군비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통하여 홍산현의 유비무환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호서감영일기》 등 관아 관련 기록이나, 오횡묵(吳宖默)의 《총쇄록(叢瑣錄)》,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같은 지방관 출신 인물의 문집 등 자료가 많아, 심도있는 분석과 발굴이 필요하다.

4) 구전 전설

전설은 문학적, 허구적 맥락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고을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린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 낙안읍성을 하룻밤만에 쌓았다는 낙안군수 임경업 이야기만 하더라도, 임경업이 지용을 겸비한 불세출의 인물이라는 점, 낙안군에 선정을 베풀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성이 가미되고 있다. 임경업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하였나 하면, 이야기가 전승됨을 넘어서 민화로까지 그려져 전파되고 있으며, 당산신으로도 모셔지고 있다.

<그림 2-67> 임경업장군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2-68> 임경업장군 민화 ©국립민속박물관

구전 전설의 경우 삼단일묘 라고 하는 사직단, 성황단, 여단, 문묘나 현존하고 있는 사당 등과 연계안이 마련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5) 무형문화

각 고을별로 전승되어 지금까지 전해오는 무형문화는 고을의 특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교방 굿거리춤, 평택농악, 양주별산대놀이 등이 대표적이다. 관아 안에서 이루어진 교방문화 등 뿐만 아니라, 관아 밖 고을 내에서 이루어졌던 무형문화 또한 지역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의 무형문화는 농업과 농업 생산량 등과 관계가 있어, 조세를 관장하는 관아에서도 주요 관심거리로 여겼다.

Ⅱ. 관아문화재의 현황

1. 관아의 조직위계 및 분포현황

본고에서는 개별 관아 문화재의 분류를 편의상 벼슬의 위계에 따라 유수와 부윤 관할의 부(정2품~종2품), 목과 대도호부 및 도호부(정3품~종3품), 군(종4품), 현(종5~종6)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다만 팔도를 아우르는 감영의 경우에는 벼슬의 위계(종2품)에 고려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겠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조사 결과의 예시가 되는 몇가지의 내용과 함께 종합 표를 제시하며, 개별 관아의 조사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고의 부록으로 붙였다.

현재 관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활용실태 조사 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활용을 위해 수집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2-10> 관아 문화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항목[31]

항목	조사 내용	비고
관아의 명칭	관아의 명칭과 위계 분류	
관아의 위계 분류		
관아의 현 위치	위치와 건물 현존 상태, 현실적으로 관아를 활용하려면 위치적 상태와 현존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지역연계 활용을 하려 하는데 과거 평택은 충청도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임.
관아 건물의 현존 상태 (현황)		건물이 없어 터만 남은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문화 향유자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반감될 것임. 관아의 요소가 되는 건물 중 하나라도 현존해야 활용 대상이 될 것임.
자료	관찬사서, 지리지 등 고을과 연계된 역사성	
기문	건물의 내역 및 역사성 등을 대변함	
현판	고을별 정무지침이나 지방관의 각오 등 지역색깔이 내포되어 있음	
제영	지역특성을 노래한 시	
주요 활용 요소	관아의 특징(문화, 경제, 행정, 군사, 교통)에 따른 요소별 분류	팔도감영은 모든 요소를 포함 활용하며, 개별 관아는 지역별 강점이 되는 요소 한가지만을 설정함.

31. 주요 활용 요소의 각 관아별 자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위와 같은 항목으로 조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의상 분류는 도·부·목·군·현의 위계적 분류로 하며, 도는 8도 감영, 부의 경우 유수부, 부윤 관할 부, 목은 대도호부·목·도호부 또는 현의 경우 현령 관할 현·현감 관할 현 등으로 한데 묶어 나열하였다. 또한 활용 자료로써 관찬사서 등 자료와 함께 기문·현판·제영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향후 개별 관아별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술하겠지만, 콘텐츠에 따른 유형별 요소는 관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문화·경제·행정·군사·교통의 다섯 가지 중에서 감영은 지역 통합 활용 차원에서 모든 요소를 발현할 수 있지만, 일반 관아는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한가지만을 개별적으로 꼽을 것이다. 물론 모든 관아에서는 관아의 모든 요소를 함유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 건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강조하고 있는 콘텐츠, 사람들에게 흔히 인식되고 있는 역사성 등 현실적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강점 분야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1) 팔도 감영

▣ 감영의 의미와 조직체계

감영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전국 팔도의 지방행정구역을 관장하는 공간이다. 조선 건국 무렵에는 국가의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지방행정구역을 정리하지 못하여 고려의 체제를 답습하였다가, 팔도체계가 정리된 이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팔도의 행정적 구역이 그대로 계승되어오기는 하였지만, 명칭은 사회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충청도의 경우 충공도(忠公道) 〈 청공도(淸公道) 〈 공청도(公淸道) 〈 홍충도(洪忠道) 〈 충홍도(忠洪道) 〈 공홍도(公洪道) 〈 공충도(公忠道) 등으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충청도로 복구되었다.

각 도를 관장하는 관찰사는 도내 행정적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군사적 지위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관찰사는 평시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겸임하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의 경우에는 절도사를 별도 파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관찰사가 지역 군사권을 총괄할 수 있었다.

팔도 감영과 관찰사는 각각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8도의 특징이나 지명과 관계된 경우가 많다.

<표 2-11> 팔도 감영의 별칭, 관직, 소재지 등

8도(별칭)	감영 별칭	소재지	관찰사의 별칭	별도 배치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경기(畿甸)	기영(畿營)	서울/수원	기백(畿伯)		경기수영(교동/남양)
강원(關東)	원영(原營)	원주	동백(東伯)		
충청(湖西)	금영(錦營)	공주/충주	금백(錦伯)	충청병마절도사 (청주/해미)	충청수영(오천)
경상(嶺南)	영영(嶺營)	대구/상주	영백(嶺伯)	경상좌도(울산) 경상우도(창원)	경상좌수영(동래) 삼도수군통제영/ 경상우수영 (통영/거제)
전라(湖南)	완영(完營)	전주	완백(完伯)	전라병마절도사(강진)	전라좌수영(여수) 전라우수영(해남)
황해(海西)	해영(海營)	해주	해백(海伯)	황해병마절도사(해주)	
평안(關西)	기영(箕營)	평양	기백(箕伯)	평안병마절도사(영변)	
함경(關北)	함영(咸營)	영흥	북백(北伯)	함경남도(북청) 함경북도(경성)	

▣ 감영의 주요 구성

<표 2-12> 감영안의 주요 시설

건물명	건물 성격	비고
선화당	감영의 정청으로 관찰사의 집무실	부목군현의 동헌과 같음
포정문	감영의 공간영역을 나누는 곳이자 출입구	관아의 아문/문루와 같음

선화당(宣化堂) : 선화당은 관찰사의 정청이다. 선화(宣化)란, '덕화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목민관이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포정문(布政門) : 관찰사가 집무하던 포정사(감영)의 문이다. 포정이라는 단어는 관찰사와 함께 따르는 수식어로 여길 수 있다.

기타 감영의 주요시설은 지역 관아와 유사하므로 관아의 공간구조(31~48쪽)를 참조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주요 감영의 현황

<표 2-13> 주요 감영의 현황

명칭	위치	주요요적 및 문화재	주요 콘텐츠
경기감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감영터(표지석), 경기감영도병(보물 제1394호)	경기감영도, 기영빈관, 가석과 폐석 등
강원감영	강원도 원주시	청운당, 포정루와 선화당(강원도유형문화재제3호), 관동관찰사영문, 징청문	정철, 관동별곡 등
충청감영	충청남도 공주시	선화당(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92호), 포정사문루	아름다운 풍광(취원루 등), 백제문화 등
전라감영	전라북도 전주시	풍남문, 풍락헌,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경기전, 전주사고, 전라감영지(전라북도기념물 제107호), 예기무	조선 건국(전주 이씨)의 발원지, 덕진 연못의 조성(풍수), 전주 교방문화 등
경상감영	대구광역시 중구	선화당, 징청각, 관풍루, 측우대	교통의 발달(낙동강 수운), 훌륭한 경치(금학루 등 누정과 낙동강의 조화) 등

2) 부(府)와 유수부(留守府)

▣ 부(府)의 역사

부(府)는 오늘날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를 말하며,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유지되던 지방관청이다. 부(府)에는 유수(留守)를 기관장으로 두는 유수부(留守府)와 판윤(判尹) 또는 부윤(府尹)을 기관장으로 두는 부(府)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성을 중경(中京)으로 하여, 옛 수도였던 평양(西京), 서울(南京), 경주(東京) 등의 삼경(三京)에 지방장관인 유수(留守, 3품 이상)를 책임자로 둔 부(府)를 설치하였다.

조선초에 들어서며 한양천도 이후 개성을 추가하여 부(府)를 설치하였고, 기관장의 벼슬도 종2품으로 높였다.

조선 후기에는 수도 한양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배도(陪都)로서 개성, 강화, 광주, 화성(수원)에도 유수부를 두어 이들 부(府)는 당연히 군사적인 행정이 주임무였다. 특히 화성과 광주는 지역적 중요성이 더해져서 정2품을 책임자로 두어 관리하였다. 고종 대에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국난이 계속되자 국가 대피처로서 춘천에도 유수부를 두었다.

▣ 부(府)의 조직체계

부(府)의 기관장은 정2품 또는 종2품으로, 팔도 관찰사(종2품)의 지위에 비해 같거나 높다. 그만큼 부는 행정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 속에서 도읍의 역할을 했던 도시였던만큼, 정치, 행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중심으로써 유서 깊고 풍부한 역사문화를 갖춘 도시이다.

고려 때부터 설치되었던 부(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도읍인 한성 및 인근 경기지역의 부(府)와 그밖의 지역에 있는 부(府)로 나뉘어 직제가 경관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으로 나뉜다.

경관직은 한성부를 비롯해 수원부,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가 해당된다. 한성부(漢城府)는 정2품의 판윤(判尹), 경기권은 종2품의 유수(留守)가 지방관이다. 외관직은 경상도의 경주부, 전라도의 전주부, 함경도의 영흥부(함흥부), 평안도의 평양부와 의주부이며, 종2품의 부윤(府尹)이 지방관이다. 정조가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화성(수원)과 남한산성을 맡은 광주부에는 정2품의 유수를 두기도 하였다.

<표 2-14> 부와 유수부의 지방체제 등

지방체제	지방관	품계	주요 지역
판윤 관할 부(府)	판윤(判尹)	정2품	한성부(漢城府)
유수부(留守府)	유수(留守)	정2품 또는 종2품	수원(화성), 광주, 개성, 강화, 춘천
부윤 관할 부(府)	부윤(府尹)	종2품	전주, 경주, 함흥(영흥), 의주, 평양

▣ 주요 부와 유수부의 현황

<표 2-15> 주요 부와 유수부의 현황

명칭	분류	위치	현존 주요 유적	주요 콘텐츠	주요활용요소
경주부	부윤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읍성, 동경관 등	신라문화 등	문화
화성유수부	유수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 봉수당, 복내당, 화령전, 득중정, 낙남헌, 집사청, 북군영, 장락당, 유여택, 외정리소, 비장청, 서리청, 남군영, 경룡관, 중앙문, 좌익문, 신풍루, 미로한정, 영화정, 향미정 등	정조, 화성 건설, 장용영 등	군사 (능행차 등 행렬)
광주유수부	유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외행정, 일장각, 좌승당, 재덕당, 내행전, 정전, 영녕전, 한남루, 남행각, 북행각, 이위정, 후원 등	인조, 병자호란 등	군사
강화유수부	유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성, 강화외성, 명위헌, 괘홀당, 외규장각 등	광해군의 왕권강화, 병인양요 등	군사
춘천유수부	유수	강원도 춘천시	위봉문, 조양루 등	고종	군사

3) 목(牧)과 도호부(都護府)

▣ 목(牧)의 역사와 조직체계

목(牧)은 팔도 지방의 중심도시를 말하며, 고려 초기에는 전국에 12목이 설치되었다가, 조선조에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상급의 지방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정3품의 목사(牧使)를 기관장으로 두었다. 목(牧)은 지방행정의 소중심지이기에 목사 아래로 종6품의 교수(敎授)도 파견하였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경기도 광주와 왕릉이 있는 여주 등에는 종5품의 판관(判官)을 추가로 파견시켰다.

조선조에 목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의 광주·여주·파주·양주, 충청도의 충주·청주·공주·홍주, 경상도의 상주·진주·성주, 전라도의 나주·광주·제주, 황해도의 황주·해주, 강원도의 원주, 평안도의 안주·정주·의주 등이다.

▣ 도호부의 역사와 조직체계

도호부는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도호부(都護府)로 나뉘는데, 원래 중국에서 새로 정복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변경에 설치했던 군사적 행정기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군사 요충지에 설치했으나 점차 일반행정기구로 변화했다. 대도호부(大都護府)는 목(牧)과 같은 지위의 정3품 지방관이 파견되며, 도호부(都護府)에는 종3품의 지방관이 파견된다.

대도호부는 고려 현종9년(1018)에 처음으로 안남(安南;전주), 안서(安西;해주), 안북(安北;안주), 안동(安東;경주) 등 4곳에 설치했는데, 이후 경주가 동경유수부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의 안동으로 대도호부를 옮겼다. 조선 건국 후에는 안동과 강릉을 시작으로 함경도 영흥(1426년 설치), 평안도 영변(1428년), 경상도 창원(1670년)까지 확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대도호부는 서원(書員) 30명, 일수(日守) 40명, 외노비(外奴婢) 450명, 향교노비 25명, 관둔전(官屯田) 50결(結), 공수전(公須田) 15결(結) 규모로 각각 배치 책정되었다.[32]

도호부는 조선 태종13년(1413)에 지방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종래의 단부관(單府官) 고을이 변경된 것이다. 단부관이란 유수부·대도호부·목을 제외한 주(州) 자(字)를 가진 고을을 말한다. 이때 군(郡)·현(縣)이 주(州) 자로 끝나는 고을은 모두 산(山)이나 천(川)으로 고쳤다. 또한 2년 뒤에는 군 가운데 1천호 이상 되는 지역은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도호부의 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늘어 세종 때 38읍이 중종 때 45읍, 고종 때는 75읍까지 되었다가, 고종31년(1894)에 모두 군(郡)으로 통합 폐지되었다.

<표 2-16> 목과 도호부의 지방체제 등

지방체제	지방관	품계	주요 지역
대도호부(大都護府)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	강릉, 안동, 영흥(함흥), 영변, 창원
목(牧)	목사(牧使)	정3품	여주, 홍주, 진주, 나주 등
도호부(都護府)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	울산, 인천 등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요 대도호부와 목의 현황

<표 2-17> 주요 대도호부와 목의 현황

명칭	분류	위치	현존 주요 유적	주요 콘텐츠	주요 활용요소
강릉 대도호부	대도호부사	강원도 강릉시	동헌, 별당, 중대청, 전대청, 동대청, 서헌, 칠사당, 강릉대도호부관아문, 중문, 임영관, 의운루, 강릉농악, 강릉단오제 등	관동의 풍광(높새바람: 푄,fohn)현상 등으로 인해 관서지방과 기후조건이 다르며 풍광이 다름을 선비들이 제영에 남김), 무형문화 등	문화
양주목	목사	경기도 양주시	매학당, 금화정, 양주별산대놀이, 임꺽정 생가 등	임꺽정, 양주별산대놀이, 장시와 주막의 활성화 등	문화
충주목	목사	충청북도 충주시	청녕헌, 제금당, 산고수청각, 예성별관, 중원루 등	임진왜란, 신립과 탄금대, 충청감영의 이설 등	군사
청주목	목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녕각, 충청병마절도사영문, 망선루 등	청주목사 이이, 기호학파, 많은 서원 분포등	문화
홍주목	목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읍성, 조양문, 홍화문, 안회당, 홍주아문, 여하정 등	활발한 장시, 홍주목사 홍가신(이몽학의 난 평정) 등	경제(홍성상설시장)
상주목	목사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관, 상주향청, 태평루, 침천정, 상주북천임란전적지 등	임진왜란, 상주 전투, 의병의 첫 등장 등	군사
성주목	목사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관, 아문 등	성주서원, 성주사고, 남방 제일의 고을 등	문화(기록문화)
진주목	목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 공북문, 포루, 영남포정사문루, 촉석루, 진남루, 회룡루, 의암, 의기사, 창렬사, 진주교방굿거리춤 등	김시민, 논개, 촉석루와 주변 경관, 진주교방과 교방음식, 주막/장시/교통(진양지) 등	군사
나주목	목사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읍성, 영금문, 금성관, 금학헌, 정수루, 망화루, 중삼문 등	전라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 전라도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나주목사 김성일과 임진왜란 등	경제(나주목사고을시장 등)
능주목	목사	전라남도 화순군	죽수절제아문, 봉서루, 영벽정 등	조광조, 아름다운 누정과 풍광(봉서루, 영벽정)	교통(누정)
제주목	목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희각, 우련당, 영주협당, 홍화각, 진해루, 별과원, 중대문, 귤림당, 망경루, 관덕정 등	제주 감귤, 목장, 탐라순력도, 제주 풍속, 제주 돌하르방(크고 시원하게 생김) 등	경제(제주동문시장, 제주감귤 등)

▣ 주요 도호부(都護府)의 현황

<표 2-18> 주요 도호부의 현황

명칭	분류	위치	현존 주요 유적	주요 콘텐츠	주요 활용요소
인천 도호부	도호부사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산성, 소성관, 동헌, 공수청, 아문, 중문, 내삼문, 사주문, 인천도호부사 충의비 등	인천 개항, 인천 객관 기문(강희맹 승호기) 왕비들의 고향, 김민선과 안관당(임진왜란) 등	교통(객사)
부평 도호부	도호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호부청사(내아 추정), 욕은지	정조의 사도세자 참배길, 굴포천과 조운 등	문화
교동 도호부	도호부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읍성 등	중국 사행길, 수군 기지(경기수영) 등	군사
통진 도호부	도호부사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성, 통진 이청, 김포통진 두레놀이 등	병인양요, 통진 농경문화 등	행정(향리, 두레)
청풍 도호부	도호부사	충청북도 제천시	망월산성, 금병헌, 금남루, 팔영루, 한벽루, 응청각, 민속가옥, 청풍문화재단지 등	차고 푸름 속 맑은 경관(한벽루와 청풍명월), 현종 명성왕후의 고향 등	교통(청풍객사 한벽헌과 한벽루)
선산 도호부	도호부사	경상북도 구미시	낙남루, 선산객사, 의구총, 의우총 등	의구, 의우, 선산객사 건축양식(동물장식), 장시와 교통의 발달 등	교통(객사)
청송도호부	도호부사	경상북도 청송군	운봉관, 연못, 찬경루 등	명문가 청송 심씨(세종 소현왕후, 명종 인순왕후), 활발한 장시 등	교통(누정)
밀양 도호부	도호부사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읍성, 근민헌, 매죽당, 납청당, 응향문, 영남루, 천진궁 등	활발한 상업(밀양 삼량진), 뛰어난 경관(영남루), 아랑전설 등	문화
울산 도호부	도호부사	울산광역시 중구	보동헌, 울산내아, 학성도호부아문, 오송정 등	임진왜란, 활발한 상업 등	군사
동래 도호부	도호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읍성, 충신당, 연심당, 독경당, 찬주헌, 독진대아문, 망미루 등	임진왜란, 송상현, 정발, 수군진영(부산진 등), 왜관 등	군사
여산 도호부	도호부사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동헌, 아문 등	단종 복위와 숙종(단종 정순왕후)	행정(여산면사무소 연계)
남원 도호부	도호부사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읍성, 만인의총, 광한루원, 남원사직단, 남원관왕묘 등	러브스토리(춘향전), 광한루, 마을민속문화 등	문화
장흥 도호부	도호부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성, 백산재(과거 동헌건물), 삐비정, 장흥석대들전적지 등	동학농민운동, 수려한 산천(제영) 등	군사

4) 군(郡)과 현(縣)

▣ 군(郡)의 역사와 조직체계

군(郡)의 읍격(邑格)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조선시대의 경우 팔도(八道) 밑에서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와 현(縣)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군현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데, 그 시초는 중국의 진시황제가 그 전대 주나라의 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을 국왕에 예속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신라시대에는 9주(州) 117군(郡)으로 운영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 다음에 군(郡)·현(縣)이 설치되었다. 조선말 1894년 갑오경장 때 도(道) 밑에 부(府)와 군(郡)으로 통칭되었고, 1906년에는 부·목·군·현이 모두 군(郡)으로 통폐합되었다. 이때 조선조말까지 유지되던 부·목·군·현 지방조직의 면적은 현재의 군보다 1/3 정도로 작았는데, 이를 호구수 1만가구에, 면적은 현재 군 규모로 늘림으로써 전국의 317개 군을 220개 군으로 대폭 조정하였다. 조선의 군(郡)은 종4품의 지방관인 군수(郡守)가 다스렸다.

조선시대에 군 관아는 현 관아에 비해 수가 적었는데, 인구면이나 경제면으로 현보다 큰 규모의 도시는 대부분 부, 목, 도호부 등이 설치된 나머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현보다 관아 건물의 위상이나 경제력 등이 앞섰다.

▣ 주요 군의 현황

<표 2-20> 주요 군의 현황

명칭	분류	위치	현존 주요 유적	주요 콘텐츠	주요 활용 요소
안산군	군수	경기도 안산시	안산읍성지, 취암지관 등	봉수대, 왜구 방어, 비옥한 땅과 바다 등	군사
안성군	군수	경기도 안성시	백성관, 객사문 등	안성장, 안성맞춤, 안성유기 등	교통 *콘텐츠는 경제와 어울리나, 객사 주변에 시장이 없어 연계활용이 현실상 어려움.
온양군	군수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아문, 동헌 등	온양온천, 왕의 온천행로 등	군사(행렬)
서산군	군수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관, 서산객사, 서령군문 등	아름다운 풍광 (기문, 제영) 등	행정(서산시청 연계)

청도군	군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성, 공북루, 주홀헌, 도주관, 형옥, 청덕정, 청도 석빙고 등	사방에 길이 통하는 청도, 장시 형성 등	교통(객사)
흥해군	군수	경상북도 포항시	제남헌, 아문 등	장시의 발달, 바닷가 사람들의 모습(제영) 등	경제(흥해시장)
함양군	군수	경상남도 함양군	학사루 등	무오사화, 김종직, 지역 장시 등	문화(목민관)
김제군	군수	전라북도 김제시	근민헌, 김제내아, 피금각 등	김제 농경문화 등	행정(김제시청 연계)
순창군	군수	전라북도 순창군	옥천지관, 귀래정 등	신말주, 순창의 아름다운 풍광(기문, 제영)	행정(순창군청 연계) *객사가 순창초등학교 내에 있어 교육기능 외 활용이 현실상 어려움.
낙안군	군수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읍성, 낙풍루, 쌍청루, 사무당, 낙안지관, 낙안내아, 옥사, 낙민루, 민속마을, 임경업 군수비각 등	임경업, 민간전설과 민속문화, 교통의 요지 등	문화(민속문화)

▣ 현(縣)의 역사와 조직체계

현(縣)은 지방행정구역 중 가장 낮은 단위이며, 군(郡)과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병렬관계였다. 조선시대의 현은 호구(戶口)와 전결(田結)의 기준에 따라 현의 넓이가 나뉘어 34곳의 큰현에는 종5품의 현령이 파견되었고, 141곳의 작은현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었다. 현령이나 현감을 '수령(守令)'이라고 부른다. 군현의 등급은 이처럼 인구와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편성기준이 되나 강상죄(綱常罪)나 반역죄에 따라 군현이 목·도호부로 승격하기도 하고, 목·도호부가 군현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삼국시기부터 현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며, 고려시대에는 현령이 파견되는 현(30곳)에 비해 파견되지 않는 속현(305곳)이 훨씬 많았는데, 현령이 파견된 현이 속현까지 다스렸다. 고려의 속현제도는 조선때 없어지는데 335개의 현이 175개의 현으로 개편되었다.

<표 2-19> 군과 현의 지방체제 등

지방체제	지방관	품계	주요 지역
군(郡)	군수(郡守)	종4품	낙안, 서산 등
현령 관할 현	현령(縣令)	종5품	양천, 문의, 용인, 영덕 등
현감 관할 현	현감(縣監)	종6품	과천, 직산 등

▣ 특징적인 군현(郡縣)의 지도 : 1872년 지방지도

조선시대 군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1872년에 제작된 지방지도이다. 이 지도가 제작될 당시에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도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같은 풍파를 맞게 된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국방 점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전국 각지에 지도를 그리도록 하였다. 지도 안에는 고을의 특징이 담긴 모든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상황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감영이나 각 군현의 화원들이 실경으로 그린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형태가 다양하며 통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 지도에는 산천, 고개, 왕릉, 사찰, 역참, 장시 등의 지명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총 458매의 지방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현의 현황

<표 2-21> 주요 현의 현황

명칭	위치	현존 주요 유적	주요 콘텐츠	주요 활용요소
과천현	경기도 과천시	온온사 등	온온사에서의 휴식, 정조 현륭원 행차, 남태령 등	교통(객사)
평택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 평택농악 등	평택 농경문화 등	문화
청안현	충청북도 괴산군	안민헌, 내삼문, 괴산 문당리 서낭당 등	청안현감 전유형, 민속문화(성황단) 등	문화
연풍현	충청북도 괴산군	풍락헌, 연풍향청 등	연풍현감 김홍도 등	문화
괴산현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동헌, 아문 등	괴산의 산천의 조화(기문, 제영)	행정(괴산군청 연계)
보은현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동헌 등	산천의 조화 (무릉으로 비유, 제영)	경제(보은 중앙시장)
회인현	충청북도 보은군	인산객사, 회인내아, 아문, 풍림정사 등	회인 망궐례,	문화
문의현	충청북도 청주시	문산관, 민속마을, 문의문화재단지 등	문의현감 허주의 선정, 풍수지리의 명당 등	교통(객사)
아산현	충청남도 아산시	여민루, 아산현감관사 등	공세리 공세창, 지역교류, 천주교 전파 등	경제(영인면 지역상권)
대흥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 동헌, 대흥 아문, 이성만형제 효제비 등	의좋은 형제, 풍수지리 등	행정(대흥 호장 이성만)
홍산현	충청남도 부여군	제금당, 비홍관, 비홍추청, 집홍루, 만덕교비 등	이몽학의 난, 장시의 형성 등	군사

명칭	위치	현존 주요 유적	주요 콘텐츠	주요 활용요소
부여현	충청남도 부여군	초연당, 부풍관, 부여내아, 도강영당 등	부여 백제문화 등	문화
석성현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동헌, 내삼문 등	신령한 산천(태조산, 파진산), 백제문화 등	문화
연산현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아문, 연산 백중놀이 등	연산 농경문화, 장시의 발달 등	경제(연산시장)
직산현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동헌, 직산내아, 호서계수아문 등	직산현감 이신의 등	문화
태안현	충청남도 태안군	목애당, 내삼문, 경이정 등	동학농민운동, 조운 등	행정(태안군청 연계)
결성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읍성, 망일헌, 형방청, 책실, 결성아문, 결성농요 등	결성 농경문화, 광천 특산물, 장시 등	문화
해미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성, 진남문, 지성관, 해미동헌, 해미내아, 고자실, 책실, 옥사, 읍해루, 청허정, 민속가옥, 회화나무 등	내상성內廂城(충청병마절도사영), 천주교 순교, 이양선, 이순신 등	군사
남포현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읍성, 남포동헌, 진서루, 옥산아문 등	남포 해창, 특산물과 장시(대천장) 등	행정(남포면사무소 연계)
보령현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읍성, 해산루, 도미부인사당, 오천수영성(충청수영) 등	군사 관련 지명, 장시 형성, 이산해 등	군사
진잠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성관 등	계룡산과 대둔산(지역명산), 고대부터 영역이 전혀 변하지 않은 곳, 전라도로 향하는 관문	교통(객사)
봉화현	경상북도 봉화군	향방, 봉서루 등	풍수지리, 봉화백 정도전 등	문화
장기현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읍성, 근민당 등	장기 해산물(특산물) 등	경제(장기시장)
예안현	경상북도 안동시	선성현 객사, 안동석빙고 등	예안향약, 이황, 청백리 김전 등	행정(향약 등)
문경현	경상북도 문경시	관산지관, 문경새재 등	문경새재, 황장봉산 등	군사
창녕현	경상남도 창녕군	하산관 등	창녕 지역특성(람사 습지가 나타난 지도), 곽재우	군사(의병)
삼가현	경상남도 합천군	기양루 등	남명 조식 등	경제(삼가시장)
진해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동헌, 마방, 사령청, 아문 등	척화비, 수군 진영 등	군사
거제현	경상남도 거제시	기성관, 질청 등	이순신, 수군 진영 등	군사
언양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성, 영화루 등	반구대, 언양시장 등	경제(언양시장)
기장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관청 등	기장 4대 봉산 – 전선(戰船)을 만들기 위한 재목(장안봉산, 거물봉산, 남산봉산, 앵림봉산) 등	군사
고창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성, 공북루, 등양루, 진서루, 평근당, 모양지관, 고창내아, 옥사, 향청, 장청, 관청, 서청, 성황사, 풍화루, 고창읍성 한옥마을, 맹종죽림 등	축성 공동제작, 상업의 발달(북문시장) 등	군사
무장현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읍성, 진무루, 취백당, 송사지관, 읍취루 등	동학농민운동, 무장읍성 축조, 세곡창, 신령산 등	군사

흥덕현	전라북도 고창군	흥성동헌, 아문 등	사진포(장삿배가 모여 상업 번창) 등	행정(흥덕면사무소 연계)
태인현	전라북도 정읍시	청녕헌, 아문, 피향정, 함벽루, 태인 신잠선생영상, 태인 고현동 향약 등	신잠, 태인동헌 건축전설, 고현동 향약 등	행정(향약 등)
흥양현	전라남도 고흥군	흥양읍성, 존심당, 남휘루 등	수군 진영, 해창 등	행정(고흥군청 연계)
정의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 남문, 동문, 서문, 일관헌, 영양관, 민속가옥 등	민속문화(안할망당*/ 광주 부인*/쉐당*), 정의 돌하르방(무뚝뚝하고 촌스러운 인상) 등	문화
대정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성지, 대정 돌하르방, 김정희 유배지 등	대정 돌하르방(작고 온순한 인상), 유배지, 김정희, 천주교(정난주 마리아) 등	문화

※ 안할망: 마을 사람들의 풍요와 안녕을 관장

※ 광주부인: 정의현감 부인의 치병을 하였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으며, 부인병을 관장

※ 쉐당 : 가축의 양육 등 생업과 관련한 당으로, 쉐하르방을 모신다고 함

2. 관아문화재의 활용 현황

현재 관아 활용이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아의 가치를 발현하는 수준의 내용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례조사는 활용실태 점검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며, 해외의 활용 사례를 점검할 것이다. 대표적인 장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몇가지 대표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몇몇의 관아를 선정하여 관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용 가능한 타 활용 사례를 함께 조사할 것이다. 현재 관아를 테마로 한 활용 프로그램 중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꼽을 수 있다.

<표 2-22> 주요 관아의 활용 현황

프로그램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내용	비고
강릉 관아 작은도서관	강릉대도호부 관아 내 도서관	연중	관아 건물 중 일부를 도서관으로 개방하여 사람들이 찾게하고, 관아를 친숙하게 느끼게 함	책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숙박체험	나주 목사내아 금학헌	연중	목사의 기를 받아가는 명당에서 숙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역관광유발효과 증대	객사를 숙박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강원감영문화제	강원감영 일대	매년	강원도내 주민 모두 참여. 강원도 관찰사, 지역 특산물, 감영 관련 행사 등 실시.	8도 감영에 확대 실시 필요
무예도보통지 재현	화성유수부(화성행궁)일대	연중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반 재현	전문 무형문화 보존/공연단 향후 벤치마킹하여 무형문화보존단 확대 추진 필요

1) 강릉대도호부의 활용 : 작은 도서관과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

▣ 강릉대도호부 관아 작은 도서관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복원시 단순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옛 공간을 활용하여 관아 속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민에게 가까운 문화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해당 사례의 점검은 관아 복원 후 실제 활용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림 2-69> 강릉 관아 작은 도서관 내부[33]

<그림 2-70> 강릉 관아 작은 도서관 외부

현재 밀양, 결성, 해미 등의 관아에는 책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관아 책실의 취지를 살려 내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 개방한다면 좋을 것이다.

현재 강릉관아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은 1명이며, 1년 예산으로 인건비 16,780천원(2015년 기준)이 책정되어 있다. 운영비는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는 강릉시립도서관 14개소로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표 2-23>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예산

항목	가격	인원	분량	예산
기본급	45,000원	1명	230일	10,350,000
주휴수당	45,000원	1명	46일	2,070,000
연차수당	45,000원	1명	11일	495,000
시간외수당	67,040원	1명	5일×10일	3,352,000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16,267원	1명	3.15%	513,000
합 계				16,780

33. 연합뉴스, 2011년 10월 11일, "강릉관아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 강릉대도호부의 입지조건과 활용 프로그램과의 상관성

각 관아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분야에 프로그램 개발을 집중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관아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여느 관아와 마찬가지로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위계상 대도호부의 위치이면서도 관아 건물이 복원되어 주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공간이 매우 넓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현재 '강릉 관아 작은 도서관'이라는 문화공간이 활성화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향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릉의 장점이라 함은 무형 문화유산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농악(제11-4호), 강릉단오제(제13호)[34]가 있으며, 강원도 시도무형문화재인 강릉 학산 오독떼기(제5호), 강릉 사천하평 답교놀이(제10호), 강릉 갈골과줄(제23호)이 있다.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는 이러한 장소성, 지역성 등 특징을 부각하여 무형문화요소를 마음껏 발산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나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71> 강릉 관아의 넓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관노가면극

<그림 2-72>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강릉단오제

2) 나주목의 활용 : 내아 '금학헌'의 숙박체험

나주목사내아 금학헌은 "목사의 기(氣)를 받아가는 명당"으로 소개하여 목사의 살림공간에서

34. 강릉단오제에는 관노가면극이 포함되어 있다. 관노가면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무언극이자 관아와 관련된 무형유산이다.

직접 숙박하는 이색적인 체험이다. 접근성이 좋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깨끗하면서도 특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금학헌에서 관광객이 숙박 체험으로 머뭄으로써 나주지역 관광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숙박체험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주목사 김성일방, 유석증 방은 이른바 스위트룸으로 요금이 비싸며 단체실 1실과 일반실 3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73>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인(仁)실 내부

내아 숙박 체험은 관광효과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숙박체험만으로는 관아의 기능이나 가치적 측면을 얻어가기 힘든 점이 있다. 금학헌 숙박체험을 넘어서서 나주목사의 살림채인 내아와, 목사의 인간적인 삶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숙박체험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인 객사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표2-24>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운영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시설명	나주목사내아(금학헌)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위치	나주시 금성관길 13-8(금계동 33-1)	
개관	2009. 5. 1. 부터	개장식 : 2009. 5. 13.
시설규모	부지면적 1,175㎡ / 건축면적 280㎡	
숙박규모	방 6개	1일 23명 동시숙박 가능
용도	전통한옥 숙박체험	
운영	시 직영 / 방 크기에 따라 5만~15만원 숙박체험료 징수	유석증방 150천원 / 김성일방 120천원 / 인의예지실 50천원
종사자	3명	무기계약직 1,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2
성과	⦿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운영 및 소득창출형 문화재로 전환 ⦿ 문화재를 활용한 대표적 모범사례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 ⦿ 국민여가 공간제공 및 전통체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시 이미지 제고	

<표 2-25>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운영예산 및 지출현황(201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목사내아 항목별 운영예산 및 지출현황(2014)					비고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긴급보수비	
예산액	152,320	89,192	36,310	18,818	8,000	
지출액	152,320	79,050	36,310	18,818	8,000	

<표 2-26>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운영실적

연도별	숙박인원(명)	총 수입액(원)	비고
합 계	13,001	289,723,250	
2009년 5월~12월	384	8,728,000	
2010년	2,379	56,476,000	
2011년	2,550	51,990,000	
2012년	2,450	57,492,000	
2013년	2,637	59,066,250	
2014년 10월	2,601	55,971,000	

3) 원주 강원감영의 활용 : 강원감영문화제 축제행사

현재 원주 강원감영에서는 '강원감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화제는 강원도내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이다. 강원감영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순력행차에는 역대 강원도 관찰사를 기리며, 관찰사의 후손 가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도내 시군 등이 참여하여 특산품과 각종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생구휼잔치(비빔밥 식사), 도민 노래자랑, 양로연(養老宴), 동악제, 관찰사 임용연회, 수문병교대식, 교인식, 왕비 간택의식, 고유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감영에서 지역통합적 운영을 하고 있듯이,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도 관아를 테마로 한 지역통합적 운영이 실시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강원감영문화제는 2013년도부터 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였고, 현재는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새로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축제가 큰 규모로 활성화되었던 2012년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다.

<표2-27> 강원감영문화제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장소	원주 강원감영 일대	사적 제439호
위치	원주시 원일로 85(일산동)	
시작년도	1981년	
예산(2012)	301,000천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비용
운영	1981년 원주치악제위원회 주최, 원주치악제 축제 / 2005년 강원감영제로 명칭 변경. 10월 중 행사	현재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중 / 원주시 축제 지원 예산 축소
운영주체	사단법인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	

<표 2-28> 원주시청 강원감영문화제 예산 지원(2012년 기준)

항목	세목	내용	예산(단위: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원감영문화제 공모사업	30,0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감영감영문화제위원회 지원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36,600
	민간행사보조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비	184,400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	50,000
합계			301,000

<표 2-29> 제31회 강원감영문화제(2012) 행사 일정 개요

항목	내용
회차	제31회 강원감영문화제
부제	어명이오! 감영문화오백년 걸판지게 놀아보세!
주요행사	제례행사, 재연행사, 공연행사, 민속경기, 기타
일정	2012년 9월 19일(수) ~ 9월 23일(일)
일정별 주요 행사	9. 19(수) : 관찰사직 제수 9. 20(목) : 사은(謝恩) 9. 21(금) : 사조(辭朝) 9. 22(토) : 교인식 9. 23(일) : 폐막식

<표 2-30> 제31회 강원감영문화제(2012) 세부 행사 일정

항목	행사명	일시 및 기간	장소
제례행사	치악산 산신제	9. 19(수) 11:00~12:00	강원감영
	산신대제	9. 19(수) 12:00~13:00	치악산
	동악제	9. 19(수) 14:00~15:00	국형사 동악단
	향음주례	9. 20(목) 11:00~13:00 9. 21(금) 14:00~16:00	강원감영 선화당
	관찰사 고유제/천제	9. 22(토) 16:00~17:00	강원감영
재연행사	수문병 교대식	9. 19(수) 16:00~17:00 9. 20~21 14:00~15:00	강원감영
	관찰사직 임용 연회	9. 19(수) 18:00~19:00	강원감영
	왕비간택의식	9. 20(목) 17:00~19:00	강원감영
	사은식	9. 20(목) 19:00~20:00	강원감영
	사조	9. 21(금) 18:00~19:00	강원감영
	양로연	9. 21(금) 11:00~13:00	강원감영
	교인식	9. 22(토) 14:00~15:00	따뚜공연장
	관찰사 순력행사	9. 22(토) 15:00~17:00	따뚜 ~ 감영
	문과시 재연(초/중/고 부)	9. 23(일) 10:00~11:00	강원감영
	문과시 재연(일반/대학 부)	9. 23(일) 13:00~15:00	강원감영
	민생구휼잔치	9. 23(일) 12:00~13:00	강원감영
공연행사	조선시대 의복 선뵈기	9. 19(수) 19:00~21:00	강원감영
	마당극 황진이	9. 20(목) 15:00~16:00	강원감영
	전통공연한마당	9. 21(금) 13:00~14:00	강원감영
	변사극	9. 21(금) 16:00~17:00	강원감영
	감영무예교열시 (24반전통무예)	9. 22(토) 13:00~14:00	강원감영
민속경기	들돌들고 오래 버티기	9.19~9.20 13:00~14:00	강원감영(선수인원 150명)
	가마니메고 달리기	9.19~9.20 13:00~14:00	강원감영(선수인원 150명)
기타	국궁대회	9.19~9.20 08:00~19:00	학봉정 (선수인원 500명)
	게이트볼대회	9.19 08:00~17:20	원주천 둔치
	팔도굿거리한마당	9.19~9.23 10:00~18:00	따뚜공연장
	관찰사후손 등록 및 만찬	9. 22(토) 10:00~13:00	따뚜공연장
	군과 함께하는 음악 한마당	9. 22(토) 19:00~21:00	강원감영
	감영문화한마당	9. 23(일) 15:00~18:00	따뚜공연장
	감영가요제	9. 23(일) 16:00~18:00	강원감영
	폐막식	9. 23(일) 18:00~19:00	강원감영
	둔전평 풍물놀이	9. 23(일) 19:00~20:00	강원감영

<표 2-31> 제31회 강원감영문화제(2012) 주요 행사 내용

항목	내용
동악제	동악제는 강원감영문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나라의 국태민안과 강원도의 안녕을 축원하는 제례. 옛 조선시대의 제례행사의 의미를 담아 강원도의 수부도시임을 알림.
수문병교대식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원감영에서 수문병들의 근무 교대 의식 재연하여 원주의 역사적 위상 재조명
조선시대 의복 선보기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위, 형태, 기술 등의 양식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복을 통해 전통의복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선보임
향음주례	조선시대 선비와 유생들이 예로써 주연을 함께 즐기던 의례로 주인과 손님 사이의 예절바른 주연을 통하여,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풍속을 일으키던 예법을 재연
양로연	조선시대 나라에서 노인들을 공경하여 받들고 잘 보살핀다는 뜻으로, 양로연에 참석하신 어르신께 지팡이와 노란손수건을 선물하고, 술과 음식을 올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을 재연
관찰사 순력행차	관찰사 순력행차는 조선시대 관찰사가 각 고을의 풍속과 백성들의 사정 및 고을 수령들의 현부를 살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각 고을을 순찰하던 행차를 재연. 전국에서 모인 관찰사 후손 및 원주시민이 참여하고 강원도 도기, 18개 시군 상징 깃발을 세워 강원도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전체 1,500여명 규모의 행차와 다양한 퍼포먼스로 진행
사은	관찰사 임용에 따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사은식의 재현. 축제 첫날 시행.
사조	부임 준비를 끝내고 입궐하여 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의식. 축제 둘째날 시행.
교인	전임 관찰사로부터 업무를 인수 받는 과정을 재현. 축제 셋째날 시행
민생구휼잔치	축제 마지막날 시행되는 잔치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강원도내 화합의 장 형성.

<그림 2-74> 강원감영문화제 속초시 특산물 부스

<그림 2-75> 강원감영문화제 관찰사 순력행차[35]

35. 연합뉴스, 2011-02-08, “강원감영문화제, '500년 역사 재미있는 부활' 선언”

<그림 2-77> 2012 강원감영문화제 동악제

<그림 2-76> 2012 강원감영문화제 관찰사임용연회

<그림 2-78> 2012 강원감영문화제 교인식

<그림 2-79> 2012 강원감영문화제 양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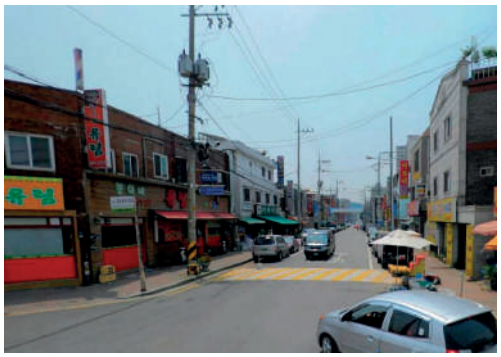
4) 화성유수부의 활용 : 생태교통 수원 프로젝트와 도시재생, 관아 공연(전통행렬/무예시범)

▣ 생태교통 수원 2013

'생태교통 수원 2013'이란, 화성유수부의 관아와 읍성이었던 행궁과 화성(華城) 성곽으로 낙후된 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총 64가지의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여 주변 마을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을활성화 이전 수원화성 내 시가지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각종 규제가 있었고, 이에 행궁 주변 행궁동마을은 수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되었다. 수원시는 화성 내·외부의 지역확성화를 위하여 생태교통프로젝트를 통하여 보행중심의 녹색도시 구현, 시장(느림보타운) 및 마을 등 경관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 노후 건축물의 정비, 광고물(간판 등) 정비, 옛길 복원·골목길 복원과 같은 테마관광로 정비, 쌈지공원 조성, 마을 가꾸기·예술작품 설치와 같은 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추천성과로 문화재와 경관적으로도 어울려, 화성행궁과 행궁동 마을은 전통과 현대의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고 관광영역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궁과 마을을 함께 둘러보게 되었다. 마을과 시장은 활성화되어 주민의 만족 또한 높았다.



<그림 2-80> 경관 정비 이전의 수원 거북시장

<그림 2-81> 경관 정비 이후의 수원 거북시장

▣ 정조대왕의 수원 화성 행차 재현[36]

수원시청에서는 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적, 역사적 축제를 재현하고자 2016년도에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 사업방안을 수립하였다. 정조의 능행차와 관련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등 자료가 풍부한데, 이를 통해 행사인원 1,000여 명과 마필 500여 필을 동원하여 행차 행렬, 행차 의례 등을 재현하는

36. 수원시청 도시디자인팀 자료제공

것이다. 장소는 임금이 있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안양, 의왕 등을 지나 화성행궁에 이르게 된다. 여러 도시가 연계되는 만큼, 공동 개최를 위한 추진사업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표 2-32>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행사 개요

행사명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
목적	수원 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역사적 축제 재현 애민과 화합, 혁신의 정신을 공유
시기	2016년 9월 말 ~ 10월 중
장소	서울, 안양, 의왕, 수원
규모	행차 인원 1,000명, 참여마 500여 필
프로그램	화성 행차 행렬 재현, 행차 의례 퍼포먼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행사 재현
주최	공동 개최(추진사업단 운영)

행사 개최는 연관 지자체가 공동 추진 혹은 수원과 서울만 공동 추진, 지역별 부분 재현의 연계, 지역별 축제 연계 재현의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 도시가 합심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 행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관아의 경우 여러 지역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지역간 수행 합의에 대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33>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행사 개최방안

구분	행차 중심의 을묘년 원행 재현	지역별 부분 재현의 연계	지역별 축제 연계 재현
형식 및 특징	*서울부터 수원까지 전 구간 행차를 재현 *연관 지자체 공동 추진 방식 : 행차가 지나가는 전 지역의 거점에서의 의례나 이벤트 거행 *수원-서울 공동추진 방식 : 시작점과 도착점인 서울과 수원에서의 의례나 이벤트만 거행	*각 지역별 재현팀을 구성하여 구간별로 연결하되 각 지점에서의 의례 및 관련 행사를 병행	*지역별 축제기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인 지역별 축제 개최 및 구간별 행차 재현
기간	3일 이상	5일	3~4주
추정 예산	14,190백만원	15,190백만원	각 지자체 축제 예산 활용
고려 사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동선 선택 : 수원-서울 공동추진의 경우 도로 사용허가 및 교통 통제 협조 정도에 따라 가능한 행렬 이동구간이 결정될 수 있음 *인력 자원 및 행차 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활용 *수원에서의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지자체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원 행사는 수원시 단독 추진 행사가 될 수 있음	*해당 지자체들의 협력과 합의가 관건임 *상대적으로 행사 비중이 적은 안양, 의왕, 화성시의 재현사업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현실적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미 부여가 매우 중요 *각 지역을 관통하는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발굴 필요	*5개 도시의 주요 축제기간 조정이 관건 *5개 도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기와 일정, 행차 프로그램 내용 및 공동 프로그램 협의 및 공동 마케팅 방안 협의 필요

<그림 2-82> 정조 반차도 재현

<그림 2-83> 화성행행도 - 노량주교도섭도 ©리움

▣ 무예도보통지 재현 "무예24기 시범단" 운영[37]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는 무예도보통지를 재현하는 전문 공연단으로 '무예 24기 시범단'이 상설 공연을 운영중이다.
연간 600회 내외의 활발한 공연을 하고 있으며, 관람 인원은 연간 15만명에서 20만명 내외로 인기가 높다. 특별 공연으로 '찾아가는 무예24기', 브랜드공연 '달빛무사 백동수'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14년 기준으로 700백만 원에 달한다.

무예 시범단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각 회별 30분 정도 진행하며, 공연내용은 창작보다 역사성에 기반한다. 특히, 단원 중 박사학위 전공자(무예도보통지)가 있으며, 단원들도 무예도보통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공연시간 외에는 수련 및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단의 여건은 창설 이후 단원들의 정규직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는 일급으로 받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 보존재현단이 추진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전문 직업화를 위하여 유관 지자체와 단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시범단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지자체와 시립공연단으로 발전시켜 안정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7. 수원문화재단 제공 자료

<표 2-34> 무예24반 단원 현황

구분	계	수석	일반A급	일반B급	일반C급
2012-13	21명	3명	8명	10명	-
2014	21명	3명	7명	8명	3명

<표 2-35> 시범단 활동 성과(상설공연)

구분	공연횟수	관람인원
2012	597회	174,900명
2013	621회	195,800명
2014	614회	159,110명

<표 2-36> 시범단 제공혜택

구분	제 공 혜 택
2012	유급휴가 6일
2013	유급휴가 6일, 상해보험가입
2014	출연료 인상(4% ~ 11.4%), 유급휴가 8일, 상해보험가입

<표 2-37> 시범단 사업예산

구분	사 업 예 산
2013	약 600,000,000원
2014	약 700,000,000원

<그림 2-84> 무예24반 대련시범©수원문화재단

<그림 2-85> 무예24반 마무리시범©수원문화재단

<표 2-38> 무예24기 공연 계획(2014년)

월	상설공연 특별행사 계획	특별행사	비고
1월	- 혹한기 공연 진행 - 마상무예 특별공연(5월) 연출 및 계획		
2월	- 혹한기 공연 진행 - 상반기(3-6월), 개막공연(4월) 연출 및 계획		
3월	- 상반기 공연 진행 - 개막공연 연습(4월)		
4월	- 상반기 공연 진행 - 마상무예특별공연(5월) 연습	화성행궁상설한마당 개막공연	
5월	- 상반기 공연 진행 - 혹서기(7-8월) 공연 연출 및 계획	마상무예특별공연	
6월	- 상반기 공연 진행 - 마상무예 특별공연(10월) 연출 및 계획		
7월	- 혹서기 공연 진행 - 하반기(9-11월) 공연 연출 계획		
8월	- 혹서기 공연 진행 - 수원화성문화제 총체공연(10월) 협력		
9월	- 하반기 공연 진행 - 수원화성문화제 총체공연(10월) 연습		
10월	- 하반기 공연 진행 - 총체공연, 마상무예 특별공연(10월) 연습	수원화성문화제 공연 마상무예특별공연	
11월	- 하반기 공연 진행 - 혹한기 공연(12-2월) 연출 및 계획		
12월	- 혹한기 공연 진행		

<그림 2-86> 무예24반 시범©수원문화재단

<그림 2-87> 무예24반 언월도시범©수원문화재단

<표 2-39> 무예24기 공연물품 및 복식 구입 계획(2014년)

월	구입 계획	특별 행사	비 고
1월			
2월	환도 및 공연물품 수리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3월	복식제작 – 춘추복(구군복), 비갑, 머리띠, 상투, 목화		
4월	무기제작 – 마상무기 물품제작 – 마상용품, 갑주제작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화성행궁상설한마당 개막공연	
5월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마상무예특별공연	
6월	복식제작 – 혹서기(평상복, 괘자, 민복바지)		
7월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8월	환도 및 공연물품 수리 / 갑주 수선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9월	복식제작 – 목화		
10월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수원화성문화제 공연 마상무예특별공연	
11월	복식제작 – 혹한기(철릭, 피복)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12월	물품구입 – 대나무, 짚단, 가마니		

<그림 2-88> 무예24반 마상무예©수원문화재단

<그림 2-89> 무예24반 마상무예©수원문화재단

5) 한국민속촌의 관아 활용 : '웰컴 투 조선' 체험프로그램[38]

한국민속촌은 전통문화의 새로운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를 향유함과 동시에 재미를 주고 있어 인기이다. 민속촌의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즐기고 온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져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단지이다. 한국민속촌은 "즐거운 전통과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여, 있는 그대로의 전통을 계승,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통문화 속의 가치와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창조하고 있다. 민속촌에는 관아, 장터, 양반가, 상가마을, 민속마을 등이 재현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민속촌의 관아와 같이 복원된 건물의 장점은 문화재라는 틀과 역사적 고증이라는 틀 속에 비교적 자유로워, 원형 보존 건물보다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아가 갖고 있는 대표적 가치를 변형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로운 활용이 추진된다면 흥미도 면에서도, 유익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활용 프로그램이 탄생할 것이다.

<그림 2-90> 한국민속촌 관아 활용 프로그램 '웰컴 투 조선' 일정표

<그림 2-91> 한국민속촌 관아 활용 프로그램 '웰컴 투 조선' 등장인물

<그림 2-92> 한국민속촌 '웰컴 투 조선' 주말 프로그램(마당극, 퍼레이드)

<그림 2-93> 한국민속촌 '웰컴 투 조선' 저잣거리 체험

38. 본 항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www.koreanfolk.co.kr) 및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조, 인용함.

<그림 2-94> 한국민속촌 '웰컴 투 조선' 캐릭터열전

<그림 2-95> 한국민속촌 '웰컴 투 조선' 마당극 사또의 생일잔치

6) 일본의 천수각 활용 사례 : 이누야마(犬山) 천수각과 주변 마을(城下町) 활용

일본 천수각은 우리나라의 관아와 비교될 수 있다. 천수각은 일본의 성 중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지역내 최고 통치자가 머물며 정무를 보는 건물이다. 우리나라의 동헌이나 선화당과 유사성이 있다. 사실, 일본의 천수각은 봉건제 하의 유럽식 성(城)과 오히려 구조가 비슷한데, 천수각을 성안의 성이라 할 수 있는 아성(牙城), 혹은 내성(內城)과 더 유사성이 짙다. 천수각은 유럽식 아성과 같이, 전쟁시 최후의 보루로서 방어를 할 수 있으며 높은 곳에서 주변 지역과 백성들의 생활을 내다볼 수 있다. 또한 천수각은 지역별 규모나 경제성 등에 따라 크기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원래 일본 천수각 중 예로부터 보존되고 있는 곳은 단 12곳에 불과한데, 폐번치현(廢藩置県), 폐성령(廢城令) 후 철거되었던 거성(居城)과 천수각은 문화재 복원의 움직임과 더불어 지방마다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 보존되고 있었던 천수각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전시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수각 주변은 옛날 성 밑 전통마을(죠카마치城下町)[39]처럼 경관을 정비하여 보존하고 있다. 천수각과 그 주변의 옛 모습의 보존으로 문화유산의 활용 영역은 더욱 확대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마치 테마파크에 온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천수각과 성의 협소함에 따른 활용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복원된 전통마을의 주택에는 순천 낙안읍성의 초가집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을 전시관·체험관·상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천수각은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39. 본고에서는 죠카마치(城下町)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 밑 전통마을'로 지칭함.

일본 국보이자 가장 오래된 성인 이누야마성(犬山城)의 활용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누야마성은 소규모 성곽이며, 이누야마성이 있는 이누야마시(犬山市)의 규모 또한 크지 않으며, 주요 관광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이 오래되어 국보로 지정된 점, 이누야마의 '이누(犬)'가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색적인 점을 들어 관광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누야마의 캐릭터를 '개'로 지정하여 관광홍보 하고 있으며, 주변 마을을 전통마을처럼 경관을 정비하여 관광지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 전통 축제인 신가쿠사이(試楽祭), 혼가쿠사이(本楽祭)를 재현, 실시하며, 과거 모습인 뱃길이나 인력거 등을 활용하여 옛 모습처럼 재현하였다.

<그림 2-96>
지역 예능인이 관광안내를 돕는 인력거 프로그램
(お笑い人力車)

<그림 2-97>
이누야마(犬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아지 캐릭터
완마루군(わん丸君)

<그림 2-98>
성 밑 전통마을에서 실시하는
지역문화유산 혼가쿠사이(本楽祭)

더 나아가서, 이누야마 시(犬山市)의 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인 오가키 시(大垣市), 나고야 시(名古屋市)、오카자키 시(岡崎市), 하마마츠 시(浜松市) 등 천수각을 보유한 5개 현(県)과 12개 시(市)가 참여한 '성 밑 전통마을 관광교류물산전'[40]을 진행한 바 있다. 관광교류물산전과 같은 특산물 판매 및 지역문화 교류행사는 관광영역의 바운더리를 넓히며 흥미를 유발하는 등 유익한 공간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오가키 시(大垣市)를 중심으로 "파초 시장芭蕉楽市"이라는 행사명으로 확대, 연속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누야마성은 현존 12개 성이라는 특수성과 중일본 지역의 거성이라는 장소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누야마는 이러한 포지션을 이용하여 각 테마별 스탬프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40. 중일본 성밑 전통마을 포럼 사업의 일환.

<그림 2-99> 중일본 성밑 전통마을 포럼사업
- 관광교류물산전 등 포스터

<그림 2-100> 오가키 시(大垣市)
'파초시장' 포스터

<표 2-30> 성 밑 전통마을 관광교류물산전, 스탬프투어 등 참가 지역

참가 현	참가 도시	지역 거성
아이치 현 (愛知県)	나고야 시 (名古屋市)	나고야 성 (名古屋城)
	오카자키 시 (岡崎市)	오카자키 성 (岡崎城)
	이누야마 시 (犬山市)	이누야마 성 (犬山城)
	코마키 시 (小牧市)	코마키 산성 (小牧山城)
	기요스 시 (清須市)	기요스 성 (清洲城)
기후 현 (岐阜県)	기후 시 (岐阜市)	기후 성 (岐阜城)
	오가키 시 (大垣市)	오가키 성 (大垣城)
	오가키 시 (大垣市)	스노마타 성(墨俣一夜城)[42]
	구조 시 (郡上市)	구조 하치만 성 (郡上八幡城)
시즈오카 현 (静岡県)	하마마츠 시 (浜松市)	하마마츠 성 (浜松城)
	카케가와 시 (掛川市)	카케가와 성 (掛川城)
미에 현 (三重県)	이가 시 (伊賀市)	이가 우에노 성 (伊賀上野城)
시가 현(滋賀県)	히코네 시 (彦根市)	히코네 성 (彦根城)
	나가하마 시 (長浜市)	나가하마 성 (長浜城)

이처럼 이누야마성은 공간적 활용의 한계가 있는 성과 천수각 내부보다는, 성 앞 광장과 주변 마을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관아도 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활용안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누야마성처럼 주변 마을, 주변 무형문화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1. 기노시타 도키치로(木下藤吉郎, 후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미노(美農) 정벌을 위하여 스노마타에 거점을 두고 하룻밤만에 축성하였다고 하는 성.

<표 2-31> 이누야마 주요 활용 프로그램

행사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내용	비고
이누야마성 유람선	기소 강 (이누야마성 앞 하천)	2015년 봄 행사 중6 (4월 25일~5월 24일)	이누야마 영주의 뱃놀이 재현. 이누야마성과 주변 풍광을 배를 통하여 감상하고 안내를 받음.	
이누야마성 캠페인 특전	시내 전역	2015년 봄 행사 중 (3월 1일~6월 7일)	관광안내자료를 죠카마치 내 상점(146개소)에 제시 시 할인 및 선물 등 제공	관광안내자료를 버리지 않고 소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상인과의 연계로 행사참여 유도
성 밑 전통마을 스탬프 랠리			특전혜택 참가상점 146곳 중 3곳 스탬프 모을 시, 소정의 상품 증정	
즐거운 인력거	이누야마성, 성 밑 전통마을	2015년 봄 행사 중 (주말, 공휴일)	인력거로 성과 주변을 안내함. 인력거꾼이 관광객에게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함.	인력거꾼을 젊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활용(지역 예능인)
완마루군 (캐릭터)	이누야마성, 성 앞 광장	2015년 봄 행사 중 일요일 (매주 일요일)	캐릭터 복장을 한 사람이 어린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관광안내, 기념촬영 등을 함.	지역특색이 드러나는 캐릭터 (이누야마 = 犬山 = 개)
제381회 이누야마제	이누야마성 앞 광장, 성 밑 전통마을 일대	2015년 봄 행사 중 (4월 4일~5일)	에도시대때부터 진행되어 온 축제인 신가쿠사이(試樂祭), 혼가쿠사이(本樂祭)를 재현 실시	전통마을 주민의 참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이누야마성 전국무장 이야기	이누야마성 앞 광장	2014년 10월 26일 (특별 행사)	갑주 무사대의 행렬, 과거 이누야마성 주변에 있었던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를 재현함. 이누야마성 조총 부대의 조총 시범 등을 실시함.	
(성 밑 전통마을의) 관광교류물산전	오가키 성 인근 오가키 역 (大垣駅, 이누야마 인근 지역)	2013년 10월 6일 이후, 분기별 행사로 발전	중일본 지역별 특산물 소개, 특산물 증정 행사, 지역 및 특산물 홍보 실시	오가키 市를 중심으로 이누야마 市의 참여. 파초 시장芭蕉樂市이라는 행사명으로 확대, 연속 시행
중일본 스탬프랠리	이누야마성 포함 주변지역 21개 성	매년 행사 (2015년 3월 28일 ~ 11월 30일)	중일본 22개 명성(名城)의 스탬프 투어	사람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유도함

7) 중국의 개봉(開封) 관아 활용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국토가 넓고 인종이 다양하며 그만큼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이 있고, 또한 지역별로 많은 자료가 있었으며 이미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나 중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아의 활용 공간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관아 및 주변 고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테마를 지정하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등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관아 활용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개봉은 판관 포청천으로도 유명하며 송(宋)의 수도이기도 한 유서깊은 도시이다. 개봉에는 개봉부 관아가 있다. 이 때문에 개봉에서는 송나라와 포청천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대송 동경몽화와 더불어 개봉부에서는 크고 작은 관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개봉부 관아에는 포청천의 공명정대한 재판과정을 미니 연극으로 재현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극의 내용이나 복장 구성은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판관 포청천'을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갔다. 포청천 연극 시간이 짧고 연극배우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특별 공연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1> 판관 포청천 미니 연극

<그림 2-102> 판관 포청천의 호위무사

또한 근처에는 청명상하원(淸明上河園)이라는 민속촌이 재현되어 있는데, 개봉에서는 이 곳을 주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청명상하원은 장택단(張擇端)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42]를 재현한 곳인데, 괴위건축(瑰偉建筑=건물), 정채연출(精彩演出=재현), 격정유락(激情游樂=체험), 대송문화(大宋文化=전통문화), 특색미식(特色美食=음식)이라는 다섯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명상하원은 한국민속촌과 같은 전통문화 재현공간으로, 한국민속촌과 같이 재미있는 캐릭터를 운영하는 등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욕구를 높였다. 공간적 구성과 활용 프로그램은 한국민속촌과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림 2-103> 청명상하원 내 꽃파는 사람 역의 배우

<그림 2- 104> 청명상하원 내 무공을 연마한 사람 역의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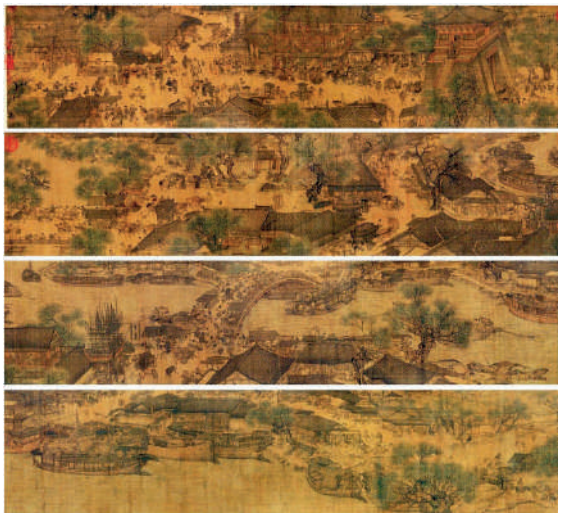
42. 개봉 내외의 청명절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술집, 상인 등 세세한 사회모습까지 그려내었다.

개봉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명상하원을 주 무대로 대송 동경몽화(大宋 東京夢華)를 들 수 있다. 대송 동경몽화는 장택단의 청명상하도와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을 재현한 공연으로, 스케일이 크며 관람비용 또한 비싼 편이다. 좌석은 등급별로 999위안, 499위안, 399위안, 299위안, 199위안 등을 받고 있다. 공연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저녁 8시에 실시되는 상설공연이며, 공연시간은 70분이다.

이 공연은 많은 준비 끝에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 축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다. 개봉에서는 이 축제를 위하여 관람하기 좋은 곳에 관람석을 따로 마련하였다.

공연은 서막, 제1장~제4장, 결말로 진행되며, 서장 우미인(虞美人), 제1장 취동풍, 제2장 접련화, 제3장 제천악, 제4장 만강홍, 마지막장 수조가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05> 청명상하도 등을 재현한 '대송 동경몽화' 프로그램과 연출진



<그림 2-106> 청명상하도

3. 관아문화재의 활용가능성 점검

1) 고창읍성 축성 참여 제식

과거 고창읍성은 함평군 등 인근 고을의 인력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지었으며, 그 흔적으로 각 고을의 작업구간마다 표지석이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축성에 참여하였던 도시 깃발을 읍성의 한 쪽에 세워두었는데,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성곽 작업구간마다 각 고을의 깃발을 걸어두면 성곽 경관에도 도움이 되며 사업비도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고창모양성제(답성놀이) 때 축성에 참여한 시군의 공동행렬과 깃발꽂이식을 거행하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2-107> 고창읍성의 성곽

<그림 2-108> 과거 고창읍성 축성 참여 도시의 깃발

<그림 2-109> 함평 지역 인력이 작업한 구간을 표시한 부분

2) 진주객사 디자인 활용, 진주역

진주에서는 역사(驛舍)를 새로이 신축하면서 객사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관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진주역이 객사를 재해석하여 만든 만큼, 진주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객사 관련 프로그램이 보강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림 2-110> 구 진주역사 ©두산백과

<그림 2-111> 객사 디자인이 적용된 진주역

3) 정치문화현장 체험프로그램 : 열린 관아 의회

관아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역사 및 정치과목 교과 연계로서 각 지역관아별로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의회'의 기능을 배우는 이른바 '정치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지역사회 시민으로써 해당 시군의 지역 문제를 고민해보고 토론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재 의회 및 선관위에서는 학생들의 정치문화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군의 실무자, 시의원 등과 함께 성인 시민이 참석하여 미래 시정운영 추진사항, 건의사항 등을 제안·실제 추진하는 '열린 시의회'로서의 기능 또한 가능하다.

<그림 2-112> 2011 경기도의회 정치문화현장 체험[1]

<그림 2-113> 현장체험 진행사항(의사일정)을 확인하는 학생[2]

4)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아의 유산 찾기 : 관아의 보물을 찾아라

관아 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나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국 관아 문화재의 관광안내 및 체험, 기록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로서, '지오캐싱'과 같은 앱의 구조를 참조할 수 있다.

지오캐싱은 "지상에 숨겨진 보물 찾기"인데, 전세계 200만 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앱 상에 나타난 GPS 정보를 통하여 직접 찾아가서 보물을 찾고 방명록을 남기거나 기념품을 가져갈 수도 있다. 보물을 찾은 사람은 다른 장소에 보물을 숨길 수도 있다.

이것을 관아 문화재에 적용하여, 관아 곳곳에 숨겨진 보물찾기 놀이를 응용시킬수 있다. 관아의 경우 마을간 거리를 재는 기산점이기도 하였으므로 전국 단위로 GPS를 이용해 지역관아를 엮어 '관아잇기 대장정' 등을 연출할 수도 있다.

1. 연합뉴스, 2011-11-10, "중학생들의 정치문화 현장 체험"

2. 수원일보, 2009-06-11, "[포토] 도의회 현장 체험 중학생들"

<그림 2-114> 지오캐싱 홈페이지 내 소개부분

'트랭글 GPS 앱'의 경우에도 좋은 활용 아이디어가 된다. 이 앱으로 등산·걷기·뛰기·자전거 등 사용자의 운동량을 관리하며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친목도모를 다질 수 있다. 또한 운동정보를 얻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공유된 운동활동은 활동량에 따라 랭킹으로 이어지며 운동 경쟁심리를 유발한다. 이로써 앱 사용자에게는 건강을 찾는 동시에 정보를 얻으면서 취미활동을 자랑할 수 있다.

지오캐싱과 트랭글 앱의 장점을 결합하여 '관아 문화재 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관아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기념품과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방문활동을 공유하고 친목도모를 할 수 있다. 관아 문화재 뿐만 아니라, 앱에서 모든 문화재의 방문 및 가치함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림 2-115> 트랭글 GPS 홈페이지 내 소개부분

제3장. 관아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전략 수립

Ⅰ. 관아문화재의 정책환경 진단

1. 관아문화재 활용의 대내외적 정책환경

1)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속의 문화유산 활용

문화유산의 활용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하여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문화유산 헌장에서 명시하였듯이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며,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우리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설정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정책을 수행하여왔다.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와 사유 재산권의 보호기반 확대,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활용분야를 주력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 또한 활용분야의 중점 사항으로서 문화재 가치활용 및 산업화, 문화재 연구 교육 역량 강화, 문화재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을 두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자원화하고 교육과 향유, 상품화에 응용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활용콘텐츠를 다각화해야 한다. 다각화의 대상은 지금까지 고궁, 자연유산, 근대유산, 무형유산, 지역문화유산(생생)에 초점을 맞춰 선택과 집중을 꾀하였다. 문화재청은 중앙에는 고궁 자원화를 지역에는 생생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활용을 꾀하였으며 그 성과는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의 미활용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토록 한 생생사업의 성과는 지금까지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필요했으나 그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대상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는 향교와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콘텐츠 발굴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다각화의 대상에 관아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관아와 읍성은 궁궐과 함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통치체계 중 하나였고,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지역의 행정, 관방, 경제, 문화, 민속문화 등의 중심이었던 관아는 오늘날 복원과 수리의 대상이었을 뿐 콘텐츠에 의한 활용 및 운영이 매우 미흡한 대상이었다. 이에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이자 문화유산 헌장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유산 향유를 위하여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궁, 관아·읍성, 향교 등 공적 문화유적의 전일적 활용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의 정책 과제

문화재청에서는 '국민에게 믿음주는 문화유산으로 여는 풍요의 미래'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주된 과제는 관리체계 고도화, 규제 합리화, 미래가치 창출, 국제 협력 강화이다. 이 중 미래가치의 창출은 문화유산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존되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문화유산은 곧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지역문화유산 다양화 및 특성화'가 필요하다. 지역문화유산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는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 육성'이 요구된다.

현재 관아는 지역적 특성과 지방통치체제 등을 알 수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 문화재에 비하여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관아 문화재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브랜딩과 연계하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관아라는 문화 브랜드가 하나의 관광아이템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처럼 관아만의 브랜딩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 향유 및 교육 기회의 확대'등을 위하여 관아에 대한 콘텐츠가 전문적으로 발굴되어야만 하며, 이를 통하여 활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유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관아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온 유적이면서도 공적 자산이기에 문화재청에서 정책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과 운용이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담아온 장소적 특성을 갖고 있었던 만큼 공적 정책운영과 함께 민간과의 콘텐츠발굴 및 운영이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3) 문화관광 활성화 속의 관아문화재 활용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고는 하나, 문화/관광/여가 산업 분야에서는 유례없는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여행과 문화생활, 여가생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호텔, 면세점 등 쇼핑 유통업, 여행업 등 문화 관광사업은 점점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어,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도 지금의 시기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라는 국내 곳곳에 숨겨진 매력명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지역문화재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관아문화재는 지역 특유의 멋을 발산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관아문화재는 현재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아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시기는 늦지 않았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아문화재에서 발산한다면 지역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는 성과를 틀림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관아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이루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 특유의 멋이 있는 지역브랜드를 사람들에게 향유시켜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관아문화재 활용의 SWOT 분석

관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아문화재가 갖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내, 외부적으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살펴,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마련하며,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브랜드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아가 가진 위상을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한다면 관아의 현실적인 현재 위치와 발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 수립으로서의 분석 방법으로 SWOT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1) 내부요인 중 긍정적 요인(Strengths)

관아는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원이다. 향교의 경우에는 지역 엘리트 층의 교육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관아는 향교의 문화적 내용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지방관, 사족, 향리, 백성의 모든 문화적 요소를 동반하고 있다. 교방과 같은 예술적 측면, 읍성과 같은 군사적 측면, 향교를 포함한 삼단일묘의 교육적·고을민속적 측면 등 요소가 다양하다. 즉, 관아는 향교 등 지방문화재의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로, 고을의 중심이자 지역문화의 산실, 지방통치체제 등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복합공간이다.

관아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문, 현판, 당호, 금석문뿐만 아니라 읍지, 관찬사서 등 무수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 활용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또한 관아는 지역별 관련 문화재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원 광한루와 사직단, 남원읍성 등은 모두 관아에서 관찰하였던 공간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만들어낸다면 보다 다양한 문화요소가 파생될 것이다.

관아는 지방통치체제라는 특성상, 지역별 연계가 가능하다. 현재도 조선 팔도 체제의 영향을 받아 전라도, 충청도 등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유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 참여프로그램을 열기 적합하다. 예를 들어 공주 충청감영과 부여 홍산현 관아가 충청도를 테마로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관아는 과거에도 지역 중심지였으나 오늘날에도 대부분이 지역중심지이다. 관아가 존재하는 곳은 최소 읍면 단위 이상의 큰 고을이다. 이는 어떠한 문화재 테마보다도 지역민이 모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향교도 관아의 활용에 함께 할 수 있는데, 항상 관아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내부요인 중 부정적 요인(Weaknesses)

그러나 관아는 대부분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건물 몇 동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관광지 등 문화적 공간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볼거리'인데, 현재 보존유적이 적은 관아는 이 점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관아는 궁궐과 이미지가 중첩되나, 궁궐보다 위엄성이나 위계, 규모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아 건물만으로는 사람들의 흥미 및 관심을 끌기 매우 어렵다. 최근에 난립하고 있는 레저 테마파크의 예를 보면 관아의 부정적 요인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미지가 중첩되는 테마파크 중 볼거리가 적은 중소형 테마파크는 현재 대다수가 적자이거나 폐업상태에 있다.[1] 중장기적 활용안이 검토되고 적용되지 않는 한, 현행처럼 낙안읍성 등 온전히 보존된 몇몇의 관아 및 관련유적을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모두 개점휴업상태에 놓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관아의 활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용 공간의 마련이다. 따라서 관아 활용을 위하여 주변 마을과 문화재,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관아 주변 마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관아의 관광영역 확대 등을 위한 도시디자인적 경관 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되고 있는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사업'[2]이나 수원시의 경관정비사업(생태교통 수원 2013)[3] 등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관아는 콘텐츠 발굴재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을 위한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본고의 자료 정리 또한 관아 활용을 위한 토대 마련일 뿐, 개별 관아별로 심도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관아 및 지역 콘텐츠의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관아 콘텐츠의 발굴은 곧 지역브랜드로서 활용이 가능하여 다른 문화유산의 콘텐츠 발굴보다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현장을 보면 전문적인 자료조사와 고증 없이 복원된 관아가 많아 건물이 원형과 달라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문화적인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역사적인 스토리가 왜곡될 수 있다. 객사를 한 예로 들면, 옛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객사의 양익실의 규모가 다른데, 복원시 이를 참조하지 않고 임의로 건축하여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냈다. 이는 전문 연구자가 아닌 한, 모두에게 잘못된 관아의 이미지를 심어두게 되는 것이다. 건물의 재복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시간을 들여 원형자료를 충실히 조사한 뒤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3) 외부요인 중 긍정적 요인(Opportunities)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학부모의 교육열

1. MBC, 2015.05.11. "다 지어놓고 '수익성 없다'..'테마파크' 애물단지로"

2. 문화재청, 2015.04.21.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지으면 최대 1억 원 지원!"
3.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내용 참조(http://emwf2013.suwon.go.kr)

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학부모의 체험·활용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적으로 홍보만 잘 된다면 문화유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인 참여 및 확대가 가능하다.

문화·여행산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나, 현재 직장 내 휴가의 권장,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재량 방학 등의 요인으로 국민의 여행 여건이 개선되어 국내외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출입국하는 사람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4] 여행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대형 여행그룹의 주가 및 매출 등은 연이어 상승세에 있다.[5] 다시 말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여행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을 끌어모을만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산할 수 있다면 관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과 지방 간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국도, KTX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통여건의 발달로 지방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산재된 관아를 큰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PS와 인터넷의 발달로 관아에 대한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SNS망의 발달로 지방여행 체험의 공유를 통한 홍보효과, 비판을 통한 개선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4) 외부요인 중 부정적 요인(Threats)

현행 관아 활용프로그램은 대체로 어디에서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곤장 체험이나 형벌과 관계된 내용의 볼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아마다 구성되어, 방문자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식상하고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국민속촌은 경우가 색다른데, 한국민속촌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 요소들을 재해석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민속촌에서 같은 형벌 관련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내용과 재미성 등이 일반 관아와는 다르다. 따라서 관아에서 할 수 있는, 관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관아 활용 자료의 수집이 부족하고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활용 프로그램의 질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요소가 만들어져야 하며,

4. 아시아경제, 2015.02.23. “설 연휴간 인천공항 84만명 출입국 '사상 최대'”
5. 이데일리, 2015.05.07. “'비수기 사라진' 여행株…실적 날개 달다”

이를 위하여 전문 콘텐츠 발굴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품격 활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활용 운영진이 부재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차후 활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단체나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을 단체화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3-1> 관아 문화재의 SWOT 분석

<강점(S)> -관아는 지역문화의 산실이자 지방통치체제 등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표 공간 -관아의 기문, 현판, 당호, 읍지 및 지도, 금석문, 관찬사서 등 자료가 많음. -관아와 관련문화재의 연계 가능(청도읍성과 청도 관아, 청도석빙고 등) -관아는 지방통치체제라는 특성상, 지역별 연계 가능(충청도별, 경상도별 등) -관아는 지역 중심지 내에 있음. 최소 읍사무소 소재지 이상임.	내부요인	<약점(W)> -관아 공간이 대부분 온전치 않고 협소하여 향후 활용프로그램 발전요인 저해. 관아 주변 마을, 문화재와 연계 활용방안 마련은 필수. 관아 주변 마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도시디자인적 경관 정비 검토 필요. -콘텐츠가 많음에도 자료 정리가 안되어 활용 불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콘텐츠 발굴 필요. -전문적인 자료조사와 고증 없이 복원된 관아가 많아, 건물이 원형과 달라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역사 스토리를 왜곡하고 있음. 향후 재정비 필요.
긍정적 요인	SWOT	부정적 요인
<기회(O)> -현재 학부모의 체험, 활용프로그램의 관심도,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문화, 여행산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나, 현재 국민의 여행 여건 개선으로 관광활성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교통여건의 발달로 지방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SNS망의 발달로 지방 여행체험의 공유로 홍보효과, 비판을 통한 개선효과 등 기대.	외부요인	<위협(T)> -어디에서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민속문화체험은 재미성, 향유성의 반감을 살 수 있음. 관아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부족한 확보자료와 한정된 개발 예산지원 등은 활용프로그램의 질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움. 활용프로그램의 진일보를 위한 전문 콘텐츠 발굴에 투자 필요. -활용 프로그램이 고품격으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활용운영진이 이를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음. 활용프로그램 운영 적용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여야 함.

3. 종합분석 및 정책방향

1) 종합분석

관아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공간이며, 이를 증명하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조직적 훼손 이후 건축 등 물리적인 복원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관아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중앙단위의 통치체계로서 궁궐 및 도성에 대한 복원 및 활용에 집중을 해왔으며 지역단위로는 향교와 서원, 고택, 전통마을 등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힘써왔다. 이렇게 보존 활용되는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올바로 연계되고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역사적으로 지역문화의 산실, 지방통치체계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관아문화재의 활용 및 복원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때, 관아문화재의 활용 및 보존에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 관아문화재의 원형 보존상태가 취약하다. 읍성 철폐령 이후 지역단위의 읍치 및 관아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원형 복원이 매우 어렵고, 또한 원형 복원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원형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일부만 복원되어 관아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관아 관련 활용프로그램이 단조롭고 획일화 되어있다. 주로 형벌과 관련된 체험이 많고, 공간활용으로는 숙박과 도서관, 이벤트로는 제한된 감영축제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관아 공간에 대한 복원이 미흡하여 활용공간 면에서 제약이 많은 점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셋째, 관아에 축적된 자료가 매우 많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관아가 지역중심 역할을 해온 만큼 관련자료가 많으나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콘텐츠 발굴이 미흡했던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아문화재를 활성화해야 할 정책적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1천년 이상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국가통치체계 관련 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식민지 경험으로 인한 읍치의 훼손을 복구함으로써 국가적 자존심과 역사적 전통성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를 통해 일본과 중국과의 치열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역사적 전통성, 문화적 다양성은 향후 치열한 국가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데 매우 유용한 자양분을 제공한다.

둘째, 향후 문화의 발전방향은 지역화, 다양화로 가고 있으며, 관아는 이러한 문화발전 방향에 매우 유용한 매개체가 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문화콘텐츠의 다각화를 꾀해 왔는데, 개별관아가 갖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한 자료 등은 지역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연출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

셋째, 관아문화재는 문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산업화에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지방도시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의 특화요소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의 명소화는 먼저 자기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경쟁력, 역사적 문화적 매력을 갖추는 데서 비롯된다. 관아는 1천년을 넘는 오랜 기간동안 저마다의 고을간 경쟁력과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각각의 통치체계와 산업화를 이루고, 중앙권력과 관계를 맺어왔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록과 문화, 도시공간 배치, 지역 특산물과 진상품, 관아와 전통시장의 연계요소 등은 오늘날 지역관광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관아문화재는 지금까지의 문제를 오히려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활용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실행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2) 정책방향

관아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우선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관아의 원형복원이 미흡한 현실에서 섣부른 복원사업 집중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지역단위의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현실에서는 관아 복원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원형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관아별 연구조사와 활용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복원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아의 복원전략은 선 활용 후 복원이 바람직하다.

관아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단조로움과 획일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관아의 정체성에 맞게 유형화를 꾀하고 유형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관아는 행정, 경제, 문화, 군사,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의 관아는 그 지위와 역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으로서 계승되어온 가치를 중심으로 관아의 유형을 추출하고 그 유형의 특징과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발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관아별로 관련된 자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은 자료조사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관아문화재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아별 자료조사와 콘텐츠 발굴이다. 관아별 기문과 제영, 현판, 지리지 및 지도, 읍지, 각종 문집, 관아를 거쳐간 목민관 등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콘텐츠 발굴이 이루어지고 활용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아문화재에 대한 정책 요구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
먼저 국가 통치체계의 역사복원 과제에 대해서는 궁궐-영아(8도감영)-관아 등 전일적인 역사통치체계를 완성시킨다. 8도 감영은 건물 또는 터 복원 등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관아는 현재 보존된 문화재의 현황과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역사적 문화적 변별성이 명확하고, 그 보존가치가 명확할 때 가능할 것이다.
문화적 다원화의 매개체로서 관아가 지역화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아문화재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활용모델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관아의 관광자원화 산업화는 관아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명확히 각인되고 풍부하고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브랜딩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3-2> 관아문화재 활성화 정책방향

문제 개선	관아 훼손, 복원 미흡	⇨	선(先) 조사/활용, 후(後) 복원
	프로그램의 빈약/획일화	⇨	관아별 유형화,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관아별 조사/연구 미흡	⇨	관아별 조사연구, 콘텐츠 발굴
정책요구	국가통치체계 역사복원	⇨	궁궐-영아-관아 체계 완성
	문화 다원화(지역화·다양화)	⇨	관아 유형화 및 활용 모델 개발
	관아의 관광자원화·산업화	⇨	관아 브랜드 개발 및 확산

Ⅱ. 관아문화재의 활용전략

1. 핵심 전략 및 정책목표

관아활용의 방향은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 지역별 특징을 발현하는 관아'를 기본 전제로 하며, '관아문화재를 어떤 공통점으로 묶을 것인가'를 하는 기본적 포지셔닝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 세밀한 수준의 포지셔닝에 따른 활용 프로그램 운영은 관아문화재가 활성화된 후에 진행되어도 좋을 것이다.

<표 3-3> 관아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개요

항목	내용
사업개요	관아는 과거 지방행정기구의 청사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중심지였으며, 현재 복원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지역특색 브랜드화를 통한 시군정 홍보,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유산으로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아 문화재의 활용방향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추진배경	1.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문화유산의 기본축 정립 2. 관아는 대표적인 지역 전통문화 복원의 근거지 3. 관아를 통해 역사성 있는 지역문화공간 만들기 : 관아 르네상스 4. 관아는 문화 다양화에 가장 중요한 상징축 5.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고유의 관아 및 목민관 상 구축에 활용
사업목표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 속의 문화유산 활용 관아 활용 기반구축(2016~2018), 향후 지역거점별 관아문화재 활용 활성화
추진전략	관아의 특징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적 포지셔닝(특징별, 위계별), 기반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추진방향	지역브랜드로서의 관아 활용, 관아의 특징별 활용(문화/경제/행정/군사/교통), 지역통합을 위한 팔도 감영과의 연계 활용, 관아의 공통적 활용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주체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기간	2016~2018(기반구축), 이후 계속 추진
총사업비	47,722백만원 (2016년 7,168백만원 / 2017년 8,301백만원 / 2018년 32,253백만원)
보조금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보조율	국비 50%(지방비 50%)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별표 1](보조금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효율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활용 프로그램마다 단계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반 구축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 및 재원조달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아문화재 브랜드 네이밍화

관아를 방문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의 고유성을 부각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아 브랜드만의 특별한 이름이 필요하다. 예컨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처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일 브랜드로서 가져갈 것인지, 관아만의 특별하고 독창적인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인지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브랜드명을 현행 유지할 경우(생생문화재/살아 숨 쉬는 ○○○)와, 새 브랜드명을 사용할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우선 기존 브랜드명을 계승하는 경우로, '살아 숨 쉬는~'이라는 브랜드는 일종의 연속기획물(series) 느낌을 주어, '살아 숨 쉬는'이라는 브랜드로 문화재청의 활용사업임을 알리면 체험자의 입장에서도 체험 내용, 체험 방법 등에 신뢰감을 느껴 보다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자동차회사인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미 르노라는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명이 들어가 구매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유와 같다. 르노삼성자동차의 모체는 삼성자동차인데, 삼성그룹의 여건 상 르노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르노자동차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을 고수하는 것이다. 또한 '살아 숨쉬는 ~'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활용프로그램인 생생(生生)의 우리식 표현이기도 하여, 생생프로그램, 궁궐활용, 향교서원 활용프로그램과 같이 문화재청 활용사업의 일체성과 연속성, 보존에 기반하여 가치발굴 및 활용을 통한 활성화 등의 이미지를 잘 구현하는 브랜드명이다. 따라서 관아 브랜드명으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알려진 브랜드명을 고수할 때의 장점은 이와 같다.

한편 본고에서는 관아의 특성과 같이 다음과 같은 이름도 제안하려 한다. 본고의 서두에서 밝혔듯 관아는 지역사회의 대표 공간이자 거점이다. 따라서 관아만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독자적인 정책명으로 "청청백백(淸淸白白), 우리관아", "문화신시(神市), ○○관아", "지역문화중심, 관아"(All that local-culture) 등으로 '지역문화의 모든 것'이 관아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브랜드명을 통하여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전통과 현대문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관아의 활용을 위하여 고품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3-4> 관아문화재 브랜드 추진 방향

추진 방향	브랜드명	브랜드의 가치	슬로건	비고
문화재청의 현행 브랜드 유지 및 확산	살아 숨 쉬는 관아	생생문화재/살아 숨 쉬는 문화재와 동일시	생생문화재/살아 숨 쉬는 문화재와 동일시	체험자는 현행 브랜드의 연속기획물로 인식할 수 있어 향교, 서원 등에서 느꼈던 신뢰감을 받을 수 있음.
관아만의 대표성을 띄는 브랜드명 추진	-문화신시(神市), XX관아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성을 의하면서도 관아를 지역행정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음.	"우리나라가 신시에서부터 지방을 이루었듯이, 관아를 역사문화기지로 활용"	예) "문화신시, 무장현 관아" / "문화신시, 화성유수부 관아" 등
	-올댓로컬컬처(All that local culture), 관아	-지역문화의 대표성을 띄는 문화재로 인식할 수 있음.	"지역 전통과 현대의 모든 것이 공존하는 문화공간"	
	-우리지역 대표문화재, 관아			
	-지역문화로(路) 관아	-모든 지역문화가 관아로 이어지고 모아짐		
	-청청백백(淸淸白白), 우리관아	-청백리가 선정을 펼치는 살기좋은 우리 고을		

3. 주요 추진 과제

관아 문화재를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지역 대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관아의 특징인 문화, 경제, 행정, 군사, 교통적 기능과 함께 지역 위계별로 관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1) 관아의 특징별 - 유형화(positioning)

관아 활용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각 관아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형화시켜 기본 틀을 잡고, 향후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 를 위하여 관아가 가지고 있는 분야 중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관아의 특징과 지역 위계를 중심으로 먼저 유형화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관아 문화재의 지역 통합 운영을 위하여 전국 팔도를 하나로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관아는 지역문화의 산실이라는 문화적 요소, 지역 경제활동을 관장하였던 공간이라는 경제적 요소, 향촌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담당하던 곳이라는 행정적 요소, 고을과 주변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라는 군사적 요소와 함께, 목민관이 파견되어 머무는 내아,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 관원 등이 역원을 거쳐 누정에서 경치를 즐기며 쉬어가며 객사에 머무는 교통적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관아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두고 위치 지울 수 있다.

<표 3-5> 관아의 특징별 활용요소 : 건물 및 콘텐츠 분류

관아의 특징	대분류	소분류		비고
요소	내용	건물	콘텐츠	
문화	지역문화의 산실	교방, 관청, 삼단일묘, 책실, 내아 등	무형문화, 이야기가 일어난 근원 및 전설	
경제	지역 경제활동 공간	문루 등	장시(특산물)	
행정	향촌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담당하는 곳	동헌, 선화당, 향청, 작청 등	정치사, 지역사, 공공성 등	
군사	고을과 주변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곳	읍성/성곽, 장청, 형옥 등	군사	
교통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	객사, 누정, 역원 등	인물의 내면적 이야기, 교통, 커뮤니티	경관적 요소 포함

2) 지역 위계별 유형화

조선 지방통치체제에 따른 지역 위계는 조선시대 관아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지역구분과 팔도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온 부분이 있어 지역 위계별로 유형화를 하는 것은 더욱 의미있다.

지역위계는 전국 팔도로 구분지을 수 있다. 팔도는 지역 특색을 말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경중미인(鏡中美人-경기도), 암하노불(巖下老佛-강원도), 청풍명월(淸風明月-충청도), 송죽대절(松竹大節-경상도), 풍전세류(風前細柳-전라도)라는 테마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 관아는 종2품 이상이 다스리는 거읍에서부터 종6품이 다스리는 고을까지 각각의 문화가 다르다. 특히 규모가 큰 고을은 많은 사람이 교류하는 곳으로,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중심이다. 작은 고을은 주변 고을을 포괄하는 문화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역위계는 각지 지방관의 벼슬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다. 벼슬에 따른 분류는 ①감영 및 판윤·부윤·관할 부, 유수부의 종2품 이상의 위계, ②대도호부·목의 정3품 이상의 위계, ③도호부의 종3품 이상의 위계, ④군의 종4품 이상의 위계, ⑤현의 종5품 이하의 위계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의 도시 구조와 비교하면, 판윤 등의 고을은 광역시, 대도호부 등의 도시는 도별 주요 대도시, 군은 일반 시(市), 현은 소규모 시(市) 또는 군(郡)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규모별로 지역적 위상을 나타낼 표식(마크)을 만들어 관아마다 부착하여, 지역발전사(地域發展史) 및 조선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위계 관아별로 그룹지어 연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표 3-6> 관아의 위계별 활용요소 : 지역 위계 및 테마별 분류

관아의 위계 – 대분류	관아의 위계 –소분류	주요 활용 콘텐츠	비고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제주도)	팔도 지역의 특징을 담은 지역통합 축제 운영 경기도 : 경중미인(鏡中美人) 강원도 : 암하노불(巖下老佛) 충청도 : 청풍명월(淸風明月) 경상도 : 송죽대절(松竹大節) 전라도 : 풍전세류(風前細柳)	제주도는 과거 전라도였음을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 전라도와 통합 운영 추진 필요.
판윤·부윤, 관할 부, 유수부	화성유수부, 경주부 등	종2품 이상의 위계 / 오늘날 광역시와 유사	유수부는 서울 주변의 배도로, 유수부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짐. 유수부만을 묶어 포지셔닝 하는 것도 필요함.
대도호부, 목	강릉대도호부, 진주목 등	정3품 이상의 위계 / 오늘날 지역 대도시와 유사	
도호부	인천도호부 등	종3품 이상의 위계 / 오늘날 지역 대도시와 유사	
군	낙안군 등	종4품 이상의 위계 / 오늘날 중규모의 시(市)와 유사	군은 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인구적 여건이 우수하다.
현	홍산현 등	종5품 이하의 위계 / 오늘날 소규모 시(市) 또는 군(郡)과 유사	

4. 연도별 추진 전략

관아는 현존 건물의 상황, 지역 인프라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과 현행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관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고품격화와 대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기반구축을 선행하여야 하며, 이를 연도별로 단계별 추진하여 활용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높인다. 기반구축은 총 3개년도(2016년~2018년)로 하며, 본고에서 제안하는 사업비는 유사 사업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 성격별로 적용할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 문화재는 사업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소규모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4곳, 육성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중규모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8곳, 확대 추진이 가능한 대규모 가능 사업은 16곳으로 지정할 것이다.[1] 그 밖에 팔도 감영 축제나 교방문화 활용 등 공간적 특수성이 있는 활용안은 사업 성격에 맞도록 그 규모를 지정할 것이다.

1. 본고에서 제안한 현재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관아는 81개소임. 그 중 약 5%(시범/4곳), 10%(육성/8곳), 20%(확대/16곳)를 선정하였음.

기반구축의 마지막년도의 2018년 이후에는 “육성 및 활성화” 단계로 2개년(2019~2020년)을 설정하여, 관아 활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차후, 관아문화재 활용 사업 성과에 따라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시범단계의 성격으로서의 기반구축 3개년도 사업을 우선 제안할 것이다.

관아 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충실히 이행되어, 향후 관아 활용 프로그램이 개별적, 통합적으로 본격 개발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1단계(2016년)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가 많이 필요하듯이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현재는 관아 활용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관아의 기문, 현판, 제영은 물론이며 관찬사서, 지리지, 행정자료 등 수없이 많은 자료를 전문적으로 발굴해내야 할 것이다. 관아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에서 지역 브랜드와의 접목과 문화유산 향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콘텐츠의 발굴은 문화유산 활용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발굴을 중점적으로 요하지 않는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준비를 위하여 하드웨어적 시설 복원 등의 사업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방안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2단계(2017년)

사업 추진 중반에 해당하는 단계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가 되는 홍보 방안, 시범 실시, 활용공간 검토 및 복원,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운영 과정 조사 및 마련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3단계(2018년)

관아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띄는 문화재임을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재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활용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향후 보다 고품격의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한다. 특히 관아에서의 활용 프로그램은 여타 프로그램과 같은 가상의 체험보다는, 실생활에서 지역 전통과 현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Ⅲ. 관아문화재의 활용모델 개발

관아문화재 활용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은 관아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즉 관아의 주요기능 중 어느 기능이 그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과 잘 부합되고, 현재화하는데 특장점을 가질 수 있다면 해당 기능을 중심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특화된 기능별 유형화는 군사, 경제, 행정, 문화, 교통 및 경관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자세한 활용계획과 예산은 다음 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1. 군사 중심형 : 군사요충지 또는 군사행렬의 장소성이 큰 곳

1) 왕 또는 지방관의 행렬 재현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찰사를 비롯하여 부사, 현감 등의 지방관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나름의 수행관을 이끌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행렬도 등 그림 자료 등을 통하여 지방관의 행차 모습을 복원하고, 연중 정기적인 행사로 실시하여 지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른바 퍼레이드는 복식을 갖추어 이동만 하면 되기에 참여 난이도가 높지 않아 학생, 지역 주민 및 군인의 대규모 참여가 가능하다. 조선시대 지방체제별로 그 위상에 따라 행차를 수행하는 인원 및 행렬 재현으로 학생 등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애향심을 높이고 과거 행차모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행렬에 대한 그림 자료 등이 현존하여 복식 및 의장, 구성 등을 그대로 재현 가능하다. 다만, 마필이 동원될 때에는 마필 비용과 함께 말을 탈 수 있는 전문가를 따로 초빙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 행렬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볼거리였다. 행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왕의 행렬은 가장 큰 구경거리였는데, 관광(觀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될 정도이다. 따라서 전통행렬의 재현은 행렬 자체로만 재현할 것이 아니라, 행렬 주변의 풍경 또한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재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왕의 행렬인 <화성능행도(華城陵行圖)> 중 제 7폭인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를 보면 왕의 행렬을 관광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자유로운 자세로 구경하는 것을 넘어, 천막을 치고 술을 파는 모습도 보인다. 지방관의 행렬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관의 행렬 또한 지역내 가장 큰 볼거리로, 왕의 행차 주변 풍경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환어행렬도의 술파는 모습처럼 주변 풍광까지 고려하면 더욱 의미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

<그림 3-1> 평생도 중 남원부사도임©국립민속박물관

<그림 3-2> 환어행렬도 중 술파는 여인과 술마시는 사람들© 리움

▣ 세부 계획안

전통행렬의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하여 복식, 참가인원의 구성 등 심도있는 콘텐츠의 발굴은 필수이다. 전통행렬을 지역축제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기 재현행사를 실시한다. 행렬은 관아를 출발하여 읍성을 거쳐 지역내 대표적인 공간(성 밖)을 순시하고 돌아온다.

전통행렬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품 및 복식으로 일시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품 및 복식은 대여(리스) 형식을 취하고, 기본 인력 구성의 대부분은 학생 및 지역 군인을 동원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단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전통행렬 중 가장 숙련도를 요하는 부분이 바로 마필 문제인데, 전문적으로 승마 및 인도 가능한 단체를 섭외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행렬의 이동거리가 인근 지역에까지 미치게 될 때, 지역간의 행사 통합 추진을 위하여 협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조의 능행차는 서울에서 과천, 안양, 수원, 화성 등을 거치게 되는데 행렬 구간의 통제, 행렬 인원의 구성 및 비용 등 협의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구간별 행사책임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3> 수원 행차 재현

<그림 3-4> 화성행궁에 있는 정조 반차도

2) 임진왜란 전투상황 재현

▣ 주제 및 자원 특성

임진왜란은 병자호란과 함께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많은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임진왜란은 주로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며, 인기 콘텐츠로서 TV방송 및 관련 서적이 인기리에 나타나고 있다. 관아의 관군과 지역민의 결사 항전, 지역의병의 흥기라는 임진왜란의 전투준비상황 등을 재현하여 당시 시대상을 파악하는 한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동래부 순절도 등 임진왜란의 시대상을 담은 그림 자료가 한국과 일본에 있는데 이를 재현할 수 있다. 특히 동래부 순절도의 경우 장면 하나하나마다 상황에 따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왓장을 던지며 거세게 저항하는 백성, 결사 항전 후 패배가 확실시되자 도망가지 않고 임금에게 마지막 예를 올리는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등이 드라마 '징비록'에도 재현되었는데, 동래부와 같이 임진왜란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용이하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질서 및 사회변화를 크게 일으킨 국제전으로, 당시의 참상에 대한 기록이 그림 등으로 많이 남아 있어 재현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임진왜란 무렵, 각지에서는 관아의 관군과 함께 지역민이 힘을 합쳐 결사 저항하였고, 지역민이 의병이라는 특수조직으로 발전하여 관군과 힘을 합쳤고, 일본과 싸워 국난을 극복하였다. 특히 지역의 의병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수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민의 저항, 의병의 활동, 관군의 활동이라는 3가지 테마로 나누어 전투상황을 재현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 3-5> 동래부 순절도에서 임금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송상현, 이를 재현한 드라마 '징비록' 속 장면©KBS1

<그림 3-6> 동래부 순절도에서 지붕 기와를 던지며 저항하는 백성, 이를 재현한 드라마 '징비록' 속 장면©KBS1

▣ 세부 계획안

이 사업은 앞의 전통행렬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축제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기 재현행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전투상황 재현의 특성상 연기가 가미되어야 하여, 학생 등의 임시 체험자보다는 보존회 등 전문집단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보존단체는 전통무형문화를 전문적으로 재현하는 전문공연단의 위상을 가져야만 하며, 무형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하여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1]

보존단체 등 재현집단은 관군과 의병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읍성과 장청, 관아에서 전투를 위하여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배치하는 상황, 성벽에 오르는 상황 등을 단계별로 재현하며, 마을 주변에서는 의병모집, 읍성 내 진입과 전투준비 등을 재현한다.

이 행사는 재현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명~20명 내외에서 주요한 장면이 모두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 순절도를 예로 들면, ①성곽에서 저항하는 조선군, ②무너진 성곽을 틈타 급습하는 일본군과 지휘부(고니시 유키나가), ③항전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조선 이각(李珏), ④최후의 상황 속에 임금에 예를 올리는 송상현, ⑤결사 항전하는 백성으로 크게 다섯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별로 다섯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장소 선정은 관아를 최우선으로 하되, 활용 공간의 협소성 등을 고려하여 관아 주변 광장이나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으로 월별 실시하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수원의 무예도보통지 시범(무예24기)과 같이 매일 상설진행이 가능하다.

<표 3-7> 임진왜란 전투상황 재현 - 동래부 순절도 재현 내용

단계	내용 (동래부 순절도 재현 예시)	필요 예상인원 조선군 9명(송상현, 이각) / 일본군 8명(고니시 유키나가) / 백성 3명	예상 소요 시간
1막	성곽에서 전투태세를 마친 조선군	조선군 9명	15분
2막	성곽을 무너뜨리고 급습, 교전하는 일본군	조선군 9명 / 일본군 8명	15분
3막	읍성 내에서 결사항전하는 백성과 조선군	백성 3명 / 조선군 8명	15분
4막	항전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각	조선군 3명(이각, 병사 2명)	5분
5막	최후의 상황 속에 임금에 예를 올리는 송상현	조선군 6명(송상현, 병사 5명) / 일본군 8명	10분
전체		총 20명 예상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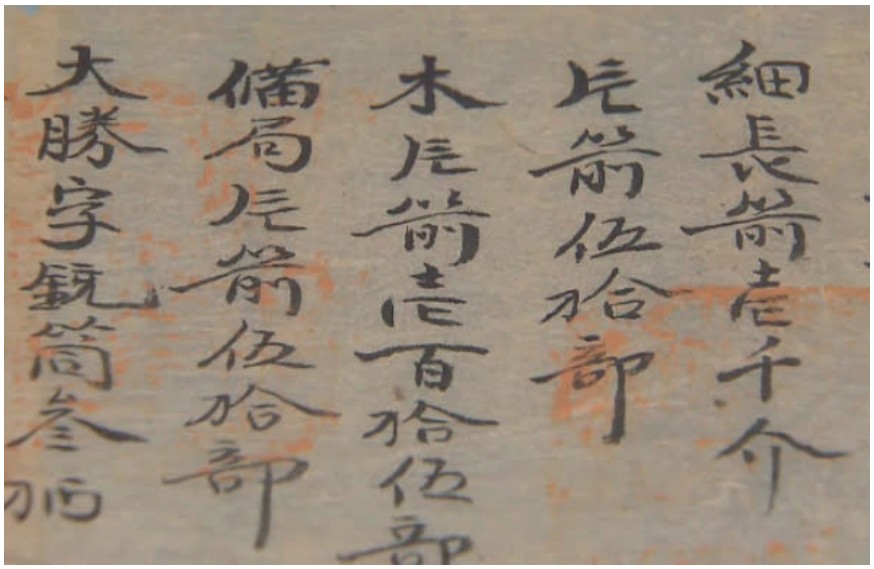
3) 군비상황 점검과 성내 순시 재현

▣ 주제 및 자원 특성

1.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 결론 – Ⅱ. 관아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후술함.

고을의 수비를 총 책임하는 사람을 필두로 하는 성내 순시와 군비상황 점검을 재현한다. 이는 지방관의 행렬이나 전투상황준비처럼 많은 인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주기마다 시행 가능하다. 또한 고을의 군비상황 내용이 해유문서 등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해유문서 속 내용에 따른 점검 실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다.

지역 관아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방어를 최우선적으로 신경써야만 하였던 곳이며,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병영이 배치된 곳도 있었다. 또한 지방관은 군비실태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그러한 내용이 해유문서 등에 남아 있다.



<그림 3-7> 군비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길주목 윤빈 해유문서©국립중앙도서관

▣ 세부 계획안

해유문서 등에는 고을의 군비실태와 점검상태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문헌자료의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 해미읍성과 같이 읍성과 관아, 마을이 공존하는 곳에서 주말 이벤트로 실시할 수 있다. 수비책임자는 수행자 수 명과 함께 관아에서 출발하여 장청 등을 거쳐 읍성 및 마을을 순시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연기가 가미되어야 하여, 연극단체 등의 전문집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해유문서 속에 기재된 실제 물품의 실제 수량이 소품으로 재현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군비 점검의 재현과 같은 경우, 해유문서 등의 상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더욱 세밀한 재현이 가능하겠지만, 기록이 소실되어 부족하더라도 인근 고을과 시대적 배경 등을 유추하여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각 고을마다 정기 소규모 이벤트로서 재현 가능하며, 이를 재현하는 전문 공연팀 1팀이 전국이나 도단위 관아를 순회하며 공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용절감 및 공연팀의 일감 확보(관아 전문 재현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도단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문 공연팀 활용을 제안할 것이다.

<표 3-8> 군비상황 점검과 성내 순시 재현 내용

단계	내용	필요 예상인원 지방관 1명, 향리(보좌인력) 2명, 군관(실무인력 및 실무책임자) 7명	예상 소요 시간
1막	동헌에서 업무(점검)계획 회의	지방관 1명, 향리 2명, 군관 3명	10분
2막	장청 및 무기 관련 시설 이동	지방관 1명, 향리 2명, 군관 3명	5분
3막	군비상황 점검 및 정리(* 재현 공연의 특성상 군수물자 소품을 모두 밖으로 꺼내 관객에게 보여줌)	지방관 1명, 향리 2명, 군관 7명	15분
4막	성내 시찰	지방관 1명, 향리 2명, 군관 7명	10분
5막	성곽 시찰	지방관 1명, 향리 2명, 군관 7명	20분
전체		총 10명	60분

2. 행정 중심형 : 향촌사회의 규율과 질서, 공동체의 유지 복원이 중심

1) 학생대상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 속 과거 의정기관이었던 동헌, 선화당, 향청, 작청 등에서 현재 경기도의회 등 의정기관에서의 활용프로그램인 정치문화현장 체험을 관아에 적용할 수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문화현장 체험으로, 과거 전통적 정치현장 체험과 현대 정치현장 체험의 두 분류로 나누어 체험한다.

관아에는 지방관, 사족, 향리 등 다양한 계층과 의론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 여론과 중앙정부와의 역학관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관아만이 갖고 있다. 또한 관아는 의정기능을 가진 곳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관아에서도 할 수 있다. 관아의 의정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는 모든 과정을 현대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세부 계획안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체험자는 전통 복식을 갖추고 동헌 등 의정기관의 건물내, 혹은 건물앞 마당에서 지방관, 육방 향리, 사족, 일반 백성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참여하고,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펼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활한 토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할 시간을 제공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지방관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가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

<표 3-9> 관아 전통 정치문화현장 체험 내용

단계	내용 (전통 정치문화현장 체험 : 학생)	필요 예상인원 지방관 1명(진행자), 육방 향리팀 6명, 사족팀 6명, 백성팀 6명(학생)	예상 소요 시간
1막	현안 제시 및 자료 제공(진행자) 및 그룹내 자유토론(학생)	모두(그룹별)	20분
2막	그룹별 발표	그룹내 대표자	20분
3막	의정 토론 체험	모두	20분
4막	마무리 및 평가, 대안 제시	지방관 및 그룹내 대표자	20분
전체		총 19명 예상	80분

현대 의정문화 체험

의식 순서를 현대 의회에 기준하며, 체험 방식 등은 전통 정치문화현장 체험과 동일하다. 의회별 그룹은 가상의 정당으로 만들어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존 정당을 활용할 수 있다.

2) 지역주민 소통의 장 / 관아 정기 간담회

▣ 주제 및 자원 특성

위와같이 관아를 학생의 의정기능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현안을 토론하는 공간으로도 삼을 수도 있다. 관아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관아 건물 중 의정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활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가능하면 지역국회의원, 시장, 군수와의 대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관아는 과거의 지역중심지였듯이, 현재에도 지역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 회의 및 간담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관아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면 과거의 의정기능을 살리는 한편, 빈 공간의 활용으로 별도 지역회관을 유지,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하여 관리자는 훼손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사용자 또한 사용 목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세부 계획안

관아 건물에서 마을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이때 문화재 훼손에 방지에 대한 당부를 전해야 한다. 또한 관아 건물이 과거 의정활동을 한 곳이었음을 '소통의 장' 첫 실시 때마다 단체별로 전달하여야 한다. 활용공간은 한정하며, CCTV 설치 등 안전방안을 마련한다. 홍보는 지역 이장, 아파트 부녀회장, 지역 단체장 및 실무자 등에게 알리는 정도로 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단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아의 활발한 활용을 위하여 건물을 매번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프로그램은 이른바 '관아 마을회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신(新) 향촌규약회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 속에 있는 향청은 향약이라는 자치규약을 만들어 공익을 추구하는 자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향약의 이러한 취지를 살려, 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지역 아파트 부녀회 등 동네 단체를 초대하여 조상의 지혜가 담긴 향약을 배우고 향촌규약회를 개설하도록 도와 마을 사람들의 공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원주민이 계속 거주하였던 시골이 아니라면 귀농 귀촌인도 주변 마을 사람과 못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각박하다. 관아를 매개로 향약문화에 대해 배우고 향약회를 만든다면 지역주민간의 친목도모 향상 및 향약문화의 이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화목하게 지내고 있던 마을이라도 전통 향약문화를 접목함으로써 더욱 좋은 관계, 발전된 마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향약회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온 곳이 있어, 향약회 운영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3-8> 계남 향약 정기총회

<그림 3-9> 원동 향약회관 앞에서 제례를 준비 중인 모습

▣ 세부 계획안

단체 단위의 체험단을 모집하며, 향약이라는 과거 자치규약을 배워 현대 지역사회단체에 적용한다. 새로운 자치규약회의 창설이 가능하다. 필요시 자치규약 프로그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요청하여 과거의 향약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향약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하여 상시인력의 해설 및 간단한 자료비치 필요하다. 상시인력 및 자문위원은 이른바 서포터즈로서, 지역 전문집단으로 구성하며, 체험단체의 정기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조한다.

4) 육방 구실아치 체험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 속에 있는 작청은 중앙 조정에서 이조, 형조, 예조, 병조, 공조, 호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방, 형방, 예방, 병방, 공방, 호방의 육방을 담당하는 향리가 있다. 향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나, 현재 지역내 부정부패의 상징인 '이방'의 이미지가 강하다. 육방 구실아치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한편, 육방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여 조선시대 향리문화의 이해를 돕는다.

고택, 비석, 성곽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산은 모두 역사적 인물, 즉 엘리트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관아에서만큼은 육방 향리의 생활상을 얻어갈 수 있다. 조선시대 사회구조 및 향리의 생활을 관아(작청 등)을 통하여 체험하고, 과거 생활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 세부 계획안

육방 향리는 지방관과 백성의 중간자적 입장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육방 행정체험, 의복체험, 생활의례 등을 실시한다. 행정체험으로 과거 육방의 역할 등을 직접 생각하며 배우고, 생활의례 체험으로서 육방이 행하였던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다.

행정 체험

행정 체험은 육방(체험자)이 가상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유 발표하는 시간이다. 앞서 설명한 학생 정치클래스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정치클래스는 육방과 지방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 현안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체험은 육방 중 한가지의 업무로 축소한 것이다. 즉, 정치클래스 프로그램은 관아의 행정적 종합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며, 해당 행정 체험은 이방 등 개별 방의 주요 업무를 이해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활의례 체험

이 프로그램은 의례를 담당하였던 예방(禮房, 진행자)의 지도 아래 과거 육방이 행하였던 의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방관이 임용되어 고을로 도임하였을 때, 지방관을 맞이하는 의식을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다.

의복 체험

의복체험을 할 수 있는 의복은 관아의 안내소 및 관리소에 상시 비치하여 누구나가 입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옷고름 매는 법 등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안내소나 관리소 담당자의 지도 및 도움으로 의상을 입도록 하며, 옷을 입으며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의복체험은 관아 관람이 활성화되었을 때, 의복을 입으며 관람하는 사람, 또는 한복을 입으며 관람하는 사람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주거나 소정의 사은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궁의 경우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무료로 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풍광을 연출하기도 한다.

<표 3-10> 육방 구실아치 체험 내용

	내용	상세내용	필요 예상인원	예상 소요시간
행정 체험	육방 향리의 행정적 역할 체험(예:이방이 하는 일 = 향리의 수리首吏로서 인사 고과 관련 업무 등)	가상 상황 속에 육방(체험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룹을 정하여 자유로이 생각 발표. 가상 상황은 회차간 1~2주제. (예:이방의 업무배치 = 김개똥은 일은 잘하는데 게으르고 이소똥은 일은 못하는데 성실함. 며칠 뒤 관찰사의 점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이방의 선택은?)	지방관 1명(진행자) / 향리 24명(체험자)	60분
의복 체험	육방 향리가 입었던 옷 입기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복식을 갖추어 입고 기념촬영, 자유관람 등. 관람을 마쳤을 때에 반납함. 전통복장을 입는 법 등을 이해할 수 있음. 향리 복장 및 한복을 입은 사람은 입장료 무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음.	누구나	상시
생활 의례	육방의 생활의례	예방(진행자)의 지도 아래, 육방의 생활의례를 체험함. (예:지방관 도임到任 예식 등)	예방 1명(진행자) / 향리 24명(체험자)	60분

5) 목민관[1]의 청백리 정신을 배우기 위한 청렴교육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에는 각 지역별로 수많은 목민관이 거쳐갔는데, 목민관은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살신성인(殺身成仁), 여민동락(與民同樂) 등의 정신을 가져 선정을 베풀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청백리(淸白吏)로 이름난 사람이 많다. 지역별 인물의 이른바 '청백리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아에서는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받는 대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생, 주민 등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올바른 공익 추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과거 선조들의 청렴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 세부 계획안

청백리 정신 발굴

과거 관아에 있던 모든 관원들은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고뇌를 하였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항상 여민동락의 마음가짐을 하였다. 과거 선조들이 청백리 정신을 발휘한 일화 등을 정리하여, 청렴교육을 위하여 접목할 수 있는 교수법, 연수 자료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1. 여민동락의 정신을 가진 모든 관아의 관원을 포함하나, 편의상 목민관으로만 지칭함.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거 청백리의 고뇌와 정신은 현대인에게도 당연 귀감이 된다. 또한 공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 청렴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청렴교육의 대상을 회사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무원 등의 단체가 연수받을 수 있다. 청렴교육은 특히 지역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의 참여가 적합하다. 향후 지역 숙박시설과 연계되거나 관아 내부 숙박시설이 마련될 시에, 관아를 장기연수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관아의 청백리 정신은 지역별로 특색이 다르므로 인근 지역 단체의 방문 또한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적 공공추구를 결합하여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6) 주민등록증 최초발급자 대상 : 전통 호패 발급 체험

▣ 주제 및 자원 특성

오늘날,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한국국적취득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주민등록증이 신규 발급된다. 주민등록증은 증명서류의 기능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기능을 한다. 옛날에는 호패를 발급하여 국민임을 증명하였는데, 이러한 공통점 덕분에 주민등록증 발급 의식을 옛 전통과 접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줌과 동시에 과거 호패를 받는 의식을 직접 체험하고 전통호패를 선물로 받음으로써 과거 전통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학생에게는 특별한 '성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 세부 계획안

전통호패 의식 관련 콘텐츠 조사 등

과거 호패를 발급받으며 행하였던 의식, 전통호패와 주민등록증 발급 의식의 접목 방법, 호패와 주민등록증의 현장 발급 방법(특히 호패),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에게 기념으로 나누어줄 호패의 디자인 개발은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호패를 받는 사람들이 호패를 집에 보관하는 것을 넘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호패모양의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으로 디자인하여 제2의 주민등록증으로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호패 및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전통 호패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실제 실무자가 발급기 등 장비를 갖추어 제작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서는 학교 교사와 전통문화 전문가의 지도 아래 호패 발급 의식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특성상,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며, 호패 발급 의식을 지역민에 공개하여 볼거리로 삼을 수 있다. 장소는 지역 관아에서 하는 방법과 학교 출장의 방법이 있다. 한국국적취득자는 관련 기관 등의 협조로 진행할 수 있다.

<사진 3-10> 김희 호패©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11> 한국민속촌 '웰컴 투 조선' 호패 체험

3. 문화중심형 : 지역문화의 산실

1) 무형문화의 발굴과 재해석 - 기록문화, 교방문화, 고을민속

잊혀진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된 지역특유의 대표적 무형문화, 즉 교방문화, 마을신앙문화, 기록문화를 재해석한다. 교방문화와 마을신앙문화는 공연(재현), 음식문화와 기록문화는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발전하여 사람들에게 향유되도록 한다.

① 기록문화

▣ 주제 및 자원 특성

책실 등에 모아졌던 관찬자료와 문학자료 속 이야기를 발굴, 재현한다.

▣ 세부 계획안

기록문화 콘텐츠 발굴

관아는 지역 기록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지방관의 인수인계서인 해유문서를 비롯하여 지역 행정자료가 집적되며, 한편으로는 관아 및 지역을 방문하는 유명한 선비들이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관아에 남겨진 기록은 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부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아의 과거 자료 공간과 현대적 인문학 서적 등이 공존하고 있는 종합 자료실을 관아 속에 복원 및 재구성하여 사람들이 관아를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아 작은 도서관 마련

이 때 관아 자료공간은 현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책실 등의 터가 확인되었을 경우 그 자리를 복원 및 재정비하며, 작은 도서관의 형태를 띈다.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추진 상황과 함께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작은 도서관 마련을 위하여 테스트 성격으로 시범 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관아 건물 중 빈 공간이나 야외 활용공간에 관아 관련 도서 및 인기도서를 비치하여 활성화 현황을 분석한다.

② 고을민속

▣ 주제 및 자원 특성

고을별로 있었던 삼단일묘의 지역 제례 등을 발굴, 재현. 민간신앙은 미신이 아닌, 고을과 개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지역 무형문화이다. 민속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하여 문화 콘텐츠를 발굴, 보존자 탐색으로 활용 기반을 다지고, 전문 민속문화 보존회를 추진한다. 보존회는 향후 지역문화의 홍보 및 보존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세부 계획안

고을민속문화 콘텐츠 발굴 및 고을민속보존회 추진

지역 민속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우선 발굴되어야 할 부분으로 문헌자료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고을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삼단일묘의 제례 의식의 경우 옛 문화로서 주로 노인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례의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채록하거나 영상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12> 성황단 제사 재현

고을 민속의식의 추진 및 재현

고을 민속의식은 실제 남아있는 유적이나 터에서 재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도 재현 가능하다. 삼단일묘 중, 특히 삼단(사직단, 여단, 성황단)에 포함하는 민속문화는 다른 제례의식과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기원하였던 문화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공간에서나 재현하기가 용이하다. 고을민속문화 콘텐츠의 수집 이후, 이 무형문화를 재현할 전문 보존회를 추진하여 각지에 민속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 보존회인 해당 단체의 추진, 운영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다. 보존회는 전문 재현 공연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전국을 무대로 순회 재현할 수 있다.

③ 교방문화

▣ 주제 및 자원 특성

기생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고, 여성예술의 상징인 기생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한다. 기생은 가무악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식이 높아 문학적 소양이 있는 여성 예술가 집단이다. 교방을 통하여 고을의 여성문화를 알릴 수 있고, 고품격의 취미 활동으로서 체험이 가능하다. 향후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공연 프로그램로 개발이 가능하다.

▣ 세부 계획안

교방문화 콘텐츠 발굴 및 재현

교방의 전통 가무악은 전승되어야 할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예술적 취미가 될 수 있다. 정현석의 교방가요 등 교방문화에 대하여 자료가 남아있어 고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방가요≫에는 참여 인원, 도구, 가사(歌詞)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자료 또한 상세히 남아있다. 이를 위하여 자료 발굴이 필요하며, 콘텐츠 발굴팀은 교방 관련 무형문화재(진주교방 굿거리춤, 예기무 등) 보유자의 자문을 받아 교방 가무악의 구성과 소품 등을 옛 모습으로 재현한다. 향후 교방문화를 체험할 사람을 모집하여, 교방문화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여가문화로서 발전시키는 한편, 대중화하여 향후 교방문화 공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육화대(六花隊)

연화대(蓮花臺)

헌반도(獻蟠桃)

고무(鼓舞)

인무(刃舞)

선악(船樂)

항장무(項莊舞)

의암별제가무(義巖別祭歌舞)

<그림 3-13> 진주 교방 가무

교방문화 체험자 모집

교방문화가 발굴, 재현되었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댄스스포츠를 즐기듯이 지역 전통 춤과 음악을 전문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관아 앞 공터나 복원된 교방 건물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수시로 받고, 개인레슨 및 정기레슨을 실시할 수 있다. 체험자의 교육 과정 등은 모두 댄스스포츠 학원 등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해당 활용 프로그램은 이른바 '관아 전통 댄스스포츠 학원 + 노래 학원 + 악기 학원'이라 할 수 있다.

2) 관아의 대표적 역사인물, 목민관 고찰

▣ 주제 및 자원 특성

목민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 고을을 풍요롭게 다스리겠다는 마음가짐(수령칠사)을 간직하며 지역에 내려온 사람이다. 목민관은 고을을 통치하며 수많은 고뇌 속에 선정을 베풀 수 있었다. 이에 체험자는 목민관이 고민하였던 인간적 내면성을 인물 감정이입으로 경험하여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목민관은 지역사회의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어, 향

후 지역문화의 대표유산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목민관을 활용한 지역문화의 대표유산화 방안 마련 중 하나로서 '목민관길' 조성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관아 활용의 중장기화를 위하여 공간영역을 관아 주변영역까지 넓이기 위한 수단이며,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도 미관 향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목민관길에서 목민관의 내면성 감정이입 체험을 할 수 있다.

목민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당대 엘리트이며, 역사적, 지역적으로 영향을 크게 남긴 인물들이다. 따라서 목민관의 역사적 영향력 등 외면적 모습을 살피는 체험과 강연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의 인간적 내면성을 분석하고 체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목민관의 내면성을 생각해보는 고품격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 세부 계획안

인물 콘텐츠 조사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콘텐츠의 발굴은 필수이다. 목민관의 행동에 대한 정황 자료를 분석하여 심리적인 요인 등을 정리할 수 있다면 향후 목민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

인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역사인물에 대해 안내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이 사람이 이 당시 이렇게 해야만 했던 행동" 등을 일반인들이 감정이입하여 자유롭게 상상하고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만 전문가는 역사적 사실과 관계된 특정 사료를 제공하여 일반인의 상상을 인과관계에 맞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상력과 논리력을 더하여 자유로이 생각을 발표하는 고품격 프로그램이다. 내아 및 인물과 관련한 관아 건물에서 시행한다.

<그림 3-14>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역사 주제와 자료를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펼치는 '역사저널 그날'(KBS1)

이 프로그램은 KBS 1TV에서 방영되는 '역사저널 그날'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시인, 개그맨, 역사 교사, 역사학자 2인(주제별 전공자 1인, 전문 패널 1인), 사회자라는 총 6명의 토론자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관련 자료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해당 역사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역사학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시인이나 개그맨의 기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특정 역사

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목민관의 행동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관아 인근 목민관길 조성

관아 그 자체만으로는 공간적으로 협소하여,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관아가 그 진정성을 최대한 표출하기 위해서는 관아의 연계 공간영역이 점차 넓어져야만 한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며 한국 최대의 전통관광단지가 되었듯이, 공간영역의 확대는 곧 콘텐츠의 확대이기도 하다. 관아 정문(외삼문 등)으로 통하는 길을 관아와 어울리는 경관으로 재정비하고 인물의 스토리텔링 보드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목민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다. 또한 담장 및 도로를 관아와의 동질감이 엿보이는 디자인으로 재정비하여 미관을 향상시킨다.[6]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으로 체험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림 3-15> 괴산 연풍현감 김홍도 토담길

<그림 3-16> 괴산 연풍현감 김홍도 토담길 준공식

4. 경제 중심형 : 지역 경제활동 공간

1) 전통 장터의 재현 및 시장 경관 정비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의 문루, 또는 읍성 밖 문루에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항상 사람들이 붐볐다. 이에 장터가 형성되었고, 문루 주변 장시는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관아에서 관리되어왔다. 전통장터는 전주 풍남문 앞에 있는 시장(現 남부시장) 등과 같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6. 경관 정비에 관하여, 지자체별 전통문화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검토 및 제정 필요. 이하 관련내용 동일.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의 대두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대형마트를 의무 휴업시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향후 경쟁력이 약화된 지역 전통시장은 앞으로 만나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통장터 체험공간 및 인근 지역 특산물 판매처 등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 조성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도를 높여 대형마트 등 주변 상권보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지역 전통시장 특유의 문화적요소를 발현할 수 있다. 전통 장터의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수원 거북시장과 전주 남부시장(남문시장)을 들 수 있는데, 남부시장은 시장 구간별로 경관을 정비하는 한편, 청년몰이라는 테마 시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년몰은 지역 젊은 예술인이 참여한 시장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과거의 모습(한국 경제발전 시대)을 재현하여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되었다. 수원 거북시장(느림보타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관디자인 정비 등으로 활력있는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7] 남부시장, 거북시장과 같이 현대적 시각으로 접근하되, 시장과 관아의 경관을 고려하여 전통 양식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근대적 양식으로 재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일본의 관광교류물산전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데, 일본의 사례처럼 인근 지역이 연합한 장터가 정착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큰 규모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지역중심지인 관아에서 전통 장터의 재현 조성으로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상업 진흥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 고을의 지역경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상권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외부지역 참여를 외부 홍보만으로 제한 또는 판매 일부 수용하여 인근도시의 시장 참여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상생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관아와 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읍성문이나 외삼문 문루가 존재하면 지방관이 문루에 올라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 순시하는 재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3-17> 전주 남부시장 입구

7. 수원 거북시장(느림보타운)의 사례는 앞서 제시한 바 있음.(생태교통 수원 2013)

<그림 3-18> 전주 남부시장의 과거 모습 ©김종영

<그림 3-19> 현대적인 감각으로 옛 모습이 재현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 세부 계획안

전통시장 재현 및 확대의 타당성 검토

장터의 재현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서 실제 상업공간의 마련이기 때문에 경관적 디자인의 타당성 등을 넘어서서 시장성 등을 종합 조사하여야 한다.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와 경제분석 관련 전문가가 함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전통문화의 재현 면에서도 경제적 이득 면에서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 및 지역인근 참여 정기 장터 개설

조성된 다목적 활용구간에 장터를 월별로 개설하여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낸다. 전통 장터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한편, 인근 지역 특산물의 소개로 지역홍보 및 시장활성화, 관광활성화 및 지역 홍보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목적 활용구간에서 실시될 정기 장터에서만큼은 옛날 돈이나 엽전으로 환전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 전통적 거래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관의 성내 순시 재현

조선 후기 상품경제가 발달하며 장시를 여는 공간은 늘어났고 이에 관아에서도 지역경제상황을 항상 주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관의 지역경제 시찰 모습을 재해석하고 재현한다. 관아에서 출발하여 읍성이나 외삼문의 문루에서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시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고 관아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 구성한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제 인력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참여할 수도 있다. 평시에는 재현을 담당하는 사람이 진행한다.

전통장터 체험 활용구간 및 인프라 조성

'전통 장터의 재현' 프로그램의 의의는 관아 및 읍성과 어울리는 경관을 가져 문화유산의 영역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지역상권의 활성화 추진함에 있다. 시장 도로부터 간판, 벽체(외관), 시설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 및 수선하여 쾌적한 상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유산의 관광영역을 확대시킨다. 타당성 조사 후 추가적 인프라 조성이 가능할 때에 시장 내 다목적 활용공간을 마련하여 향후 체험프로그램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 3-11> 지방관리 성내 순시 재현 프로그램 내용

단계	내용 (지방관의 성내 순시 재현)	필요 예상인원 지방관 1명, 수행인원 9명	예상 소요 시간
1막	지역 점검 계획 수립 후 이동 (관아 동헌에서 문루까지)	모두	10분
2막	문루에서 시찰 재현	모두	5분
3막	시장 순시	모두	25분
4막	관아 동헌 이동	모두	10분
전체		총 10명 예상	50분

2) 특산물과 진상품 활용 : 진상품 봉진과 지역 음식문화의 재발견

▣ 주제 및 자원 특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특산물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손꼽히는 진상품(貢進), 또한 지역 최고의 식재료로 관청(官廳) 등에서 만든 "목민관의 밥상" 등을 옛 기록과 지역 특산물을 통해 재해석한다. 각읍지, 지리지 등에 기록되어있는 특산물과 현재의 지역특산물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며, 음식문화를 통하여 지역홍보가 가능하다.

▣ 세부 계획안

음식문화 콘텐츠 발굴 및 목민관의 밥상 개발

흔히들 임금의 수라상이라 일컫는 맛있는 음식의 향연은 지방에도 있었다. 지방 관청의 음식은 현지 생산 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만든다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각 읍지 등의 기록에서 특산물과 관청음식에 대한 자료를 찾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전통 식사문화를 구현, 재해석하는 '목민관의 밥상'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맛의 조화를 위하여 전통요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관청 음식진상 추진

추후 개발된 관청음식은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특산 음식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지역특산품의 홍보수단이자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하여 레시피를 무료 제공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협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진상품 봉진 체험

<탐라순력도>의 감귤봉진 장면에서도 나타나듯이, 서울에 당도하여 임금의 수라상 등에 차려지는 진상품 봉진은 당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문화적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요소이다. 체험자는 직접 진상품을 수확 또는 봉진 운반하여 관아에까지 준비하는 상황을 직접 활동할 수 있다. 관아의 봉진 기능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봉진의식이라는 진상품 준비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 해당 체험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산품이 진열되어 있는 관아 주변 시장이나 생산자 등과의 연계 협의 방안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상품 관련 체험은 시범 운영으로 우선 4곳만 시행하며, 연계 협의 방안 모델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때 전국적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진상품 봉진에 대한 대대적인 재현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봉진행사는 관찰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봉진행사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 난립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탐라순력도> 등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20> 제주목관아 망경루 앞에서 감귤 봉진하는 장면
©탐라순력도

<그림 3-21> 제주목관아에서 제주마 봉진하는 장면
©탐라순력도

<그림 3-22> 강 원도 진상품내역©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23> 경상도 1895년 2월 진상품 내역©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24> 공마봉진 재현©제주시민복지타운*

※ 참조: 이슈제주, 2010년 10월 11일, '최초재연 공마봉진(貢馬封進)'

5. 교통 및 경관 중심형 : 교통의 중심지이거나 경관복원 활용이 가능한 곳

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객사 숙박 체험

▣ 주제 및 자원 특성

객사는 이름 그대로 객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다. 외국 사신이나 중앙 파견 관원을 접대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취지에 맞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객사에서 숙박 체험을 하며, 객사 근무자는 일본의 료칸처럼 전통 복장을 하며 전통 방식으로 안내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전통 숙박시설인 료칸의 특징은, 료칸에서는 전통 음식과 함께 전통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자는 전통 복장을 입으며 전통의 예식처럼 접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객사 또한 이러한 점이 가능한데, 객사는 지방 관아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일본 료칸과는 격이 다르다. 또한 료칸처럼 지역특색을 내포할 수 있는 공간, 음식 등을 모두 재현할 수 있다. 객사를 지역내 대표 전통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며, 객사를 전통숙박 브랜드로 재창소할 수 있다.

▣ 세부 계획안

현재 나주목사내아 금학헌이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객사의 숙박체험은 금학헌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의 안전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객사 숙박체험은 이용객 모객을 해야 하는 특성상 객사 내부 재구성 및 복원에 따른 사업 성과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전통객사문화의 재현이니만큼 객사 운영위원의 전통방식 접대 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인원은 운영인력 2인, 관리인력 2인으로 4인을 기본으로 하며, 규모 등에 따라 필요시 충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숙박 체험의 활성화시 숙소로서의 객사의 자체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다.

2) 지역의 유명 자연풍경정원 복원 - 지역민의 휴식처 마련

▣ 주제 및 자원 특성

밀양 영남루와 같은 지역누정은 지역내 최고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며, 옛날 이름있는 선비들이 많이 방문하여 만남을 가지며 시문을 남긴 곳이다.
지역누정은 그만큼 이야기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역누정이 있는 자연풍경정원을 복원하여 지역민의 휴식처를 마련하고, 옛 선비들의 풍류문화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 자연풍경정원은 과거 천연의 관광자원이었으며, 오늘날 남아있는 자연풍경정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광이 뛰어나다. 즉, 지역누정은 지역풍광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향후 지역관광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지역 유명 누정 등 유명 자연풍경정원은 기록자료와 더불어 그림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의 경우, 겸재 정선의 그림 등이 나와있어 현재 복원 계획이 용이하게 수립되었다. 콘텐츠가 발굴되어 누정관련 인물과의 산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지역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트래킹코스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5> 정선, 압구정
©독일 성 오리티리엔 수도원

<그림 3-26> 정선의 그림 등으로 복원 계획이 수립된 압구정

▣ 세부 계획안

풍광이 좋은 지역누정 터에 누정을 복원하고, 지역민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 누정 활용 프로그램은 지역의 풍광, 지역 풍광을 노래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마치 해당 인물과 함께 산책하는 것만 같은 이야기 코스를 구성한다. 누정과 관련한 콘텐츠로 고을별 각 읍지나 지리지 등에 제영(題詠)부분에 자료가 많아, 활용 가능하다. 향후 누정과 역원, 관아를 잇는 사색로, 이른바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역의 유명한 자연풍경정원과 관계된 인물과의 산책 프로그램으로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활용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누정을 완벽 복원하여 지역 대표 명승(名勝)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

6. 팔도감영의 지역통합 추진행사

1) 전국 팔도 감영 지역통합축제

▣ 주제 및 자원 특성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8도는 지역고을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지역문화를 통틀어 아우르는 내용을 도내 통합 축제로 발산할 수 있다. 현재 원주에서 실시하는 강원감영문화제는 대표적인 지역통합축제로, 강원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벤치마킹 할 필요 있다. 도내 축제를 전통적 지역통합공간인 감영에서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의미있다.

<그림 3-27> 2012 강원감영문화제 순력행사 강원도 모든 시군의 깃발

<그림 3-28> 2012 강원감영문화제 관찰사 순력행차
_ 관찰사 후손행차

<그림 3-29> 2012 강원감영문화제 동악제

▣ 세부 계획안

본고의 사례에서 제시하였던 한국민속촌의 캐릭터열전, 중국의 미니연극, 일본의 관광교류물산전과 같은 지역 통합 특산물판매를 포함하여 관찰사 행차 재현 등 감영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하며, 각 지역관아에서 추진하는 행사 또한 감영에서 할 수 있다. 즉, 감영은 개별 관아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종합 선물세트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감영고을 내 초시(初試) 재현

▣ 주제 및 자원 특성

현재 안동 도산서원에 별시(別試) 재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업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는 실제 유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초시 프로그램은 문턱을 낮추어 진행할 필요 있다.

<그림 3-30> 도산서원 별시 재현[1]

1. 안동넷, 2013-05-02, “도산별과(陶山別科) 재현 기념행사”

▣ 세부 계획안

초시 프로그램 학생 대상 운영 : 학생을 대상으로 초시를 치를 수는 있으나, 시험의 내용까지 전통적인 내용으로 재현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과와 무과로 크게 나누어 학생들이 그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학교 대표로 문무과 두 팀을 선정하여 무과 시험(운동 경기), 문과 시험(상식 시험) 등을 실시한다. 이때 무과 운동경기의 경우, 전통적 체육 활동에 입각한 놀이(투호놀이) 등을 개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초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진 3-31> 도산별과(陶山別科) 시험준비

<사진 3-32> 도산별과(陶山別科) 재현행사

<그림 3-33> 도산별시 갑과 1,2,3등 교지 수여

7. 관아의 공통추진사항

1) 지역별 위계 마크 부착 및 관아 판화투어 개발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 건물 앞에 간단한 표식과, 이를 설명하는 관광팜플렛 등 간단한 자료를 통하여 조선시대 지방통치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관아의 위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지방관의 낙인이나 수결(사인), 깃발 등의 콘텐츠를 찾아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관람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주요 영주 가문의 문장을 천수각의 심볼마크로 사용하여 성마다 연관되어 있음을 표시하였다. 예를들어 고치 성(高知城)과 가케가와성(掛川城)은 서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두 성 모두 야마우치 카즈토요(山內一豊)라는 성주가 통치하였다. 그가 통치한 성에 야마우치 가문 문장을 새겨두어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고치성과 가케가와성이 야마우치 가문의 통치가 주로 이어졌음을 간단하게 알게 해준다.

이처럼 간단한 표식만으로 관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학습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관아의 상징으로 관아간, 지역간 연계성 등이 잘 드러나게 된다.

<그림 3-34> 고치 성의 주요 성주 야마우치 가문 문장

<그림 3-35> 가케가와 성의 주요 성주 야마우치 가문 문장

▣ 세부 계획안

지역, 위계별 관아 마크 개발 및 게시(안내판, 깃발 등)

관아에 적용할 심볼마크를 찾기 위하여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상이 될만한 자료로는 지방관의 관인(官印), 깃발, 수결, 당호 현판의 서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관인은 직책 등급별로 엄격한 규격을 두어 제작된 것으로, 관아 마크 활용에 매우 적합하다. 관인과 같이 모든 지역이 통합하여 쓸 수 있는 테마로 개발하여 지역, 위계별 그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된 마크를 활용하여 관아 곳곳에 안내판 형식으로 부착하고, 마크의 옆에는 항상 QR코드를 부착하여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건물별로 부착된 마크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건물의 현판과 기문 해석문 등 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36> 지방관의 관인 (부안현인 / 안동부사지인 / 전라도관찰사인)

전국 관아 판화 개발

개발된 관아 마크의 간단한 표식과 판화투어를 위한 팜플렛을 상시 비치하여 관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인다. 팜플렛에 들어갈 스탬프투어 장소는 도별, 지역별로 묶으며, 해당 관아 및 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담는다.

<그림 3-37> 2015 중일본 천수각 스탬프랠리(21개 성 참여)

2) 관아 정기 세미나 운영

▣ 주제 및 자원 특성

관아 활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례 회의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관아가 온전히 남아있는 지역은 활용 계획의 구상에 적극적이어서 이러한 곳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정례 회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의 보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세부 계획안

회의 진행에 따른 제반 보조비용(자문위원 초청, 회의 준비 등)을 문화재청에서 관리 및 지원한다.

3) 스마트폰 앱의 활용 : 관아 속 보물찾기

▣ 주제 및 자원 특성

앞서 설명한 스마트폰의 앱인 지오캐싱, 트랭글 앱과 같이 관아 찾기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현존 관아 및 관아터에 해당 장소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숨겨두고, 사용자는 앱을 통하여 힌트를 얻어가며 보물찾기 하듯이 찾을 수 있다.

앱 사용자는 보물찾기라는 재미 요소와 함께, 관아에 대한 이해라는 유익성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및 참여 가능하다.

▣ 세부 계획안

지오캐싱 앱은 세상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앱이며, 트랭글 앱은 운동기록이 저장되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기록을 공유하며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앱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앱은 트랭글, 지오캐싱 앱과 같은 기능을 한다. 관아 건물이나 관아 터에 해당 장소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물상자 속에 숨겨두고 찾게 한다. 보물상자에는 방명록도 함께 비치되어 있어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관아 앱에 사용자의 활동이 자동 기억되며, 특정 요건 달성 시(관아 보물 20개 발견 등)에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4) 관아 관직 게임 개발 : 승경도놀이의 재해석

▣ 주제 및 자원 특성

승경도놀이는 관직에 대하여 게임으로 접근하여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보드 게임이다. 승경도놀이의 형식을 재해석하여 관아의 관직 위계 등에 따른 놀이로 재개발하여 관아의 관직체계 등 구조를 쉽게 익히도록 한다.

보드게임 형식을 차용하면 관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다. 보드게임이 개발 되면, 각 관아별로 비치가 가능하며 제작비가 저렴하다. 오늘날에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승경도놀이를 재해석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관아판'으로 변형하여 각 관아에서 누구나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배포 가능하다.

<그림 3-38>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승경도 놀이

▣ 세부 계획안

보드게임은 주사위 등을 던져 말을 이동하는 놀이로 게임의 난이도가 쉬워 누구나 플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게임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도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아 속 빈 공간마다 비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게임 플레이 방법을 적어두어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주사위는 도난의 방지를 위하여 크게 만들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든다.

게임은 관아의 위계에 따른 관직명으로 개발한다. 지방관 중 직급이 낮은 현감에서부터 유수, 관찰사 등을 넘어 한성부 판윤에 이르기까지 구성 가능하다.

<그림 3-3> 벽면에 게임 플레이 내용이 적혀 있어 쉽게 즐길 수 있는 '윷점 놀이'

Ⅳ. 관아문화재의 활용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 제안사업비의 근거기준

본고에서 제안 예상될 사업 성격에 따라 유사사례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할 것이다. 근거기준으로 참고할 사례 및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2> 제안사업비 근거기준

사업 성격	근거 / 기준점	계획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위한 콘텐츠 조사 등 연구 용역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등 / 연구용역 단가 / 3개월 용역	30백만원
한옥 건축(건물 복원 등)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14)」에서의 한옥신축가 준용	4.540천원/㎡
장터 등 공간 정비	(유사사례) 수원 느림보타운(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 및 경관협정사업 추진 사업비 느림보타운 면적 131,900㎡, 총사업비 12,592백만원	95,466원/㎡
도로 개설 등 정비	「익산고도보존계획」에서의 도로개설가 준용	135천원/m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사업운영 추진 등	(유사사례)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	총 70백만원 일반운영비 8,770천원
10명~20명 전문 재현 행사	(유사사례) 무예도보통지 무예24반 재현	700백만원
학교/군대 동원 대규모 행사	(유사사례) 수원시 정조대왕 행차중심의 정리의궤 재현	14,190백만원
도서관 운영 등	(유사사례) 강릉대도호부 관아 운영 인건비	18백만원
인건비	전문인력 및 총괄인력	일당 300천원
	보조인력 및 진행요원	일당 80천원
교육자료	상세내용의 교육자료	개당 5천원
	간이내용의 팜플렛	개당 1,500원
	교육자료 개발 등	20백만원
전통객사 숙박운영	(유사사례)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운영 등(2014)	152백만원
지역 통합 축제 운영	(유사사례) 강원감영문화제 2012 운영 등(2012)	301백만원
보존회, 위원회 등 단체 추진 보조	관아 프로그램 참여 관련 단체 추진 지원 등	20백만원

2.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유형별로 강점이 되는 관아에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 속의 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 활용모델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발굴 사업의 경우,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활용 자원 발굴조사라는 공통적 내용이므로 아래의 표에서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1) 군사중심형

<표 3-13>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군사중심형

항목	사업	내용
지방관의 행렬 재현	지방관의 행렬 재현	- <화성행행도> 등 행차 관련 자료를 기반하여 재현함. 경우에 따라 인근 관련 도시의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함. - 퍼레이드의 형식으로 시민 누구나가 참여 가능하며, 필요시 자원봉사단 등을 모집함. - 마필의 대여가 관건으로, 마필 참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의복 등 소품은 대여 형식을 취함.
임진왜란 전투상황 재현	임진왜란 전투상황 재현	- 관련 자료를 기반하여 재현함. - 공연의 형식으로 10~20명이상 규모의 전문 공연집단이 재현해야만 함. 향후 공연집단을 보다 전문화/직업화하여 무형문화를 보존, 전파할 필요 있음.
군비상황 점검과 성내 순시 재현	군비상황 점검과 성내 순시 재현	- 위와 동일

2) 행정중심형

<표 3-14>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행정중심형

항목	사업	내용
학생대상 관아 정치 문화현장 체험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 현대 의정문화 체험	- 전통적 정치문화현장과 현대 의정문화체험을 관아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의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회차 조정 가능.(본고에서는 종합 24회로 설정함)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진행요원이 요구됨 (진행자 1인, 보조요원 6인) - 전통의 경우, 육방 향리로 팀을 나누어 분임토론 형식을 취하며, 의제에 대한 안건을 자유로이 발표함. 현대 의정문화의 경우에도 의정 순서에 따라 진행함.
지역주민 소통의 장	지역주민 소통의 장	- 관아 건물에서 마을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 -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시인력이 항시 배치, 감독하여야 하며, 상시인력은 지역주민 회의를 준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상시인력은 프로그램의 관리 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재 모니터링 가능. 해당관할 문화재 돌봄사업단과 연계 가능.
신 향촌규약회	자치규약회 추진, 창설, 지원 프로그램 등	- 향약이라는 과거 자치규약을 배워 현대 지역사회단체에 적용. 새로운 자치규약 창설 가능. - 필요시 자치규약 프로그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요청하여 과거의 향약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함 - 향약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하여 상시인력의 해설 및 간단한 자료비치 필요. - 나머지는 위(지역주민 소통의 장)와 동일함
육방 구실아치 체험	행정체험, 생활의례 체험	-육방의 가상업무 처리, 육방의 생활의례를 전문강사의 안내에 따라 체험함. (전문강사 각 1인, 보조인력 각 2인) 약 24회 내외로 운영하며, 동일한 프로그램 구조 속에 주제만 달리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의복체험	- 의복체험을 진행하게 될 상시인력을 배치함. - 상시인력은 문화재의 훼손 예방 등을 위한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 있음. 관할 문화재 돌봄사업단과 연계 방안 마련 가능.
청렴교육	청렴교육	- 공무원, 기업, 지역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목민관의 청백리 정신 등을 관아에서 배울 수 있음. -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1박 2일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6명 내외의 다양한 강의자의 참여 가능. - 일방적 강의가 주를 이루게 되지 않기 위하여 쌍방향 소통형 체험과의 적절한 배분 필요.
전통호패 체험	전통호패 체험	- 프로그램 운영진은 학교 등을 돌며 주민등록 신규발급 시 전통호패발급 의식과 함께 시행 가능. 신분증을 취급하는 만큼, 보안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 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함. - 대규모 학생이 동시에 체험 가능. 다만 대규모로 진행 시, 장소를 관아가 아닌 학교 등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전통호패는 실용적 디자인에 기반하여 제작하며, 호패 의식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자료를 제공함.

3) 문화중심형

<표 3-15>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문화중심형

항목	사업	내용
기록문화	관아 작은 도서관 마련	- 1인의 상시근로자를 두어 관아를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 - 시범 사업으로 관아 출장도서관 마련 후, 활성화 가능성이 보이면 책실 등 건물 복원/활용 검토. -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으로 인력/도서 지원 등 통합 운영 필요. - 강릉관아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으로, 참조 가능.
고을민속	고을 민속의식 추진 및 재현	- 고을 내 민속의식은 적은 인원 및 소품으로도 재현 가능. - 보존단의 추진을 지원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함. - 보존회가 정기 의식 재현 및 공연할 수 있도록 감독 필요
교방문화	교방문화 재현 및 체험자 모집	- 교방문화 중 기, 무, 악의 각 전문가 1인씩 3인을 초청하여 참여자가 분야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연간 48주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 학원처럼 운영할 수 있음. - 체험자에게는 전통댄스스포츠, 전통음악교실 등의 느낌을 주어 새로운 여가활동을 접하게 할 수 있음.
목민관 고찰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	- 연간 32주(약 8개월)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참여 가능. -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쌍방향적 접근 방식 - 소규모 인원이 모집되어도 진행 가능.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 참여 인원이 많으면 분임토의 식으로 진행 가능.
	관아 인근 목민관길 조성	- 목민관길을 자유로이 산책하여 목민관의 생애 등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보드 등을 배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관아의 연계 공간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주변 경관이 정비되는 효과를 가짐.

4) 경제중심형

<표 3-16>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경제중심형

항목	사업	내용
전통 장터의 재현 및 시장 경관 정비	지역 및 지역 인근 참여 정기 장터 개설	- 월별로 약 50동의 전통시장 부스를 두어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지역특산물 홍보 창구로 활용함. - 전통 장터 행사시 옛날 돈이나 엽전으로 환전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 전통적 거래방법 체험 가능.
	지방관의 성내 순시 재현	- 정기 장터 개설일에 동시 진행되며, 퍼레이드의 성격상 전문 진행인력(총괄 1인, 보조요원 2인)의 지도 하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성내순시 행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상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복 등 소품을 대여형식으로 마련할 수 있음.
	전통장터 체험 활용구간 및 인프라 조성	-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전통양식으로 경관정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별한 테마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효과를 가짐. - 중심상권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그 주변부에는 건물입면 등 외관을 전통 테마에 맞게 정비함.
특산품과 진상품 활용	관청 음식 진상 추진	- 특산품을 활용하여 현대인에 입맛에 맞는 “목민관의 밥상” 등 한식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관아 관청을 활용하거나 관아주변 일반음식점에 판매/활성화 될 수 있도록 레시피를 공유함 - 최근 문화트렌드 중 가장 떠오르는 분야는 바로 “식문화”이며, 지역 식문화의 개발은 또다른 지역홍보의 수단이 될 수 있음.
	진상품 봉진 체험	- 퍼레이드의 성격상, 전문 진행인력(총괄 1인, 보조요원 10인)의 지도 하에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 대규모 행사로서 발전 가능. 참여를 원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재현 가능. - 더욱 생생한 진상품 봉진 재현을 위하여 특산품 생산자와의 협의 및 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봉진행사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명확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함.

5) 교통 및 경관 중신형형

<표 3-17>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교통 및 경관형

항목	사업	내용
객사 숙박 체험	전통객사 복원	- 현재 나주목사내아 금학헌이 관아 숙박시설로 운영중인데, 관광기회 확대, 수익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어 객사에 적용 가능.
	전통객사 운영	- 전통객사를 잠만 자는 시설이 아닌, 일본의 료칸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필요시 민간 위탁 가능.
지역누정과 주변 자연 경관 복원	관련인물과의 산책 프로그램 운영	- 관아와 누정에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산책을 하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듯이 대화함. -상시인력 1인이 배치되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받고 진행시킬 수 있음. 단 한사람이 참여하더라도 운영 가능. - 시간을 정하여 전문가의 전문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주1회)
	지역누정 복원	- 밀양 영남루와 같은 누정은 지역 중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현재도 지역 대표 경관요소임. -지역유명누정이 훼철된 곳에 다시 복원하여 지역민의 휴식처로 작용하는 한편, 지역 유명 관광지로 발돋움 가능.

6) 팔도 감영의 지역통합 추진 행사

<표 3-18>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감영 통합 행사

항목	사업	내용
지역통합축제 개최	지역통합 축제 개최	- 강원감영문화제와 같이 도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를 감영이 있는 곳에서 수행할 수 있음. - 강원감영문화제가 30년 이상을 이어온 전통이 있는 만큼, 사업에 참조 가능
감영고을 내 초시 재현	초시 프로그램 학생/일반인 등 운영	- 대규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함. (총괄 1인, 진행요원 4인, 보조요원 20인, 그 밖에 자원봉사자 모집 등) - 초시 재현을 위하여 시험도구 및 의복 등 세부 요소에도 신경써야 하며, 의복 및 소품의 경우 대여 형식을 취함. 시험도구 등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

7) 관아의 공통 추진사항

<표 3-19> 활용모델별 추진계획 - 공통 추진사항

항목	사업	내용
지역별 위계 마크 부착 등	지역별 위계 마크 개발 및 게시	- 지방관의 관인 등을 이용하여 특징적인 관아 마크를 개발,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관아의 개괄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마크 및 안내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하여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전국 관아 스탬프투어	- 스탬프투어를 유도하는 팜플렛(약 10,000개)을 전국에 비치하여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도장의 디자인은 각 관아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제작함.
스마트폰 앱의 활용	관아 앱 개발	-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함. - 향후 앱이 미사용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 업데이트 및 관리, 유지비 마련 등이 필요함.
관아 관직 게임 개발	관아 관직 게임 개발 및 비치	-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관아 내 비치하며, 이에 대한 설명문을 앞에 게시함. - 게임의 형식은 승경도놀이/보드게임의 형식을 취함.
관아활용 정기 세미나 지원	관아활용 정기 세미나 지원	-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속적인 관아 활용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안을 마련함. - 정기적인 모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청비용, 회의준비비용 등 마련 필요. - 분기별 정기 시행하며, 회의 결과는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공유함.

3. 활용모델별 예산

활용모델별 관아 프로그램 예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제안하는 콘텐츠 구축은 활용자원 발굴을 위한 용역 조사로서, 아래의 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1) 군사중심형

▣ 왕과 지방관의 행렬 재현

<표 3-20>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왕과 지방관의 행렬 재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전통행렬 콘텐츠 발굴	행렬도 등 행차 관련 자료 발굴, 의복 구성 등 조사	1식	30백만원 X 1곳	30	
2017년	전통행렬 재현 준비(사업 타당성 검토 포함)	국내외 행사준비 운영 등의 사례 조사, 홍보 방안 마련, 행사 물품 확보방안 등	1식	30백만원 X 1곳	30	여러지역 지역연계 방안 마련(예: 능행차/서울~안양~의왕~수원 등)
2018년	정기 대규모 재현행사 실시	정기 재현행사 실시, 학교/군대 등 참여자 협조방안 마련	1식(1회)	1회 X 행사추진비 14,190백만원 (화성 능행차 사업 개최 방안)	14,190	연중행사 추진가능, 타지역 확대 추진 가능
소계					14,250	

<표 3-21> 예산 세부내역 - 대규모 재현행사 실시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전통행렬 재현 2018년	대규모 재현행사 실시	대규모 재현행사 실시	14,190백만원	화성 능행차 사업 개최방안 참조

▣ 임진왜란 전투상황 재현

<표 3-22>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임진왜란 전투상황 재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전투상황 콘텐츠 발굴	징비록 등 관련 자료 발굴 등	1식 (조사 연구 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전투상황 재현 준비(사업 타당성 검토 포함) 및 시범운영	국내외 행사준비 운영 등의 사례 조사, 홍보 방안 마련, 행사 물품 확보방안 등	1식	700백만원 X 4곳	2,800	재현팀은 군비재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실시. 재현팀은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단체로 육성 필요.
2018년	정기적으로 재현행사 실시	정기 재현행사 실시, 연극단체 참여방안 마련	1식	700백만원 X 8곳	5,600	연중행사 추진가능, 활성화시 대규모인력을 동원한 전투 재현 가능
소계					8,520	

<표 3-23> 예산 세부내역 - 임진왜란 및 군비점검 등 재현행사 실시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임진왜란 및 군비점검 재현 2017~2018년	정기적으로 재현행사 실시	재현행사 실시	700백만원	수원 2014 무예도보통지 재현 참조. / 무형문화 전문 재현, 공연집단으로 육성 필요.

▣ 군비상황 점검과 성내 순시 재현

<표 3-24>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군비상황 점검과 성내 순시 재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군비재현 콘텐츠 발굴	해유문서 등 관련 자료 발굴 등	1식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군비 재현 준비 및 시범운영(사업 타당성 검토 포함)	정기 시범행사 실시, 보존회 등 참여방안 마련	1식	(임진왜란 재현 사업에 포함)		임진왜란 재현, 군비재현 통합 운영
2018년	정기적으로 재현행사 실시	정기 재현행사 실시	1식	(임진왜란 재현 사업에 포함)		임진왜란 재현, 군비재현 통합 운영. 소규모 인원이 주말마다 투입되어야 함
소계					120	

2) 행정중심형

▣ 학생대상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표 3-25>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학생대상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례 조사	전통/현대 정치문화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전통의정활동 등 콘텐츠 발굴, 국내외 의회 활용 프로그램 조사	1식(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전통 정치문화/현대 의정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체 선정, 시범 실시	운영 단체 공모(위탁), 활용 프로그램 시범 실시	1식(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52백만원 X 8곳	416	전통적 정치문화 / 현대적 정치문화 체험
2018년	정기 확대 실시	정기 확대 실시	1식(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52백만원 X 16곳	832	
소계					1,368	

<표 3-26> 예산 세부내역 -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학생 정치현장 체험 2017년 ~2018년	관아 정치문화현장 체험 (52백만원)	총괄인력 및 진행요원	총괄 1인 X 300천원 진행 보조요원 6인 X 80천원 X 24회 = 18,720천원	
		제작비	개발비 20,000천원 교육자료 5천원 X 1,000개 = 25,000천원	교육자료 개발 등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 지역주민 소통의 장 / 관아 정기 간담회

<표 3-27>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지역주민 소통의 장 / 관아 정기 간담회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운영 지원	시범 실시 : 참여단체 회의 준비 지원 등	1 식 (연 중 운영 지원)	20백만원 X 4곳	80	홍보는 지역 이장, 지역 단체장 및 실무진에게 활용가능함을 알리는 정도로 가능.
2017년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운영 지원, 정기 모임 추진	정기 실시: 참여단체 회의 준비 지원 등	1 식 (연 중 운영 지원)	20백만원 X 8곳	160	
2018년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운영 지원, 정기 모임 추진 확대	정기 확대 실시: 참여단체 회의 준비 지원 등	1 식 (연 중 운영 지원)	20백만원 X 16곳	320	
소계					560	

<표 3-28> 예산 세부내역 - 지역주민 소통의 장 / 관아 정기 간담회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지역주민 소통의 장 2017~2018년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운영 지원 (20백만원)	근로자 1인 상시근로 (문화재 상시관리 등)	인건비 연간 16,780천원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인건비 / 상근 근로자의 상시 문화재관리 및 운영지원
		참여단체 회의 준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 3,220천원	다과 등 간단한 회의준비 지원

▣ 신 향촌규약회

<표 3-29> 예산 세부내역 - 자치규약회 추진 및 창설 지원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전통 자치규약 콘텐츠 발굴	태인 고현동 향약 등 과거 공익추구의 지혜를 조사. 과거 사례를 현대화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콘텐츠 발굴.	1 식 (조 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XX마을식 향약방식 발굴 가능. (태인 고현동식 공익추구 등)
2017년	자치규약회 추진 서포터즈 구성 및 발족(프로그램 시범운영)	신 향촌규약회 창설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전문집단(서포터즈)의 구성 및 발족, 교육	1 식 (활 용 프 로 그 램 을 위한 개 발 연구용역)	20백만원 X 4곳	80	지역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단체 등 참여 모집
2018년	마을별 향촌규약회 창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정기 모임 추진	1 식 (활 용 프 로 그 램 운영)	20백만원 X 4곳	80	타 지역의 참여 가능
소계					280	

<표 3-40>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신 향촌규약회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향촌규약 2017~ 2018년	자치규약회 추진 및 창설 지원 (20백만원)	근로자 1인 상시근로 (문화재 상시관리 등)	인건비 연간 16,780천원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인건비 /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가능
		참여단체 회의 준비 지원, 자치규약회 자문위원 초청 등	일반운영비 10,000천원	다과 등 간단한 회의준비 지원, 프로그램 예약 진행시 자문위원 초청 가능

▣ 육방 구실아치 체험

<표 3-41>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육방 구실아치 체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육방의 생활사 등 조사	지역 육방의 복식 등 생활 관련 일체 조사	1식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육방의 생활체험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콘텐츠 발굴을 바탕으로 육방의 행정, 생활, 의복 등 관련 체험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운영	1식 (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70백만원 X 4곳	280	
2018년	육방의 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발굴을 바탕으로 육방의 행정, 생활, 의복 등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1식 (활용 프로그램 운영)	70백만원 X 4곳	280	향후 육방 관련 마당극 등 확대방안 마련
소계					680	

<표 3-42> 예산 세부내역 - 육방의 생활 체험 프로그램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향리체험 2017~ 2018년	육방의 생활 체험 프로그램 (70백만원)	행정체험, 생활의례 전문강사 및 보조인력	전문강사 300천원 X 2인 X 24회 / 보조인력 80천원 X 4인 X 24회 = 22,080천원	
		의복체험 진행 및 상시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연간 16,780천원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인건비
		제작비	개발비 20,000천원 교육자료 5천원 X 500개 = 22,500천원	교육자료 개발 등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 목민관의 청백리 정신을 배우기 위한 청렴교육

<표 3-43>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목민관의 청백리 정신을 배우기 위한 청렴교육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청백리 정신 발굴, 연수 자료 개발 등	청백리 정신을 펼친 인물들의 일화, 지역별 특색 등 조사, 활용 방안 마련	1식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청렴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청렴교육 체험 운영 등	1식 (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64백만원 X 4곳	256	신규공무원 연수 등에 활용 가능
2018년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렴교육 체험 운영 등	1식 (활용 프로그램 운영)	64백만원 X 4곳	256	향후 숙박시설 마련시 1박 2일 이상의 장기 연수 가능
소계					632	

<표 3-44> 예산 세부내역 - 청렴교육 프로그램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청렴교육 2016~2017년	청렴교육 프로그램 (64백만원)	회차별 전문강사	프로그램당 강의자 6인 X 300천원 X 12회 = 21,600천원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80천원 X 12회 X 4인 = 3,840천원	
		제작비	개발비 20,000천원 교육자료 5천원 X 2,000개 = 30,000천원	교육자료 개발 등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 주민등록증 최초발급자 대상 : 전통 호패 발급 체험

<표 3-45>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전통 호패 발급 체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전통호패 의식 관련 콘텐츠 조사, 호패 활용 디자인 개발	호패 발급 관례 등 조사 및 전통호패 디자인 사업 등	1식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전통호패를 현장에서 만들어 주는 방법, 전통호패의 실용성 추구(열쇠고리 활용) 등에 따른 디자인 필요
2017년	전통호패 및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시범실시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호패 제작 등	1식 (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76백만원 X 4곳	304	필요시, 학교 내 출장 발급 등 검토 고려
2018년	전통호패 및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호패 제작 등	1식 (활용 프로그램 운영)	76백만원 X 4곳	304	활성화시 전국 교내 등에 확대 가능
소계					728	

<표 3-46> 예산 세부내역 - 전통호패 발급 체험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전통호패체험 2017~2018년	전통호패 발급체험 (76백만원)	전문강사 및 진행요원	총괄 및 전문강사 1인 X 300천원 X 24회 진행요원 3인 X 80천원 X 24회 = 12,960천원	
		전통호패 발급	호패 200개 X 24회 X 8천원 = 38,400천원	
		팜플렛 자료 준비	1천원 X 5천장 = 5,000천원	부연설명을 위한 간단한 내용의 자료
홍보비, 진행비 등 일반운영비 20,000천원				

3) 문화중심형

▣ 기록문화

<표 3-47>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기록문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기록문화 콘텐츠 발굴	과거 행정자료(해유문서 등) 조사	1식(콘텐츠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8곳	240	
2017년	관아 작은 도서관 시범운영(야외 및 건물 임시 공간 활용)	출장 도서관 시범운영	1식	운영 18백만원 X 8곳	144	인근 도서관에서 도서 및 인력 지원.
2018년	관아 자료공간 복원 및 재구성, 운영 및 세부규칙 마련	관아의 자료공간이었던 책실 등을 복원 또는 공간을 재구성하여 지역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87.5㎡(강릉관아 작은도서관 기준 / 지역 내 책실 터 등이 있으면 해당 공간의 면적을 활용함.)	복원 397백만원 X 8곳 운영 18백만원 X 8곳	3,320	광특회계(문화체육관광부) 활용 향후 도서관 및 주변부지의 활용프로그램 추가 마련
소계					3,704	

<표 -48> 예산 세부내역 - 관아 작은도서관 운영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기록문화 2017~2018년	관아 작은도서관 운영 (18백만원)	근로자 1인 상시근로	인건비 연간 16,780천원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인건비
		월별 도서 관리 및 비치	일반운영비 1,220천원	연간 운영, 지자체 관할 도서관과 통합 운영 검토 필요(강릉관아 도서관 사례 참조.)

<표 3-49> 예산 세부내역 - 관아 자료공간 복원 및 재구성

항목	사업명	수량	사업비 산정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기록문화 2018년	관아 자료공간 복원 및 재구성 (397백만원)	건축면적 87.5㎡	4,540천원/㎡	397,250천원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규모 기준

▣ 고을민속

<표 3-50>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고을민속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고을민속문화 콘텐츠 발굴, 마을신앙 보존자 탐색	구전 전설, 지역 제례행사, 관련 자료 등 조사(사직단, 성황단, 여단)	1 식 (콘 텐츠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남원과 같이 사직단 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2017년	고을민속보존회 추진	고을민속 보존회의 추진 보조	1식	20백만원 X 4곳	80	
2018년	고을민속의식의 체험 재현	고을민속보존회 순회 체험 재현	1식	20백만원 X 4곳	80	
소 계					280	

<표 3-51> 예산 세부내역 - 고을민속보존회 추진 및 체험재현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고을민속 2017~2018년	고 을 민 속 보 존 회 추진 및 체험재현	보존위원회 추진 등 지원	민간경상보조 20백만원	

▣ 교방문화

<표 3-52>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교방문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교방문화 콘텐츠 발굴	교방가요 등 교방 관련자료 조사	1식	30백만원 X 2곳	60	무형문화재와 연계, 진주교방(굿거리춤), 전주교방(예기무)
2017년	교방문화 복원 재현	콘텐츠 전문가, 전통가무악 전문가 등의 합동 작업으로 전통 교방 기무악 재현	1식	70백만원 X 2곳	140	
2018년	교방문화 체험자 (전통가요, 춤, 악기) 모집	전통 여성예술인 교방 가무악을 대중에 전파, 체험	1식	70백만원 X 2곳	140	
소 계					340	

<표 3-53> 예산 세부내역 - 교방문화 복원 재현 및 체험자 모집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교방문화 2017~2018년	교방문화 복원 재현 및 체험자 모집 (70백만원)	전문인력-무형문화재 이수자급 이상 3인(기,무,악)	상반기 24주 X 300천원 X 3인 하반기 24주 X 300천원 X 3인 = 43,200천원	
		진행요원 2인	48주 X 80천원 X 1인 = 3,840천원	
		악기 등 소품 구입, 유지, 관리비, 예비비	14,190천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표 3-54>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관아의 대표적 역사인물, 목민관 고찰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인물 콘텐츠 조사 및 목민관 이야기 DB 구축	목민관의 문학기록 등 조사(총쇄록 등)	1식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 실시	내아, 관련건물 등에서 목민관을 주제로 자유논의	1식	68백만원 X 4곳	272	자유 토론 프로그램
2018년	관아 인근 목민관길 조성	스토리텔링보드 제작 10기 주변 도로 전통문화형 디자인으로 재포장 및 담장정비 지원	스토링텔링보드 설치, 내용 등 제작 / 도로재포장 / 담장 정비 지원	98백만원 X 4곳	392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과 공간적 연계 / 지자체별 전통문화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필요
	목민관 내면성 프로그램 실시	계속 진행	1식	68백만원 X 4곳	272	
소계					1,056	

<표 3-55> 예산 세부내역 - 관아 인근 목민관길 조성

항목	사업명	수량	사업비 산정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목민관 고찰 2018년	관아 인근 목민관길 조성 (98백만원)	구획 400m	도로재포장 135천원/m	54,000천원	홍산현 관아 동헌로 기준(400m)
			담장정비 35천원/m	14,000천원	
		스토리텔링보드 10개	3,000천원	30,000천원	

<표 3-56> 예산 세부내역 -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 운영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목민관 고찰 2017~2018년	목민관의 내면성 고찰 프로그램 운영 (68백만원)	전문인력-강사비 2인	연간 32주 X 300천원 X 2인 = 19,200천원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4인	연간 32주 X 80천원 X 4인 = 10,240천원	
		교육자료/팜플렛 개발 및 비치 등	개발비 20,000천원 교육자료 5천원 X 500개 팜플렛 1,500원 X 5,000개 30,000천원	목민관 관련 팜플렛 상시 비치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4) 경제중심형

▣ 전통 장터의 재현 및 시장 경관 정비

<표 3-57>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전통 장터의 재현 및 시장 경관 정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개발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전통장시 재현구간의 타당성 검토	전통장시 공간, 사업 운영 및 예상매출 등 타당성 검토	1식	30백만원 X 4곳	120	
	기존 전통시장의 공간 확대방안 마련	전통장시 확대공간, 사업 운영 및 예상 변화매출, 인근지역 참여 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	1식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지역 및 지역 인근 참여 정기 장터 개설	전통장터 주변 활용 구간에서 월간 장터 및 개설 (부스 설치)	1식	69백만원 X 4곳	276	월중 행사에서 5일장, 상설시장 등으로 확대 기대 (유사사례 : 일본 관광교류물산전)
	지방관의 시장 순시 재현	지방관의 시장 순시 재현 프로그램				지방관의 역할을 현재 기초단체장 등이 수행할 수 있음.
2018년	전통장터 체험활용구간 및 인프라 조성	타당성 검토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상업공간, 체험공간 등을 관아와 어울리는 경관으로 조성	도로 재정비, 간판 정비, 벽체 외관 보수 등, 다목적 활용 공간 조성	217백만원 X 4곳	868	(유사사례 : 수원 느림보 타운, 전주 남부시장 등)
	장터 프로그램 계속 운영	장터 프로그램 계속 운영	1식	69백만원 X 4곳	276	
소계					1,660	

<표 3-58> 예산 세부내역 - 정기 장터 개설 및 지방관의 시장 순시 재현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전통 장시 2017~2018년	정기 장터 개설 및 지방관의 시장 순시 재현 (69백만원)	장터 간이 부스	50동 X 800천원 = 40,000천원	
		재현인력	총괄 1인 X 300천원 보조요원 2인 X 80천원 X 12회(월1회) = 5,520천원	
		진행비 및 제작비	15,000천원	
		홍보비, 재현인력 모집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표 3-59> 예산 세부내역 - 전통장터 체험활용구간 및 인프라 조성

항목	사업명	수량	사업비 산정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전통장시 2018년	전통장터 체험활용구간 및 인프라 조성 (217백만원)	특화거리 조성 200m	135천원/m	27,000천원	
		건물입면 개선 등 2,000㎡	95,466원/㎡	190,932천원	수원 느림보타운 경관정비사업 참조.

▣ 특산물과 진상품 활용

<표 3-60>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특산물과 진상품 활용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특산품, 진상품 문화 콘텐츠 발굴	관청음식, 지역 특산물, 진상품 등 조사(각읍지 등)	1식	30백만원 X 4곳	120	
2017년	특산물/지역음식 활용 '목민관의 밥상' 개발	전통요리 전문가, 전통문화 콘텐츠 전문가 등의 합동 작업으로 관청음식의 재해석	1식	200백만원 X 4곳	800	
	진상품 봉진 체험 시범운영 및 지역생산자 연계방안 마련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지역생산자 등 연계 협의 방안 마련	1식	78백만원 X 4곳	312	지역농장 등 특산품 생산자, 지역시장과 연계 필요. 진상품이라는 지역 주요 산업이 결부되어 있는 특성상 역사의 고증 필요
2018년	관청 음식진상 (목민관의 밥상-관청 코스메뉴) 추진	관청 및 일반음식점에서 누구나 맛볼 수 있는 목민관의 밥상 판매 및 체험	1식	200백만원 X 4곳	800	일반음식점에 관청음식재현 협조 및 레시피 무상제공 등 추진 필요
	진상품 봉진 체험	체험 프로그램 정기운영	1식	78백만원 X 4곳	312	지역홍보를 위하여 재현행사 등 확대 실시방안, 연계협의 운영모델 마련 필요
소계					2,344	

<표 3-61> 예산 세부내역 - 특산물과 진상품 활용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특산물 활용 2017~ 2018년	진상품 봉진체험 (78백만원)	재현인력	총괄 1인 X 300천원 진행 보조요원 10인 X 80천원 X 4회(분기별 1회) = 4,400천원	
		제작비	15,000천원	소품 등
		유관단체 협의, 동원 등 업무추진	50,000천원	
		홍보비, 재현(체험) 인력 모집 등 일반 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 (2015) 운영비
	목민관의 밥상 개발 및 관청 코스 메뉴 추진 (200백만원)	목민관의 밥상 개발비	200,000천원	전주시 전주비빔밥 세계화사업단 등 참조.

▣ 주민등록증 최초발급자 대상 : 전통 호패 발급 체험

<표 3-62>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전통 호패 발급 체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전통호패 의식 관련 콘텐츠 조사, 호패 활용 디자인 개발	호패 발급 관례 등 조사 및 전통호패 디자인 사업 등	1식 (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전통호패를 현장에서 만들어 주는 방법, 전통호패의 실용성 추구(열쇠고리 활용) 등에 따른 디자인 필요
2017년	전통호패 및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시범실시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호패 제작 등	1식 (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76백만원 X 4곳	304	필요시, 학교 내 출장 발급 등 검토 고려
2018년	전통호패 및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주민등록증 발급 행사, 호패 제작 등	1식 (활용 프로그램 운영)	76백만원 X 4곳	304	활성화시 전국 교내 등에 확대 가능
소계					728	

<표 3-63> 예산 세부내역 - 전통호패 발급 체험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전통호패체험 2017~ 2018년	전통호패 발급체험 (76백만원)	전문강사 및 진행요원	총괄 및 전문강사 1인 X 300천원 X 24회 진행요원 3인 X 80천원 X 24회 = 12,960천원	
		전통호패 발급	호패 200개 X 24회 X 8천원 = 38,400천원	
		팜플렛 자료 준비	1천원 X 5천장 = 5,000천원	부연설명을 위한 간단한 내용의 자료
홍보비, 진행비 등 일반운영비 20,000천원				

5) 교통 및 경관형

▣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객사 숙박 체험

<표 3-64>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객사 숙박 체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1단계	객사 내부시설 복원 및 타당성 검토	사업 타당성 검토	1식(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X 1곳	30	
		객사 내부 복원 및 재구성	복원 및 재구성 793㎡(전라좌수영 객사 진남관 기준)	4,540천원/㎡ X 1곳	3,600	
2단계	전통객사 운영위원 모집 및 교육, 시범운영	전통객사 운영위원 및 교육, 홍보, 시범운영	1식	70백만원 X 1곳	70	활성화시 나주목사내아보다 전문적인 운영위원 편성 필요※
3단계	전통객사 홍보 및 숙박체험 실시	전통객사 홍보 및 숙박체험 실시	1식	70백만원 X 1곳	70	활성화시, 전통객사 확대 추진 및 역원의 복원과 연계 활용 추진 필요.
소계					3,770	

※ 현재 나주목사내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문화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육 및 정규직화, 사업 위탁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3-65> 예산 세부내역 - 객사 복원 및 재구성

항목	사업명	수량	사업비 산정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객사숙박체험 2016년	객사 복원 및 재구성 (3,600백만원)	건축 793㎡ (전라좌영 객사 진남관 면적 기준)	4,540천원/㎡	3,600,220천원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부지면적 1,175㎡ / 건축면적 280㎡)

<표 3-66> 예산 세부내역 - 전통객사 운영위원 모집 및 교육, 운영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객사숙박체험 2017~2018년	전통객사 운영위원 모집 및 교육, 운영 (152백만원)	전통객사 운영 등	152,320천원	나주목사내아 금학헌 2014 운영 참조.

▣ 지역유명누정 지역민의 휴식처 마련

<표3-67>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지역유명누정 지역민의 휴식처 마련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	지역누정 복원 활용공간 탐색, 지역누정 관련 자료 조사	지리지 등 관련 자료 조사	1식(조사연구용역)	30백만원 X 4곳	120	추정지가 사유지일 경우, 다음 사업을 위하여 관계자와의 개발 협의 필요.
2017	관련 인물과의 산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누정 활용 프로그램 운영	1식	69백만원 X 4곳	276	활성화시, 누정과 역원, 관아를 잇는 사색로(산책로) 개발 가능
2018	지역유명누정 복원 시공자 선정, 시공, 휴식처 마련	지역누정복원 시공, 휴식처 마련	100㎡	복원 4,540천원/㎡ X 4곳 운영 70백만원 X 4곳	1816	필요시, 주변 경관정비사업 병행 검토
	산책 프로그램 운영	계속운영	1식	69백만원 ×4곳	276	
소계					2,488	

<표 3-68> 예산 세부내역 - 지역 유명누정 복원 시공

항목	사업명	수량	사업비 산정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지역유명누정 3단계	지역유명누정복원 시공	100㎡	4,540천원/㎡	454백만원	

<표 3-69> 예산 세부내역 - 관련 인물과의 산책 프로그램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지역누정체험 2017~2018년	관련 인물과의 산책 프로그램 (69백만원)	지역누정 관리 및 수시해설 상시인력	인건비 연간 16,780천원	강릉관아 작은도서관 인건비 / 해설자 교육은 문화관광해설자 교육단체 등에 위탁 필요
		프로그램 정기해설 전문인력	300천원 X 1인 X 48회 = 14,400천원	주 1회 정기 해설
		제작비	개발비 20,000천원 교육자료 5천원 X 500개 팜플렛 1,500원 X 5,000개 30,000천원	정기해설시 : 상세교육자료 제공 수시해설시 : 간단한 내용의 팜플렛 비치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770천원	일산 밤가시초가 활용 프로그램(2015) 운영비

6) 감영 통합 행사

▣ 전국 팔도 감영 지역통합축제

<표 3-70>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전국 팔도 감영 지역통합축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지역 통합 축제 구상,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시범운영	지역 통합 축제 구상, 운영 위탁 사업자 선정 등	1식	30백만원 X 2곳	60	강원도는 별도 진행(강원감영문화제), 강원도의 자문 필요, 추진의사 원하는 2개도 시범 추진
		시범운영	1회	시범운영 1회 X 행사추진비 117백만원(2015 강원감영문화제 예산액) X 2곳	234	
2017년	지역 통합 축제 개최	지역 통합 축제 개최	1회	1회 X 행사추진비 117백만원 X 3곳	351	
2018년	지역 통합 축제 개최	지역 통합 축제 개최 확대	1회	1회 X 행사추진비 117백만원 X 4곳	468	
소계					1,113	

<표 3-71> 예산 세부내역 - 지역 통합 축제 개최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지역통합축제 2016~2018년	지역 통합 축제 개최	지역 통합 축제 개최	301백만원	강원감영문화제 2012 지원 예산 참조.

▣ 감영고을 내 초시 재현

<표 3-72>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감영고을 내 초시 재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초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문무과 초시 재현 시범운영(학생)	1식	75백만원 X 6곳	450	각 도 감영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및 제주
2017년	초시 프로그램 운영(학생) 및 지역민 대상 시범운영	문무과, 생원시, 진사시 초시 재현 (학생 및 지역민)	1식	75백만원 X 6곳	450	
2018년	초시 프로그램 일반인 및 지역민 운영	문무과, 생원시, 진사시 초시 재현 (학생 및 지역민)	1식	75백만원 X 6곳	450	
소 계					1,350	

<표 3-73> 예산 세부내역 - 초시 체험 프로그램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감영고을 내 초시 재현 2016~2018년	초시 체험 프로그램 (75백만원)	추진인력	총괄 1인 X 300천원 진행요원 4인 X 200천원 보조요원 20인 X 80천원 X 2회(상하반기) = 5,400천원	
		진행비 및 물품비	60,000천원	시험도구, 의복(대여) 등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자원봉사자 모집 필요

7) 공통 추진사항

▣ 지역별 마크 부착 및 관아 스탬프투어

<표 3-74>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지역별 마크 부착 및 관아 스탬프투어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년	지역위계별 관아 마크 개발을 위한 콘텐츠 발굴 등	지방관의 낙인, 깃발 등 표식 개발을 위하여 적합한 디자인 조사	1식(조사 연구용역)	30백만원	30	
2017년	지역, 위계별 관아 마크 게시	적합한 디자인의 선정 및 전국 관아별 게시	80개 관아 (1차 선정)	표식 및 안내판, QR코드 등 1식 2백만원	160	전국 감영 및 관아에 통일된 디자인으로 부착
2018년	전국 관아 스탬프투어 개발	스탬프투어를 유도하는 팜플렛의 제작	10,000개	개당 1,500원	15	전국 주요 관아별 배포 / 소정의 상품 증정, 활성화시 확대 실시 필요
		스템프 개발	80개	개당 1,000원	8	
소계					205	

<표 3-75> 예산 세부내역 - 지역 위계별 관아 마크 게시

항목	사업명	수량	사업비 산정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지역위계 마크개발 등 2017년	지역 위계별 관아 마크 게시	80개	2,000천원	160백만원	

<표 3-76> 예산 세부내역 - 전국 관아 스탬프투어 개발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지역위계 마크개발 등 2018년	전국 관아 스탬프투어 개발	스탬프투어 유도하는 팜플렛 제작	10,000개 X 1,500원 = 15,000천원	
		스탬프 제작	80개 X 100천원 = 8,000천원	

▣ 관아 속 보물찾기 앱 개발

<표 3-77>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관아 속 보물찾기 앱 개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2018년	숨겨진 관아의 가치 찾기 앱 개발, 홍보, 운영 등	숨겨진 관아의 가치 찾기 앱 개발, 홍보, 운영 등	앱 개발 1식 앱 홍보 및 운영 등(연중)	개발비 1식 200백만원 앱 홍보 및 운영 1식 100백만원	300	향후 타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으로 통합 발전 가능

<표 3-78> 예산 세부내역 - 관아 속 보물찾기 앱 개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관아 앱 개발 2016~2018년	관아 앱 개발	개발비	200	개발 후 지속적 유지보수 필요.
		홍보 및 운영비, 보수비 등	100	

▣ 관아 관직게임 개발

<표 3-79>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관아 관직게임 개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2018년	승경도놀이를 재해석하여 관아의 관직위계를 활용한 보드게임 제작, 운영, 비치 등	승경도놀이를 재해석하여 관아의 관직위계를 활용한 보드게임 제작, 운영, 비치 등	게임 개발 1식, 앱 홍보 및 운영 등(연중)	개발비 1식 100백만원 게임 관아별 비치(말판 등) 1식 X 200천원 X 80개소	116	

<표 3-80>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관아 관직게임 개발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참고사례 및 비고
관직 게임 개발 2016~2018년	관직 게임 개발 (100백만원)	개발비	100,000천원	게임 배포 등 제외비용
	관직 게임 제작 및 관아별 비치 (16백만원)	게임 제작 및 비치	80개 X 200천원 = 16,000천원	

▣ 관아 정기 세미나 운영

<표 3-81> 단계별 개발계획과 예산 - 관아 정기 세미나 운영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획 단계	사업명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분량	사업비 산정	사업 예산	비고
2016~2018년	관아 정기 세미나 운영	정기 세미나 추진 지원 등	연간 1회	10백만원 X 3회	30	향후 계속 추진 필요

<표 3-82> 예산 세부내역 - 관아 정기 세미나 운영 지원

항목	사업명	운영	예산	비고
관아활용 정기 세미나 지원 2016~2018년	관아활용 정기 세미나 지원	정기 모임 지원비	10백만원	향후 계속 추진 필요

4 . 사업추진예산 종합표

<표 3-83> 사업추진예산 종합표

(단위 : 백만원)

요소	사업명	사업단계			소계
		2016	2017	2018	
문화	기록문화	240	144	3,320	3,704
	마을민속	120	80	80	280
	교방문화	60	140	140	340
	목민관 고찰	120	272	664	1,056
경제	장터 활용	240	276	1,144	1,660
	특산품 활용	120	1,112	1,112	2,344
행정	학생 정치체험	120	416	832	1,368
	지역 소통의 장	80	160	320	560
	신 향촌규약회	120	80	80	280
	육방 향리 체험	120	280	280	680
	청렴교육	120	256	256	632
	전통 호패 체험	120	304	304	728
군사	전통행렬 재현	30	30	14,190	14,250
	임진왜란 재현	120	2,800	5,600	8,520
	군비점검 재현	120			
교통	객사 숙박체험	3,630	152	152	3,934
	지역누정 복원	120	276	2,092	2,488
팔도감영	감영축제	662	903	1,204	2,769
	초시 재현	450	450	450	1,350
기타	마크 및 스탬프투어	30	160	23	213
	관아 보물찾기 앱	300			300
	관아 관직 게임 개발	116			116
	관아 정기세미나	10	10	10	30
합계		7,168	8,301	32,253	47,722

제4장 결론

Ⅰ. 결론

관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온 국가통치체계 하의 지역행정기구였다. 전국을 8도로 나누어 지방최고행정기관으로 감영을 두었고, 감영 하에 관아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관아는 또한 지역문화의 산실이자 중심이었고, 지역 경제 활동을 관장하는 공간이었으며, 향촌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담당해왔다. 군사적으로는 고을과 주변지역의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관아는 지역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했던 행정, 경제, 문화, 군사, 교통 등 다섯가지 요소의 중심지였다는 점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우리의 관아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읍성철폐령이 내려진 이후 그 원형이 온전히 보전되지도 복원되지도 활용되지도 못했다. 1990년부터 추진되어온 궁궐 복원과 활용을 어느 정도 완수한 문화재청은 뒤늦었지만 관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아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발현하기 위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아문화재의 온전한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관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아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복원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복원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 중 가장 대표성을 띄는 관아문화재의 기본 가치를 찾아내고 이에 기초하여 유형화와 활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제시는 관아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의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한 제안 성격을 갖는다. 방대한 주제와 내용에 비해 짧은 연구기간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연구과제만을 다루다 보니 기초 제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향후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에 문화국가로서 갖춰야할 역사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백곳의 지역문화가 살아 움직이고 1천년이 넘도록 계승발전되어 왔던 관아를 비껴갈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관아문화재에 대한 복원 미흡, 프로그램의 빈약 및 획일화, 관아별 콘텐츠에 대한 조

사연구 부족 등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관아문화재의 특징과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활용을 통한 계승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궁궐-영아-관아 등 역사적인 국가통치유산의 원형이 잘 보존 계승 발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관아의 활용공간이 개별관아를 넘어 주변 연계공간까지 확대되며, 지역의 명품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 관아별 조사연구와 콘텐츠 확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관아문화재가 고품격 활용프로그램으로 더욱 빛나길 바란다.

Ⅱ. 관아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활용공간을 관아를 넘어 지역주변공간까지 확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민간에서 슬럼화된 마을을 재정비한 전주한옥마을 관련 사업, 낙후된 원도심을 회복한 2013 생태교통 수원 사례의 공통점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마을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전주와 수원의 경우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아스카무라(明日香村)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와 마을이 서로 공존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경관정비를 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처럼 경관적 고려와 지원은 향후 관아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관아만으로는 공간적 한계에 봉착하여, 콘텐츠 발산의 한계 또한 동반될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볼거리가 많은 곳에 찾게 되어있다. 어설프게 조성한 테마파크들이 망하는 이유와 같다. 향후 관아 문화재 및 주변 경관정비를 관아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발, 조성하여 관아의 활용공간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심도있는 활용방안의 마련을 위한 개별 관아별 콘텐츠 조사 추진

본고의 조사는 기초자료를 통해 활용개발의 뼈대만 만드는 정도로,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우수한 활용 프로그램이 생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3. 활용운영주체의 마련 필요 : 주민 및 민간단체 참여방안 마련

관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민간단체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해석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 중 지역주민은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더해져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유산 활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사업단 창설 등에 따른 보조 등을 강구할 필요 있다.

4. 관아 통합 운영 등을 위한 문화재명의 개명

현존 관아 문화재는 각각 조건이 상이하여, 상황에 따른 문화재명을 지정하였다. 예를 들어 김제의 경우 김제 관아 건물의 일부와 주변의 향교가 있다는 특징으로 '김제군 관아와 향교', 직산의 경우 건물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서 '직산현 관아', 통진의 경우 이청 건물 1동만 남아 있는 상태로 '통진 이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와 같이 문화재명을 통일시키지 않는 경우, 일반인이 관아의 영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명으로 통일 지정을 제안하려 한다.

<표 4-1> 관아문화재명의 통일지정 제안

문화재명	현 지명 (옛 지명과 같을 경우 생략)	옛 지명과 위계	관아의 종합 현존 여부 (종합 문화재일 경우 '관아', '읍성' 또는 '행궁' / 단일일 경우 생략)	건물의 기능	건물명	비고
예시1)		강릉대도호부	관아			
예시2)	괴산	청안현		동헌	안민헌	
예시3)		태안현		동헌	목애당	
예시4)	수원	화성유수부	행궁			정식 문화재명은 규격대로 가나, 별칭인 '화성행궁'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평시에는 별칭을 사용함.
예시5)	순천	낙안군	읍성			위와 동일(낙안읍성)

예시1) 강릉대도호부 관아

예시2) 괴산 청안현 동헌 안민헌

예시3) 태안현 동헌 목애당

예시4) 수원 화성유수부 행궁 : 별칭 '화성행궁'

예시5) 순천 낙안군 읍성 : 별칭 '낙안읍성'

5. 재현 프로그램의 전문 인력 및 단체 양성

과거 선조들이 행하였던 행동은 유물 등 유형문화재 못지 않는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며, 파급력 면에서도 오히려 유형문화유산을 압도하는 경우도 많다.

무형문화유산 보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존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전문직업화, 보존단체의 지속 운영을 위한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향유 등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화성유수부 관아(화성행궁)에서 상설재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예도보통지(무예 24반) 보존단체는 전통무예의 재현을 위하여 수많은 훈련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지원 여건 상 적절한 급여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 보존자는 직업에 대한 걱정을 우선하여야 함이 당연하며, 고도로 연습한 보존자가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에 그 명맥이 끊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중앙정부 등에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람과 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 보존 차원에서 지원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 재현 보존단은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여 전문(시립) 예술 공연단의 지위를 갖고, 수준에 맞는 급여와 함께 지속적인 직업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관아 활용 관계자 정례회의 추진 필요

관아는 지역의 대표 문화재로, 관아의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정례회의가 필요하다. 관아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관아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황이나 극복점을 서로 토론하고 향후 발전방향, 사업방향 등을 논의할 때 관아 활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례회의의 첫 출발은 정조의 능행차(서울, 안양, 수원 등)와 같이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수원의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 확산시킴으로써 각 지역에 걸맞는 관아 활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한 상호발전을 위해 지역간 연계 협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록. 관아 현황 실태 조사

Ⅰ. 관아문화재 지정현황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고종 32년(1895년) 이전까지 지방관제에 의해 형성유지 되어온 관아 중 원형이 일부라도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관아문화재는 모두 148건이다.
관아문화재의 분포현황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별, 보존유형별, 지역위계별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관아문화재의 지정현황을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 관아, 관아의 단일 건물, 읍성과 성곽시설, 감영 문화재를 포함하였음.
○ 지역 유명 누정의 경우 제외하였음(밀양 영남루 등)
○ 영아 중 감영 문화재는 포함하며, 병영/수영/통영 등은 제외하였음
○ 읍성의 역할을 하는 성곽에 구축된 보조시설(수원 방화수류정 등)은 포함하였음.
○ 유사시 방어진으로 활용하였지만 고을을 둘러싼 읍성과는 형식이 다른 성곽은 제외하였음.
○ 관아 내 행정적인 요소가 주되지 않은 시설(청도 석빙고 등) 및 고목 등은 제외하였음.

▣ 문화재 현황별 분류

성곽 및 관아 : 읍성 성격의 성곽과 관아(1동 이상)가 함께 있는 문화재
관아 : 1동 이상의 현존 관아 건물과 함께 관아터, 다른 관아건물이 함께 지정된 곳
성곽 : 읍성 및 고을을 둘러싼 외곽 성벽, 성에 구축된 시설 포함
감영 : 감영 문화재 단일건물 및 종합건물, 포정문 등
단일건물/시설 : 관아 건물 및 시설 1동이 지정된 단일 문화재
아문/문루 : 관아의 아문과 문루
터 : 관아터. 문화재명이 '관아지'이나 건물이 복원된 곳은 현존 건물에 따라 분류함

<표 1> 문화재 지정에 따른 분류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합계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	시도유형	문화재자료	시도기념물	
1	7	26	1	69	25	19	148

<표 2> 문화재 현황에 따른 분류

성곽 및 관아	관아	성곽	감영	단일건물/시설	아문/문루	터	합계
6	16	32	7	64	18	5	148

<표 3> 지역위계에 따른 분류

감영	부윤/유수	목	대도호부	도호부	군	현	합계
10	20	20	3	24	16	55	148

* 감영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은 모두 감영으로 포함(전주 풍패지관 등).
진주의 경우 1896년에 경상남도 관찰사의 정문이 된 영남포정사문루만 감영으로 포함.

<표 4> 관아 문화재 등록 현황(감영 및 읍성 등 포함)

연번	종목	명칭	지역위계	분류
1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대도호부	아문/문루
2	보물 제308호	전주 풍남문	감영/전주	성곽
3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목	단일건물/시설
4	보물 제402호	수원 팔달문	유수부	성곽
5	보물 제403호	수원 화서문	유수부	성곽
6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감영/전주	단일건물/시설
7	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	유수부	성곽
8	보물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	유수부	성곽
9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유수부	성곽
10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유수부	성곽
11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부윤	성곽
12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현	성곽 및 관아
13	사적 제118호	진주성	목	성곽
14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유수부	성곽
15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유수부	터
16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현	성곽 및 관아
17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현	성곽
18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목	성곽
19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도호부	성곽
20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군	성곽 및 관아
21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목	성곽
22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현	성곽 및 관아
23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목	관아
24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현	성곽
25	사적 제388호	강릉대도호부 관아	대도호부	관아
26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감영/원주	감영

염번	종목	명칭	지역위계	분류
27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유수부	성곽
28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도호부	성곽
29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유수부	관아
30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유수부	관아
31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현	관아
32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군	관아
33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목	관아
34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현	관아
35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현	성곽 및 관아
36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	대도호부	단일건물/시설
37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호	위봉문	유수부	아문/문루
38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	조양루	유수부	아문/문루
39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	포정루및선화당	감영/원주	감영
40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6호	통진 이청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41	경기도 기념물 제93호	수원고읍성	유수부	성곽
42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	안산읍성및관아지	군	성곽 및 관아
43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	양주관아지	목	관아
44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온온사	현	단일건물/시설
45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팽성읍객사	현	단일건물/시설
46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유수부	단일건물/시설
47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연무관	유수부	단일건물/시설
48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4호	안성객사	군	단일건물/시설
4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호	영남포정사문루	감영/진주	감영
5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호	북장대	목	성곽
5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호	서장대	목	성곽
5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	촉석루	목	성곽
53	경상남도 기념물 제167호	밀양읍성	도호부	성곽
54	경상남도 기념물 제162호	거제고군현치소지	현	터
55	경상남도 기념물 제267호	김해객사후원지	도호부	터
56	경상남도 기념물 제270호	밀양 관아지	도호부	관아
57	경상남도 기념물 제46호	고현성	현	성곽
58	경상남도 기념물 제88호	회원현성지	현	성곽
59	경상남도 기념물 제9호	사등성지	현	성곽
6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1호	창녕객사	현	단일건물/시설
6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44호	진해현관아및객사유지	현	관아
6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0호	함양학사루	군	아문/문루
6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3호	삼가기양루	현	아문/문루
64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호	동경관	부윤	단일건물/시설
65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92호	관산지관	현	단일건물/시설
66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36호	상주향청	목	단일건물/시설
67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0호	제남헌	군	단일건물/시설

연번	종목	명칭	지역위계	분류
68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3호	청도동헌	군	단일건물/시설
69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18호	봉화봉서루	현	아문/문루
70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상주 상산관	목	단일건물/시설
7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2호	도주관	군	단일건물/시설
72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1호	선산객사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73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2호	운봉관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74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성주성산관	목	단일건물/시설
75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호	선성현객사	현	단일건물/시설
76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관풍루	감영/대구	감영
77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징청각	감영/대구	감영
78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9호	기성관	현	단일건물/시설
79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7호	기장장관청	현	단일건물/시설
80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호	동래읍성지	도호부	성곽
81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60호	동래부 동헌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82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	동래부 동헌 외대문	도호부	아문/문루
83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	군관청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84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망미루	도호부	아문/문루
85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	동래부 동헌 외대문	도호부	아문/문루
86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장관청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87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울산동헌및내아	도호부	관아
88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	욕은지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89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어사대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90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교동읍성	유수부	성곽
91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	도호부	관아
92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	강화유수부동헌	유수부	단일건물/시설
93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부평도호부청사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94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1호	죽수절제아문	목	아문/문루
95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6호	정수루	목	아문/문루
96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나주목사내아	목	단일건물/시설
97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83호	고흥남휘루	현	아문/문루
98	전라남도 기념물 제35호	흥양현읍성	현	성곽
99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0호	낙안객사	군	단일건물/시설
100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금성관	목	단일건물/시설
101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	고흥존심당및아문	현	관아
102	전라북도 기념물 제107호	전라감영지	감영/전주	터
103	전라북도 기념물 제122호	고부관아터	군	터
104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4호	고창무장객사	현	단일건물/시설
105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	고창무장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06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순창객사	군	단일건물/시설
107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7호	흥성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08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	고창무장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연번	종목	명칭	지역위계	분류
109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김제동헌	군	단일건물/시설
110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1호	김제내아	군	단일건물/시설
111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5호	태인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12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3호	여산동헌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113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현	성곽
114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06호	결성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15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보령성곽	현	성곽
116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	사비루	현	아문/문루
117	충청남도 시도기념물 제10호	남포읍성	현	성곽
118	충청남도 시도기념물 제165호	홍성결성읍성	현	성곽
119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홍산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20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7호	홍산객사	현	단일건물/시설
121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4호	석성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22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서산객사	군	단일건물/시설
123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8호	태안목애당	현	단일건물/시설
124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홍산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25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	온주아문및동헌	군	단일건물/시설
126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	예산대흥동헌및아문	현	단일건물/시설
127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호	여민루	현	아문/문루
128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0호	보령관아문	현	아문/문루
129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	서산관아문및외동헌	군	관아
130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2호	직산현관아	현	관아
131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5호	남포관아문	현	아문/문루
132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	선화당	감영/공주	감영
133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3호	포정사문루	감영/공주	감영
134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6호	부여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35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호	연산아문	현	아문/문루
136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	괴산 연풍향청	현	단일건물/시설
137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1호	보은 회인동헌 내아	현	단일건물/시설
138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보은동헌	현	단일건물/시설
139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6호	보은 회인 인산객사	현	단일건물/시설
140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호	제천 청풍 금남루	도호부	아문/문루
141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호	제천 청풍 금병헌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142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청주 청녕각	목	단일건물/시설
143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괴산 연풍 풍락헌	현	단일건물/시설
144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청주 문의문산관	현	단일건물/시설
145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6호	충주 청녕헌	목/감영	단일건물/시설
146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충주 제금당	목/감영	단일건물/시설
147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	제천 청풍 응청각	도호부	단일건물/시설
148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	현	단일건물/시설

Ⅱ. 개별 관아문화재 실태조사

1. 팔도 감영(5개소)

1) 경기감영

2) 강원감영

3) 충청감영

4) 경상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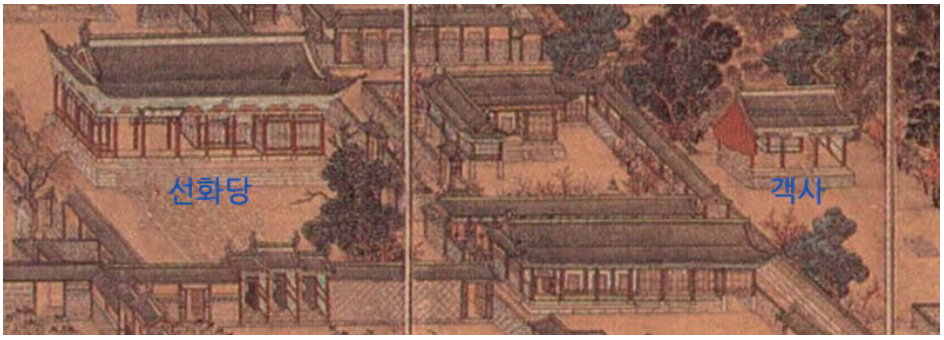
5) 전라감영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경기감영(서울)</td><td>분류</td><td>팔도 감영</td><td>위치</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선화당/객사</td><td>내아</td><td>영리청/부속실</td><td>포정문/문루</td><td>누정</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경기
감영터</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경기감영도, 기영빈관, 가석과 폐석 등</td><td colspan="4">모든 요소</td></tr>
<tr><td>자료</td><td colspan="8">기영빈관 : 경기감영은 서대문 인근에 있어 가깝다. 객사의 주요 기능은 관원의 숙박과 연회, 전궐패를 활용한 망궐 의식 등인데, 임금이 있는 궁궐과 너무 가까워서 경기 객사에서는 전궐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궁궐을 바라보며 의식을 진행함. 숙박 또한 크게 필요치 않아 객사의 규모가 작음.[1] 좌익헌, 우익헌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없어 하나만 있다.

경기감영도 병풍 : 경기감영도 병풍 12폭 중 7~9폭에 해당하는 부분에 경기감영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관찰사의 행렬 뿐만 아니라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 소나무 밑에서 한가로이 쉬는 사람, 지게를 진 사람, 엿장수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경기감영은 지금의 서울 적십자병원이 있는 곳이다.

선화당 앞의 가석(佳石)과 폐석(肺石) : 감영의 수령인 관찰사가 집무하는 선화당 앞마당에는 삼도(三道)를 가운데에 두고, 좌측에 가석, 우측에 폐석이 놓여 있다. 좌측(동쪽)의 가석은 죄를 가벼이 지은자(경범죄인)에게 죄를 치죄하기 보다는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죄를 사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돌이다. 광화문 앞 육조거리에서 형조의 앞마당에도 있다. 우측(서쪽))의 폐석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여기에 서있으면 담당관리가 사정을 듣고 해결을 해주는 곳이다.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 선돌인데, 중국의 주례(周禮)에 나오는 말이다. 폐석은 중국 주(周)나라 때 조정의 문 밖 오른쪽에 세운 붉은 돌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상감에게 직접 상소를 하고자 할 때 이 돌 옆에 3일 동안 서 있으면 그의 호소가 전달될 수 있게 하였다”[2] 고 한다.

선화당에 비해 너무 작은 객사 : 지금은 터만 남은 경기감영의 객사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다. 경기감영 객사는 경기감영도에서도 보여지듯이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인데, 경기감영과 서울 궁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보니 숙박기능이 필요치 않고, 객사의 주요 기능인 전궐패 예식 시 전궐패를 두지 않고 궁궐을 직접 바라보며 예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감영에서는 지방관(관찰사)의 정청(선화당)과 객사의 규모가 비슷한 편인데, 경기감영에 이러한 사례가 보여지니 재미있는 현상이다.

경기감영도 속 선화당과 객사©리움</td></tr>
</table>

※ 향교, 선정비 등 지역 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관련 문화재는 편의상 표시하지않음

※ 지도의 해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내용을 인용, 소개하였음

1. 김종영 자료 제공
2. 주례, 추관, “左嘉石, 平罷民焉. 右肺石, 達窮民焉.”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강원감영(원주)</td><td>분류</td><td colspan="2">팔도 감영</td><td>위치</td><td colspan="2">강원도 원주시 일산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선화당/객사</td><td>내아</td><td>영리청/부속실</td><td>포정문/문루</td><td>누정</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O</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선화당
(宣化堂)</td><td>청운당</td><td></td><td>포정루, 관동관찰사영문(외삼문), 징청문 (澄淸門_중삼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정철, 관동별곡, 아름다운 후원 등</td><td colspan="4">모든 요소</td></tr>
<tr><td>자료</td><td colspan="8">강원도관찰사 정철과 관동별곡 : 정철은 가사문학의 대가로 그 명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며 관동팔경 등의 절승지를 유람하며 읊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관풍각(영주관)-정선총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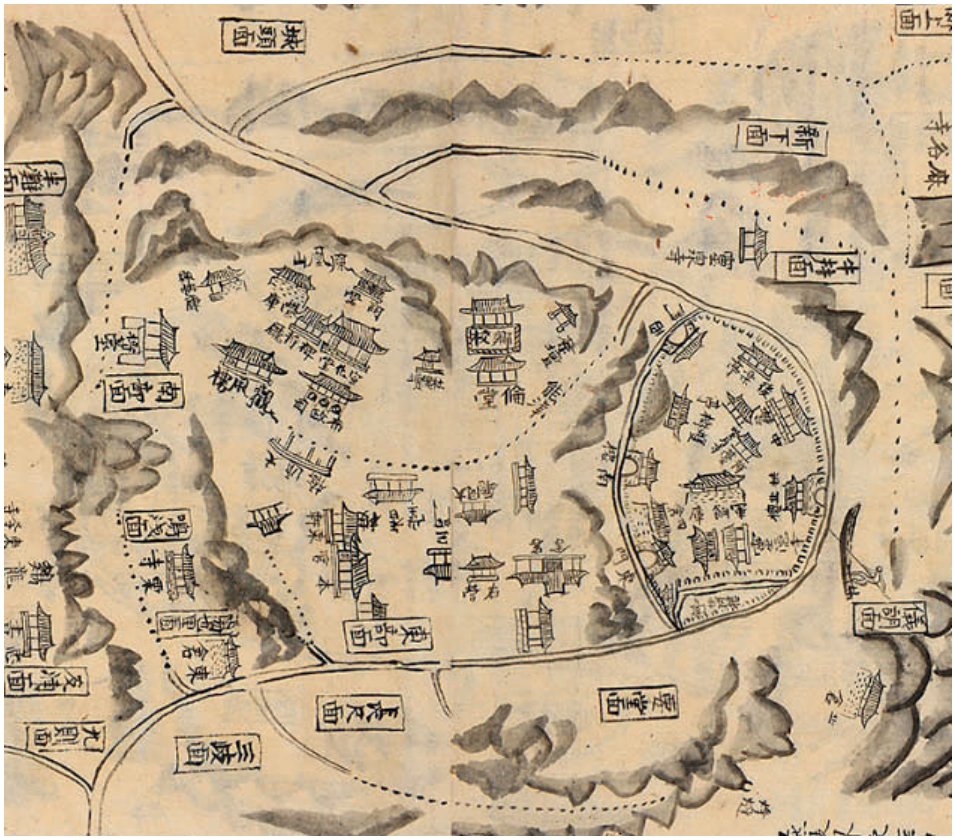
관동지(1829년)
특징적 요소 : 1856년 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종우가 집필한 시문집 '평원합집(平原合集)'에서 묘사된 감영 내의 연못 주변 건물 배치 모습을 2016년말까지 복원할 계획(감영 중 정원/후원이 매우 아름다움). 강원감영터는 선화당, 포정루, 청운당 등 당시 건물이 원래 위치에 잘 남아 있으며, 유구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강원감영이 현 자리로 옮겨오기 이전의 원주목 건물터가 그 아래층에 잘 남아있어 우리날 관아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강원감영 후원 복원 조감도[3]</td></tr>
</table>

3. 강원도민일보, 2015년 4월 16일 '원주 강원감영 옛 모습 찾는다'

기문	객관(客館) ○ 서거정(徐居正)의 〈중신기(重新記)〉에, "… 지금은 강원도의 계수관(界首官)이다.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며, 산천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物産)이 풍부하여 여러 고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 풍속은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쓰는 것을 절약하여 재물을 저축하고 물화(物貨)를 늘려서 홍수와 가뭄이 재해가 되지 못하니, 실로 동쪽 지방의 아름다운 고을이다. 서거정이 젊었을 때에 치악(雉岳)·법천(法泉) 등 여러 산사에서 글 읽느라고 원주를 왕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번 보면 중류 이상의 집들이 힘써 집을 경영하여 마루와 넓은 집과 높은 누(樓)와 아름다운 정자가 가는 곳마다 수두룩하였다." 봉명루(奉命樓)·빙허루(憑虛樓) : 모두 객관의 동쪽에 있다. ○ 강회백(姜淮伯)의 시에, "높은 누에 홀로 오르니 이번 걸음 유쾌한데, 소나무 산 헌함에 가득히 그늘 지우네. 인정은 엎치락뒤치락 구름이 산으로 들어감 같고, 옛 뜻은 처량한데 눈[雪]이 성을 눌렀네. 강개한 마음 하루아침에 계책을 결정하더니, 존망이 백년을 넘었건만 이름 아직도 남았네. 농사 짓고 누에치고 가는 곳마다 백성의 생업(生業)이 안정되었는데, 포곡새[布穀鳥]는 무슨 일로 밭갈기를 재촉하는가." 하였다. ○ 홍귀달(洪貴達)의 시에, "따뜻하고 경치 고운 국도(國道)에 사람들은 어지러이 오가고, 눈 녹은 마을마다 봄물이 생겼네. 산 기운[山氣]은 노을을 찌는 듯 그림병풍 둘렀고, 경치는 물에 닿아 강가의 성을 옹호하네. 가볍고 날씬한 처마의 제비는 때로 능히 말을 하고, 아름다운 담 위의 꽃은 이름조차 알지 못하겠네. 가장 기쁜 일은 농가에서 살아가는 일이 풍족하여, 한 늙은이가 다시 비를 맞으며 밭을 가네. 이글이글 타는 듯한 여름 해에 괴로워 천천히 가는 길에, 짙은 나무 그늘이 물 밑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도 반가워라. 한 점 검은 구름이 먼 봉우리에 둘리니 잠깐 동안 서늘한 비 외로운 성을 지나가네. 한가로워지니 잔 가운데의 술맛이 나고, 취한 뒤에는 종이에 기록될 이름 같은 것 마음에 없네. 남훈곡(南薰曲) 타서 마치니 재물은 이미 넉넉하나, 다시 농관(農官)을 불러 백성의 농경(農耕)을 권장한다." 하였다.
제영	[치악(雉岳)의 구름 낀 봉우리가 비를 오게 하니] ○ 한수(韓脩)의 시에, "치악의 구름 낀 봉우리가 비를 오게 하니,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 쓸쓸한데 저녁 바람이 인다. 이미 맑은 경치가 현포(玄圃 신선이 산다는 곳)로 옮겨가는 것 같음을 즐겨하거니와 다시 아름다운 사람이 부르는 위성곡(渭城曲)을 듣는다. 노는 사람이 머뭇거림은 옛일을 생각함이 많기 때문인가, 영웅은 이제 적막하지만 높은 이름은 남았구나. 말굽이 이르렀던 곳, 가는 곳마다 거칠어 잡초만 우거짐을 슬퍼했더니, 이 고을 안은 홀로 개천 언덕이 골고루 경작되었네." 하였다. [꽃은 방탕한 손[客]을 어여쁘게 여겨 오히려 웃음을 머금고] ○ 최수(崔修)의 시에, "늦은 봄에 북원(北原)을 가는 것은 그럴 듯하구나. 무뢰한 동풍(東風)의 일백 가지 느낌이 생기노라. 술을 사랑한다고 하여 도정절(陶靖節)을 싫어하지 마라. 시를 읊노라니 도리어 사선성(謝宣城)이 부끄럽구나. 꽃은 방탕한 손을 어여쁘게 여겨 오히려 웃음을 머금고, 새는 노니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이름을 부를 줄 안다. 태종(太宗)이 순수(巡狩)하던 그 옛날을 추앙하노니 이제까지 그 기름진 은택에 온 고을이 농경하고 있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충청감영(공주)</td><td>분류</td><td>팔도 감영</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선화당/객사</td><td>내아</td><td>영리청/
부속실</td><td>포정문/문루</td><td>누정</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선화당
(宣化堂)</td><td></td><td></td><td>포정사문루
(布政司門樓)</td><td></td><td></td><td>백제 관련
문화재</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아름다운 풍광(취원루 등), 백제문화</td><td colspan="4">모든 요소</td></tr>
<tr><td>자료</td><td colspan="8">주 고지도(1872년 지방지도, 공산지 등) / 옛사진
충청감영 포정사 및 원옥 사진 원경
특징적 요소 : 충청감영의 원옥에 입구가 있으며 내부에는 옥사가, 외부에는 수직사가 있다. 형옥을 원옥으로 한 이유는 중국의 주례(周禮)에 의하면 “원은 모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순화를 위한 상징성을 갖는다. 충청감영의 포정사는 전면 5칸으로 매우 큰 규모이다.

 
충청감영 등이 그려져 있는 공주 ©공산지</td></tr>
</table>

기문	취원루(聚遠樓) : 객관(客館) 동쪽에 있으니, 옛날의 관정정(觀政亭)이다. 정자가 연못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牧使) 권제(權體)가 정자를 헐고 누(樓)로 만든 것을 뒤에 목사 홍석(洪錫)이 동헌(東軒) 동쪽에 옮겨 세웠다. ○ 정이오(鄭以吾)의 관정정기(觀政亭記)에, "사사로이 노두(老杜 두보(杜甫))의 '못물에서 정사하는 것을 본다.[池水觀爲政]'는 시구(詩句)를 취하여 이름 붙이기를, '관정정'이라 하였다. ○ 서거정(徐居正)의 취원루기(聚遠樓記)에, "… 목사가 이제 예빈시정(禮賓寺正)※ 김수손(金首孫)공을 통하여 나에게 정자(취원루)의 이름과 기문(記文)을 청해 왔다. 나는 말하기를, '이 정자의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먼데 것을 모은 것[聚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였는데, 이는 멀리 있는 모든 좋은 경치를 이 한 누(樓)로 모아 들였다는 것이다. 금강루(錦江樓) : 금강 남쪽 언덕에 있다. ○ 박팽년(朴彭年)의 시에, "동정호(洞庭湖)만 어찌 홀로 강남(江南)에서 제일이랴. 금강의 기이한 풍경 세상에서 일러오네. 강머리에 손[客]을 보내는데 배는 뜨고, 청삼 물가에 갓끈[纓] 씻노라고 푸른 옷 벗어 거네. 물결은 만고의 외로운 달을 머금었고, 산은 천추의 한 조각 푸르름을 띠었고나. 이곳은 아름답고 화려한 해동의 땅, 지나는 손이 구경하노라고 몇 번이나 말을 멈추었나." 하였다. ○ 이승소(李承召)의 시 등 응벽당(凝碧堂) : 취원루(聚遠樓) 곁에 있다.
제영	[십경(十景)] 서거정(徐居正)의 시 금강의 봄놀이[錦江春遊] 월성의 가을 흥취[月城秋興] 웅진의 밝은 달[熊津明月] 계룡산의 한가로운 구름[鷄嶽閑雲] 동루에서 손을 보냄[東樓送客] 서사에 중을 찾음[西寺尋僧] 삼강에 불은 녹수[三江漲綠] 오현에 쌓인 푸르름[五峴積翠] 금지의 연꽃[金池菡萏] 석옹의 창포[石甕菖蒲]

※ 예빈시는 사신, 고관에 대한 음식 접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빈시 제조(提調), 정(正) 등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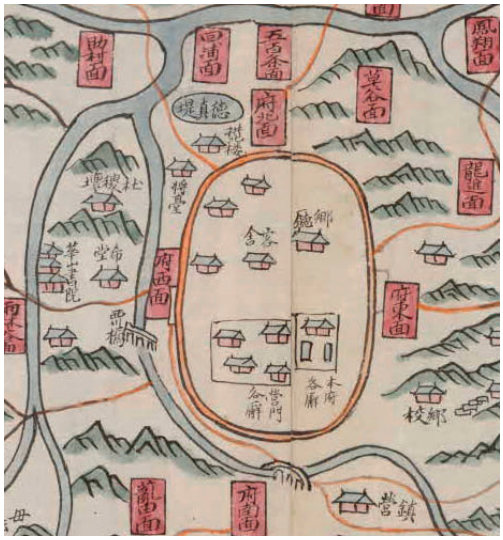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경상감영(대구)</td><td>분류</td><td colspan="2">팔도 감영</td><td>위치</td><td colspan="2">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선화당/객사</td><td>내아</td><td>영리청/부속실</td><td>포정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문화재</td></tr>
<tr><td>X</td><td>O</td><td>O</td><td>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선화당
(宣化堂)</td><td>징청각
(澄淸閣
_내아)</td><td></td><td>관풍루
(觀風樓
_문루)</td><td></td><td></td><td>측우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5">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교통의 발달, 훌륭한 경치</td><td colspan="5">모든 요소</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의 대구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에 자리한 행정중심지 대구는 관할지역의 전세(田稅) 등을 거두어 서울로 보내었다. 물자를 낙동강 유역 인근의 강창(江倉) 등에 모아두었다가 남해-서해의 수운을 거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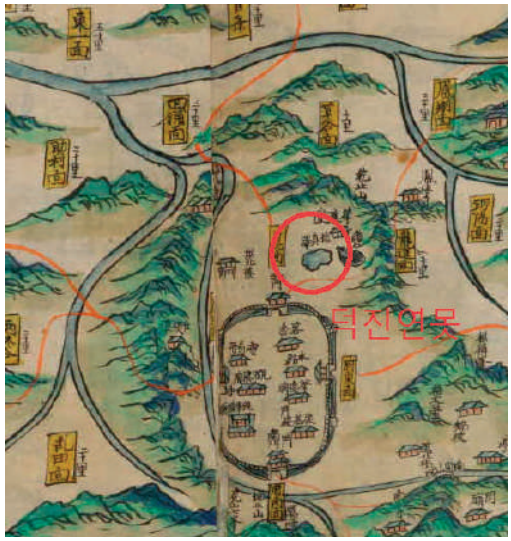
낙동강과 연결되어 있는 대구©경상도읍지</td></tr>
</table>

기문	금학루(琴鶴樓) : 객관(客館)의 동북 모퉁이에 있다. ○ 김조(金銚)의 기문에, "옛사람이 물건에 이름 붙이기를 혹은 그 땅에 말미암고, 혹은 그 사람 이름에 말미암는다. 파릉(巴陵)의 악양루(岳陽樓)로 말하면 그 땅 이름에 말미암았고, 저수(滁水)의 취옹정(醉翁亭 취옹은 구양수(歐陽脩)의 아호)으로 말하면 그 사람 이름에 말미암았다. 지금 금후(琴侯 금은 성, 후는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가 정사를 맡았으며 읍에 금호(琴湖)의 이름이 있고, 누(樓)의 그림이 학이 춤추는 형상이니, 이 누에 오르면 한 거문고와 한 학이 있어서 쇄락출진(洒落出塵)하는 기상이고, 성문화명(聲聞和鳴)하는 멋과 남풍해온(南風海慍)하는 즐거움이 있다. 금학으로써 그 누각을 이름지음이 옳겠도다." ○ 일본 중 경양(慶陽)의 시에, "그림 그린 들보의 나는 듯한 가에서는 학의 여윈 그림자를 보고, 붉은 난간의 굽은 곳에서는 거문고의 남은 소리를 듣네.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천년의 모습이요, 흐르는 물 높은 산은 태고(太古)의 마음일세." 하였다. 관풍루(觀風樓)·척금루(滌襟樓)·점풍루(占豐樓)·읍북루(挹北樓) : 모두 읍내이다. 임수정(臨水亭) : 서남쪽으로 35리이다. 하목당(霞鶩堂) : 낙동강가 경치가 훌륭하다.
제영	[영각서풍청(鈴閣暑風淸)] 금유의 시에, "군(郡)을 위해 몸이 피곤하더니, 다락에 오르니 눈이 트이네. 금호에 새 물이 가득하고, 영각에 여름 바람이 맑네. 감히 현가(絃歌)의 정치를 바랄까마는, 조수(組綬)의 영달일랑 뽐내지 마라. 3년토록 조금도 공이 없으니, 붓을 놀려 부질없이 정만 머금네." 하였다. [십영(十詠)] 서거정(徐居正)의 시 금호범주(琴湖泛舟) 입암조어(笠巖釣魚) 귀수춘운(龜岫春雲) 학루명월(鶴樓明月) 남소하화(南沼荷花) 북벽향림(北壁香林) 동사심승(桐寺尋僧) 노원송객(櫓院送客) 공령적설(公嶺積雪) 침산만조(砧山晩照)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전라감영(전주)</td><td>분류</td><td colspan="2">팔도 감영</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선화당/객사</td><td>내아</td><td>영리청/부속실</td><td>포정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O</td><td>O</td></tr>
<tr><td>풍남문
(豊南門
_남문)</td><td>풍락헌
(豊樂軒
_동헌)
풍패지관
(豊沛之館
_객사)
(전라감영
터)</td><td></td><td></td><td></td><td></td><td>전주한옥
마을,
민속 고택</td><td>경기전,
전주사고,
전라감영터,
예기무</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조선 건국(전주 이씨)의 발원지,
덕진연못의 조성(풍수), 전주 교방문화,
전주사고 등</td><td colspan="4">모든 요소</td></tr>
<tr><td>자료</td><td colspan="8">풍패의 땅 전주
전주는 전주 이씨가 발원한 곳으로 항상 ‘풍패’에 비유하고 있다. 풍패는 한고조 유방이 나타난 지역으로, 대다수의 기록에서 전주를 ‘풍패’로 지칭하고 있다.

이성계와 전주 지도
호남읍지 속 전주에서도 보여지듯이 전주는 풍수지리적인 면모와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각군읍지, 해동지도 등을 보면 전형적인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그려졌는데, 전주는 태조 이성계와 전주 이씨의 원류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덕진연못은 농업을 위한 관개용이 아니며 풍수지리적으로 조성되었는데, 전주를 풍수지리 명당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더 팠다고 한다. 이것이 지도에 반영이 되었다.

 
풍수지리 표현이 되지 않은 전주 지도©호남읍지

 
산을 높게 그리고 덕진못을 조성한 전주 지도
©전라북도각군읍지</td></tr>
</table>

기문	경기전(慶基殿) ○ 부성(府城)의 남문(南門) 안에 있다. 영락 경인년에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의 어용(御容)을 봉안(奉安)하였다. 참봉(參奉) 2명을 두었다. 유순(柳洵)의 시에, "시기에 호응하여 도록(圖錄)에 맞게 동한(東韓)을 평정하니, 도탄에 빠진 백성을 평안하게 하였도다. 성덕(聖德)을 마땅히 백세에 제사하리니, 천추에 묘모(廟貌)는 단청(丹靑)이 맑으리라." 하였다. 객관(客館) ○ 이경동(李瓊同)의 〈서헌기(西軒記)〉에, "신묘년에 우리의 좌주(座主) 조근(趙瑾) 공이 전주 부윤으로 왔는데, 관리와 백성이 모두 그 교화에 좇았다. 공은 판관(判官) 김신(金信)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도모하여 말하기를, '부의 관(館)은 대청(大廳)에 중앙에 있고 좌우에 익실(翼室)이 있는데, 동편은 높고 서쪽은 낮으며 동편은 넓고 서쪽은 좁은데, 다행히 창리고(創吏庫)에 남은 재물이 있어 서헌(西軒)을 고쳐 동헌(東軒)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민(吏民)들이 모두 이에 찬동하였다. 이에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다른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나 건물이 새로워지니, 주(州)의 남녀들이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았는데, 건물이 고쳐진 것만 볼 뿐이요, 공역(工役)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공의 뒤를 잇는 사람도 백성 사랑하기를 공과 같이 하고 관직 수행을 공과 같이 하며, 건물과 장벽(墻壁)을 늘 보수(補修)하여 임금의 세계근원(世系根元)이 길이 발상한 이 고장으로 하여금 그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조선(朝鮮) 억만년의 무강(無疆)한 복조와 더불어 상서(祥瑞)를 같이한다면, 어찌 우리 부의 큰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실록각(實錄閣) 기문 등
제영	[욕방의관비왕사(欲訪衣冠悲往事)] ○ 이색(李穡)의 시에, "견성(甄城)의 경치가 오르기를 권하니, 옛 사람을 위무(慰撫)하며 유연히 웃음을 머금도다. 의관을 찾고자 하니 지나간 일들이 슬퍼지고 부질없이 도기(圖記)만을 가지고 옛 궁터를 말하네. 술은 황국(黃菊)에 맑은 서리 내린 후 맛을 다하고, 주렴(珠簾)은 청산(靑山) 낙조(落照) 사이에 걷혀 있네. 고금(古今)의 영웅이 지나가는 새와 같으니, 피곤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돌아갈 줄을 알아야 하겠네." 하였다. [견훤농병지(甄萱弄兵地)] ○ 정추(鄭樞)의 시에, "중간에 길이 산과 강을 갈라 놓으니, 남주(南州)의 물색(物色)이 구분되었네. 얽힌 소나무는 옛날 역원(驛院)을 알리고, 긴 대나무는 이전의 마을을 표시하고 있네. 말[馬] 그림자는 거치른 다리에 비치고, 까마귀 소리는 황폐한 절간의 구름 속에서 들리네. 견훤이 군병을 지휘하던 땅, 물가에 임하여 싸립문이 걸렸네." 하였다. [천년종왕기(千年鍾王氣)] ○권근(權近)의 시에, "큰 고을이 남과 북을 갈라 놓으니, 완산(完山)이 가장 특이하도다. 천년의 왕기가 모여 있으니, 일대에 큰 토대를 열었구나." 하였다. [완산거진승남양(完山巨鎭勝南陽)] 설장수(偰長壽) [세마기가누근수(洗馬幾家樓近水)] 석선탄(釋禪坦) [남리임구제효우(南里林鳩啼曉雨)] 성임(成任) [압계공업서하산(鴨鷄功業誓河山)] 서거정(徐居正) [완산가려고명도(浣山佳麗古名都)] 이승소(李承召)의 시 등

4. [이한상 교수의 영원을 꿈꾼 천년왕국 신라]<4>문무왕릉비 퍼즐 맞추기

2. 부와 유수부(5개소)

1) 경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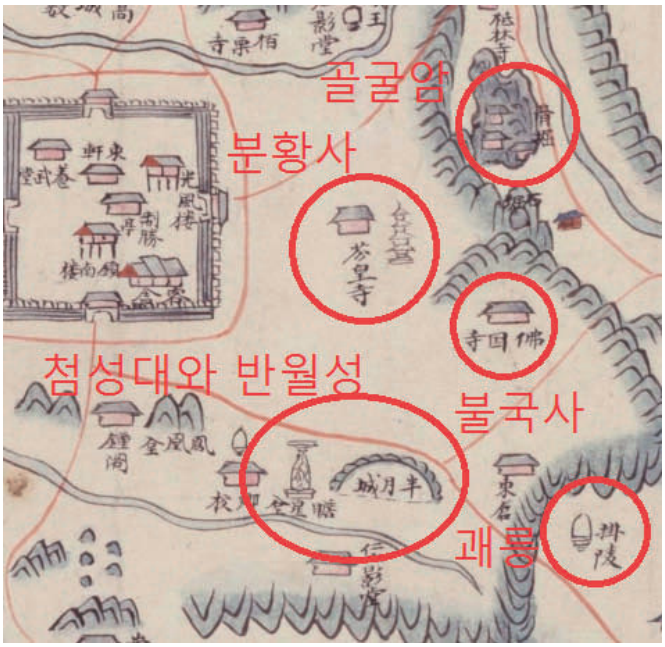
2) 화성유수부

3) 광주유수부

4) 강화유수부

5) 춘천유수부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경주부</td><td>분류</td><td>부윤</td><td>위치</td><td colspan="3">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경주읍성</td><td>동경관
(東京館
_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신라 문화재</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신라문화 등</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경주부윤 홍양호와 문무왕릉비
홍양호는 일흔이 넘는 나이에 경주부윤에 부임되었는데, 당시 지독한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러 이견대를 찾았다. 왜 하필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를 기우소로 삼았는지 물었더니, ‘죽어서 용이 된 문무왕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여겼지만 궁금증이 나날이 커져 문무왕릉을 찾아 곳곳을 답사하였다. 그러자 문무왕릉의 흔적을 담은 탁본을 찾을 수 있었다. 이후에 추사 김정희가 비석을 찾았고, 1961년에 비석 하부, 2009년 9월에 빨랫돌로 쓰이던 비석 상부를 수도검침원이 우연히 발견하였다.[4]

지도 속의 경주
경주 지도를 보면 월성, 첨성대, 분황사, 불국사, 골굴암 등 신라시대 유적이 주요 장소로 표기되어있다.
 

경주 관아 주변의 신라유적 표현©해동지도</td></tr>
</table>

기문	이견대(利見臺) : 부의 동쪽 50리 해안(海岸)에 있다. ○ 세간에 전하기를, “왜국(倭國)이 자주 신라를 침범하니 문무왕(文武王)이 이것을 근심하여, 죽으면 용(龍)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고 도적을 방어하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죽을 때에 유언하기를, ‘나를 동해의 물 속에 장사하라.’ 하였다. 신문왕(神文王)이 그 유언대로 하고 장사 지낸 뒤에 추모하여 대(臺)를 쌓고 바라보았더니 큰 용이 바다 가운데 나타나 보였다. 그로 인하여 이견대(利見臺)라고 이름하였다.” 한다. 대 아래의 10보(步) 바다 가운데 네 뿔이 우뚝 솟은 돌이 네 문과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것이 그 장사한 곳이다. 지금까지 대왕암(大王巖)이라고 일컫는다. ○ 이문화(李文和)의 시에, “신라 때 군왕(君王)의 효자대(孝子臺)에, 지금 올라보니 이끼 이미 짙었네. 예정우개(霓旌羽蓋)는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 높은 집과 아로새긴 담은[峻宇雕墻] 터마저 폐하였구나. 은하수 분명한데 북두(北斗) 보이고, 연기물결 저편에는 동래(東萊)가 보이는 듯. 가련하다, 물결 위의 흰 갈매기는, 조수(潮水) 가고 조수 올 때 의구(依舊)히 돌아오네.” 하였다. 금장대(金藏臺) : 서천(西天)의 언덕 위에 있다
제영	[견수모동대(犬首侔東岱)] 이규보(李奎報) / [계림진골고무다(鷄林眞骨固無多)] 고려 김군수(金君綏) / [사백년전장상가(四百年前將相家)] 고려 장일(張鎰) / [최설출현재(崔薛出賢材)] 민사평(閔思平) / [고운사업속수가(孤雲事業屬誰家)] 이달충(李達衷) / [의관일천년(衣冠一千年)] 정추(鄭樞) / [처처유허탑묘다(處處遺墟塔廟多)] 김조(金銚) / [개방오봉년(開邦五鳳年)] 권근(權近) / [기처제릉금완출(幾處諸陵金盌出)] 성간(成侃) / [유여초인관물화(留與樵人管物華)] 성간 / [연성탑묘조(連城塔廟稠)] 이원굉(李元紘) / [오릉추초석양다(五陵秋草夕陽多)] 윤자운(尹子雲) / [요학귀래구롱다(遼鶴歸來丘壟多)] 노문(盧昉) / [일대유민현자후(一代遺民賢者後)] 권진(權軫) / [전당십만기증하(錢塘十萬氣蒸霞)] 김담(金淡) / [첨성대상성초락(瞻星臺上星初落)] 배환(裵桓) / [성시인비초색한(城是人非草色閑)] 이천년(李天年) / [동도성곽변촌가(東都城郭變村家)] 박원형(朴元亨) / [적막천년왕사사(寂寞千年王謝事)] 정효상 / [격계수죽오(隔溪脩竹塢)] 박문우(朴文祐) / [천년고국다유적(千年故國多遺跡)] 김구용(金九容)이 권부윤(權府尹)을 전송하는 시 등 [대올첨성석조홍(臺兀瞻星夕照紅)] 최숙정(崔淑精)의 시에, “계림의 누런 잎에 가을바람 일어나던 그때, 옥피리 소리 그치자 왕운(王運)이 끝났네. 50대 전하던 성곽은 남았건만, 1천 년이 지난 뒤 조시(朝市)는 비었구나. 포석정 허물어진 곳에 가을풀 우거지고, 첨성대 우뚝한데 석양이 붉네. 묵은 자취 완연하나 사람은 모두 갔는데, 난간을 의지해 말없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내노라.” 하였다. [십이영(十二詠)] 계림령이(鷄林靈異) / 오산기승(鼇山奇勝) / 포정감회(鮑亭感懷) / 문천빙망(蚊川聘望) /. 반월고성(半月古城) / 첨성노대(瞻星老臺) / 분황폐사(芬皇廢寺) / 영묘구찰(靈妙舊刹) / 오릉비조(五陵悲弔) / 남정청상(南亭淸賞) / 문옥적성(聞玉笛聲) / 과유신묘(過庾信墓) [칠영(七詠)] 회소곡(會蘇曲) / 우식곡(憂息曲) / 치술령(鴟述嶺) / 달도가(怛忉歌) / 양산가(陽山歌) / 대악(碓樂) / 황창랑(黃昌郞)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화성유수부</td><td>분류</td><td>유수부</td><td>위치</td><td colspan="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td></tr>
<tr><td rowspan="6">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 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수원성</td><td>봉수당(동헌)</td><td>복내당</td><td>화령전,
득중정,
낙남헌,
집사청,
북군영,
장락당,
유여택,
외정리소,
비장청,
서리청,
남군영</td><td>경룡관
(문루),
중앙문
(내삼문),
좌익문,
신풍루
(외삼문)</td><td>미로
한정</td><td>행궁동
한옥마을</td><td>영화정,
향미정, 무예도보통지,
화성성역의궤 등</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정조, 화성 건설, 장용영 등</td><td colspan="4">군사(능행차 등 행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수원의 유수부 승격 : 정조시대 현륭원(사도세자의 무덤) 자리 마련에 따른 수원부의 승격이 조선왕조실록에 묘사되는데, 승격이유를 정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유수로서의 수원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 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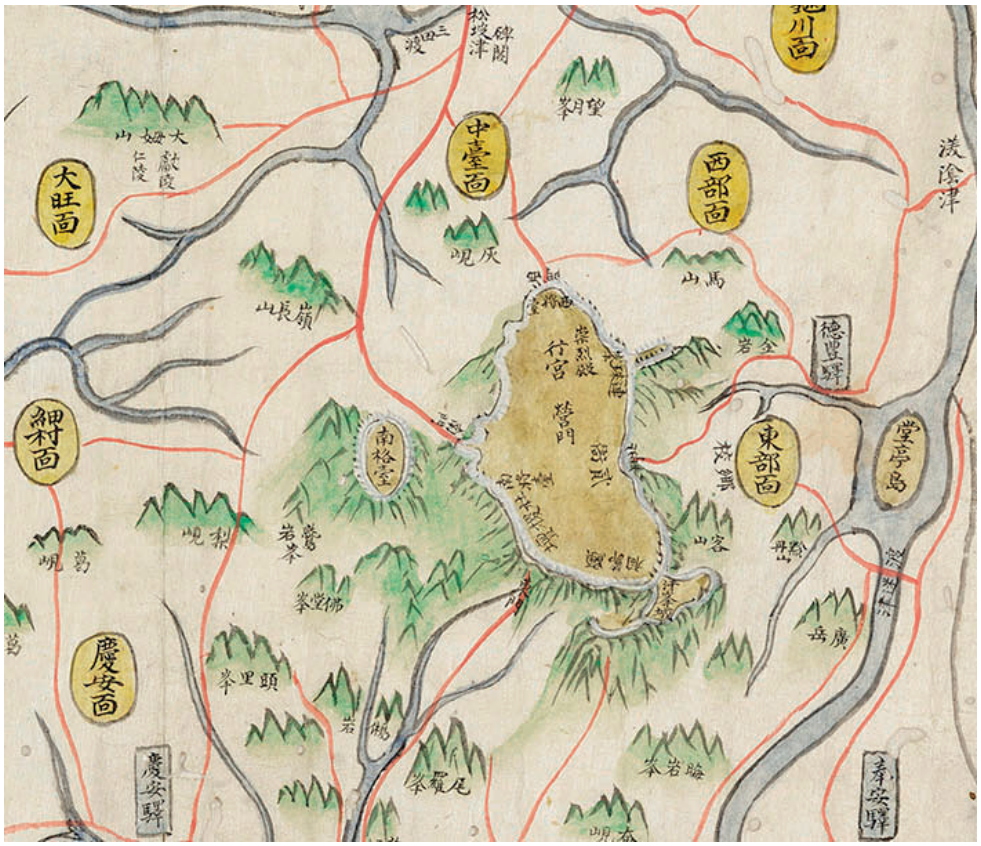
원행을묘정리의궤 : 화성에서 개최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기록. 내용이 상세하여 재현 가능.

화성성역의궤 : 화성 축조에 대한 기록의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무예도보통지 : 정조에 의하여 간행된 무술 교범. 현재 수원화성에서 재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수원이 유수부 승격 되기 이전 모습©수원부읍지</td></tr>
</table>

기문	운금루(雲錦樓) ○ 이색(李穡)이 지은 기(記)에, “지대(池臺)와 피사(陂榭)는 놀고 구경하는 곳인데, 세도(世道)와 무슨 관계가 있으랴. 그러나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자취와, 주현(州縣)의 흥하고 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개 조정이 청명(淸明)하고 위와 아래가 기쁘고 편안하여, 이속(吏屬)은 그 직책을 즐겁게 여기고,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이니, 지대와 피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태평 시대의 성한 모습을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법령이 가혹하고 사나우며 세금 거두는 것이 번다하고 무거우면, 백성은 들에서 탄식하고 이속들은 관아에서 피곤할 것이니, 비록 지대와 피사가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원부의 새 정자를 지은 것에 기(記)가 없을 수 있으랴. 부의 치소(治所 관청 소재지) 동북쪽 모퉁이에 옛 못이 있는데, 황폐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전성안(全城安) 군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개연히 복구하는 데에 뜻이 있어 이에 못을 파서 깊게 하고,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서 새 정자를 산뜻하게 지었다. 재물은 관가에서 나오지 않고 역사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 완성이 되자 고을 사람들이 보고서 서로 돌아보며 놀라 말하기를, ‘어떻게 그리 쉽게 이루어졌는가. 반드시 귀신이 와서 도왔나 보다. 어떻게 우리들을 부리지 않고도 이렇게 되었는가.’ 하였다. 아, 전군은 참으로 백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로다. 마침 전군이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비서소감(祕書少監) 안군(安君)이 나와서 양광도(楊廣道 지금 경기도의 일부) 안찰사(按察使)가 되었다. 전군이 행정에 능한 것을 가상히 여기어 내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씨의 자취가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직 글로 기록하는 데 있으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수원은 안찰부(按察部)의 치소(治所)로서 여러 주·군을 통제하므로, 도 전체의 일이 집중되는 곳이 된다. 그러나 성하고 쇠하며 흥하고 폐하는 것도 또한 한 도 안에서 첫째가 된다. 지금 전군은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지극하고 어루만지며 편안히 거하게 하는 도리가 마땅함을 얻었다. 또 소민(小民)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우리 국가의 태평한 아름다움을 넓혔다. 그리고 안군은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데 온 힘을 다하고 남의 착한 것을 즐겨 말하니 모두 기록할 만한 사실이다. 후일 색(穡)이 일을 마치고 물러나게 되면, 이 고을을 지나갈 것인데, 만일 연꽃이 피는 때를 만나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정자에 올라서 나의 이 기(記)를 읽은 뒤에 갈 것이다.” 하였다. ○ 신숙주(申叔舟)가 지은 중수기 ○ 권제(權踶)가 지은 서(序) ○ 설문우(薛文遇)의 시 ○ 권람(權擥)의 시 ○ 이석형(李石亨)의 시 등 행궁(行宮) : 성 안에 있다. 영화정(迎華亭) : 장안문(長安門) 북쪽 3리이다. 유수(留守)가 여기서 교체한다. 항미정(杭眉亭) : 서둔제(西屯堤)의 서쪽 연안이다.
제영	[해근어만반(海近魚滿盤)] 이색(李穡)의 시에, “산이 깊으니 솔에는 연기가 뜨고, 바다가 가까우니 생선이 소반에 가득하다. 촌 송아지는 언덕 머리에 누워 있고, 들 사람은 머리에 갓이 없다.” 하였다. [누하하화만수개(樓下荷花滿水開)] 이숭인(李崇仁)의 시에, “누 밑에 연꽃이 물에 가득히 피었으니, 수성(隋城)의 6월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였다. [천년벽루흥망구(千年壁壘興亡久)] 김수온(金守溫)의 시에, “연못을 낀 높은 누각은 묻노니 누가 지었느냐. 내가 등림(登臨)한 것이 마침 늦게 갠 때 뜰 아래는 의관(衣冠)을 갖춘 아전이 모이고, 길 옆에는 붉은 단장한 기생이 영접하구나. 천년의 성벽은 흥망이 오래이고, 만가구의 뽕나무와 삼은 정치가 태평이로다. 가장 한스럽구나. 목은(牧隱)이 일찍이 지은 기(記)가 있었는데, 옛 현판에 티끌이 끼어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구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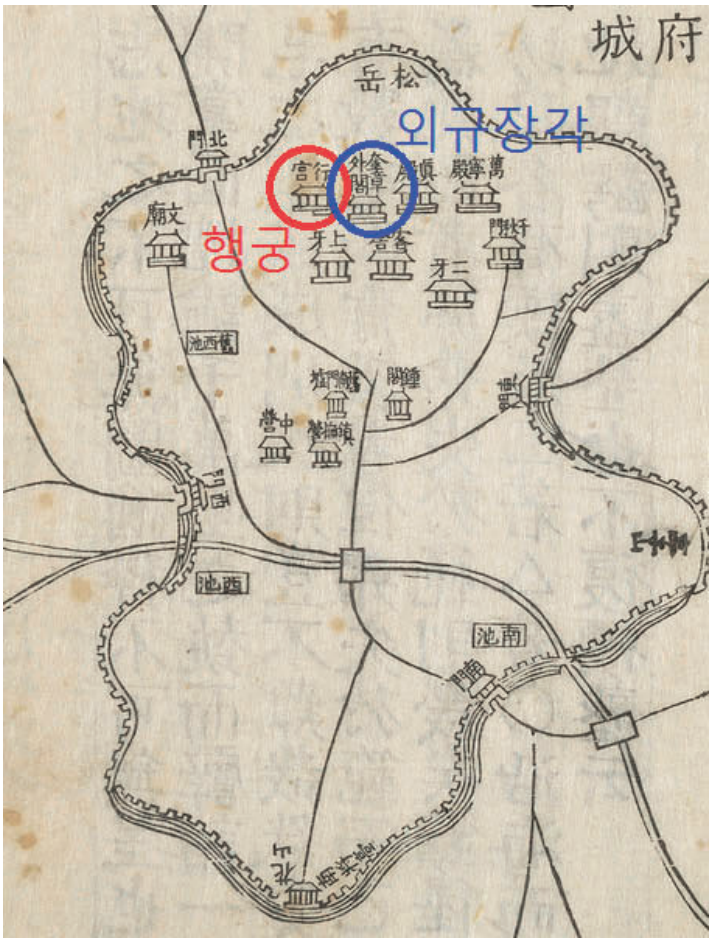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광주유수부</td><td>분류</td><td>유수부</td><td>위치</td><td colspan="3">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문화재</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d>X</td><td>O</td></tr>
<tr><td>남한산성</td><td>외행정</td><td>내행정</td><td>외행정,
일장각,
좌승당,
재덕당
(在德堂),
내행전,
정전, 영녕전</td><td>한남루
(漢南樓
_정문 문루),
내삼문,
남행각,
북행각
(외삼문)</td><td>이위정
(以威亭),
후원</td><td></td><td>통일 신라시대
유적</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인조, 병자호란, 행궁</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인조의 농성과 병자호란
광주 남한산성은 서울의 방비를 위한 산성으로, 적의 접근을 어렵게 하며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각지에서 청에 패배하여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화의가 이루어졌다.
 

험준한 지세가 표현된 남한산성©광주부읍지</td></tr>
</table>

기문	청풍루(淸風樓) : 객관 동북쪽에 있는데 옛 청풍정이다. 목사 홍석(洪錫)이 다시 지어 누로 만들었다. ○ 이곡(李穀)의 기문에, “지정(至正 원 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기축년 여름 4월에 어버이를 뵈러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낙생역(樂生驛)에 이르니, 광주 목사 백화보(白和父)가 글을 보내 초청하고 또 말하기를, ‘관사의 북쪽에 옛날의 청풍정 터를 찾아 네 기둥을 세워 집을 지었는데, 실로 한 고을의 제일가는 명승이라. 기문(記文)을 지어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나는 갈 길이 바빠 우선 답하기를, ‘뒷날 서울에 돌아갈 때에 한 번 가서, 눈으로 보고 기를 지어도 아직 늦지 않을 것이오.’ 하였다. 이듬해 광주에 이르니 백군은 이미 조정에 불려 들어갔고, 이군 모(某)가 대임(代任)된 지 반 년이나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혹심한 더위라 허덕이는 숨길이 실끝 같았다. 이에 이른바 청풍정에 올라 기둥에 기대어 옷깃을 헤치니, 정신이 맑고 상쾌해지며 모발(毛髮)이 선들선들하여져, 더러운 데서 매미가 허물을 벗고 티끌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이군은 술을 장만하고, 조용히 말하기를, ‘네 기둥의 제도는 간소하기는 간소합니다만 아침저녁에 해가 쬐고, 동쪽 서쪽으로 빗발이 치므로 앉아 노는 손님들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양쪽 옆으로 달아내어 남쪽 추녀를 지어 각각 다섯 자씩이요, 북쪽도 또한 이와 같이 하니 약간 넓어지고 또 깊어졌습니다. 벌써 흙 손질을 끝내고 장차 단청을 하려는 참이온데 선생께서 마침 이르러 오시니 어찌 술잔을 들어 낙성(落成)하고, 연월을 써서 기록하여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내 이미 전에 백군에게 허락하였기에, 이에 정자가 폐허된 지가 몇 해인가 물었으나 부로(父老)들이 아는 자 없으니 오늘날 폐한 정자를 일으킴이 사실에 있어서는 새로 세움과 같다. 《춘추(春秋)》에 공사(工事)한 것을 쓴 것은 안할 공사를 하였다고 한 것도 있고, 또 《논어(論語)》에, ‘노(魯) 나라 장부(長府)를 하필 다시 지으리요.’ 한 말도 있으니, 성인이 가르침을 남기신 뜻이 깊다. 내, 광주 형세를 보니 3면은 높은 산이요, 북쪽은 비록 틔여서 넓으나 지세가 낮아서, 공청이나 백성의 집이 우물 밑에 있는 것 같아, 손들이 오면 낮고 누추하다고 불편하게 여길 것이나, 지척(咫尺) 사이에 이 같은 시원한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매, 이 정자를 지음이 《춘추》의 폄(貶)한 예(例)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내 이에 기문을 쓴다. 청풍이란 뜻은 백군의 말에 다하였으므로 내 다시 보태지 아니한다. 백군은 동년(同年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이군의 벗인데, 정사가에 모두 청렴하고 부지런하다는 칭찬 평이 있다.”하였다. ○ 권담(權湛)의 시 / ○ 최항(崔恒)의 시 / ○ 예겸의 기문 / ○ 태복시 승(大僕寺丞) 김식(金湜) / ○ 급사중(給事中) 진가유(陳嘉猷)의 시 / ○ 급사중 장녕(張寧)의 시 / ○ 무정후(武靖侯) 조보(趙輔)의 시/ ○ 정서후(定西侯) 장완(蔣琬)의 시 / ○ 태자소보 겸 좌도어사(太子少保兼左都御史) 왕월(王鉞)의 시 / ○ 병부 상서(兵部尙書) 항충(項忠)의 시 / ○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郎) 등소(滕昭)의 시 / ○ 이부 좌랑(吏部左郎) 유비(劉斐)의 시 / ○ 호부 낭중(戶部郎中) 이형연(李炯然)의 시 / ○ 병부 낭중(兵部郎中) 우면(于冕)의 시 / ○ 병부 원외랑(兵部員外郎) 장여필(張汝弼)의 시 / ○ 한림 수찬(翰林修撰) 나경(羅璟)의 시 / ○ 교유(敎諭) 오가립(┌可立)의 시 / ○ 진사(進士) 진승(秦昇)의 시 / ○ 회계(會稽) 진지(陳贄)의 시 / ○ 호부 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順)의 시 / ○ 신숙주(申叔舟)의 시 / ○ 안지(安止)의 시 / ○ 성임(成任)의 시 / ○ 이승소(李承召)의 시 / ○ 이문형(李文炯)의 시 / ○ 최경지(崔敬止)의 시 등
제영	[사면운산옹관사(四面雲山擁官舍)] 이색의 시에, “사면의 구름산이 관사를 옹위하였는데, 한 줄기 강물은 어대(漁垈)를 둘렀더라.”하였다. [창산녹수장의구(蒼山綠水長依舊)]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푸른 산과 푸른 물은 길어 예와 같은데, 푸른 기와와 붉은 기둥은 몇 번이나 새 것으로 바꾸었는고.”하였다. [수기저정생준예(秀氣儲精生俊乂)] 유백유(柳伯濡)의 시에, “빼어난 기운이 정기를 저장하여 준걸을 낳았으니 조선의 인물이 빛이 있구나.”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강화유수부</td><td>분류</td><td>유수부</td><td>위치</td><td colspan="3">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 colspan="2">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 colspan="2">O</td><td>X</td><td>O</td><td>X</td><td>X</td><td>X</td><td>O</td></tr>
<tr><td>강화읍성, 강화 외성</td><td colspan="2">명위헌 (明威軒 _동헌)</td><td></td><td>괘홀당 (掛笏堂 _이방청)</td><td></td><td></td><td></td><td>외규장각</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광해군의 왕권강화, 병인양요</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
강화부사 정항과 영창대군
영창대군은 선조의 유일한 정궁의 자식으로 광해군에게 그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고, 영창대군과 그를 추종하는 유영경 일파를 왕권강화를 위해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드라마 “화정”에서도 묘사되고 있다.

외규장각과 의궤
외규장각은 정조 때 의궤 등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왕립도서관으로 강화 유수의 감독하에 만들어졌다. 이후 병인양요로 의궤를 약탈당하였으나, 박병선 박사 등의 활약으로 환수할 수 있었다.



외규장각과 행궁 등이 있는 강화 내성©강화부지 심부내성도
</td></tr>
</table>

기문	공아(公衙) : ○ 정이오(鄭以吾)의 기문에, “강화부는 기내(畿內)에 속하였는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 토지는 기름지고 아름다워 언덕・산・갯벌・평지가 크게 있고, 그 식물은 풍부해서 콩・보리・벼가 잘 된다. 옛날 선왕(先王)이 거란(契丹)의 난리를 피해 여기에 들어와 사직을 보존하였다. 산천은 전과 같은데, 성(城)과 대궐은 빈 터만 남았으니, 당시를 상상해 보면 천승(千乘) 만기(萬騎)가 그 속에 머물렀었다. … 금년 봄에 와서 공(박자안)이 장좌(將佐)들을 불러 말하기를,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요, 강화부는 경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강화부의 공아는 좁고 누추한데다 땅이 낮고 습하여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으므로 내가 장차 다시 지으려 하니, 너희들이 의당 그 일을 맡아야 한다.’ 하고, 주사(舟師)에게 명하여 재목을 섬에서 가져오게 하고 승도(僧徒)를 부려서 부내(府內)에서 기와를 굽게 하며 터를 옛 공아 북쪽에 잡고서 열달 만에 완공하여 단청칠까지 하니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으며, 담을 둘러싸니 엄숙하고도 치밀하여 군자의 거처라 할 만하였다. 재목이 남자 또 창고에 부사(府司)를 지어서 집이 서로 접하여 좌우로 공아와 서로 바라보니, 또한 기내에 있는 관부(官府)라고 이를 만하였다.
제영	[해산심처일편주(海山深處一扁舟)] 이색의 시에, “바다산 깊은 곳에 한 조각 배로 화산(華山)에 당도하니 흥이 그지없네. 예전부터 금성탕지(金城湯池)는 덕(德)을 해치는 것인데, 이 땅에 도읍을 옮긴 것은 누구의 꾀인가.” 하였다. [어초유설구천경(魚樵猶說舊天京)] 고려 허금(許錦)의 시에, “옥연(玉輦)이 기구(崎嶇)하게 이 성(城)에 거둥했더니, 어부와 초부들은 아직까지 옛 서울을 말하네. 골에 잠긴 구름 쓸쓸하게 찬 빛이 엉겼는데, 궁(宮)에서 흐르는 물 쫄쫄거리며 옛 소리에 목메이네.” 하였다. [수정통해도(脩程通海島)] 이원(李原)의 시에, “긴 길은 바다 섬으로 통하고, 옛 관(館)은 구름 봉우리에 의지했네. 밤이 고요하니 시끄러움이 그치고, 처마가 비니 달빛이 들어오네. 상(床)에 부는 바람 맑게 산들거리고, 뜰에 선 나무 푸르러 그늘졌구나. 이곳 백성들 이야기 들어보니, 태평 시대는 바로 지금이라 하네.” 하였다. [해근운유습(海近雲猶濕)] 함부림(咸傅霖)의 시에, “바다가 가까우니 구름이 아직 젖어 있고, 산이 둘렀으니 해는 쉽게 그늘지네.” 하였다. [연강부원취(連岡浮遠翠)] 안숭선(安崇善)의 시에, “연달은 멧부리엔 먼 아지랭이 뜨고, 끊어진 언덕엔 층층이 그늘지네.” 하였다. [고국환창해(故國環滄海)] 권맹손(權孟孫)의 시에, “옛 나라는 푸른 바다가 둘렀고, 빈 성(城)엔 비취빛 멧부리만 늘어섰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춘천유수부</td><td>분류</td><td>유수부</td><td>위치</td><td colspan="2">강원도 춘천시 우두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td><td></td><td></td><td>위봉문,
조양루</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고종, 1900년대 세계질서</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구미 열강의 대두와 춘천유수부
고종은 총리대신 심순택(沈舜澤), 판부사 김홍집(金弘集)과 논의하여 춘천지역을 유수부로 두어 방어를 강화하려 하였다. 김홍집은 춘천의 지형이 적합하여 유수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춘천은 유수부로 승격된다. 당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세력 확장으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여, 조선에서는 유사시 내륙으로 이동하는 방면에 동북쪽의 방어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춘천을 유수부로 승격한 것이다.

관아 배치가 자세한 춘천©춘천읍지</td></tr>
</table>

기문	이요루(二樂樓) : 소양강 언덕에 있다. 예전에는 소양정(昭陽亭)이라고 일컬었다. 비선정(飛仙亭) : 소양정의 위에 있다. 봉의루(鳳儀樓) : 객관(客館)의 북쪽에 있다. ○ 성현(成俔)의 시에, “펀펀한 들이 아득히 먼데 푸른 연기 가로질렀고, 어지러운 산이 이지러진 곳에 푸른 하늘이 열렸다. 봉악산 봉우리는 높이 고개를 쳐들어 천 길이나 일어섰는데, 긴 강물은 한 필 비단처럼 그 앞을 흐른다. 내 오늘 와서 강 위에 이르러, 일만 가지 경치를 거두어 모아서 시 읊는 데 돌리노라. 무창(武昌) 버드나무는 서쪽 물가에 그늘지고, 한양(漢陽)의 구름 나무[雲樹]들은 맑은 내를 갈라놓는다. 석양빛 난간에 의지해 서니 보이는 곳이 가이없어라. 바람을 탄 몸이 훨훨 나는 것 같구나. 고금의 영웅이 몇 사람이나 여기에 올라 조망(眺望)하였던가, 떠나는 자리에는 급한 피리 소리가 거문고의 잦은 가락을 재촉하누나. 시내와 산의 안개와 달은 절로 변함이 없건만,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고 해[年]도 그 해는 아니로구나. 긴 둑 위에 계집아이는 낙매곡(落梅曲)을 노래하여, 길가는 나그네의 많은 회포를 일으키도다. 봄바람 맑고 시원하게 비를 불어 날리니, 점점(點點)이 떨어지는 꽃 짙은 이끼를 덮는다. 꽃은 지고 이끼는 이지러지고 울던 새도 흩어지면, 봄경치 한번 가서 어느 때에 돌아올까. 수심(愁心)을 덜어내는 데 옥해주(玉㴱酒)를 쓸 필요는 없으며, 술이 있으면 그만이니 반드시 유하배(流霞杯) 아니라도 좋으리. 강물은 출렁거리고 돌은 깨끗하니, 소양(昭陽) 어디에 조그마한 티끌인들 묻어올 수 있으랴. 인간에서 경치 좋은 곳은 진정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어찌 바다를 건너 봉래산(蓬萊山)을 찾을건가. 일천 마을의 복숭아와 오얏꽃 얼굴빛을 곱게 하니, 벼슬할 심정도 나그네의 회포도 둘 다 적막할 뿐이네. 엉덩이 살은 반이나 빠지고 수염은 반이나 희어졌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디 멀리 노니는 손은 되지 말지어다.” 하였다.
제영	[고적(古迹)은 우두사(牛頭寺)에 있고] 이첨(李詹)의 시에, “말 들으니 춘천은 산과 물의 동굴, 백성들의 집은 조밀하고 바람 소리 많다네. 고적은 우두사에 있고 좋은 경치는 소양정(昭陽亭)에 많다.” 하였다. [강 위의 하늘은 멀고 먼데 누각(樓閣)에 의지해 서니] 강회백(姜淮伯)의 시에, “강 위의 하늘은 멀고 먼데 누각에 의지해 서니, 떨어진 꽃과 날아드는 버들개지 봄바람 앞이로구나.” 하였다. [이곳의 좋은 경치 그림으론 못 그리겠네] 이변(李弁)의 시에, “이곳의 좋은 경치 그림으론 못 그리겠네. 사면(四面)의 산들이 병풍처럼 옹립하여 두 시내에 임해 있네.” 하였다.

3. 대도호부와 목(11개소)

1) 강릉대도호부

2) 양주목

3) 충주목

4) 청주목

5) 홍주목

6) 상주목

7) 성주목

8) 진주목

9) 나주목

10) 능주목

11) 제주목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강릉대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대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강원도 강릉시 명주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O</td><td>O</td><td>X</td><td>O</td></tr>
<tr><td></td><td>동헌</td><td></td><td>별당, 중대청, 전대청, 동대청, 서헌, 칠사당</td><td>강릉대도호부관아문, 중문, 임영관 삼문(臨瀛館)</td><td>의운루(倚雲樓)</td><td></td><td>강릉농악, 강릉단오제 등</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3">활용유형</td></tr>
<tr><td colspan="5">관동의 풍광(훤(래ㅗㅜ) 현상 등으로 인해 관서지방과 기후조건이 다르며 풍광이 다름-봉래 영주와 비교), 강릉 무형문화</td><td colspan="3">문화</td></tr>
<tr><td>기문</td><td colspan="8">동헌(東軒)
○ 성현(成俔)의 시에, “바다와 산 아름다운 경치 새해가 되어서, 봄빛이 봉호(蓬壺) 동리(洞裏)의 하늘에 가득하네. 오도(鰲島)에는 나는 새 위에 아지랑이 날고, 주루(珠樓)에는 저녁 볕 가에 노래와 피리로다. 한 줄기 시냇물은 천 집을 감싸 담을 이루고, 나무에 가득한 꽃은 십 리 연기를 머금었네. 경포(鏡浦)에 개인 물결이 파랗게 일렁이는데, 목란(木蘭)배에 술을 실어 신선을 끼고 노네”, “홍진(紅塵)에 분주하기 몇 해였던가, 부절을 잡고 와서 속세 밖에 노니노라. 흰 고개마루는 우뚝하게 북극과 잇닿았고, 은빛 물결은 넓고 넓어 동쪽 끝이 아득하네. 푸른 소나무는 눈을 머금고 햇볕에 빛나고, 푸른 대숲에 바람이 잔잔한데 저물녘 연기가 감돈다. 추위가 두려워 술 한잔 기울이니, 이 몸이 도리어 주중선(酒中仙)이 되었나.” 하였다.
○ 홍귀달(洪貴達)의 시에, “대관령 밖에 봄이 돌아와 또 한 해가 오니. 화창한 햇볕이 하늘에 걸렸네. 성에 가득한 복숭아・오얏은 봄바람에 피고, 들에 가득한 뽕나무와 삼은 곡우(穀雨) 무렵에 자란다. 푸른 풀 못에는 오리가 처음 놀고, 채색구름 누각에는 다시 연기가 섞였네. 성남(城南)에는 놀이꾼이 나날이 많아지는데, 검은 머리 불그레한 낯이 낱낱이 신선인 듯하여라.” 하였다.
○ 이우(李堣)의 시에, “동쪽으로 와서 나이 더했음을 탄식하지 마라. 아름다운 절후는 한식날이 가까웠네. 일천 집 누각 위에는 노래와 피리소리요. 꾀꼬리와 꽃은 10리까지 취하고 깨는 동안이라. 황정(黃精) 이삭이 새로 비에 젖었는데, 벽해에 곡괭이 가지고 연기를 파헤침 직하다. 일찍이 신선의 약방문을 공부 못한 것 후회로워라, 반생 동안 연화(煙火) 속에서 신선되기를 바랐노라.” 하였다.
○ 정수강(丁壽崗)의 시에, “임영(臨瀛) 옛 마을이 몇 천 년이던가, 지역이 동남으로 열리어 바다를 당기었네. 산천은 예전 그대로 눈앞에 들고, 누각은 중수되어 구름 곁에 솟았네. 집집마다 선비는 삼동(三冬)에 공부를 하고, 곳곳마다 풍년이 드니 만 집에 연기로세. 이것은 임금의 교화를 펴는 사또의 힘이라, 나는 이제 도리어 주중선(酒中仙)이 되었노라.” 하였다.
○ 민수천(閔壽千)의 시에, “기쁜 일 많은 임영에는 세월이 절로 가니, 화려한 경치는 봄철에 가장 좋다네. 향긋한 묵은 술맛은 금항아리 안에 있고, 채색오리 봄 소리는 옥경(玉鏡)가에 있노라. 한 길의 꽃은 붉기가 비단보다 더하고, 천 집 버들은 푸르러 연기와 같구나. 도원(桃源)은 다만 진(秦) 나라를 피한 무리일 뿐이요, 동쪽 바람에 경포대의 신선놀이보다 못하다.” 하였다.

의운루(倚雲樓)
- 객관 남쪽에 있다.</td></tr>
</table>

제영	[땅이 부상(扶桑)과 가까우니 날이 새기 쉽고] 이색의 시에, “땅이 부상과 가까우니 날이 새기 쉽고, 산은 장백산(長白山)과 닿아서 여름인데 오히려 춥다.” 하였다. [큰 물결 땅을 말아오는데 봉래·영주 가깝고] 김구용(金九容)의 시에, “큰 물결 땅을 말아오는데 봉래·영주 가깝고, 높은 영(嶺)은 하늘을 만질 듯 태산(泰山)인가 화산(華山)인가.” 하였다. [고기 잡는 배 푸른 물결에는 만고의 연기] 이인복(李仁復)의 시에, “호해(湖海)에 벼슬살이하며 흐르는 세월을 느낀다. 은혜가 박(薄)하니 두 하늘 있다고 누가 말하나. 가을 원(院)은 제비 돌아간 뒤에 비었고, 저문 산은 날아간 갈가마귀 가에 멀다 베 짜는 깊은 골목에는 3경의 등잔이요, 고기 잡는 배 푸른 물결에는 만고의 연기로다, 경포(鏡浦)와 송정(松亭)이 나를 머물게 한다면, 봉래(蓬萊)섬에 다시 신선을 찾지 않으리.” 하였다. [강릉에 날이 따뜻하여 꽃이 먼저 피었네.] 권적(權迪)의 시에, “강릉에 날이 따뜻하여 꽃이 먼저 피고, 풍악(楓岳)에 기후가 추워서 눈이 녹지 않았다.” 하였다. [낙락한 한송은 푸른 연기에 잠기었다.] 황희(黃喜)의 시에 “맑고 맑은 경포 물엔 새 달이 잠겼고, 낙락한 한송은 푸른 연기에 잠겼다. 구름비단 연꽃은 못에 가득하고 경포대엔 대나무가 가득하니 티끌 세상에도 해중(海中) 신선이 있다.” 하였다. [바다 산이 모두 도화원 속일세.] 안성(安省)의 시에, “나라가 주(州)로 변한 햇수도 알지 못하겠는데, 예성 누관(蕊城樓館)에 또 가을 절후이다. 바다와 산이 모두 도원(桃源)인데, 무엇하러 구구하게 신선을 배우려 하리.” 하였다. [닭 울기 전 새벽 날이 밝다.] 김극기의 시 / [신기루 공중에 떠서 멀리서 바라보니 연기와 같네.] 고려 송인(宋因)의 시 / [길은 흰 새 앉은 물가로 돌았고] 정추의 시 / [살구꽃 울타리 떨어지니 일천 집에 비가 오고] 고려 송천봉(宋天逢)의 시 / [수루(戍樓)에 해가 저물어 화각을 재촉하네.] 강회백(姜淮伯)의 시 [큰 영[大嶺]에는 구름이 기러기 나는 변방에 연하고] 유효통(兪孝通)의 시 / [아득한 성은 말과 같고] 하연(河演)의 시 / [임영은 물에 떠 있고 물은 하늘에 떠 있다.] 박진록(朴晉祿)의 시 [팔영] 김극기의 시. 녹균루(綠筠樓) /한송정(寒松亭) / 경포대(鏡浦臺) / 굴산종(崛山鐘) / 안신계(安神溪) / 불화루(佛華樓) / 문수당(文殊堂) / 견조도(堅造島)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양주목</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3">경기도 양주시 유양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O</td><td>X</td><td>O</td></tr>
<tr><td></td><td>매학당
(梅鶴堂
_동헌)</td><td></td><td></td><td></td><td>금화정
(金華亭)</td><td></td><td>양주별산대놀이, 임꺽정 생가 등</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3">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임꺽정, 양주별산대놀이, 장시와 주막의 활성화</td><td colspan="3">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임꺽정의 활약과 명종조 윤원형 일파의 폐단
양주 출생인 임꺽정은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임꺽정이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는 조선을 크게 뒤흔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당시 윤원형 일파의 폭정의 산물이어서 이기도 하다.

양주별산대놀이
대표적인 산대놀이로 양반 풍자, 서민생활 등 당시 현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도 속 양주 장시
누원점은 한양 초입으로 육의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광주 송파장과 함께 번창했던 장터거리이다. 인근의 의정부점은 주막촌으로, 함경도 또는 연천 방면으로 가는 분기점이다. 지도에는 태조묘, 광릉 등이 표시되어 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교원우족맥장추(郊原雨足麥將秋)]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서울 산하(山河) 중에서 몇째 주인가. 들녘에 비 흡족하니 보리 익으려 한다. 못을 보면 능히 정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들에 가서 머리 식히며 다시 계획한다. 부임(赴任)하는 누가 백학(白鶴)을 탔나. 다정한 객 청루(靑樓)를 꿈꾼다. 지명은 같아도 풍류는 다른데, 시름 속에 공연히 꾀꼬리만 운다.” 하였다.

[운간계견무릉원(雲間鷄犬武陵源)] 이인로(李仁老)의 풍양현 시에, “봉우리 밑 인가(人家)는 양삭(陽朔) 경계와 같고, 구름 속에 개·닭 소리는 무릉도원인가. 사군(使君)이 노란 소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보리 이삭 일렁이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 하였다.

[산연화악중(山連華岳衆)] 권우(權遇)의 시에, “나귀를 타니 야취(野趣)가 많아, 천천히 저녁 빛 속에 걷는다. 역로(驛路)에는 모래와 먼지가 어둡고, 고을 성에는 수목이 울창(鬱蒼)하다. 산은 화악과 연이어서 많고, 물은 한수에 들어가서 길다. 이곳이 뽕나무 뿌리에 알맞아서, 칠경 초당(草堂) 짓기로 기약한다.” 하였다.

[운외종성욕석양(雲外鐘聲欲夕陽)] 이원(李原)의 사천현(沙川縣) 시에, “시냇가 풀 빛 아침비와 연했고, 구름 밖 종소리는 해질 무렵이다. 길손이 여가 없음을 스스로 웃는다. 내 말만 공연히 병들게 한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충주목 /
충청감영(임진왜란 전)</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 colspan="2">O</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청녕헌
(淸寧軒
_동헌)
제금당
(製錦堂
_별관)</td><td></td><td colspan="2">산고수청각
(山高水淸閣
_수직청)</td><td>예성별관
(藥城別館
_내삼문)
중원루
(中原樓
_문루)</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5">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임진왜란, 신립과 탄금대, 충청감영의 이설 등</td><td colspan="5">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임진왜란과 충주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신립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막아선 탄금대 전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군은 패배하였고, 이후 충주는 초토화되어 충청감영을 운영하기에 어려웠다. 공주는 지역이 보존되어 있어 충청감영을 공주로 옮기게 되었다. 공주는 정유재란 때 일시 함락된 적은 있으나 충주보다는 피해가 적었다.</td></tr>
<tr><td></td><td colspan="8">실록각(實錄閣)
객관(客館) 동남쪽에 있다. 본조(本朝)의 실록(實錄)을 보관하고 있는데, 3년마다 사관(史官)을 보내 포쇄(曝曬)한다. 성주(星州)와 전주(全州)도 같다.
○ 강희맹(姜希孟)의 기(記)

남별관(南別館)
서문(西門) 안에 있다. 신별관(新別館) 남문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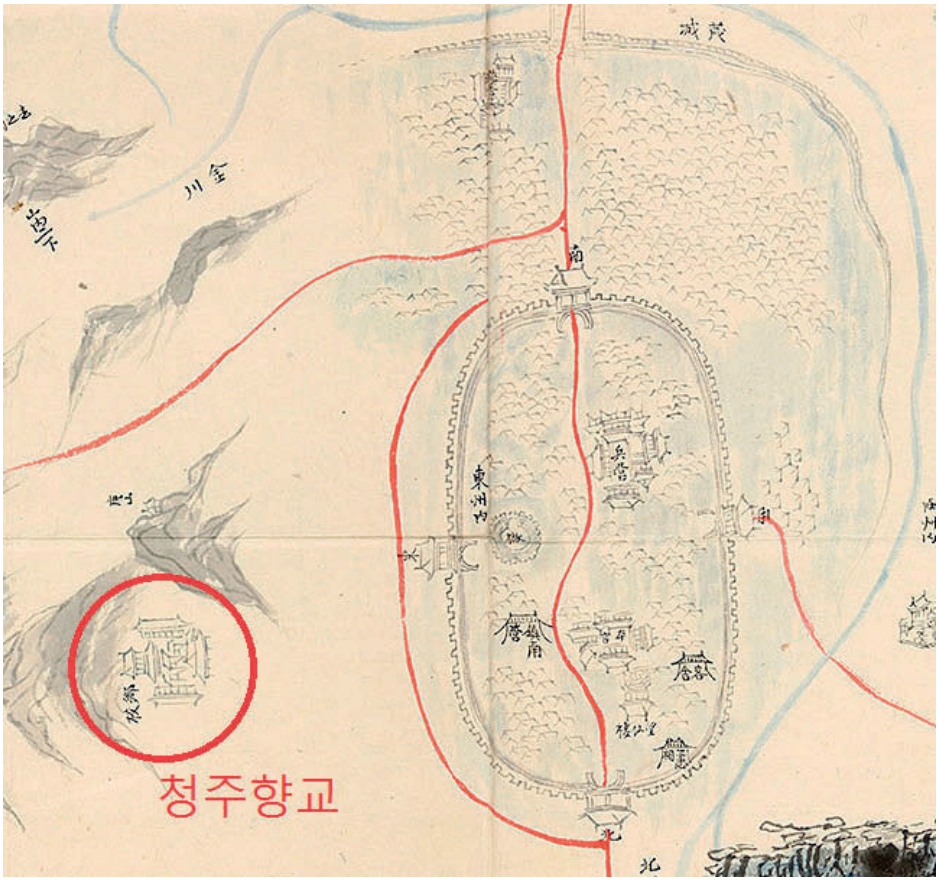
경영루(慶迎樓)
객관(客館) 동쪽에 있는데, 예전 이름은 동루(東樓)이다.
○ 정인지(鄭麟趾)의 기에, “이 고을이 세워진 지 가장 오래되어 삼한(三韓)이 반드시 다투는 땅이 되었고, 신라에 있어서는 한강군(漢江郡)이 되었고, 고구려에 있어서는 국원성(國原城)이 되었는데, 예전 누각이 좁고 기울어져 관부(官府)에서도 쉴 곳이 없다. 하물며 어용(御容)이 돌아오시는 날에 다시 여기에 모신다면 신자의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불안하다.’ 하자, ‘그렇다면 어째서 새롭게 하기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감사 이익박(李益朴) 공과 도사(都事)와 강이(姜履) 군에게 아뢰었다. 이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재목을 베고 기와를 구어 산의 중 신정(信靖)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고을 사람 민수(閔修)가 그 역사를 감독하여 한 달만에 공사가 끝나매, 이름하기를 경영루(慶迎樓)라 하였으니, 대개 어용을 받들어 맞은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예성(藥城)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이름난 땅, 앞에 다가서는 산빛이 자리 구석에 들어온다. 바람과 달은 공부(工部 두보(杜甫))의 읊음이 얼마나 많았던가. 시내와 산 모두가 망천(輞川)의 그림일세. 사람을 침범하는 서늘한 기운 은하수가 가까운 듯, 땅에 깔린 푸른 그늘 들새가 운다. 날이 다하도록 올라가 노는 무한한 뜻은, 석양이 점점 푸른 들로 내려오네.” 하였다.

만경루(萬景樓)
주 서쪽 3리에 있다.
○ 서거정(徐居正)의 시</td></tr>
</table>

기문	공신루(拱宸樓) 바로 성의 북문루(北門樓)이다. 남풍루(南風樓) 바로 성의 남문루(南門樓)이다 망경루(望京樓) 객관 서쪽에 있다. 청연당(淸燕堂) 객관 동쪽에 있다. ○ 홍귀달의 기(記)에, “중원(中原)은 남북의 요충(要衝)이다. 서울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물에 뜨고 육지로 달려 중원에 모여 길이 갈라져 두 고개(조령과 죽령)를 넘어 이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자도 또한 각각 두 고개를 경유하여 중원에 모여서 다시 물과 육지를 경유하여 서울에 도달하는데, 만일 남북의 손님이 서로 만나는 때를 당하면 관사(官舍)가 수용하지를 못하고, 본도(本道)의 세 사(使)는 벼슬이 높아서 품계가 같은데 혹 동시에 이르면 관사를 정해 대접하는 것이 실로 어렵다. 이것은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오래 불편하게 여기는 바였으나 당을 짓는 자가 없더니, 목사 최후(崔侯)와 통판(通判) 이군(李君)은 모두 당시의 어진 사람으로 뜻이 같고 기(氣)가 합하여 서로 더불어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도리가 있어, 지경 안이 흡연(洽然)히 따라서 감화되어 명령하는 대로 좇았다. 이에 비어 있는 땅에 터를 보아서 문의 동편에 들어가서 그 집을 높게 하여 연접시키고 칸수를 넓게 하여 청(廳)을 만드니, 여름에는 서늘한 마루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이 있다. 손님이 오면 거닐고 편히 쉴 곳이 있고, 주인은 손님을 접대하고 정사를 할 곳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된 뒤에 객사(客舍)가 비로소 부족하고 빠진 것이 없게 되었으니, 최후와 이군의 지어 만든 것이 보통보다 훨씬 뛰어난 줄을 알겠다. 준공이 된 뒤에 두 사람이 서울에 편지를 보내 나에게 누각에 대해 이름을 짓고 기를 짓기를 청하니, 내가 사양하다 못하여 말하기를, ‘중원은 산수의 뿌리이니, 천지의 맑은 기운이 여기에 모였다. 묵은 관사가 퇴락되고 새로 짓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으니, 이에 천지의 맑은 기운이 산수에 붙여 있다가 이 누각이 뛰어나게 일어나고 단청이 휘황찬란해짐에 미쳐서는 산수의 맑은 기운이 모두 처마와 기둥 사이에 옮겨졌다. 여기에서 연회의 예를 행하거나 조용히 휴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서를 정리할 수도 있으니, 청연(淸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공사가 4월에 시작하여 석달 뒤에 끝났으니 어찌 그리 빠른가.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6, 7명을 부리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니 어찌 그리 간단한가. 최후의 휘(諱)는 인(潾)이요, 이후는 그 이름이 윤중(允中)이다.” 하였다. 자경당(自警堂) 객관 동쪽에 있다. 향사당(鄕射堂) 서문 밖에 있다. 목사 이귀(李龜)가 세웠다.
제영	[부운원수무심출(浮雲遠岫無心出)]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산 아래 외로운 성 한 띠처럼 비끼고, 푸른 다락이 웅장하게 일어났는데, 채색 노을[綵霞]이 밝도다. 뜬 구름은 먼 산구멍에서 무심히 나오고, 꽃다운 풀은 긴 뚝에 제멋대로 난다. 해마다 가을 곡식은 풍년이 들고, 촌마다 두레북[社鼓]은 태평을 즐긴다. 내가 와서 여러 사람의 칭송을 들으니, 자사(刺史)가 어질고 밝아서 아랫사람의 정을 살펴준다네.” 하였다. [청산환공수영회(靑山環拱水縈回)] 이숭인(李崇仁)의 시 / [월악산고천표묘(月岳山高天縹緲)] 김구용(金九容)의 시에 / [맥수치초구(麥秀雉初雊)] 김구용의 시 / [정읍소조정미어(井邑蕭條碇尾魚)] 정이오(鄭以吾)의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보내는 시 / [월종동악누운생(月從桐岳漏雲生)] 이인전(李仁全)의 시 / [박지여염방수사(撲地閭閻傍水斜 땅에 깔려 있는 여염은 물 옆에 비꼈도다)] 노숙동(盧叔同)의 시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청주목 / 충청병마절도사영
(효종 이후)</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 colspan="2">X</td><td>O</td><td>O</td><td>X</td><td>X</td></tr>
<tr><td></td><td>청녕각
(淸寧閣
_동헌)</td><td></td><td colspan="2"></td><td>충청 병마절
도사영문</td><td>망선루</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5">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청주목사 이이, 기호학파, 많은 서원 분포</td><td colspan="5">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청주목사 이이와 기호학파 형성
율곡 이이가 청주목사를 지낼 때 우리나라 향약을 대표하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백성에게 널리 보급하였다. 이황의 예안향약과 더불어 향약의 양대산맥이라 부르고 있다. 청주향교는 삼남 제일의 향교로 알려져있다.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중심지가 청주 지역으로,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등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갖고 있다.

지도 속의 서원
청주 지도에는 화양서원, 충의사 등 많은 서원이 표현되고 있다. 현재도 청주는 교육의 도시로 불리며 인구대비 학생 수가 전국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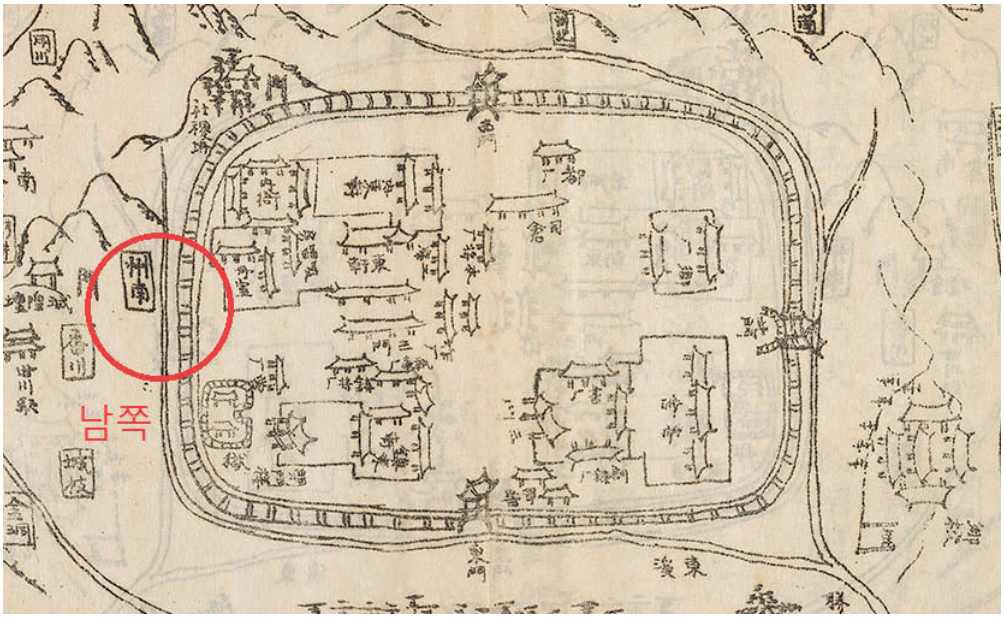
 

향교가 강조되고 주택이 밀집된 청주©청주군읍지</td></tr>
</table>

기문	망선루(望僊樓) 객관(客館) 동쪽에 있었는데, 옛 이름은 취경루(聚景樓)이다. 지정(至正) 신축년(공민왕 10년)에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紅巾賊)을 피하여, 안동(安東)으로부터 이곳에 옮겨 와 수개월 동안 머물렀었다. 도적이 평정되자 문과와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을 붙였었는데, 훗날 사람이 그 방을 써서 누각에 게시하였다. 누각은 오랫동안 헐어 있었는데, 천순(天順) 신사년(세조 7년)에 목사 이백상(李伯常)이 새로 중수하고, 한명회(韓明澮)가 누각의 편액을 고쳐서 '망선루'라 하였다. ○ 이의무(李宜茂)의 부(賦)에, "이 누에 올라 쉬노라니, 먼 변방까지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그지없이 넓은 하늘을 바라보니, 문득 마음은 넓어지고 정신은 평온해진다. 먼지의 어둡고 흐릿한 것을 지나치니, 초연(超然)히 원대한 생각이 피어오르네. 봉래산(蓬萊山)을 지척에 바라보니, 환패(環珮)의 달그락 소리 들리는 듯하여, 문득 범골(凡骨)이 한 번 허울을 벗으니, 사뭇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성싶구나. 명월(明月 달과 야광주(夜光珠)의 두 가지 뜻)로 꾸며 관(冠)을 만들고, 청운(靑雲 구름과 벼슬의 두 가지 뜻)의 옷을 입고 활짝 꽃을 피우도다. 봉황새로 하여금 먼저 중매하게 하고, 파랑새를 시켜서 인사하게 하라. 천제의 궁궐에 나아가 머리 조아리니, 진인(眞人)의 풍모를 지녔구나. 뭇 계집이 나의 아리따움을 시기하여, 도리어 나를 가리켜 무지개[蝀螮]라 하네. 이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버리려 하여도 안 되며, 마음을 낮추고 얼굴을 취하려 해도 그것 또한 나의 재주가 아니로다. 해는 져서 장차 함지(咸池)로 들어가려 하니, 꽃다운 것을 모두 잡아서 쉬게 하도다. 노복(奴僕)은 말[馬] 생각을 안타깝게 하여 우두커니 서서 돌아만 보네. 가는 길이 더디고 더딤을 한탄하노니, 큰 들은 아득히 평평하기만 하도다. 짐승들은 바삐 뛰며 무리를 찾고, 새들은 날다가 지쳐 날개를 걷는다. 그윽하고 곧음이 처신할 곳인 줄 깨달았으니, 동서와 남북을 헤매어 무엇하리오. 신선 살이를 바라는 것은 분수가 아니니, 나는 장차 전원(田園)에서 할 일이 있노라. 강산을 어루만지며 노니나니, 풍월을 즐기며 글 읽는 소리로다. 날마다 하는 일 없이 유유자적하노니, 노담(老聃: 노자老子)을 본받고 장주(莊周: 장자莊子)를 소망하도다. 이 즐거움 바꿀 것이 없으니, 어찌 내가 한 고을에서 답답히 지낸다 하리오." 하였다. 쇄(誶: 졸장卒章)에 이르기를, "기장이 풍년들고 보리가 한 줄기에 두 이삭씩 팼으며, 나의 들과 질퍽한 들에 고기 살찌고 나물 또한 향기로우니, 나의 맛있는 반찬이로다. 진실로 내 여기 삶이 즐거우니, 여기서 늙어 죽은들 무슨 한 있으리. 신선들에게는 따라 미치지 못할망정, 내 스스로 갈천씨(葛天氏)의 태평성대에 비기노라." 하였다. ○ 양희지(楊熙止)의 시에, "마을에 부슬비 내리고, 절에서는 저녁 종소리 울리기 시작하도다. 이끼 낀 벽에 달팽이 지나간 자국 글자를 이루었고, 모래층 뜰의 새 발자국은 전서(篆書)로구나. 못은 깊어 바닥까지 깨끗하고, 누각은 높아서 훤하게 트이었도다. 임금 수레 가신 뒤 소식 없고, 귀뚜라미 울음 소리 나에게 하소연하는 듯하구나." 하였다.
제영	[이천서입금강류(二川西入錦江流)]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큰 들판은 남쪽으로 문군(文郡)에 이어서 사라지고, 두 냇물은 서쪽으로 금강에 들어 흐른다." 하였다. [유녀전두채간빈(遊女田頭採澗蘋)]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동풍이 살짝 불어 가는 비를 들판에 뿌리니, 봄빛이 불탄 자리에 아득히 보이네. 산골짜기에 해가 더디니 꽃이 필 듯하고, 시내에 얼음이 녹으니 물이 힘차게 흐르네. 목동들은 소등에서 갈대 피리를 불고, 유녀들은 밭머리에서 시내의 마름꽃을 따네. 말 위에서 계절에 놀라 읊조리노니, 고향은 아득하여 내 시름 자아내네." 하였다. [포곡제춘권우경(布穀啼春勸耦耕)] 옛 사람의 시에, "아침부터 병(病)을 달래어 동영(東榮 동쪽 처마끝이란 뜻)에 앉았으니, 산빛은 아득한데 비가 잠깐 개었구나. 우거진 먼 숲은 안개에 젖었고, 먼 멧부리는 아스라이 흰구름 비꼈도다. 수양버들은 땅을 쓸어 떠나는 시름을 자아내고, 뻐꾹새는 봄을 울어 밭갈이를 재촉한다. 바람 시켜 꽃 다 지게 하지 마오, 이 시정(詩情) 붙일 곳 없어 다시금 시름짓네." 하였다. [금방전호공북루(金榜傳呼拱北樓)]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임금님 수레 남쪽 나라 순행하니 금방(金榜)을 공북루에서 전하여 부르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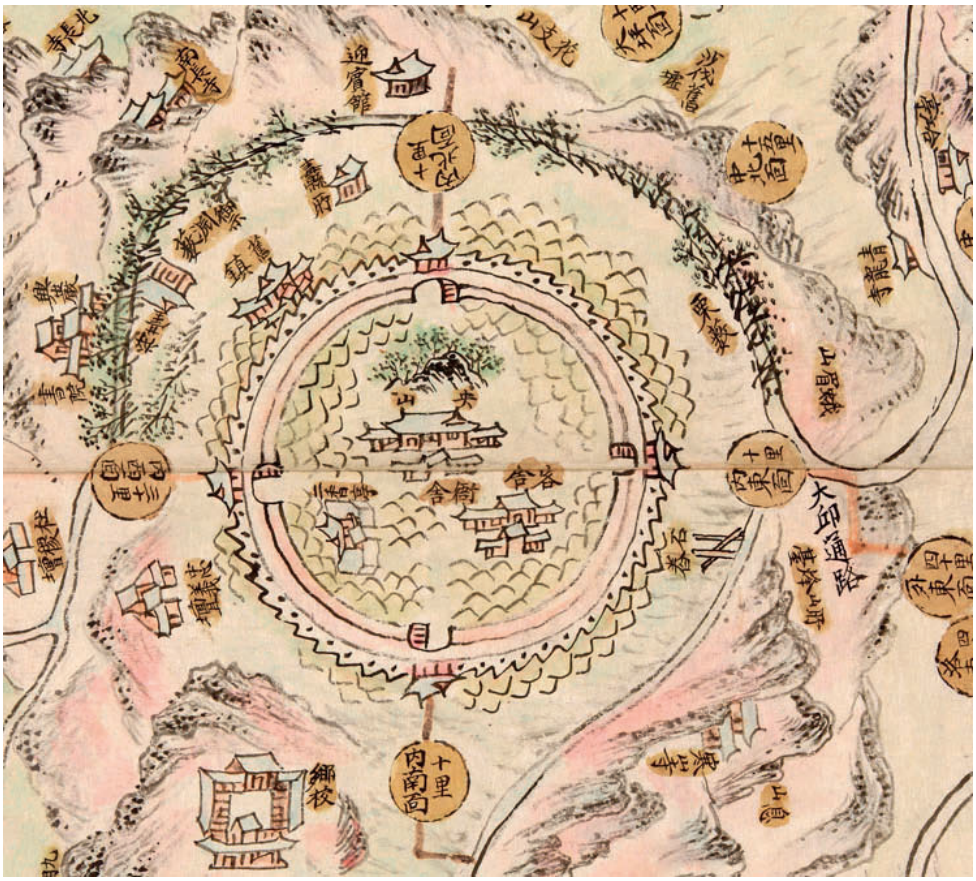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홍주목</td><td>분류</td><td colspan="2">목</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O</td><td>O</td><td>X</td><td>X</td></tr>
<tr><td>홍주읍성 조양문 (朝陽門 _동문) 홍화문 (복원) 등</td><td>안회당 (安懷堂 _동헌)</td><td></td><td></td><td>홍주아문 (외삼문)</td><td>여하정 (余何亭)</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활발한 장시(호서 거읍),
홍주목사 홍가신(이몽학의 난 평정)</td><td colspan="4">경제(홍성상설시장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홍주목사 홍가신의 반란 평정
이몽학은 홍산현에서부터 충청도 일대를 휩쓸고 있었다. 이몽학에 호응하는 세력은 점점 늘어 마침내 홍주를 공격하였는데, 홍주목사 홍가신은 반란군을 분열시키려는 계략을 꾸몄고, 이를 성공시켰다. 이몽학의 부하 김경창과 임억명은 전세가 불리함을 느끼고 이몽학의 목을 베어 항복하였고, 배후 인물 한현도 체포되었다.

지도 속의 홍주
성곽에는 남문이 없는데 읍기(邑基)의 방해처가 되어 만들지 않았고 대신에 나무를 심었다. 동문 앞의 하천을 따라서도 숲을 장양한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지역의 범람을 막아주는 기능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고을 인근의 용곡장, 백야장, 거산장 등 장시가 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문이 없는 홍주©충청남도읍지</td></tr>
</table>

기문	객관(客館) 조위(曺偉)의 객관 기문[記]에, “협성(俠城)의 송후(宋侯) 요년(遙年)이 근후(謹厚) 독실한 재질로 일찍부터 좋은 벼슬에 올라 당세에 영명(令名)을 날렸으며, 일찍이 서원(西原)의 부관·면양군수(沔陽郡守)·상주 목사(尙州牧使)를 역임하였는데, 모두 혜정(惠政)을 베푼 바가 있어 지금까지도 그를 칭송 사모함이 있다. 성화(成化) 병오년에 또 홍주 목사가 되어 나오니, 홍주는 호서(湖西)의 거읍(巨邑)이다. 그 땅이 기름지고 넓으며,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많아서 난치(難治)의 고을로 일컬어 왔다. 그러나 송후는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근하게 접하는 정책을 써서 권유나 지시 등의 조목을 간략히 하고, 번쇄(煩瑣)한 정령(政令)과 가세(苛細)한 것을 덜어 없애니, 온 경내가 안온하여 백성들이 그의 임사(任使)를 즐거워하였다. 하루는 뒷 청사에 앉아 문부(文簿)를 고찰하고는 통판(通判) 조후(曺侯) 말손(末孫)에게 말하기를, ‘해우(廨宇)는 빈객을 접대하는 곳이며, 대청(大廳)은 곧 삭망(朔望)으로 조회 받는 정아(正衙)인데 지세가 낮아서 염찰의 위엄이 없고, 제도가 협소하여 예(禮)를 행할 곳이 없는데다가 세운 연대가 오래되어 장차 꺾이고 무너질 것이니 어찌 이를 고쳐 세워 오랫동안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니, 통판이 말하기를, ‘삼가 명에 따르겠습니다.’ 하여 합의를 본지라 이에 재목을 모으고 돌을 캐는 데 노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기유년 봄에 그 낙성을 고하게 되니, 지난날 낮았던 것이 높아지고, 좁았던 것이 넓어졌다. 그 모퉁이와 뜰을 높이고 규모와 제도를 확장하고는 흰 회로 바르고 단청(丹靑)으로 채색하니, 높고 크고 또 미려하여 한 고을의 미관(美觀)을 이루었다. 송후가 서울로 편지를 띄워 내 말로 기문[記]을 삼고자 하므로 나는 답하기를, ‘송후의 빛나는 성문(聲聞)이 일찍부터 조정 위에 전파되었고, 이어 금방(金榜)에 이름이 올랐으니, 마땅히 바로 요로(要路)에 올라서 대각(臺閣)에 출입할 것인데도, 늙으신 어버이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를 봉양코자 누차 지방관으로의 전보(轉補)를 청하여 여러 주군(州郡)으로 배회하면서 깨끗하고 기름진 봉양을 다하였으니, 이는 송후의 지극한 성효(誠孝)가 천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요, 캐고 들추어 내지 아니하여도 백성들이 차마 속이지 못하고, 치고 때리지 않아도 아전들이 두려워하고 심복하여 촌간에서는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으며, 온 고을의 경내가 함포고복(含哺鼓腹)의 낙이 있었으니, 이는 송후의 행정의 공적이 열읍(列邑)과 다른 점이다.’ 하였다. 어버이를 섬기는 효성과 고을을 다스리는 재능은 진실로 사책(史策)에 기록하여 전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이제 이 한 토목(土木)의 공사와 한 청사(廳舍)의 영선(營繕)이 어찌 송후를 위하여 칭찬하기에 충분하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나 내 여기서 느낀 바 있으니, 요즈음 각 주군을 살펴보건대 근년 이래로 거의 모두 일신하게 중수하여 기울고 무너진 것들이 열에 두서넛도 없을 뿐더러 그 제작한 것이 모두 굉장하고 화려하여 옛것의 갑절이나 되었으니, 어찌 옛날의 장인(匠人) 석공(石工)들은 모두 법도에 어두웠고, 지금의 목공[梓人]들은 모두 반영(般郢)의 교묘한 수법이 있어서 그러하겠는가. 이는 실로 조정이 청명(淸明)하고, 중외가 무사(無事)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고 물산(物産)이 은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력(事力)에 여유가 있게 된 까닭이요, 또 옛날에 경영한 구조란 겨우 병란이 없는 틈을 타서 하였기 때문에, 그 초라한 창설(創設)이 저와 같았으나, 오늘날에 제작하는 자는 종용하고 한가하여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하고 화려함이 이와 같은 것이니, 이 어찌 세도(世道)의 흥체(興替)에 관계되어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한 관해(官廨)의 영선이 송후에게는 비록 증익(增益)도 손실도 없을 것이지만 이로써 위로는 국가의 승평(昇平)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 다음으로는 또한 수령의 현능(賢能)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어찌 적게 평가하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이 제작한 바를 목도(目覩)하고 송후의 어짊과 오늘의 융성을 상상할 것이니, 송후의 이 공적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나는 송후께는 자제(子弟)들과 같은 반열이다. 그런데 글을 내리심이 두 번에 이른지라, 의리로 보아 사양할 길이 없어 우선 이것을 써서 보내드리는 바이다.” 하였다.
제영	[파명해상성(波明海上城)] 이색(李穡)의 시에, “산중 길은 구름 깔려 어두운데, 바다 위에 임한 성은 물결도 맑다.” 하였다. [비예연운유고성(睥睨連雲有古城)]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높은 평원 바둑판처럼 그 형세 펀펀한데, 비예가 구름과 연한 옛성이 있구나. 아득히 포열해 있는 바다 위 산에 날이 저물어 가고, 수북수북하게 올라온 벼 기장에는 비가 처음 개었다. 밭 사이로 들밥 이고 가는 촌아낙네 어린아이 데리고 가고, 언덕 위에 밭가는 어미소엔 송아지 따라다닌다. 동네 숲에서 모여 산신제는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취했는데, 흔들거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더운 바람도 맑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상주목</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3">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O</td><td>O</td><td>X</td><td>O</td></tr>
<tr><td></td><td>상산관
(商山館
_객사)</td><td></td><td>상주향청</td><td>태평루
(太平樓
_문루)</td><td>침천정
(枕泉亭)</td><td></td><td>상주 북천
임란 전적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임진왜란, 상주 전투, 의병의 첫 등장</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임진왜란 상주 전투
순변사 이일이 인솔한 관군과 상주 의병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기습을 받아 패전하였다. 후에 일본군은 충주로 향하여 신립과 접전을 벌인다. 임진왜란 사상 관군과 의병이 힘을 합친 첫 접전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주택이 밀집된 상주©경상북도상주군읍지</td></tr>
</table>

기문	객관(客館) 안축(安軸)의 기에 “지정(至正) 3년 계미(癸未)년에 내가 상주(尙州) 목사의 명을 받아 이해 여름 4월 고을에 부임하여 일을 보았다. 근년 이래로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마을 골목이 쓸쓸하며 옛날의 공해(公廨)·학교(學校)·신사(神祠)·불사(佛寺)라고는 모두 기울어 무너지고, 오직 객사(客舍)만이 온전히 갖추어져 고대(高大)하고 화려한 것이 남방에 으뜸이고, 그 청당(廳堂)과 기초의 규모와 배치(排置)가 크고 장려하며 여유가 있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었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시속 사람의 상례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하여 고을 사람에게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지금의 정동성랑(征東省郞) 김상국(金相國) 영후(永煦)가 영건(營建)한 것입니다. 이 고을이 팔방으로 통한 거리에 있어서 역마를 타고 사명을 받든 자가 빈 날이 없는데, 옛날의 객관이 비습하고 좁고 낮고 더러우며, 또 오래되어 기둥이 이미 흔들렸으므로 항상 손님의 꾸지람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정묘(丁卯)년 4월에 공이 이 고을 목사로 부임하여 곧 새롭게 할 생각이 있었으나 생민의 지치고 곤함을 민망히 여기어 차마 공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다만 인애(仁愛)로써 백성을 사랑하고 엄중하게 부하를 경계할 뿐이었는데, 돌이 지나자 고을 사람들이 덕스러운 정사에 편안하여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겨 공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백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재목을 모으고 역사를 시작하여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발로 뛰고 손으로 춤추며 기쁨으로 수고로움을 잊으므로 억센 무리들도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귀를 늘어뜨리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이 백성을 상하지 않게 하고 공사가 농업을 방해하지 않아서, 며칠이 안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이 준공되자, 또 객관의 서쪽을 개척하고 따로 작은 관사를 영건하니, 비록 사빈(使賓)이 겹쳐 이르러도 기숙하는 것이 여유가 있어 고을 사람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아, 공(公)이 저와 같이 얼마 안 되는 백성을 써서 이와 같은 큰 집을 지었으나 힘은 실로 넉넉[恢恢]하였으니, 비록 백성의 힘을 쓰긴 하였으나 실상은 공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백성이 지금까지 칭송한다. 대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시경(詩經)》에, ‘창과 지게문을 얽고 손질한다[綢繆牖戶]’는 비유가 있고, 《서경(書經)》에는 ‘긍당긍구(肯堂肯構)’의 비유가 있으니, 공이 묘당(廟堂)에 앉아서 경기(經紀)를 세우고 방략(方略)을 베풀어서 다시 왕가를 번영하게 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하였다. 가정(嘉靖) 병술년에 불에 탔는데, 목사(牧使) 윤탕(尹宕)이 고쳐 지었다.
제영	[지형진사호기복(地形眞似虎起伏)]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상주는 옛날의 사벌국(沙伐國)이다. 왕후(王侯)의 제택(第宅)이 남은 터도 없다. 간과로(干戈)로 백 번 싸운 생사(生死)의 땅에 오직 강산만이 성쇠(盛衰)를 꺾어 왔다. 나라 깨어져 고을 되고 고을이 나라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때만이 아니리라. 땅 형세는 흡사 호랑이가 일어났다 엎드렸다 함과 같아서 어찌 그리 담 두르듯 천리를 에둘렀노. 가고 옴에 피곤하여 누웠으니 날은 저물어, 기관(寄觀)에 눈을 붙여 끝까지 찾을 겨를 없었다. 날 밝자 나가 놀아 시험삼아 고루 보니, 고기 비늘 같은 집에 용트림한 듯 보이도다. 나비 같은 눈썹(고을의 기생들) 나란히 절하는데 환패(環佩)가 운다. 자운(紫雲)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누구인지 알겠는가.” 하였다. [사벌구기유승경(沙伐舊畿猶勝景)] 하륜(河崙)의 시에, “사벌의 옛 왕기는 아직도 좋은 경치이고, 서라(徐羅)의 남은 풍속은 스스로 순박한 풍토로다.” 하였다. [불견구주낙수중(不見龜疇洛水中)] 정발(鄭潑)의 시에, “완연히 자지곡(紫芝曲)을 상산(商山) 속에 듣겠는데, 귀주(龜疇)는 낙수 가운데에 보지 못하도다. 사벌(沙伐)의 유적을 물을 곳이 없으니, 수천 년의 일을 시공(詩工 시(詩)하는 사람)에게 부친다.” 하였다. 거읍고상락(巨邑跨商洛) 김조(金銚)의 시에, “큰 고을은 장산과 낙수에 걸쳐 앉았고, 위태한 다락은 조망이 멀고 밝다.” 하였다. [천년낙수서응출(千年洛水書應出)]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천년 낙수에는 글이 응당 나올 것이요, 만고 상산은 골이 스스로 깊도다.” 하였다. 여정천구원(閭井千區遠) 권맹손(權孟孫)의 시에, “여항 우물은 물 천 구역이 멀고, 구름산은 만겹이 맑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성주목</td><td>분류</td><td colspan="2">목</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 colspan="2">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 colspan="2">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 colspan="2">성산관
(星山館
_객사)</td><td></td><td></td><td>아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성주서원, 성주사고, 남방 제일의 고을</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경상북도성주군지도 속 제사지
고을 주변에 성황당, 관왕묘, 여단, 향교 등이 그려져 있다.

해동지도 속 성주의 서원
성주에는 川谷書院, 柳溪書院, 晴川書院, 德峯書院, 檜淵書院, 玉川書院과 같이 서원이 많다. 이 중 천곡서원과 회연서원은 사액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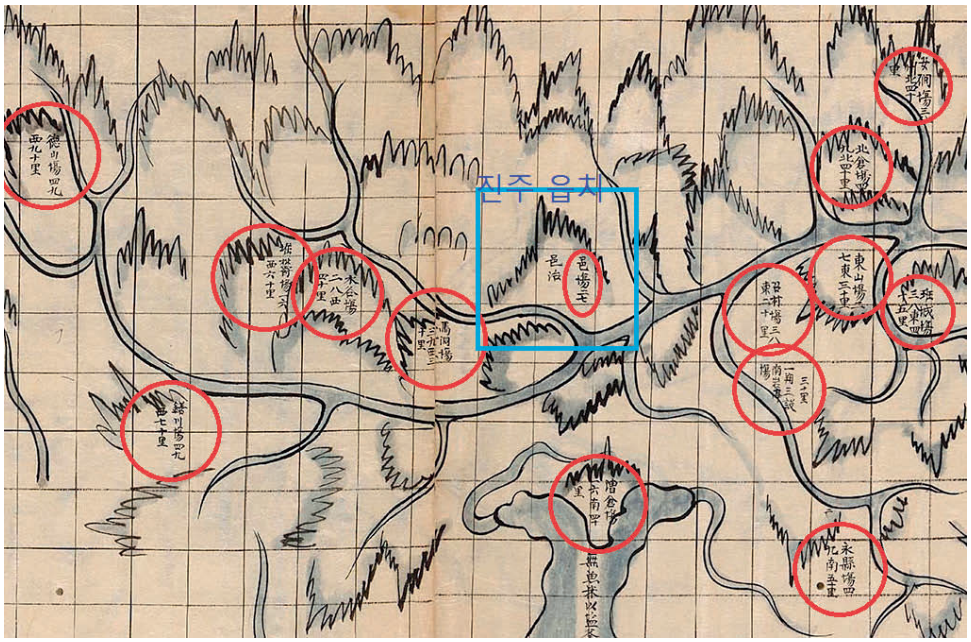
성주 관아 주변의 서원과 향교©해동지도</td></tr>
</table>

기문	실록각(實錄閣) : 성안 객관(客館) 동북쪽에 있는데, 본조(本朝)의 실록을 간직하였다. ○ 강희맹(姜希孟)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봉안(奉安)하는 시에, "헌원씨(軒轅氏)의 봉력(鳳曆)에 왕춘(王春)을 기록하였다. 구오(九五)의 용이 나니, 대인(大人)을 보았도다. 석실(石室)에 쇠를 잠가 실록을 간직하니, 멀리 활과 칼을 생각하니 마음이 배나 슬프다." 하였다. 백화헌(百花軒) : 곧 동헌(東軒)이다. ○ 신숙주(申叔舟)의 《중영기(重營記)》에, "고을에 관사(館舍)와 해우(廨宇)가 있는 것은 사신(使臣)을 높이고 빈객을 접대하자는 것이니, 고을의 수령이 된 자가 마땅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을이 비록 작고 땅이 궁벽지더라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고을이 크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곳이랴. 성주(星州)가 고을로 세워진 것은 신라(新羅) 초기부터 현(縣)에서 군(郡)으로, 군에서 부(府)로, 부에서 주(州)가 되어 지역을 잃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횟수를 지나온 것이 남방 고을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또 속현(屬縣)이 셋이나 되어 땅이 크고 백성이 호강(豪强)하고, 고을의 치소(治所)가 도(道)의 중앙에 있어서 역마를 탄 사신이 번갈아 이르고 손과 나그네가 모여드는데, 관해(館廨)가 세월이 오래 되어서 빈객과 사신을 접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법이 엄하고 백성이 사나워서 고을을 지키는 자가 모두 역사(役事)를 일으키기를 어렵게 여겨 관해(館廨)가 허물어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돌 한 개, 기와 한 장이라도 다시 수리하여 정리하지 않고 수수방관(垂手旁觀)하여 교체되기를 기다린다. 우리 동년(同年) 김유선(金有銑) 군이 목사가 된 지 돌이 못 되어 정치가 이루어지고 일이 간략해졌다 하여 탄식하기를, "성주가 남방의 큰 고을이고 땅이 요충(要衝)에 있는데, 관해가 이와 같아도 수령이 된 자가 뜻을 두지 않는 것이 옳은가. 법이 엄하더라도 법을 범하지 않으면 법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백성이 사납더라도 백성을 귀찮게 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꺼릴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에 재목을 모으고 공장이를 명하여 먼저 정청(正廳)의 동헌을 짓되, 예전 제도를 인습하여 넓힌 지 두어 달이 못 되어 준공하였다. 모두 2칸인데, 앞에 횡랑(橫廊)이 있어 밝고 통창하고, 뜰 가에는 화단이 있어 여러 가지 꽃을 심었다. 그리하여 아전을 보내어 편지를 달려 기(記)를 청하였다. … (하략) ○ 고려(高麗) 이조년(李兆年)의 시 / ○ 고려 왕강(王康)의 시 / ○ 남재(南在)의 시 등 흥민각(興民閣) : 객관 남쪽에 있다. 좌우에 홍련(紅蓮)·백련(白蓮) 두 당(堂)이 있고, 모두 연못이 있다. 목사 민영견(閔永肩)이 세웠다.
제영	[교목구려회세덕(喬木舊閭懷世德)] 이곡(李穀)의 시에, "교목과 옛 거리는 세덕을 생각하고, 낙하(落霞) 고목(孤鶩)은 재주 없음이 부끄럽다." 하였다. [일렴향무금성퇴(一簾香霧錦成堆)] 전 사람의 시에, "다시 백화헌(百花軒) 속에서 자려 하니, 발에 가득한 향기 안개요, 비단이 무더기를 이루었다." 하였다. [강분낙수천지준(江分洛水天池濬)] 이첨(李詹)의 시에, "강은 낙수를 나누었으니 천지가 깊고, 눈[雪]은 가야산(伽倻山)을 눌렀으니 지축(地軸)이 웅장하다." 하였다. [호산형승갑남주(湖山形勝甲南州)] 김수녕(金壽寧)의 시에, "호산의 좋은 경개가 남주에서 으뜸인데, 백 가지 온갖 모양 봄빛이 아직 가을이 되지 않았구나." 하였다. [교목한연쇄고주(喬木寒煙鎖古州)] 강희맹(姜希孟)의 시에, "교목의 찬 연기는 옛 고을에 잠겼는데, 집집의 감과 밤은 서리 가을을 만났도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진주목 /
경상우도 병마절도영</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td><td>X</td><td colspan="2">X</td><td>O</td><td>O</td><td>X</td><td>O</td></tr>
<tr><td>진주성,
공북문,
포루</td><td>진주역 :
진주객사
양식</td><td></td><td colspan="2"></td><td>영남
포정사
문루
(嶺南
布政司
門樓)</td><td>촉석루
(矗石樓),
진남루
(鎭南樓
_북장대),
회룡루
(回龍樓
_서장대)</td><td></td><td>의암,
의기사,
창렬사,
진주교방
굿거리춤</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5">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주막/장시/교통, 김시민, 논개,
촉석루와 주변경관, 진주교방, 진주교방음식</td><td colspan="5">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진양지 속 진주 8색 : 진양지 속에는 총 8장의 지도가 그려져있다. 지도에는 산천과 교통로의 모습이 조화롭게 나타나 있는데, 제 2도(지도)에서의 특징적인 그림은 주막이다. 북창주막, 평거주막, 오산주막, 목곡주막의 거리와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주막을 통한 교통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 8도(지도)에서는 북창장, 영현장, 소촌장, 조창장, 마동장 등이 그려져 있다. 이 외에도 각 지도마다 곡창, 불교유산, 풍치가 좋은 정자, 역, 서원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 주막과 장시 등등이 한 지역에 겹쳐있는 경우가 많다.

김시민의 진주대첩 : 진주목사 김시민은 진주에서 일본군을 막아내어 전라도로 가는 진격로를 차단하게 된다. 덕분에 전라도는 온전하여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진주대첩시 일본군 피해가 상당하여, 일본 가부키 '모쿠소 판관'에도 묘사되고 있다고 한다.

논개 : 진주목의 관기로 제2차 진주전투로 성이 함락될 때 기녀로서 적장을 유인하여 남강에 함께 빠져 순절하였다.

진주 주변 장시©진양지</td></tr>
</table>

기문	객관(客館) ○ 하륜의 서문에, “고을 객사가 두 번이나 화재를 만나, 다시 짓지 못한 지가 여러 해였다. 계미년에 지금 판서 광주(廣州) 안공(安公)이 좌사간대부로 있다가 목사가 되어 나갔다. 이에 옛터를 찾아 그전보다 제도를 조금 넓혀서 신축하였는데, 지금 목사 최공과 판관 은군(殷君)이 계승하여 더 수축하였다. 안공의 이름은 노생(魯生)이요, 최공의 이름은 이(迤)이며, 은군의 이름은 여림(汝霖)인데, 무두 훌륭한 관리로서 세상에 명성이 있다.” 하였다. 촉석루(矗石樓) : 촉석성 안에 있다. ○ 하륜의 기문 / ○ 고려 정을보(鄭乙輔)의 시 / ○ 백문보(白文寶)의 시 / ○ 백미견(百彌堅)의 시 / ○ 김구경(金久冏)의 시 / ○ 정이오의 시 / ○ 허침(許琛)의 시 / ○ 유호인(兪好仁)의 시에, “창망한 호해(湖海)에 가장 명승이라, 하늘이 사신(詞臣)을 보내 이 누에 이르렀네. 막막한 강 언덕 꽃은 밝기가 비단 같고, 겹겹으로 연기 낀 나무 푸름이 흐르는 듯하다. 백년 풍물은 그 누가 구사(驅使)하랴. 한 돛대 술 실은 배는 제대로 남쪽으로 떠다닌다. 지는 해에 유하주(流霞酒) 취해 잠이 달게 든 곳, 일부러 이 몸을 고을에 머물게 한 듯.” 하였다. ○ 이우(李堣)의 시에, “서쪽으로 지리산을 연해 참으로 선경이라, 기이한 경치는 동쪽으로 강북(江北)의 누에 다 있네. 풍경은 영원히 봉악(鳳岳)에 머물러 있고, 번화함도 정천(菁川) 따라 흐르지 않는다. 3년 동안 풍월 두고 시 천 수 지었고, 한 번 웃으니 신세와 이름이 다 헛것인 것을, 대궐 향할 한쌍의 오리가 그리 멀진 않지만, 꿈속에도 묘연하니 중주(中州)가 아득해라.” 하였다. 쌍청당(雙淸堂) : 촉석루 서편에 있다. 능허당(凌虛堂) 곧 촉석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관(朝陽館) : 곧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붕(鄭百朋)이 건축한 것이다. 청심헌(淸心軒) : 능허당 동쪽에 있다. 임경헌(臨鏡軒) : 곧 촉석루의 서쪽 누각이다. 목사 이원간(李元幹)이 건축하였다.
제영	[수점청산침벽호(數點靑山枕碧湖)] 정여령(鄭與齡)의 시에, “두어 점 푸른 산이 푸른 호수 베개했는데, 공(公)은 이것이 진양도(晉陽圖)라 말하네. 물가에 초옥이 그 얼마인가. 그 중에 내 집 있는데 기울었는지 않았는지.” 하였다. [시원우과금단취(柹園雨過今丹脆)] 최해(崔瀣)의 시에, “감나무 동산에 비 지나니 금단이 물러졌고, 밤나무 언덕에 서리 내리니 옥 껍질이 얼룩졌다.” 하였다. [진양가려증경처(晉陽佳麗曾經處)] 민사평(閔思平)의 시에, “아름다운 진양은 일찍이 지난 곳, 노래하며 피리불던 누대를 꿈속에 자주 드네. 묻노라, 지금엔 지주(地主)가 없다 하는데, 강에 가득한 가을달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였다. [유맹상피진(遺氓尙避秦)] 이색(李穡) / [명성천하희(名城天下稀)] 이색 / [영대사원운매곡 (靈臺寺遠雲埋谷)] 이색 / [문무영재생락토 (文武英材生樂土)] 하연 / [장천평초풍연호(長川平楚風煙好)] 정이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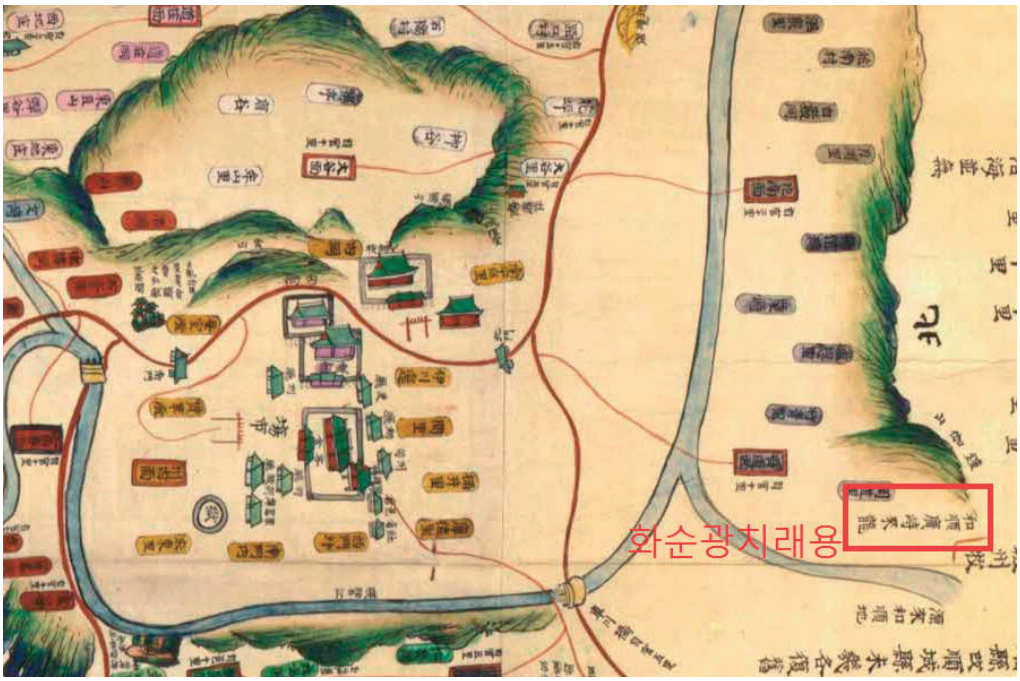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나주목</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남도 나주시 과원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O</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나주읍성
영금문
(서문)</td><td>금성관
(錦城館
_객사)</td><td>금학헌
(琴鶴軒)</td><td></td><td>정수루
(正綏樓),
망화루
(望華樓
_외삼문),
중삼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전라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
전라도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나주목사 김성일과 임진왜란 등</td><td colspan="4">경제(나주목사고을시장 등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김성일과 임진왜란
김성일(金誠一)은 나주목사로 고을에 선정을 베풀었다. 임진왜란 발발 전, 통신사로 파견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위세를 직접 보았지만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김성일은 전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1872년 지도 속 나주
나주의 지형이 행주형(行舟形)으로 표현되었으며, 나주읍성을 중심으로 각 고을마다 연결되어 있다. 나주를 끼고 있는 영산강에는 조운을 담당하는 선박이 그려져 있어 활발한 조운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주 뱃길©1872년 지방지도</td></tr>
</table>

기문	벽오헌(碧梧軒) : 객관(客館)의 동헌(東軒)을 말한다. 동쪽에 벽오동 나무가 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없는 것이므로 이행(李行)이 이렇게 이름짓고 시를 지었다. ○ 서거정(徐居正)의 〈중신기(重新記)〉에,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커서 땅이 넓고 백성과 물자가 번성하다. 땅이 또한 바닷가라 벼가 많이 나고 물산이 풍성하니, 이에 전라도의 조세가 모이는 곳이며 사방의 상인들이 몰려든다." ○ 성임(成任)의 시에, "벽오헌(碧梧軒)에서 벽오동을 보니, 헌(軒)에 가득 푸른 그림자 영롱히 깔렸구나. 그 가운데 앉으니 나의 모든 근심 사라지는데, 더구나 맑은 바람 불어 얼굴에 스치네. 한가롭고 편안함이 희황(羲皇) 시대의 사람 이상이니, 눈 앞의 흥미가 아침마다 새롭구나. 기우자(騎牛子 이행(李行)의 호)의 시가 맑디 맑으니, 속됨과 누추함 씻어 진(眞)으로 돌아가누나. 길이 길이 유전(流傳)하여 이 명소(名所) 빛내리니, 어찌 매몰하여 없어지리오. 글의 높고 뜻이 예스러워 세상에 없는 바라, 구슬이 반짝반짝 헌(軒) 귀퉁이 환하도다. 내 와서 봉황의 가지를 휘여잡으니, 완연히 옥산(玉山)같은 풍채 보는 듯하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반일(半日)토록 애써 읊조리며 앞뜰에 섰네. 높은 데 의지하여 멀리 바라보며 구상(構想)하노라니, 동강(東江)의 물 빛이 맑게 일렁거리누나." 하였다. 금성관(錦城館) : 은행정(銀杏亭) 남쪽에 있다. 목사 이유인(李有仁)이 지었다.
제영	[영비생장구가향(靈妃生長舊家鄕)]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성조(聖祖 고려 태조)께서 지금의 고을을 개척하오니, 영비(靈妃)가 생장한 옛 고을이다." 하였다. [금성춘색조(錦城春色早)] 이색(李穡)의 시에, "금성에 춘색이 일러서, 강 언덕에 매화가 지려는도다." 하였다. [유시가객통오월(有時賈客通吳越)] 윤진(尹珍)의 시에, "바다에 가깝고 산으로 둘러 싸인 옛 금주(錦州), 앞 마을 곳곳에 고기잡는 배를 매놓았구나. 한때는 장사꾼이 오월(吳越 중국) 지방과 통했었거니, 사람들은 물고기와 새우를 얻어 주루(酒樓)로 들어가도다." 하였다. [반야백사유월색(半夜白沙留月色)] 고려 채보문(蔡寶文)의 시에, "이 땅에 왔던 것이 10여 년, 금년 가을에 또 기러기처럼 남쪽으로 왔구나. 발을 저녁 때 걷으니 강산은 좋고, 거울을 아침에 대하니 귀밑머리가 틀렸구나. 한밤 백사장에 달빛이 비치는데, 해 묵은 푸른 대가 봄빛을 빛내는구나. 부귀영화 새로운 영광이 중하니, 오고 가는데 누가 나더러 옛날의 포의(布衣)라고 할소냐." 하였다. [강회지축부(江回地軸浮)] 장윤화(張允和)의 시에, "나무가 늙으니 산의 모습이 씩씩하고, 강이 돌아 흐르니 지축(地軸)이 뜬 것 같다." 하였다. [관로소매경우탁(官路小梅經雨拆)] 김시습(金時習)의 시에, "금성(錦城)의 꽃 속에 와서 봄놀이를 하니, 꽃 아래 생황(笙簧)의 노래 나그네 수심을 방랑케 하는구나. 관청 큰 길의 작은 매화는 비를 맞아 벌어지고, 역정(驛亭)의 실버들은 바람에 불려 부끄러워하는 듯. 한 떼의 구름이 바다를 덮었는데 때때로 나팔 소리 들리고, 옥 같은 달은 창을 비취는데 홀로 누각에 의지하도다. 해거름의 호남(湖南)은 배나 쓸쓸하다. 오운(五雲)이 깃들인 서북쪽은 신주(神州 임금이 있는 곳)로다." 하였다. [십이영(十二詠)] 김종직(金宗直)의 시.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능주목</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3">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 colspan="2">X</td><td>O</td><td>O</td><td>X</td><td>O</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죽수절제 아문 (竹樹節制 衙門)</td><td>봉서루 (鳳棲樓)</td><td></td><td>영벽정</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조광조,
아름다운 누정과 풍광(봉서루, 영벽정 기문 등)</td><td colspan="4">교통(누정)</td></tr>
<tr><td>자료</td><td colspan="8">조광조
그는 조선 중종 무렵 인물로 위훈삭제 등 과격한 개혁정치를 진행하다가 기묘사화가 일어나 능주로 귀양갔다. 귀양간지 한달만에 사사된다.
1872년 능주지도 : 산의 맥세를 강조하여 입체적으로 표현, 화순광치래용(和順廣峙來龍)이라 하는 것과 같이 산을 용으로 인식하는 풍수지리학적 표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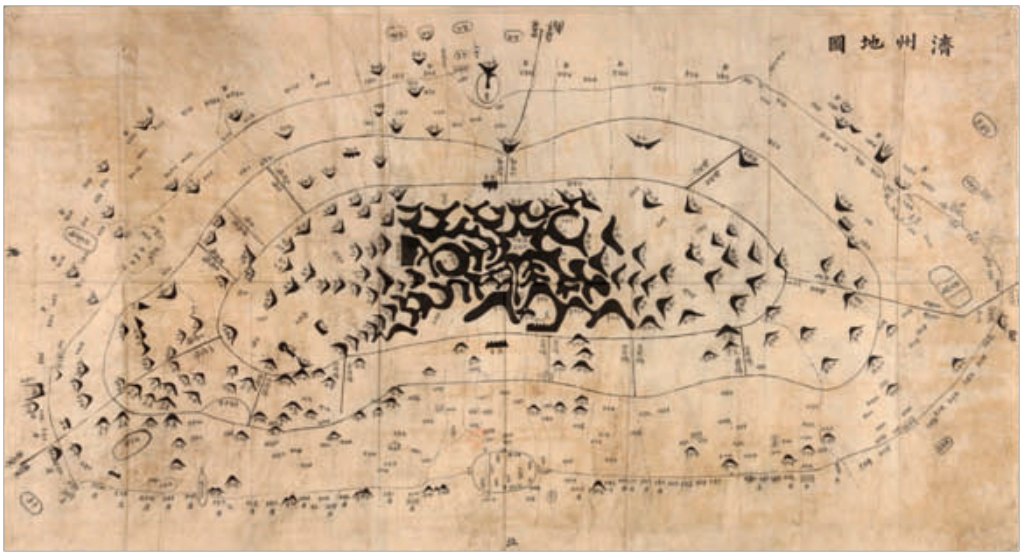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표현된 능주©1872년 지방지도</td></tr>
</table>

기문	봉서루(鳳棲樓) :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 성임(成任)의 시에, “날마다 달려 잠시도 한가하지 못한데, 여기 오르니 다시 한 번 근심스러운 안색 풀리네. 마을이 바다에 가까우니 봄이 항상 빨리 오고, 소나무와 대가 처마에 닿으니 여름에도 춥네. 발을 걷으니 산빛이 그림기둥에 스며들고 해가 비끼니 꽃 그림자는 새긴 난간에 올라오네, 손되어 무한히 집을 생각하는 마음, 글귀를 가지고 억지로 스스로 위안하네.” 하였다. ○ 정창손(鄭昌孫)의 시에, “유람하는 데 지쳐서 잠시도 한가로이 머무를 곳 없더니 홀로 높은 누에 올라 한 번 얼굴을 펴네. 땅이 바다에 가까우니 봄빛 빨리 오고 산은 지리산에 연했으니 새벽빛이 차네. 연못은 대 그림자 잠그고 꽃 뜰에 침노하고, 바람은 연꽃 향기 이끌어다가 약란(藥欄)으로 보내네. 눈에 가득한 기이한 경치 시 읊고 휘파람 부는데 이바지하니 손되어 시름짓는 마음 비로서 풀리네.” 하였다. 영벽정(映碧亭) : 연주산(演珠山) 밑에 있다. ○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연주산(連珠山) 위에 달은 소반 같은데, 초목에 바람이 불지 않고 이슬 차네. 천 뭉치 솜 같은 구름 모두 없어지려 하고 한 무더기 공문서(公文書) 볼 필요 없네. 시절은 다시 중추(中秋) 아름다운 것을 깨닫겠는데, 손의 회포 누가 오늘 밤 위안 될 줄 알았으리. 갈 길은 또 서쪽 바다 따라 돌아가니, 손가락 끝으로 장차 게[蟹] 배꼽이나 쪼개리라.” 하였다. 청흥정(淸興亭) : 현의 북쪽 3리에 있다. ○ 안침(安琛)의 시에, “능성(綾城) 천고(千古) 땅에, 소쇄한 한 정자 새로워라. 다릿가의 흰 돌이 사랑스럽고, 난간 밖 푸른 대가 어여뻐라. 강이 맑아 물고기 헤일 만하고, 뜰이 고요하니 새와 서로 친하네. 일어나서 홍진(紅塵)을 향해 가니, 도로 바쁜 사람 되네.” 하였다.
제영	[가경옹금당(佳景擁金塘)]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곱고 고운 이슬 꽃 누에 엉키고, 연기 낀 풀 무성하고 푸르더라. 아름다운 경치 금당(金塘)을 감싸고 굽어보니 맑은 흥취 넉넉하네. 어떤 사람이 와서 시를 써 놓았나, 또한 운치 영중(郢中) 곡조를 이루었네. 주옥 같은 글귀에 화답하자니 녹록(碌碌)한 재주 부끄럽네.” 하였다. [동학청유경물신(洞壑淸幽景物新)] 정창손(鄭昌孫)의 시에, “동학이 맑고 그윽하여 경치 새로우니 산에 가득한 솔과 대 사계절이 봄일세. 한 구역 연화(煙火) 참으로 선경(仙景)이니 아마도 이 도원(桃源)에 숨어 사는 사람인가.”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제주목</td><td>분류</td><td>목</td><td>위치</td><td colspan="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O</td><td>O</td><td>X</td><td>O</td></tr>
<tr><td></td><td>연희각
(延曦閣)</td><td></td><td>우련당 (友蓮堂),
영주협당
(瀛洲協堂),
홍화각 (弘化閣),
별과원 (別果園)</td><td>진해루
(鎭海樓_탐
라포정사 문
루 외삼문),
중대문</td><td>귤림당
(橘林堂),
망경루
(望京樓)</td><td></td><td>관덕정,
제주 돌하
르방</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제주 감귤, 목장, 탐라순력도, 제주 풍속,
제주 돌하르방(제주삼현濟州三縣 중에서 가장 크고 시원한 인상)</td><td colspan="4">경제(제주 동문시장, 제주 감귤 연계 등)</td></tr>
<tr><td>자료</td><td colspan="8">
지도 속의 제주
육지와의 교류 기능을 하였던 조천포, 별도포, 또한 삼성혈이나 한라산 분화구의 표현이 되어있는데, 특히 백록담을 지명처럼 흰색으로 표현하였다. 제주는 현무암질 토양 등으로 물이 귀하여 물이 있는 '수처'를 표시하였다. 지도에는 목마장이 표시되어 있으며 길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원취락, 제천원(濟泉院), 이왕원(利往院) 등이 있다.

제주 감귤과 제주 관아
제주는 감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감귤은 서울로 봉진되어 황감제 등에 쓰이며, 왕과 육지의 엘리트에게 공급된다. 감귤봉진에 관해서는 탐라순력도 등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관아 안에는 귤림당, 별과원 등 귤과 관련된 곳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풍속조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다. / 돌을 모아서 담을 쌓았다. /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제주 전역이 표시된 지도©제주읍지
</td></tr>
</table>

기문	홍화각(弘化閣) 성 안에 있는데, 최해산(崔海山)이 세운 것이다. 곧 옛날 안무사의 영(營)인데 지금은 절제사의 영청(營廳)이 되었다. ○ 고득종(高得宗)의 기(記)에, "갑인년 가을 8월에 전 공조 참판 익양(益陽) 최해산(崔海山)이 도안무사가 되어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선으로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를 마음에 급급하게 먹고, 슬퍼하고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은혜를 내리는 한편,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다스리자 옥에는 연체된 송사가 없어졌고, 교화를 베풀자 백성이 예의를 알게 되었다. 말을 기르는 방법과 적의 침입을 막는 방비와, 학교를 일으키고 농사를 권하며, 재해를 구제하고 환란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르기까지 사람을 다스리는 방도를 남김없이 다하였다. 또 신을 섬기기를 정성으로 하여 마음을 재계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였다. 다음해에 풍우가 철에 맞게 내리고 순조로워 곡식이 풍년들어 백성은 배를 두드리며 즐기고 말은 크게 번식하였으니, 우리 전하께서 어진 사람을 가리신 은혜가 깊고 또 지극하다. 공이 정사가 성취되고 인심이 화평해지자, 관청의 퇴폐하고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려고, 문을 닫은 절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일으키니, 거문고 치는 당과 욕실·부엌·낭사의 위치가 갖추어졌다. … (중략 : 이름 짓는 것을 의논하며) … 공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집을 세운 것은 놀고 구경하는 것을 위함이 아니다. 옛적 주(周) 문왕(文王) 때에 주공(周公)은 안에서 다스리고 소공(召公)은 밖에서 다스려서 교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같이 미쳐서, 당세의 사람들이 덕화에 고무되지 않음이 없었는데, 지금 성스럽고 밝으신 임금이 위에 있고 원로의 재상들이 모두 공경하고 화합하여 어진 사람을 급히 구하여 나누어 보내 밖에서 다스린다. 그러나 오히려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정치의 교화가 흡족하지 못한 것은, 위임받은 자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받들어 행하는 것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무릇 임금의 근심을 나눈 지방관이 날마다 이 집에 올라서 편안히 놀지도 말고 욕심을 방종히 하지도 말아서, 맡은 직책을 다하기를 생각하여, 항상 왕화(王化)를 넓히고 백성의 사정을 뚫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주(周) 나라의 다스림을 오늘에 다시 볼 수 있고, 제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무궁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홍화(弘化)라고 이 집을 이름하지 않으랴.' 하였다. 이에 듣는 자가 모두 절하고 사례하기를, '공께서 이름 지으신 것이 능히 뒤를 잇는 자로 하여금 더욱 힘쓰게 하는 점이 있고, 우리 백성들은 길이 어진 덕화를 입을 것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드디어 나에게 청하여 홍화각(弘化閣) 세 글자를 써서 걸었다." 하였다. 조천관(朝天館) : 세 고을을 경유하여 육지로 나가는 자는 모두 여기서 바람을 기다리고, 전라도를 경유하여 세 고을에 들어오는 자도 모두 이곳과 애월포(涯月浦)에 배를 댄다. 우련당(友蓮堂) : 영문(營門) 밖에 있다. 목사 이수동(李壽童)이 성안에 우물이 없음으로 못을 파서 물을 채워 연을 심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관덕정(觀德亭) : 홍화각(弘化閣) 남쪽에 있다. 신숙청(辛淑晴)이 세웠고, 성화(成化) 경자년에 목사 양찬(梁瓚)이 중수하였다. ○ 신석조(辛碩祖)의 기문 / ○ 서거정(徐居正)의 중수기 / ○ 정인지(鄭麟趾)의 시 등 정원루(定遠樓) : 바로 남문 초루(譙樓)다.
제영	[악와(渥洼)의 용종(龍種)은 기린(麒麟)을 낳는다.] 권우(權遇)의 시에, "동정(洞庭)의 천향(天香)은 감귤(柑橘)이 있고, 악와(渥洼)의 용종은 기린을 낳는다." 하였다. [만 필이나 되는 준마는 한가하게 들에 놓았다.] 이흥문(李興文)의 시에, "만 필의 준마는 한가하게 들에 놓았고, 천 그루의 귤과 유자는 교묘하게 가을을 단장하였다." 하였다. [향기가 발에 스며드니 귤이 있는 것을 알겠다.] 이유의(李由義)의 시에, "향기가 발에 스며드니 귤이 있는 것을 알겠고, 바람이 빈 집에 불어오니 가을 기운이 나는 것을 깨닫겠다." 하였다. [향기로운 감자(柑子)는 한(漢) 나라 포도(葡萄)보다 더 좋다.] 서거정의 시에, "땅이 선도(仙島)에 연하였으니 사람 살기가 좋고, 공(貢) 바치는 것이 조정에 들어가니 산물이 풍부하도다. 이름난 기마(驥馬)는 이미 대원(大宛)의 요뇨(騕褭)보다 낫고, 향기로운 감자(柑子)는 한(漢) 나라 포도보다 더 좋다." 하였다. [본토의 성(姓)은 성주(星主)를 높인다.] 이첨(李詹)의 시 / [땅이 궁벽하니 노는 사람이 적다.] 중 혜일(慧日)의 시 / [도근천(都近川)이 살쪘으니 조수가 긴 밤이다.] 민수(閔粹)의 시 / [땅은 유기(幽冀) 같아서 말이 좋은 것이 많다.] 이승소(李承召)의 시 / [구름이 봉도(蓬島)에 열리니 오잠(鰲岑)이 가깝도다.] 서거정(徐居正)의 시 / [깊은 겨울의 귤과 유자는 서리를 맞아 지붕에 매달렸도다.] 정이오(鄭以吾)의 시 등

4. 도호부(13개소)

1) 인천도호부

2) 부평도호부

3) 교동도호부

4) 통진도호부

5) 청풍도호부

6) 선산도호부

7) 청송도호부

8) 밀양도호부

9) 울산도호부

10) 동래도호부

11) 여산도호부

12) 남원도호부

13) 장흥도호부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인천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 colspan="2">O</td><td>O</td><td>X</td><td>X</td><td>O</td></tr>
<tr><td>문학
산성</td><td>소성관
(邵城館
_객사),
동헌</td><td></td><td colspan="2">공수청</td><td>아문, 중문,
내삼문,
사주문</td><td></td><td></td><td>인천도호부사
충의비</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인천 개항, 인천 객관 기문, 왕비들의 고향,
김민선과 안관당(임진왜란)</td><td colspan="4">교통(객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왕비들의 고향
인천은 고려시대 인예왕후 이씨, 순덕왕후 이씨의 내향으로 고을의 격이 승격된 일이 있었다. 후에 세조 자성왕후 윤씨의 외향으로 인천군에서 도호부로 승격된다.
인천 개항 : 인천 개항 이후 외국 상권이 침투하여 인천에는 여러 변화를 가져온다. 인천객주회는 1885년(고종 22) 인천에서 설립된 상회로,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인천에서는 인천 최초로 호텔이 세워지는 등 근대화기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의 항쟁
임진왜란시 김민선이 문학산성에서 왜적을 여러번 격퇴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안관당에서 안관당제를 지내왔으나 지금은 명맥이 끊겼다고 한다.</td></tr>
</table>

기문	객관(客館) 강희맹(姜希孟)의 승호기(陞號記)에, “임금께서 즉위한 지 6년 겨울에 왕비의 친가 외가의 고을을 승격하여 주(州)나 부(府)로 만들 것을 명령하였다. 인천(仁川)이 왕비의 외가 고을이기 때문에 군을 승격하여 부로 만들었는데, 부의 등급이 안으로는 삼품(三品)과 같고 밖으로는 주(州)에 다음가서 군과 현을 누르니 그 높고 중하기가 이와같다. 무릇 반부(班簿)와 계리(計吏)로 서울에 조회하는 자는 그 예절 등급이 전에 비교하여 한 등급이 올랐으니 인천이 참 영광스럽다. 이때의 부사 홍후(洪侯) 약치(若治)는 나와 같은 해에 과거한 친구이다. 내가 지나는 길에 만나보고 치하하니 홍후가 말하기를. ‘인천이 고을 된 것이 가장 오래되어 지금까지 천백년이 되었는데, 그 오르고 내린 연혁이 문헌에 증거가 없어 전연 상고할 수가 없다. 이제 승격하는 은명(恩命)을 받아 아전과 백성이 서로 경사로 여기니 만일 기(記)와 지(誌)가 없다면 참으로 성하고 아름다움이 매몰되어 드러나지 못하여 뒷사람이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사람이 옛것을 보는 것과 같을까 두렵다. 나를 위하여 기록하라.’ 하였다. 내가 능히 할 수 없다고 사양하니 홍후가 청하기를, ‘인천의 문씨(門氏)는 그대의 선세(先世)이니 인천에 대하여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이다.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희맹(希孟)은 삼가 상고하건대, 인천은 곧 예전 미추홀국(彌鄒忽國)이다. 고구려 때에는 매소홀현(買召忽縣)이 되었고, 고려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서는 황비(皇妣) 인예태후(仁睿太后) 이씨의 친정 고을이기 때문에 승격하여 경원군(慶源郡)을 만들었고, 인종(仁宗) 때에는 황비(皇妣) 순덕왕후(順德王后) 이씨(李氏)의 친정 고을이므로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지주사(知州事)를 만들었고, 공양왕(恭讓王) 2년에는 칠대어향(七代御鄕)이라고 높이어 승격하여 경원부(慶源府)를 만들었다. 본조에 들어와서는 그 고을의 명망 있는 문족(門族)으로서 문씨(門氏)·이씨(李氏)를 말한다. 문씨의 외손이 안효공(安孝公) 심온(沈溫)인데 희맹에게는 외조부이다. 이분이 소헌왕후(昭憲王后)를 탄생하였는데 왕후가 나서부터 성덕이 있어 우리 세종(世宗)의 배필이 되어 대통을 이어 내전(內殿)의 교화를 베푼 지가 거의 30년 동안이었다. 이씨(李氏)의 사위는 판중추(判中樞) 윤번(尹璠)인데 이분이 지금의 왕비 전하를 낳았다. 왕비가 또 성덕이 있어 능히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덕을 이어 우리 성상을 도와 집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었으니, 아, 아름답도다. 어찌 그렇게 경사의 근원이 멀리서 내려오는가. 〈여지도(輿地圖)〉를 상고하고 지난 옛일을 살펴보면, 무릇 고을에 한 씨족(氏族)이 일어나고 한 인물이 일어나면 그 덕으로 오래도록 전한다. 그러나 그 경사의 융성한 실마리가 한두 번 전하면 다시 가라앉는다. 어찌 인천 한 고을이 대대로 거룩한 부인을 내어 왕가의 빈(嬪)이 되고 한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 앞뒤에 서로 잇달음과 같은 곳이 있으랴. 현으로부터 군까지 되고 군으로부터 부가 되어서 융성한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아름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인천의 땅이 마땅히 하(夏) 나라의 도산(塗山), 은 나라의 유융(有娀) 더불어 아울러 전하여 썩지 않을 것이니 후(侯)는 근심하지 말지어다. 후는 군자이다. 정치가 또한 기록할 만한 것이 있으나 그것은 인천의 부로(父老)들이 있으니 여기서는 덧붙여 말하지 않는다.” 하였다.
제영	[이산귀농주암관(吏散歸農晝掩關)] 이원굉(李元紘)의 신정(新亭)의 시에, “손이 와서 자리를 펴니 바람이 나무에서 나고, 아전이 흩어져서 농사로 돌아가니 낮에도 문을 닫는다.” 하였다. [일촌쌍자방암간(一村桑柘傍巖間)] 송처관(宋處寬)의 시에, “만리의 연기와 아지랑이는 난간 밖에 연하고, 한 마을의 뽕나무와 산뽕은 바위 사이에 의지하였다.” 하였다. [고저해도유무간(高低海島有無間)] 이석형(李石亨)의 시에, “멀고 가까운 고기잡는 등불은 밝았다 꺼졌다 하는 속이요, 높고 낮은 바닷 섬은 있다 없다하는 사이로다.” 하였다. [풍림적막탱어정(楓林寂寞撐魚艇)]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단풍나무 숲은 적막한데 고기잡이 배를 저으며, 띠 막에는 분명히 게잡는 등불을 켜 놓았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부평도호부</td><td>분류</td><td>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3">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td><td>O</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td><td>도호부청사
(내아 추정
건물)</td><td>욕은지
(浴恩池_연못),
어사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정조의 사도세자 참배길, 굴포천과 조운</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정도 사도세자의 참배 : 정조 21년(1797) 왕은 김포의 장릉을 참배하고, 부평을 경유하여 생부를 모신 수원 현륭원에 갔다고 전해진다. 이 때 부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욕은지에서 손을 씻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왕은 안산을 거쳐 수원 현륭원으로 가게 된다.

한강과 굴포천의 물자유통 : 굴포천은 자연하천은 아니며 조선 중종 때 삼남지방에서 곡물 등을 싣고 바다로 이동하는 배가 강화 손돌목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이 뱃길을 피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판 하천(판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운하공사의 흔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 계양산(桂陽山) :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이규보의 〈망해지(望海誌)〉에, “길이 사면으로 계양 지경에 났는데, 오직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 처음에 내가 조정에서 쫓겨나서 이 고을에 원이 되었을 때에, 물의 푸르고 넓은 것을 사방으로 돌아보고는 섬 가운데에 들어왔는가 의심하여, 근심스러워 즐기지 않아서 문득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2년 여름 6월에 미쳐서 성랑(省郞)으로 제수되어, 장차 날을 정하여 서울에 돌아가게 되고 보니, 지난번의 푸르고 넓던 물이 모두 즐겁게 생각되었다. 이에 무릇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는 놀러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비로소 만일사(萬日寺) 누대 위에서 바라보니, 큰 배가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 같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조금 내놓은 것 같고, 돛단배가 가는 것은 사람이 높은 사모를 쓰고 가는 것 같았다. 여러 산과 여러 섬이 아득하게 서로 바라보고 있어서, 우뚝 내민 것도 있고 민둥한 것도 있으며, 발을 제껴 디딘 것 같은 것도 있고, 납작 엎드린 것 같은 것도 있으며 등마루만 나온 것도 있고, 상투같이 솟은 것도 있으며 가운데가 뚫려서 구멍 같은 것도 있고, 머리가 둥그스름하여 일산 머리 같은 것도 있었다. 절 중이 와서 조망(眺望)을 돕는데, 문득 손가락으로 가리켜, ‘섬은 저것은 자연도(紫燕島), 저것은 고란도(高鸞島)·기린도(麒麟島)이며, 산은 저것은 서울의 곡령(鵠嶺), 저것은 승천부(昇天府)의 진산(鎭山)이며 용산(龍山)이다.’ 하였다. 인주(仁州)의 바라뵈는 것이나 통진(通津)의 바라뵈는 것을 역력히 세어서 마치 손바닥을 지적하는 것과 같았다. 이날에 내가 대단히 즐거워서 노는 자와 더불어 술을 잔질하여 취하여 돌아왔다. 며칠 뒤에 명월사(明月寺)에서 노는데, 산의 가린 것이 더러 있어서, 만일사같이 툭 트이지는 못하였다. 두어 날 뒤에 다시 산을 따라 북쪽으로 가고, 바다와 나란히 동쪽으로 가서 조수의 격동하고 부딪치는 것과, 해시(海市 신기루)의 변화하고 괴이한 것을 구경하노라고 혹 말도 타고, 혹 걷기도 하여 조금 피곤한 뒤에 돌아왔다. 함께 논 사람은 아무 아무인데 모두 술병을 가지고 따랐다. 아, 물도 지난번의 물이요 마음도 지난번의 마음인데, 지난번에 보기 싫어하던 물을 지금은 도리어 즐겨 구경하니, 혹시 구구한 한 벼슬을 얻었기 때문인가. 맘은 내 맘이로되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여, 때에 따라 바뀌기를 이와 같이 하게 되니 죽고 사는 것을 한결같이 하고 얻고 잃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뒷날을 오히려 경계할 수 있으므로 기록하여 둔다.”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경마청방목(坰馬晴方牧)]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들 말은 비가 개자 바야흐로 먹이고, 둥지의 새는 날이 저무니 저절로 돌아온다.” 하였다.
[인가상영리(人家桑影裏)] 허성(許誠)의 시에, “인가는 뽕나무 그림자 속이요, 관도(官道)는 버들 그늘 가운데로다.” 하였다.
[민조지고군(民稠知古郡)] 안숭선(安崇善)의 시에, “백성이 조밀하니 오래된 고을인 것을 알겠고, 풍속이 후하니 순박한 바람을 보겠도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교동도호부</td><td>분류</td><td>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3">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
성곽</td><td>동헌/
객사</td><td>내아</td><td>향/작청/
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교동
읍성</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중국 사행길(어변정), 수군 기지(경기수영)</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리적 중요성으로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 수군기지

교동읍지 속 어변정중수기 : 여변이란, 모든 것을 갖추어 막고 변방을 살핀다는 뜻에서 취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교동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어변정 앞바다에서 출항하였다. 해로를 이용하는 사신들은 출발 전에 사신당 등에서 무사태평을 기원하였다.

1872년 지도 : 석모도가 강화보다 크게 그려져있다.

연산군 유배지 : 연산군이 폐위되며 교동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부근당扶芹堂은 연산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td></tr>
<tr><td>기문</td><td colspan="8">객관
황치신(黃致身)의 시에, “3월달에 바삐 돌아오니 해는 지려 하는데, 원림(園林) 곳곳에 푸르게 그늘이 생겼네. 어여쁠사 철쭉꽃은 너무도 멋지게 피어서, 봄빛을 독차지하고 손의 마음 위로 하네.”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산 아래 집집마다 흰 술 거르네]
이색의 시에, “바다 문 끝없고 푸른 하늘 나직한데, 돛 그림자 나는 듯하고 해는 서로 넘어가네. 산 아래 집집마다 흰 술 걸러내어, 파[蔥] 뜯고 회 치는데 닭은 홰에 오르려하네.” 하였다.

[거룻배 푸른 강물에 한 번 띄웠네]
옛사람의 시에, “한낮에 조수 밀고 얇은 그늘 헤쳤는데, 거룻배 푸른 강물에 한 번 띄웠네. 경원전(慶源殿) 아래 바람은 처음 순하게 부는데, 화개산(華蓋山) 앞에 해는 지려 하네. 이미 시승(詩僧)이 오래 같이 노는 걸 기뻐했는데, 하물며 어부(漁父) 만난 것이 지음(知音)인 듯함이랴. 지금 눈병 난 걸 자주 후회하는구나. 밤에 잔서(殘書)를 읽는데 달이 숲에 가득했네.” 하였다.

[집은 섬에 의지했는데 두루 밭을 이뤘네]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외로운 성 사면이 바다인데, 구름과 물이 서로 모여 까마득할 뿐일세. 길[路]이 못가로 나 버들을 많이 심었고, 집은 섬에 의지했는데 두루 밭을 이뤘네. 누른 소 누운 곳엔 맑은 연기 꽃다운 풀 자욱하고, 흰 새 나는 가엔 이슬비 비낀 바람 지나가네. 북으로 송도(松都)를 바라보니 이내 생각 하염없구나. 뭇 봉우리 높고높아 비취빛 하늘에 닿았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통진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d>O</td></tr>
<tr><td>문수산성</td><td></td><td></td><td>통진 이청</td><td></td><td></td><td></td><td>김포통진
두레놀이 등</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병인양요, 통진 농경문화</td><td colspan="4">행정(향리, 두레)</td></tr>
<tr><td>자료</td><td colspan="8">문수산성 축성과 통진부 승격 : 문수산성은 한강으로 가는 중요한 곳인 강화 입구를 지키는 성으로 조선 숙종때 축성되었으며, 병인양요 때에 프랑스군과 격전을 치른 곳으로 유명하다. 숙종은 문수산성이 축성되어 통진현에서 부로 승격시켰고, 이 지역을 중요시하였다.

통진 두레놀이 : 드넓은 김포평야에서 펼치는 농업은 통진지역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의 기계화로 인하여 두레 풍속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통진에서 두레의 모습을 재현, 복원하여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통진 두레놀이[5]</td></tr>
<tr><td>제영</td><td colspan="8">[마두음고입강성(馬頭吟苦入江城)] 이규보의 시에, “달과 구름을 두고 시 짓는 버릇 되어서 말 위에서 읊조리며 강성에 든다. 다시 봉성(鳳省 정부)에 돌아갈 길 없으나, 검은 일산[蓋 원의 행차]으로 봄놀이함 또한 영광이로세.” 하였다.
[야현소조부벽천(野縣蕭條俯碧川)] 김효손(金孝孫)의 시에, “고을이 쓸쓸하게 푸른 냇물을 임했는데, 창 앞에는 서리 맞은 잎 곱디 곱다. 강산(江山)은 다시 온 객을 응당 웃으리. 미친 행동 마른 얼굴 예와 같다네.” 하였다. [황화홍수추광노(黃花紅樹秋光老)] 고려 공부(孔俯)의 시 등
[팔영] 서거정이 양성지(梁誠之)의 대포곡(大浦谷) 별장에 지은 시에, 북강 청송(北岡靑松) / 남해 제도(南海諸島) / 동망 삼봉(東望三峰) / 서공 강도(西拱江都) / 갈현 승사(葛峴僧舍) / 계양 추월(桂陽秋月) / 격안 어화(隔岸漁火) / 남포 조선(南浦漕船)</td></tr>
</table>

5. 김포TV, 2014년 11월 5일,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 시연 및 가마솥 밥짓기 경연한마당’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청풍도호부</td><td>분류</td><td>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금태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 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td><td>O</td><td>X</td><td>X</td><td>O</td><td>O</td><td>O</td><td>O</td></tr>
<tr><td>망월산성</td><td>금병헌
(錦屛軒
_동헌)</td><td></td><td></td><td>금남루
(錦南樓
_외삼문),
팔영루
(八詠樓)</td><td>한벽루
(寒碧樓),
응청각
(凝淸閣)</td><td>후산리
고가,
도화리
고가 등</td><td>청풍 문화재
단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차고 푸름 속 맑은 경관(한벽루와 청풍명월),
현종 명성왕후의 고향</td><td colspan="4">교통(청풍객사 한벽헌과 한벽루)</td></tr>
<tr><td>자료</td><td colspan="8">청풍도호부 승격 : 현종 대에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의 출신지역으로, 이로 인해 청풍군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td></tr>
<tr><td>기문</td><td colspan="8">한벽루(寒碧樓) : 객관(客館) 동쪽에 있어 큰 강을 굽어 임하였다.
○ 하륜(河崙)의 기에, “내가 옛날에 여러 번 죽령 길을 지났는데, 청풍 군수(淸風郡守)가 매양 길옆에서 맞이하고 전송하였다. 고을의 형세를 물으니, 한벽루(寒碧樓)를 일컫고 또 주 문절공(朱文節公)이 네 구절의 시를 읊었다. 나는 듣고 즐거웠으나 바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서 올라가 구경할 여가가 없었다. 지금 정군 수홍(鄭君守弘)이 편지로 내게 청하기를, ‘이 고을의 한벽루가 한 방면에서 이름나 참으로 기이하니 구경할 만한데, 수십 년 동안 비에 젖고 바람에 깎여 거의 장차 못 쓰게 될 지경이었다. 내가 고을에 이르러 다행히 나라가 한가한 때를 만나서 금년 가을에 공장을 불러 수리하여 들보·도리·기둥·마루의 썩고 기울어진 것을 새 재목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 없으니, 청컨대 그대는 다행히 기를 지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보여라.’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누정(樓亭)을 수리하는 것은 수령으로서 말단의 일일 뿐이다. 그러나 그 흥하고 폐하는 것이 실상 세도(世道)와 서로 관계된다. 세도가 오르고 내림이 있으매 민생이 즐겁고 불안함이 같지 않고 누정의 흥폐(興廢)가 이에 따르니, 한 누각의 흥하고 폐함으로써 한 고을의 즐겁고 불안함을 알 수 있고, 한 고을의 즐겁고 불안함으로 세도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서로 관계됨이 심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누각이 수십 년 꺾이고 썩은 나머지 정군이 정사하는 날에 이르러 중수하여 새롭게 하였으니, 세도가 수십 년 전과 다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군현(郡縣)에 아직 수리하지 않은 누정이 있으니, 또한 어찌 다만 세도의 탓이랴. 정군 같은 이는 세도에 순응하여 다스림을 하는 사람이라 이를 만하다. 내가 옛날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있을 때에 정군은 바야흐로 지안성 군사(知安城郡事)로 있어서 이름이 치적(治績)의 최(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 사람됨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써서 기(記)를 삼는다. 또 계산(溪山)의 승경(勝景)과 누각의 제도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청풍(淸風)의 칭호와 한벽(寒碧)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뼈가 서늘하게 한다. 훗날 혹 능히 적송자(赤松子)와 함께 놀 소원을 이루어 다시 죽령 길을 지나게 된다면, 마땅히 군을 위하여 한 번 들어가 올라서 주 문절(朱文節)의 시를 읊어 그 사람을 수백 년 위에 상상하여 보고, 또 군의 유애시(遺愛詩) 한 편을 짓고 가리라.” 하였다.
○ 주열(朱悅)의 시에, “물빛이 맑고 맑아 거울 아닌 거울이요, 산 기운이 자욱하여 연기 아닌 연기로다. 차고[寒] 푸름[碧] 서로 엉기어 한 고을 되었거늘, 맑은 바람[淸風]을 만고에 전할 이 없네.” 하였다.</td></tr>
</table>

기문	○ 양숙(梁肅)의 시에, “다락 밖에 어지러이 붉은 것은 붉은 살구꽃 비요, 시냇가에 연푸른 것은 푸른 버들 연기로다. 한 지경의 밝은 달 맑은 바람 좋은 경치를 세속 사람 향하여 쉽게 전하지 마소.” 하였다.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호남(湖南)의 50성(城)을 두루 다녀 보았지만, 경치 좋은 땅 오늘에야 그윽한 정취에 맞네, 백 척의 푸른 누각 바람을 내려다보아 산뜻하고, 푸른 벽 천 길이나 쇠를 깎아 만든 듯 싶다. 산이 좋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납극(蠟屐)을 생각하게 하고, 강이 맑으니 나를 불러서 먼지 낀 갓끈을 씻게 한다. 도원(桃源)이 반드시 인간 세상 아닌 것이 아니니, 고기잡이 늙은이를 따라 이 생을 보내려 한다.” 하였다. ○ 최숙생(崔叔生)의 시에, “산이 컴컴하니 반쪽에 급한 비가 뛰고, 강이 맑으니 한쪽에 가벼운 연기가 덮였다. 괴이하게도 불 같은 더위가 모두 사라져 없어지니, 홀연히 긴 바람이 일만 골짜기에 전하노라.” 하였다. ○ 유운(柳雲)의 시에, “산협을 쪼개어 강을 달리는 것이 거령(巨靈)의 힘이라. 피곤하여 서성거리니 손의 혼이 깬다. 여울 소리가 귀를 흔드니 찬 것이 베개에서 나고, 산 기운이 창에 가득하니 푸른 것이 병풍이 되었다. 비가 씻으니 갈매기의 모래는 밝기가 눈 같고, 달이 잠기니 고기잡이 불이 어지럽기가 반딧불 같다. 무단히 만리의 외로운 배 피리 소리에, 한 조각 돌아갈 마음이 동정호(洞庭湖)에 아득하다.” 하였다.
제영	[도화촌로신선경(桃花村路神仙境)] 정인지(鄭麟趾)의 시에, “복사꽃 촌 길은 신선의 지경이요, 단풍잎 시내와 산은 금수(錦繡)의 병풍이다.” 하였다. 입운조도통인연(入雲鳥道通人煙) 안극인(安克仁)의 시에, “물을 끼고 있는 백성의 삶은 곧 신선 지경이로구나. 구름에 치달은 새 길[鳥道]은 인가의 연기와 통한다.” 하였다. [대강서주흡운연(大江西走吸雲煙)] 정추(鄭樞)의 시에, “늘어선 멧부리가 동으로 돌아서 해와 달을 맞이하고, 큰 강이 서쪽으로 달아나면서 구름과 연기를 흡수한다.” 하였다. [일강미우수생연(一江微雨水生煙)] 김백영(金伯英)의 시에, “9월의 맑은 서리에 산이 비단이 되었고, 한 강의 부슬비에 물에서 연기가 난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선산도호부</td><td>분류</td><td>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3">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낙남루
(洛南樓
_남문)</td><td>선산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의구총,
의우총 등</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의구, 의우, 선산객사 건축양식(동물장식),
장시와 교통의 발달</td><td colspan="4">교통(객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
주인에게 충의를 지킨 동물
선산에는 의구총(개), 의우총(소)이라는 동물의 무덤이 있는데, 1872년 지방지도나 의열도 등에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개(황구)는 집에 불이 나서 주인이 위험하게 되자, 개가 낙동강에 뛰어가 몸에 물을 적셔 주인을 살리고는 죽고 말았다. 소는 농사일을 돕던 중에 갑자기 주인에게 나타난 호랑이를 싸워 물리치고는 죽었다. 의구총과 의우총은 사람 무덤과 다를 것 없는 모양으로 양지바른 곳에 묻혀 있다. 관아의 건축양식 또한 특이한데, 지붕 위에 사자, 개, 코끼리, 귀신 얼굴 등의 조각을 달았다.

지도 속의 선산
경상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낙동강 수운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을 특성으로 인한 장시가 발달하였는데, 선산과 연계된 장시로는 장천시, 구미시, 안곡시, 보통시, 해평시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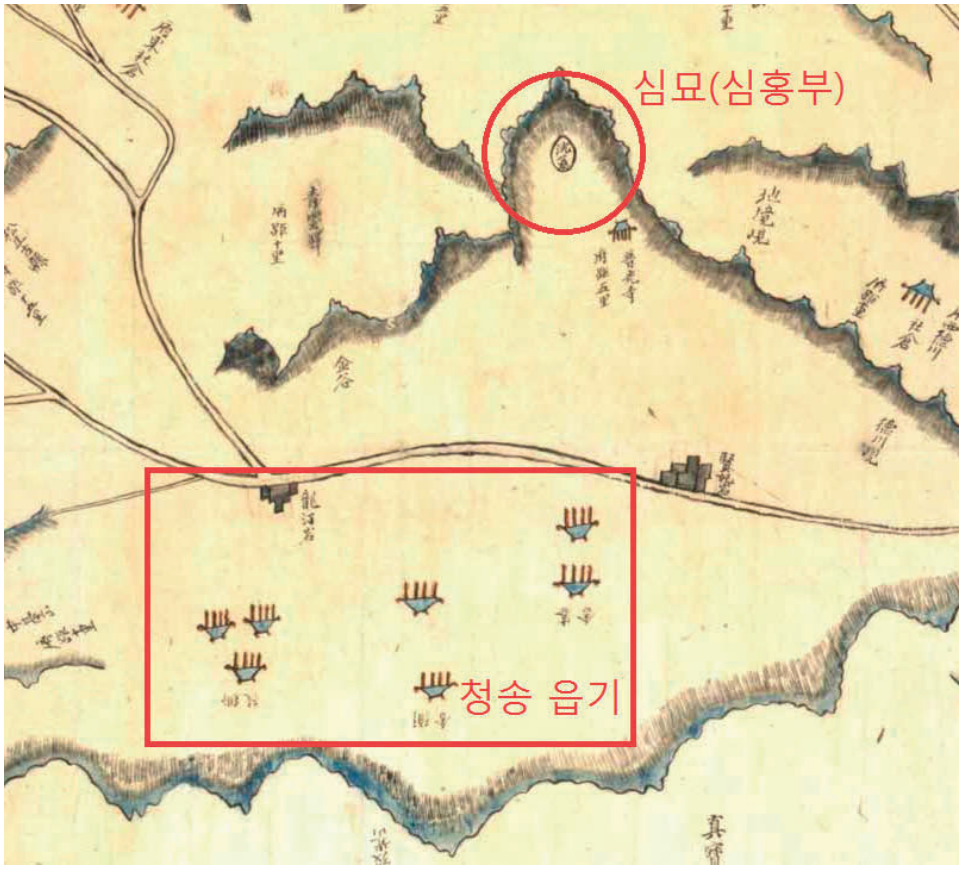
선산 객사 지붕의 동물 장식

선산 의구총
</td></tr>
</table>

기문	북관(北館) 홍귀달(洪貴達)의 기문에, “대개 산이 높고 험하며 물이 깊고 넓으면 그 사이에 있는 고을에는 반드시 훌륭한 누대(樓臺)와 널따란 관우(館宇)가 있어야 어울리는 것이며, 땅이 광대하며 사람과 물화(物貨)가 번화하면, 그 고을에 관리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민중을 기르는 아량과 백성을 너그러이 용납하는 어짊이 있어야 알맞다고 할 것이다. 내가 전에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 이른바 일선(一善)의 뛰어난 경치를 보았다. … (하략) 남관(南館) 권채(權採) 광선헌(廣善軒)의 기문에, “경상도는 영남의 큰 도인데 선산은 경계 위에 있어 실로 한 도의 큰 길거리[道]이다. 황화를 받든 수레와 일산의 사신이 연락부절하여, 가끔 같은 날 함께 와서 머물게 되어 늘 손님이 묵을 방이 모자라니, 손님 대접할 방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더욱 많아야 할 것이다. 전에 별관이 있었으나 좁고 누추하고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낡았으나, 군수된 사람들이 머뭇거리어 수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한탄했었다. 무신년에 부사 이길배(李吉培) 공이 비로소 정사에 임하자 백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하고, 송사를 듣고 판단을 내림에 과감하였으므로 1년이 못 되어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새로워졌다. 학문과 덕행이 훌륭한 마을 노인들, 전 부사인 김치(金峙) 공과 전 현감 신희충(申希忠) 군이, 고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문서를 부(府)와 감사에게 올려 폐사(廢寺)의 재목과 기와로 새로 짓기를 청원하였고, 감사 홍여방(洪汝方) 공이 임금께 아뢰어 그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남아도는 재물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징발하지도 그들의 시간을 빼앗지도 않고서, 기유년 10월에 역사를 시작하여 경술년 2월에 준공하였는데, 지어놓은 건물이나 방들이 크고 넓고 짜임새가 있다. 그 동헌(東軒) 마루에 다락을 지었는데 시원스럽게 높고 맑게 터졌으며, 회랑(回廊)으로 연결하고 높은 담으로 둘렀다. 안으로 부엌과 바깥으로 외양간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의 감사 심도원(沈道源) 공이 돈과 물자를 넉넉히 대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였으므로 단청까지도 모두 다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버드나무 제방과 대숲, 국화 화단과 연못까지 좌우에 마련되어 그윽한 흥취를 한껏 돋구었으니 손님을 즐겁게 할 좋은 장소가 되었다. 대개, 관우(館宇)를 갖추고 수선하여 왕명을 받드는 것은 충이요, 때에 맞추어 역사를 거행하되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것은 슬기요, 사람들이 힘써서 일하기를 즐기는 것은 인(仁)이다. 집에 자도록 공을 쌓은 것[委積]은 《주례(周禮)》에 기록되어 있고, 궁실을 반반하게 흙질하는 것은 좌씨(左氏)에 쓰여 있다. 이번에 이공이 급히 서둘러 한꺼번에 몇 가지의 선(善)을 해낸 것이니, 어찌 다만 한 고을이 임금을 도운 것에 그치랴. 혜택을 백성들이 입게 된 것이다. 공조 참의 박서생(朴瑞生) 선생은 대대로 이 고장에 살아 온 분으로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누각의 이름을 청하였다. 내가 거듭 선생의 명을 사양하다가 부득이하여, 고을 이름으로 뜻을 부연해서 이름을 ‘광선(廣善)’이라 하여, 이공의 치적을 표하고 그 사실을 적어 기문으로 삼는다.” 하였다.
제영	[유궁은영격림고(儒宮隱映隔林高)] 채련(蔡璉)의 시에, “관사(官舍)는 어렴풋이 대숲에 가리어 작게 보이고, 유궁은 숨은 듯 보이는 듯 수풀을 격하여 높도다. 서리는 차가워 새벽 마른 풀에 얼어 붙었고, 바람은 세차 얼음을 흘려서 작은 다리에 걸려 있다.” 하였다. [수림함우녹차성(樹林含雨綠遮城)] 김구경(金久冏)의 시에, “연꽃은 바람을 받아 향기가 원(院)에 가득하고, 나무숲은 비를 머금어 녹음이 성을 가리었네.” 하였다. [교목참천세기천(喬木參天歲幾千)] 하륜(河崙)의 시에, “구역의 산수 풍경이 좋은데, 높은 나무 하늘에 솟아 몇 천년이던가.” 하였다. [홍수역정시만벽(紅樹驛亭詩滿壁)] 유방선(柳方善)의 시에, “단풍든 역정에는 시가 벽에 가득하고, 누런 띠 지붕의 촌집에는 술이 항아리에 차 있도다.” 하였다. [시엽초희홍만성(┌葉初稀紅滿城)] 강희맹(姜希孟)의 시에, “뽕나무 그늘이 겹치니 푸른 것이 집을 가리고, 감나무 잎 떨어지기 시작하니 붉은 것이 성에 가득하다.” 하였다. [십절(十絶)] 김종직(金宗直)의 시다. 김선궁(金宣弓) / 태조산 / 읍성(邑城) / 도리사(桃李寺) / 영봉리(迎鳳里) / 제성단(祭星壇) / 길재사(吉再祠) / 열녀 약가(藥哥) / 월파정(月波亭) / 보천탄(寶泉灘).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청송도호부</td><td>분류</td><td>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3">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X</td><td>O</td><td>X</td><td></td></tr>
<tr><td></td><td>운봉관
(雲鳳館
_객사)</td><td></td><td>연못</td><td></td><td>찬경루
(讚慶樓)</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명문가 청송 심씨, 활발한 장시</td><td colspan="4">교통(누정)</td></tr>
<tr><td>자료</td><td colspan="8">조선 명문가 청송 심씨
세종 소현왕후, 명종 인순왕후는 모두 청송 심씨이다. 이에 따라 청송은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872년 지방지도 속의 청송
심홍부沈弘孚의 묘가 표기되었다. 지도에는 涑水場, 川邊場, 和日場 등의 장시가 표기되었다.

청송 심씨 시조 심홍부의 묘가 표시된 지도©1872년 지방지도</td></tr>
</table>

기문	찬경루(讚慶樓) : 객관의 남쪽에 있다. ○ 홍여방(洪汝方)의 기(記)에, “선덕(宣德) 기유년 중춘(仲春)에 나는 바다를 따라 동에서 북으로 가다가 진보(眞寶)에 이르러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수십 리를 가는 동안 점점 산세는 기복이 있어서 용이 날아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범이 웅크린 것 같았으며, 냇물은 서리고 돌아서 마치 가려 하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았다. 소나무 잣나무는 울울창창하고, 안개와 노을은 어둠침침하게 잠겨 있어서 맑고 그윽한 한 동학(洞壑)이 의젓한 선경(仙境)인 듯한 곳이 곧 청송(靑松)이었다. 조금 뒤에 군속(軍屬)과 아전이 관복 차림으로 길에 둘러 서고, 군수(郡守)는 의장(儀杖)을 갖추어 왕명을 맞이하였다. 머리 허연 늙은이와 어린아이 향학(鄕學 학생)과 교방(敎坊 기생)이 임금의 성대한 덕행을 노래하고 읊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각기 시장(詩章)을 갖추어 있었다. 행례(行禮)를 마친 뒤에 남루(南樓)에 올랐더니, 원체가 백성들이 순박하고 풍속이 후하여 온종일 고소장을 내는 자가 없었다. 군수 하담(河澹) 군은 유림의 친구이다. 나에게 말하기를, ‘이 고을은 왕후의 본향(本鄕)이므로 일찍이 현(縣)을 올려서 군(郡)으로 하였으나 땅이 궁벽함으로 하여 사신(使臣)의 오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관사(館舍)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더니, 지난 해에 처음으로 한가한 무리들을 모집하여 청당(廳堂)과 이 누(樓)를 세웠습니다. 원하건대 이름을 짓고 기(記)를 써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물[河]과 산[嶽]의 영이(靈異)한 것은 반드시 그 상서를 낳는 것이며, 조종(祖宗)의 선덕을 누적한 자는 반드시 그 경사를 남기는 것이다. 청원 시중공(靑原侍中公)의 선대에서는 산과 물에서 빼어난 기운을 나누어 받고, 삼한(三韓)에 인후(仁厚)함을 심어서, 그 근본을 배양하고 그 정기와 영화(英華)를 배어[孕] 길렀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곤덕(坤德 왕후의 덕)과 어머니로서의 의표(儀表)와, 금지옥엽(金枝玉葉)인 그의 후손들은 우리 조선 억만세의 끝 없는 복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 누에 올라 그 옛터를 바라보니 우러러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찬경루(讚慶樓)라고 명명(命名)한다.” 하였다. ○ 서거정의 시에, “온 종일 한가하게 시(詩) 읊으며 기둥 가에 의지해 서니, 여러 선현들의 걸작인 시구는 어느 것이나 모두 노조린(盧照鄰)의 앞에 있구나. 두 산이 좁게 뻗쳤기에 땅 없을까 의심했더니, 한 가닥 오솔길이 가만히 조그맣게 있는 동천(洞天)으로 통하였네. 청부(靑鳧)를 찾고자하나 이제는 볼 수 없는데, 한가롭게 백조(白鳥)를 보니 참으로 사랑할 만하다. 이곳에도 반드시 봉호(蓬壺)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단구(丹丘 신선이 사는 곳)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갈 수 있으리라.” 하였다. ○ 김종직의 시에, “나무 끝보다 높은 화려한 집이 저녁 볕 가에 서있어, 올라 굽어보니 술잔도 잡기 전에 흥(興)이 먼저 높아진다. 냇물이 돌아서 천 길 돌 계단을 잠가버리고, 산이 둘렀기에 다른 한 조각 하늘을 훔쳐 본다. 사록(沙麓)의 상서로운 징조는 참으로 기록할 만하고, 도원(桃源) 같은 이곳의 경치는 진실로 사랑할 만하여라. 머리를 들어 웃으며 안개 속에 사는 손님에게 향하노니, 소부(巢父)나 허유(許由)가 산중에 살았다고 하여 원래 반드시 신선은 아니었으리라.” 하였다. ○ 종실(宗室) 이심원(李深源)의 시에, “가파른 벼랑은 깎아지른 듯 강가 땅을 베고 있고, 그윽한 산골물 떠들썩 객관 앞을 둘러가네. 서쪽 구렁에 눈 녹으니 진흙에 말굽이 빠지고, 동쪽 언덕에 바람 걷히니 나무가 하늘에 닿았구나. 맑은 밤 짧은 촛불은 이별의 한을 불사르고, 황혼의 외로운 다듬이 소리는 호젓한 슬픔을 두드리네. 갑자기 깨닫건대 초양왕(楚襄王)은 탕자(蕩子)가 아니로다. 꿈속의 운우(雲雨)도 또한 신선이라네.” 하였다.
제영	[만산심처숙청부(萬山深處宿靑鳧)]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한 봄을 구르는[轉] 쑥처럼 떠다니는 이 몸은 외롭구나. 이미 좋은 계절에 꾀하던 일은 시기를 잃었음을 깨닫는다. 장막(帳幕) 안의 잣나무 향(香)이 타서 다하고자 하는데, 일만 산 깊은 곳에 청부(靑鳧)가 자고 있다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밀양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 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 colspan="2">O</td><td>O</td><td>O</td><td>X</td><td>O</td></tr>
<tr><td>밀양읍성</td><td>근민헌
(近民軒
_동헌)</td><td></td><td colspan="2">매죽당
(梅竹堂_책실),
납청당
(納淸堂_별실)</td><td>응향문
(凝香門_
내삼문)</td><td>영남루
(嶺南樓)</td><td></td><td>천진궁</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5">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활발한 상업, 뛰어난 경관(영남루), 아랑전설</td><td colspan="5">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아랑전설
밀양부사의 딸 아랑과 영남루에 얽힌 전설로, 드라마 “아랑사또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지금도 아랑각이 존재하고 있다.

밀양 삼량진의 조창과 상업활동
밀양 지도마다 삼량진의 삼량창이라는 조창이 표시되었다. 밀양 인근 고을(창녕, 김해, 양산 등)의 세곡을 보관하였다가 수운으로 서울로 보내었다. 밀양은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삼랑진의 삼랑장을 비롯하여, 수산장, 수안장, 금곡장, 팔풍장 등이 있다.

영남루가 강조된 밀양 지도©1872년 지방지도</td></tr>
<tr><td>기문</td><td colspan="8">영남루(嶺南樓) :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바로 옛 영남사(嶺南寺)의 작은 누각인데, 절은 없어졌다. 지원(至元) 을사년에 김주(金湊)가 군수가 되어 예전대로 고쳐 세우고, 인하여 절의 이름으로써 이름지었다. 뒤에 부사 안질(安質)이 중수하였다. 천순(天順) 경진년(1460)에 부사 강숙경(姜叔卿)이 또 중수하여 옛 규모를 넓히니, 크고 아름답기가 비길 데가 없다.</td></tr>
</table>

기문	○ 성원도(成元度)의 시 서문에, “내가 사방에 유람하면서 누관(樓觀)의 좋은 것을 관람한 것이 많은데, 반 걸음도 못 가서 올라가 멀리 바라보이는 것이 확 트여 끝이 없는 것으로는 이 다락만한 것이 없었다. 남방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복주(福州)의 영호루(暎湖樓), 울주(蔚州)의 대화루(大和樓), 금주(金州)의 연자루(燕子樓), 진주(晉州)의 촉석루(矗石樓), 협주(陜州)의 함벽루 (涵碧樓)인데, 모두 이 다락에 비견할 수 없고, 여강(驪江)의 청심루(淸心樓), 평해(平海)의 망사루(望槎樓), 단양(丹陽)의 봉소루(鳳韶樓)로 말하면 그 사이에서 우열을 겨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다락이 군의 길 곁에 자리잡아 북으로 소나무 언덕에 의지하고 서쪽으로 관도(官道)에 임했는데 큰 강이 그 사이에 비껴 흐르고, 늘어서 있는 봉우리가 삼면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넓은 들이 아득하고 평평하기가 바둑판 같은데, 큰 숲이 그 가운데에 무성하여 흐리거나 맑거나 아침이나 저물 녘의 사시의 경치가 무궁해서 시로는 다 기록할 수 없고 그림으로도 다 그려낼 수 없으니, 남방 산수의 신령한 기운이 밀양에 다 모여서 이 다락이 껴안고 있다. 내가 지정(至正) 갑신년(1344) 봄에 찰방(察訪)의 명을 받들어 이 도에 나와서 순행(巡行)하다가 길이 이 군을 지나게 되었는데, 군수 유(兪) 공이 나에게 구경하기를 부탁하였다. 그래서 긴 구절로 된 율시(律詩)를 지어 판 위에 쓰니, 뒤에 오는 군자들은 서툴고 나쁘다고 꾸짖지 마십시오. 시에 이르기를, ‘붉은 난간이 불쑥 솟아 구름 하늘에 닿았고, 줄지은 산 잇단 봉우리가 눈 앞에 모였구나. 아래에는 긴 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남쪽에는 큰 들이 끝없이 넓으이. 마을 다리엔 버들이 천림(千林) 비 속에 어둡고, 관로(管路)엔 꽃이 10리 연기 속에 밝구나. 올라가 풍경을 감상하고 싶지 않으니, 사람들이 환영연을 베풀까 두렵네.’ 하였다.” 했다. ○ 신숙주(申叔舟)의 기문 / ○ 고려 김주의 기문 / ○ 임춘(林椿)의 시 / ○ 이숭인(李崇仁)의 시 / ○ 고려 이인복(李仁復)의 시 / ○ 권근(權近)의 시 / ○ 하륜(河崙)의 시 / ○ 유관(柳觀)의 시 / ○ 이원(李原)의 시 / ○ 도원흥(都元興)의 시 / ○ 김계창(金季昌)의 시 / ○ 김종직(金宗直)의 시 / ○ 일본인 용장(龍章)의 시 / ○ 이윤(李胤)의 시 / ○ 유순정(柳順汀)의 시 등
제영	[노공주거회(路控舟車會)] 임춘(林椿)의 시에, “산군(山郡)에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 이름이 높아 한 고장의 으뜸일세. 지세가 영특하여 사람이 스스로 잘나고, 들이 기름져 풍년 잦으이. 길이 당겨 배와 수레가 모이는데, 풍속은 아직 예의(禮義)가 있네. 선비가 많기로는 촉군(蜀郡)과 같고, 경치가 좋기로는 여항(餘杭)보다 낫구나. 송국(松菊)은 팽택(彭澤)에 거칠고, 연파(煙波)는 악양(岳陽)에 움직이네. 산이 깊어 새가 지저귀고, 하늘과 물은 푸르고 넓구나. 산이 푸르러 새 경계를 열고, 호수가 맑아서 분단장한 듯하네. 하늘까지 닿은 나무 장막이 늘어섰고, 눈이 날려 차나무가지에 아롱거리네. 사시에 떨기진 대나무 푸르고, 집마다 세버들 누렇구나. 술잔과 쟁반에 산해 진미 넉넉하고, 현관(絃管)은 음률이 묘하구나. 승경(勝景)을 만나 시흥(詩興) 더하고, 여가에는 술잔에 곤드라지네. 봄에는 오리떼 어지러운 물가에 가고, 저물녘에 연봉루(燕鳳樓) 서늘한 곳에 잔치를 하네. 꿈은 서창(書窓)의 달빛에 깨고, 옷은 술 취한 잠자리 향기에 엉켰구나. 마음은 위로하고 일은 즐기고, 흥겨워 청광(淸狂 미치지 않고서 미친 듯이 하는 것)을 함부로 하네. 오래도록 산천의 만류를 받으니, 돌이켜 길 먼 것이 서글프구나. 남아 있는 노을에 등왕각(滕王閣) 바라보고, 밤비에 소상(蕭湘)의 대나무 소리 듣네. 가는 말에 채찍하여 떠나는데, 마음은 기러기 따라 바쁘구나. 왕발(王勃)의 문필이 없음이 아깝구나. 낙하고목(落霞孤鶩) 솜씨로 남창(南昌) 적듯하지 못하네.” 하였다. [탄성격석훤여우(灘聲激石喧如雨)] 정추(鄭樞)의 시에, “여울은 돌에 부딪쳐 비처럼 요란하고, 밤 기운은 하늘에 떠서 연기처럼 엷구나.” 하였다. [영남루하대천횡(嶺南樓下大川橫)] 이색의 시에, “영남루 아래 큰 개울 비끼고, 가을 달과 봄바람이 태평하구나.” 하였다. [운횡고첩천년수(雲橫古堞千年樹)] 김근(金謹)의 시에, “구름은 옛 성 천년 나무에 비꼈고, 벼는 가을바람 부는 만호(萬戶)의 연기 속에 익어 있네.” 하였다. [황요취롱번풍맥(黃搖翠隴翻風麥)] 이발(李潑)의 시에, “누렇게 흔들리는 것은 푸른 두둑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보리요, 희게 끌리는 것은 푸른 언덕 물가의 연기로다.” 하였다. [십경(十景)] 서거정의 시이다. 우령한운(牛嶺閑雲) / 마산비우(馬山飛雨) / 응천조정(凝川釣艇) / 삽포어등(鈒浦漁燈) / 용벽춘화(龍壁春花) / 율도추연(栗島秋煙) / 영봉초욱(塋峯初旭) / 나현적설(羅峴積雪) / 서교수계(西郊修禊) / 남포송객(南浦送客)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울산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td></tr>
<tr><td rowspan="6">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 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O</td><td>X</td><td>O</td><td>O</td><td>X</td><td>X</td></tr>
<tr><td></td><td>보동헌保東軒 (일학헌一鶴軒 또는 반학헌伴鶴軒_동헌)</td><td>울산 내아</td><td></td><td>학성도호부 아문</td><td>오송정 (五松亭)</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임진왜란, 활발한 상업</td><td colspan="4">군사</td></tr>
<tr><td colspan="8"></td></tr>
<tr><td>자료</td><td colspan="8">임진왜란의 활약으로 울산도호부 승격 : 임진왜란 때의 울산 사람들의 활약으로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하였다.

영남읍지 속 울산 제사지 : 고을의 주변에 여단, 성황단, 문묘, 사직단 등 4개 제사처가 표기되어있다.

지도 속의 울산 방비(서생진) : 울산은 일본을 방비하는 방어진을 갖추고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서생진 지도를 따로 만들어 자세히 묘사하였는데, 각 마을 거주 가옥 숫자도 기재해놓았다. 포구는 장시 등의 상업 기능을 하였는데 서생진은 지역상업의 허브로서 성장하였다.

영남읍지 속 울산</td></tr>
<tr><td>제영</td><td colspan="8">[신마오산산하로(信馬鰲山山下路)] 안등(安騰)의 시에, “오산(鰲山)에 말을 놓아 산아래 길을 가니, 벽파정(碧波亭) 가에 풀만 무성하구나. 거리 위 붉은 단장은 모두 새로 보는 낯이요, 강 위에 맑은 바람은 예와 같네.” 하였다. 일찍이 고을 다스리던 이씨(李氏)가 있어 손과 함께 기생을 데리고 동백도(冬柏島)에 가서 놀다가 배가 깨져서 기생이 모두 빠져 죽었으므로, 안등의 시는 대개 이것을 마음 아파한 것이다.
[쇄시추량석조명(曬翅鶖梁夕照明)] 박효수(朴孝修)의 시에, “태(胎)는 물가 봄 조수 어지러운 데서 기르고, 날개는 추량(鶖梁) 저녁 노을 밝은 데서 쬐인다.” 하였다.
[만의난주흥전감(晩倚蘭舟興轉酣)]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학성 경치 동남에서 제일인데, 늦게 난주(蘭舟)에 의지하니 흥이 새로 무르익네. 누각은 악양루(岳陽樓)를 당할 만해서 천하에 제일이요, 땅은 봉도(蓬島)에 이웃했는데 바닷속에 셋이 있네. 교룡(蛟龍)은 그윽한 구렁에 숨어 있어 때때로 춤을 추고, 기러기는 맑은 강을 건너 낱낱이 물에 잠기네. 어쩌면 긴 바람이 능히 물결을 깨칠꼬. 멀리 놀 뜻이 돌아가는 배에 가득하네.” 하였다.
[칠성지반모운수(七星池畔暮雲收)] 박연(朴堧)의 시 / [학성오도풍연고(鶴城鰲島風煙古)] 등
[팔영(八詠)] 평원각(平遠閣) / 망해대(望海臺) / 벽파정(碧波亭) / 은월봉(隱月峯) / 장춘오(藏春塢) / 대화루(大和樓) / 백련암(白蓮巖) / 개운포(開雲浦)</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동래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 colspan="2">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 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O</td><td colspan="2">O</td><td>X</td><td>X</td><td>O</td></tr>
<tr><td>동래읍성</td><td>충신당
(忠信堂
_동헌)</td><td></td><td>연심당(燕深堂),
독경당(篤敬堂)
찬주헌(贊籌軒)</td><td colspan="2">독진대아문
(獨鎭大衙門_
내삼문), 망미
루 (望美樓_외
삼문)</td><td></td><td></td><td>부산진 등</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임진왜란, 송상현, 정발, 수군진영(부산진 등), 왜관</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동래부사 송상현, 부산 첨사 정발
임진왜란 때에 부산진과 동래에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송상현과 정발이 막아섰으나 패배하였다. 이후 일본 방어의 최전방 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대진 등 여러 진영을 갖추었다.

지도 속의 동래
동래는 일본을 방비하는 최전방 군영이자 임진왜란의 첫 격전지이듯이, 지도 속에는 부산진과 같은 진영 등 군사시설을 강조하고 있다. 동래 지도마다 대마도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두고 있는데, 이는 대마도를 동래에서 관장, 주시해야 하는 주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마도는 왜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도 속에 왜관 또는 일본관이 표현되고 있다.

군사시설이 강조된 동래©영남읍지</td></tr>
</table>

제영	[암만사천목(巖巒似天目)] 고려 때 최함일(崔咸一)이 경상도 안찰사(按察使)로 나갈 제, 고중지(高中址)가 그를 보내면서 지은 시에, "금정산(金井山)은 높고 높아, 바위와 메가 천목산(天目山)과 같다. 아래에 동래성(東萊城) 있는데, 안개와 놀이 고목에 깃들었도다. 세상에서 신선 살던 곳이라고 칭하는데, 땅이 깨끗하니 사람도 속되지 않도다. 한낮에 구름 기운 찌더니, 끓는 물 골짜기에서 용솟음치네. 나그네 그 곁에 집 들어 한 겨울에 양치질하고 목욕한다. 다리는 호수에 눌러있고, 작은 정자 끊어진 산기슭에 의지해 있네. 듣건대, 옛적에 소가(蘇嘏)란 선인이 백록을 타고 와서 놀았다네. 객사는 누가 창건하였는가. 천하에 보기 드문 장관이구나. 북헌(北軒)은 적취정(積翠亭)이라 하는데, 일면에 천 그루 대 옥같이 푸르르다. 달밤이면 매화 가지 차갑고, 가을 바람에 귤과 유자 익는다네. 동쪽으로 고운(孤雲)의 대(臺) 바라보니, 바다속에 잠긴 푸른 봉우리 우뚝하여라. 잠시 들려 노닐면 평생토록 먹었던 마음 흡족하리라. 나는 본시 이 속에서 자란 사람, 장강(長江)이 띠집을 둘러 있었네. 잘못하여 배운 것 공명으로 흘러서, 속세에 묻혀 그렁저렁 지내왔네. 지금까지 맑은 꿈속에 멀리 창랑(滄浪)의 구비를 생각하네. 재배하고 황화(皇華 임금의 사신)를 전송하니, 나를 위하여 송국(松菊)을 보호해 주오." 하였다. [관사의매오(官舍依梅塢)] 정포(鄭誧)의 시에, "객사는 매화 언덕에 의지해 있고, 백성들은 물가에 모여 사네. 순후한 풍속 아직도 풍성하고, 생물들은 모두가 즐거워하네. 나그네를 맞이할 때엔 모두 술병을 들고, 선비가 되면 모두가 시를 즐기네. 선경이 좋은 것 마음속으로 사랑하노니, 부디 속인에게 알리지 말게." 하였다. 운수천년지(雲水千年地) 앞시대 사람의 시에, "구름과 물 천년 되는 땅에, 연기와 꽃 2월 시절일세. 교외에 노는데 속박이 없어, 촌로들도 다 함께 어울린다네. 들이 넓어 하는 모습 엄숙하고, 강물 맑으니 햇빛이 더디구나. 술은 없어져도 흥은 아직 남아 있어, 나무를 깎고 두루 시를 쓰노라. [난산초체향음격(亂山迢遞鄕音隔)] 안성(安省)의 시에, "경고(更鼓 밤 시간을 알리는 북) 소리 둥둥 새벽을 알릴 때, 바닷가 공관(公館)에서 헛꿈을 깨었네. 많은 산 멀고 멀어 고향 소식 끊어지고, 빈 뜰에 나뭇잎 지는 소리만 부질없이 울려온다." 하였다. [성두효각보천명(城頭曉角報天明)] 윤자운(尹子雲)의 시에, '성 위에 새벽 나팔 날이 샌 것 알리는데, 오경 나팔꾼은 장군의 꿈 문득 깨우도다. 가는 깃발 다시금 구름 낀 바다 따라 출발하니, 말 앞에 피리와 북소리 길게 짧게 들려온다." 하였다. [지궁남해천중령(地窮南海千重嶺)]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땅은 남쪽바다 일천 겹의 봉우리에 다다랐고, 하늘은 동쪽바다 만리 물결에 연해 있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여산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 colspan="2">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
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 colspan="2">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 colspan="2">여산동헌</td><td></td><td></td><td>아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단종 복위와 숙종, 김장생의 후진 양성</td><td colspan="4">행정(여산면사무소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단종의 복위와 여산 도호부 승격
단종은 노산군으로, 또한 서인으로 강등되었는데, 이를 복위시킨 사람은 숙종이다. 숙종은 단종 복위와 함께 여산군을 도호부로 승격시키는데, 단종 정순왕후가 여산 송씨이기 때문이다.

김장생의 후진양성
팔괘정 정자에서 송시열 등 인물도 이곳에서 강학함, 이곳에서 바라보는 금강의 경치가 일품이라고 한다.

여산 동헌의 현 모습
여산 동헌은 건물이 개조되어 여산 우체국으로 활용되다가 현재에는 지역민의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 관리가 보장된다면, 관아 건물을 경로당 등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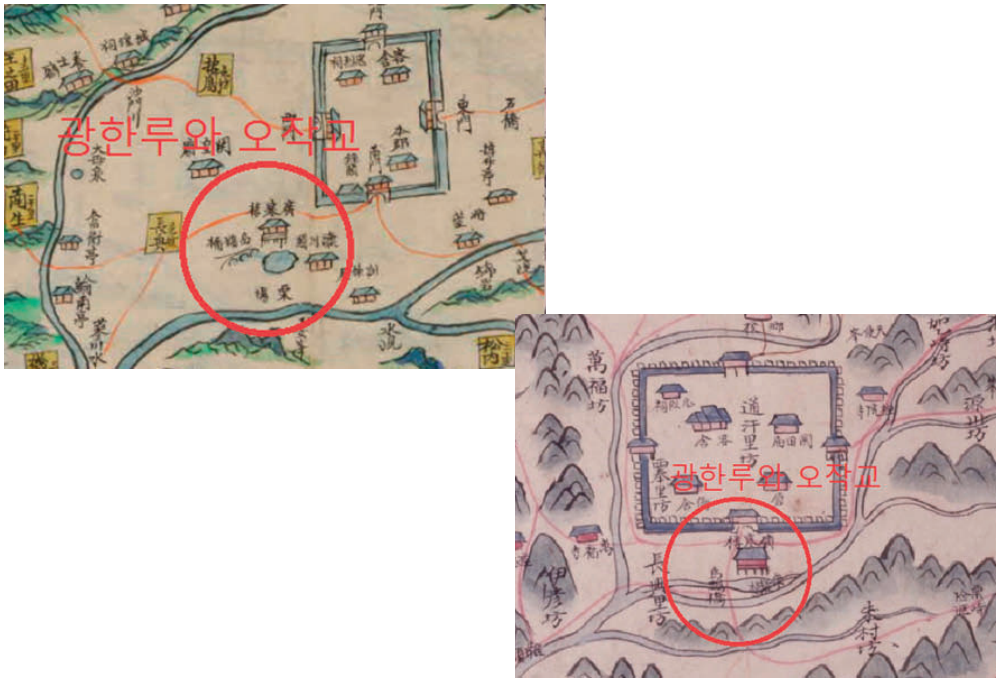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산 동헌</td></tr>
<tr><td>제영</td><td colspan="8">[난산 횡검극(亂山橫劍戟)] 성임(成任)의 시에, “대나무 서 있으니 천 그루의 푸른 낚싯대요, 꽃이 피니 백일 동안 환하다. 송사가 한가하니 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시대가 태평하니 고을에는 성(城)이 없다. 멀리 보이는 나무는 연기 속에 아득한데, 기우는 햇빛은 비온 뒤에 더욱 밝구나. 어지럽게 솟은 산 창칼을 비껴 세운 듯한데, 막 갈아 놓은 칼과 같구나.” 하였다.
[일대한계 포군류(一帶寒溪抱郡流)] 강희맹(姜希孟)의 시에, “천 봉우리 높은 나무 파란 연기 속에 떠 있고, 한 줄기 차가운 시내 군(郡)을 안고 흐른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남원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남원읍성</td><td></td><td></td><td></td><td></td><td></td><td></td><td>만인의총, 광한루원, 남원사직단, 남원관왕묘</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러브스토리(춘향전), 광한루, 마을민속문화</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남원부사 도임 : <춘향가(春香歌)> 중 신관 사또가 서울에서 남원으로 부임하여 내려오는 행차를 그린 그림이 현존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춘향가에서 부사의 부임은 서사의 갈등이 부각되는 시점으로 춘향전과 접목이 가능하며, 당시 관찰사의 행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춘향전 : 남원을 무대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자 사랑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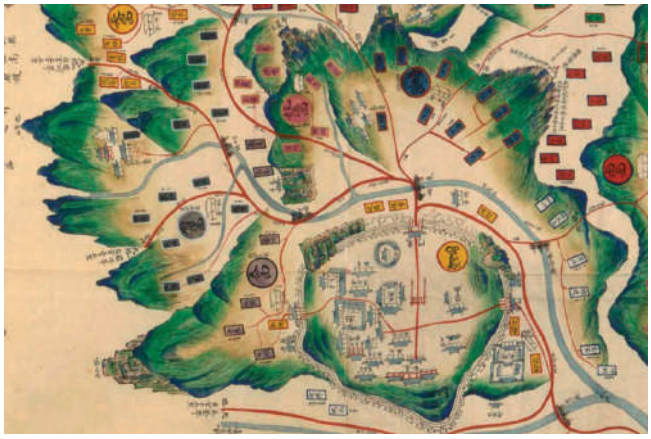
호남읍지 속 남원 : 남원은 완전 평지에 건설된 읍성으로, 산과 물을 끼고 있는 보통의 읍치와는 다른 드문 사례이다. 호남읍지에서는 남원을 풍수지리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1872년 남원부지도 속 광한루와 오작교 : 흔히 '우리나라의 4대 누각'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광한루, 그리고 사랑의 다리라고 하는 오작교가 지도 속에서 크고 뚜렷하게 묘사하고있다. 남원에서도 으뜸가는 장소로 강조하고 있는 것만 같다.

광한루와 오작교가 강조된 남원 지도©전라북도각군읍지/해동지도</td></tr>
</table>

기문	광한루(廣寒樓) ○ 황수신(黃守身)의 기문에, “부의 남쪽 2리쯤 되는 곳에 지세가 높고 평평하며 넓게 트여 있는데 거기에 작은 누각이 있으니, 그 이름이 광통루(廣通樓)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하니 갑인년에 부사 민공(閔恭)이 다시 새 누각을 세웠고, 정사년에 유지례(柳之禮)가 이어 단청을 더하였다. 갑자년에 정승인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가 광한루로 이름을 고쳤다. 아, 호남의 경치 좋은 곳으로 우리 고을보다 나은 곳이 없고, 내 고장 경치 좋은 곳 중에 광한루보다 나은 곳이 없다.” 하였다. ○ 강희맹의 시에, “남방의 이름난 광한루에 6월에 올라오니 가을처럼 서늘하네. 달그림자 홀연히 비치니 하늘이 가깝고, 붉은 난간 굽은 곳에 견우성이 지나가네.” 하였다. ○ 이석형(李石亨)의 시에, “방장산(方丈山) 앞에 백척누각, 푸른 산머리에 붉은 사다리가 높이 걸렸네. 물은 들판에 연하여 이내와 햇빛이 섞였고, 구름 걷힌 먼 산봉우리엔 비 기운이 걷히었네. 물가에 임하니 천상에 앉은 듯, 바람 앞에 서니 달 가운데서 노는 듯, 인간에 절로 달세계[淸虛府]가 있는데, 하필 구구하게 세상 밖에서 구하리오.” 하였다. ○ 성임(成任)의 시에, “상쾌한 기운이 물가 누각에 스며드니, 요천(蓼川) 머리에 광한(廣寒)의 선경(仙境)이 펼쳐지도다. 남쪽 언덕에 바람이 일어나니 더위가 멀어졌고, 서산에 주렴 걷히니 저녁 비가 그쳤네. 달은 때마침 맑은 밤에 둥근데, 은하수 다리에서 누가 옛 사람을 이어서 놀꼬. 하늘빛은 상하에 명경처럼 밝으니, 몸이 청허부(淸虛府)에 바로 드달리네.” 하였다. ○ 허침(許琛)의 시에, “저녁에 풍류 잡히고 그림같은 누각에 오르니, 옥봉(玉峯)으로 지는 해가 성 머리에 걸렸구나. 시정(詩情)이 바다처럼 일렁거리니 봄이 정함이 없고, 검기(劍氣)가 하늘에 떠서 밤에도 걷히지를 아니하네. 눈처럼 춤추니 패옥을 던지며 가고, 물결을 도리어 밟고 가니 구슬을 희롱하며 노는도다. 인간에 또한 청허부가 있으니, 좋은 놀이를 세상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하였다. 연국루(戀國樓) : 객관(客館)의 서쪽에 있는데 일명 죽루(竹樓)라고도 한다. ○ 김극기의 시에, “구름을 뚫은 푸른 대가 요란하게 비녀을 뽑은 듯, 홀연히 높은 루에 올라 바로 아래를 굽어봤네. 우로(雨露)가 비록 처음에 죽순을 무성케 하였으나, 얼음과 서리도 끝내 요림(瑤林)을 욕되게 하지 못하였네. 깊숙한 뿌리가 돌을 피하는 모양이 푸른 용이 숨은 듯하고, 맑은 피리소리는 바람을 맞아 푸른 봉황이 우는 듯하도다. 어떻게 하면 장안의 고관들이 그대처럼 굳은 절개에 곧은 마음 가질 수 있을까.” 하였다. ○ 윤향(尹向)의 시에, “한가한 날 백 자나 되는 누각에 오르니, 누각 지은 사람은 정오두(鄭遨頭)라네. 산은 지리산(智異山)에 연하여 천봉(千峯)이 빼어나고 물은 태량(苔梁)에서 합하여 한 줄기로 흐르도다. 주포(周浦)에는 구름이 비꼈으매 석양이 밝고, 교잠(蛟岑)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니 가을 기운 움직였네. 어디에서 부는 장적(長笛) 소리인가, 홀로 난간에 기대니 천리만리로 뻗친 근심일세.” 하였다.
제영	[낙잔홍엽노청산(落殘紅葉露靑山)] 김극기의 시에, “습하고 더운 남방에 유람하매 더위에 시달리더니, 홀연 서풍을 만나니 얼굴빛이 즉시 펴지네. 바람에 흰 연기 일어나서 푸른 들을 감싸고, 단풍잎 모두 지니 청산이 드러났네.” 하였다. [탐상풍연폐식면(貪賞風煙廢食眠)] 앞사람의 시에, “흥에 겨워 눈이 머리에 가득한[盈 백발(白髮)] 것도 모르고, 풍광에 취하여 먹고 자는 일조차 잊었네. 도연명(陶淵明) 살던 골목의 버들은 여름빛이 푸른 장막에 짙었고, 육씨(陸氏) 못 속의 연은 홍방(紅房 연꽃)이 가을에 벌어지네. 미친 듯이 부르는 노래에 어찌 장단을 분간하며, 한껏 마시는 술에 어찌 청주와 탁주를 분간하리오. 멀리 바라보매 끝간 데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 물빛과 산그림자가 멀리 하늘과 닿았네.” 하였다. [지령인걸천년색(地靈人傑千年色)] 권진(權軫)의 시에, “땅이 영험하고 인물이 걸출한 천년의 고을이요,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서린 만고(萬古)의 산이로다.” 하였다. [준령동분삼도경(峻嶺東分三道境)] 안극인(安克仁)의 시 / [용성원수추운외(龍城遠岫秋雲外)] 안숭효(安崇孝)의 시 / [숭악춘한설만산(嵩岳春寒雪滿山)] 정창손(鄭昌孫)의 시 / [봉강요접견훤국(封疆遙接甄萱國)] 정귀진(鄭龜晉)의 시 등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장흥도호부</td><td>분류</td><td colspan="2">도호부</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td><td>X</td><td>X</td><td>X</td><td>O</td><td>X</td><td>O</td></tr>
<tr><td>장흥읍성</td><td>백산재
(栢山齋
_과거 동헌
건물)</td><td></td><td></td><td></td><td>삐비정
(동문정)</td><td></td><td>장흥석대들
전적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동학농민운동, 산천의 조화</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장흥 석대들 전투
동학농민군 최후의 항쟁이다. 이 전투가 벌어진 때는 전봉준과 지도부가 모두 와해된 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학군이 항전을 계속하였던 점 등이 의미있다.
 
봉우리가 멋있게 표현된 장흥©1872년 지방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땅은 다하여 하늘이 바다에 이어 있고] 이색(李穡)의 시에, “땅은 다하여 하늘이 바다에 이어 있고, 성은 높은데 비가 내리니 산이 어둡네. 예부터 유락(流落)한 나그네, 몇이나 살아서 돌아왔던고.” 하였다.
[시냇가 곳곳에 매화가 물에 임하였고] 이방직(李邦直)의 시에, “시냇가 곳곳에 매화가 물에 임하였고, 산밑의 집집에는 대나무가 집을 에워싸고 있네.” 하였다.
[대사립 띠집이 맑은 시냇가에 있다] 앞 사람의 시에, “옛 고을에 사람이 드물어 까마귀 어지럽게 울고, 대사립 띠집이 시냇가에 있구나.” 하였다.
[조수(潮水)소리는 저물 녘에 성을 흔든다.]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산 빛은 맑아 숲에 이어 있고, 조수 소리는 저물 녘에 성을 흔든다.” 하였다.
[높은 산은 해를 가리어 누각에 더디 오른다.] 이석형(李石亨)의 시에, “안개 낀 숲은 바람을 끌어 길이 아득하고, 높은 산은 해를 가리어 누각에 더디 오른다.” 하였다.
[땅은 탁 트이어 하늘이 바다에 떴고] 앞사람의 시에, “땅은 탁 트이어 하늘이 바다에 떴고, 산은 굽이져 물이 성을 끌어안았다.” 하였다.
[강은 옛 성을 돈다.] 이계동(李季仝)의 시에, “산은 큰 고을을 둘러싸고, 강물은 옛 성을 돈다. 가을은 높아 날씨도 상쾌한데, 누워서 피어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네.” 하였다.</td></tr>
</table>

5. 군(10개소)

1) 안산군

2) 안성군

3) 온양군

4) 서산군

5) 청도군

6) 흥해군

7) 함양군

8) 김제군

9) 순창군

10) 낙안군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안산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안산읍성지</td><td>취암지관
(鷲岩之館
_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봉수대, 왜구 방어, 비옥한 땅과 바다</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정왕산 봉수대
남양 해운산봉수, 인천 성산봉수 등에 연계된다.

오질이도봉수(吾叱耳島烽燧)
오질이도는 오이도를 가리키며, 남쪽으로 남양(南陽) 해운산(海雲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仁川) 성산(城山)에 응한다.

안산읍성
조선초기 왜구방어를 위한 읍성 양식이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해상부용기타산(海上芙蓉幾朶山)]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바다 위의 연꽃은 몇 떨기의 산인고. 개인 빛이 술잔 사이에 뚝뚝 떨어지려 한다. 누에 오르매 유월의 뜨거움이 변하니, 곧 바람을 타고 광한루(廣寒樓)에 들어가려 한다.” 하였다.
[일군소조사면산(一郡蕭條四面山)]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온 고을이 소조하니 사면이 산인데, 조망(眺望) 가운데의 절은 있는 듯 없는 듯한 사이로다. 작은 마루에 해는 정오(正午)인데 봄 졸음을 이루니, 소매에 가득한 맑은 바람 뼈에 부딪쳐 차도다.” 하였다.
[선궁은약백운간(禪宮隱約白雲間)] 이원(李原)의 시에, “홀로 동헌(東軒)에 앉아 푸른 산 바라보니, 선궁(禪宮)이 흰 구름사이에 희미하게 보인다. 벼슬하는 몸을 빼어 어느 날에 중을 찾아 가서, 특별히 찬 소나무 바람을 누워서 들으리.” 하였다.
[지요갱도적삼오(地饒秔稻敵三吳)]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만리의 구름 산이 그림같은데, 처음으로 개인 풍경은 우유보다 윤택하다. 사일(社日 봄가을 동네에서 제사지내고 모이는 날) 뒤에 새 술독을 여는 것이 사랑스럽다. 강동에만 반드시 아름다운 노어가 있지 않으리라. 바다가 가까우니 생선과 소금은 백월(百粵 중국 광동 지방)과 같고, 땅이 비옥하니 메벼와 찰벼는 삼오(三吳 중국 강동 지방)를 대적한다. 정녕 시험삼아 전옹(田翁)을 위하여 말한다. 동쪽 집을 사려고 묻고자 하노니 허락하려는지.” 하였다.</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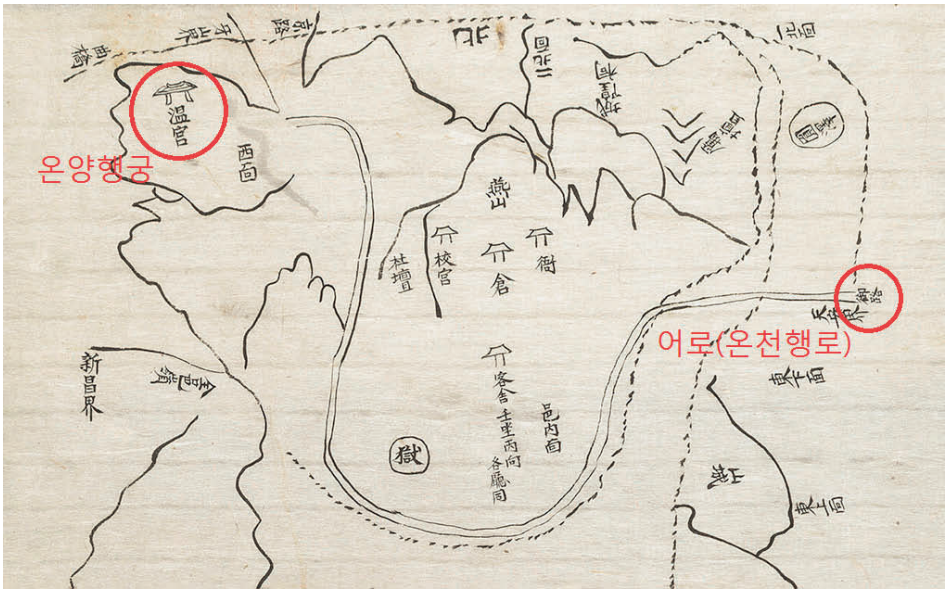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안성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백성관
(白城館
_객사)</td><td></td><td></td><td>객사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활용 콘텐츠</td><td colspan="3">활용 유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안성장, 안성맞춤, 안성유기</td><td colspan="3">교통(객사)[6]</td><td colspan="2"></td></tr>
<tr><td>자료</td><td colspan="8">안성맞춤 안성유기
김태영의 안성기략 등에 의하면 예부터 유기가 명산이라고 하는데, 안성유기는 워낙 정교하여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안성장
안성은 교통의 요지로 인근 고을에서도 교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다.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이 장사를 해서 성공했던 곳도 바로 안성장이다.

안성객사 양식
안성객사 백성관은 고려 주심포계 양식을 하고 있다.

안성장의 옛 모습</td></tr>
<tr><td>제영</td><td colspan="8">[이락우청홍행화(籬落雨晴紅杏花)] 허식(許湜)의 시에, “방탕한 객(客)은 본래 조롱(鳥籠) 밖 새와 같은 것, 세상 사람 어느 누구, 우물안 개구리를 부러워하리. 산 고을에 오가면서 봄 경치 찾으니, 울타리에 비 개였는데 살구꽃이 붉다.” 하였다.
[지탁서남옥야평(地坼西南沃野平)] 최부(崔府)의 시에, “산은 동북쪽을 막아서 저절로 성이 되었고, 지역은 서남으로 트이었는데, 기름진 들판이 질펀하다.” 하였다.
[십실풍연 사무성(十室風煙似武城)] 함부림(咸傅霖)의 시에, “열 집 풍경은 무성과 같은데, 남쪽 들은 기름지고, 사방 산 편평하다. 사군(使君)이 현가(弦歌)로써 다스리는데, 고을에는 멸명(滅明) 같은 사람 몇이나 있을까.” 하였다.</td></tr>
</table>

6. 콘텐츠는 경제와 어울리나, 객사 주변에 시장이 없어 연계활용이 현실상 어려움.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온양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아산시 읍내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동헌</td><td></td><td></td><td>온주아문
(溫州衙門
_외삼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5">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온양온천, 왕의 온천행로</td><td colspan="5">군사(행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의 온양 : 지도마다 국왕의 온천행로를 굵은 홍선이나 두 줄로 표현하여 다른 길과 차별을 두었다. ‘어로御路’로 표시하여 강조하였고, 권위를 부각하였다. 어로의 끝에는 큰 그림으로 온천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 사직단, 여단, 문묘, 성황단이 표시되어 있다.
 

두 줄로 표시된 온양 온천행로©온양군 읍지</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필불영천용(觱沸靈泉湧)] 이승손(李承孫)의 시에, “콸콸 영천이 솟아나는 것은, 활활 타는 화덕(火德)이 통함이로다.” 하였다.
[교전상운합(郊殿祥雲合)] 이숙치(李叔畤)의 시에, “들 밖의 궁전엔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 가득하고, 신령한 샘에는 따뜻한 옥류(玉溜)가 맑구나.” 하였다.
[행궁비수령(行宮非繡嶺)] 이맹상(李孟常)의 시에, “이 행궁이 수령궁이 아니거니, 대가(大駕) 임행하신 곳 어찌 저 곤명(昆明) 땅이랴.” 하였다.
[봉강토덕형(封疆土德亨)]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읍호(邑號)를 올리니 천은(天恩)이 무겁고, 계역을 바로하니 토덕이 형통하는도다.” 하였다.
[팔영(八詠)] 행궁의 상서로운 구름[行殿祥雲] / 영천의 서액[靈泉瑞液] / 천주의 어선 반사[天廚分膳] / 신정에 새긴 빗돌[神井勒石] / 광덕산의 아침 아지랑이[廣德朝嵐] / 공곶의 봄 조수[貢串春潮] / 송령의 찬 물결[松嶺寒濤] / 보리 밭 두둑의 이삭 물결[麥隴秀波]</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서산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서령관
(瑞寧館
_동헌)
서산객사
(객사)</td><td></td><td></td><td>서령군문
(瑞寧郡門
_문루)</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활용 콘텐츠</td><td colspan="3">활용 유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아름다운 풍광(기문, 제영) 등</td><td colspan="3">행정(서산시청 연계)</td><td colspan="2"></td></tr>
<tr><td>자료</td><td colspan="8">서산군수 김연규가 암행어사에게 올린 보고서 : 행 서산군수(行瑞山郡守) 김연규(金年圭)가 암행어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서산군 업무 중 결전(結錢)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산군수의 직인, 둥그런 도장 등이 찍혀져 있다.

서산군수 김연규의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구1254</td></tr>
<tr><td>기문</td><td colspan="8">객관 : 조위(曺偉)의 시에, “훈훈한 바람 불어 깊숙한 궁실에 야당화(野棠花) 피었는데, 아전들 나가고 텅 비인 관아 뜰엔 돋아오른 풀빛이 이끼처럼 진하다. 위포(葦浦)의 조수 소리 바다로 다 돌아가서 고요하고, 상산(象山)의 구름기운 하늘과 맞닿아 오는구나. 사암(思菴 고려의 유숙(柳淑))이 살던 옛집은 어느 곳인지 찾을 길 없고, 학사(學士) 신하 최치원도 신선되어 간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고적(古蹟) 찾아드니 사람의 감개만 더하게 할 뿐, 한 술잔에 취하여 우레같이 코나 골거나.”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해우반변비백거(海雨半邊飛白去)] 이색(李穡)의 시에, “우연히 아름다운 곳 만나니 나그네 가슴 절로 열려, 시냇가에 말 세우고 푸른 이끼 위에 앉았노라. 바다 비 한쪽에 뿌리니 흰 줄기 지나가고, 구름 끼인 산 첩첩한 것 푸른 빛 보내오네. 기구한 세상길 이 몸은 두루 걸었으리. 선비의 관 영락(零落)하였어도 뜻은 돌이키지 않았노라. 우문(禹門) 세 층 물결에 용으로 화한다면, 다른 해에 반드시 우레 소리 타고 달리리라.” 하였다.
[해기조련장무부(海氣朝連瘴霧浮)] 신숙주(申叔舟)의 시에, “적요한 관사 옮긴 곳에 앉아보니, 바다 기운 아침에 장기(瘴氣)와 연해 떠오른다. 눈에 가득히 들어오는 흥하고 망한 일을 어느 곳에 물으랴. 무너진 성 의구하게 산마루에 있구나.” 하였다.
[농변총죽노황연(隴邊叢竹老荒煙)]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고을 성 옮긴 것이 어느 해에 있었던고. 적요한 객사 참으로 가련하다. 쑥대 밑 낮은 담에 깨진 벽돌 남아 있고, 언덕 뒤 한 포기 대는 거친 연기 속에 쇠해간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청도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O</td><td>X</td><td>O</td></tr>
<tr><td>청도읍성</td><td>주홀헌 (柱笏軒_동헌)
도주관 (道州館_객사)</td><td></td><td></td><td></td><td>청덕정</td><td></td><td>청도
석빙고 등</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사방에 길이 통하는 청도, 장시 형성</td><td colspan="4">교통(객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사방에 길이 통하는 청도 : 청도는 산천이 청려하고 대도가 사방으로 통하는 까닭에 이름지어졌다. 팔조령을 넘어 대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였다. 이로 인해 청도 지도를 보면 동창장, 대천장, 성현장, 구좌장, 읍장 등 장시가 다른 고을에 비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의 표현이 비교적 자세한데, 험로의 경우에도 표시를 해두었다. 고을 주변에는 성황당, 사직단, 여단, 향교가 표시되어 있으며, 사찰, 정자, 기우단 등도 수록되어 있다.

대구, 경상, 자인, 창녕, 영천 등 사방을 잇는 청도©대동여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당시예악이서국(當時禮樂伊西國)] 이첨(李詹)의 시에, “당시 예악은 이서국에 있었고, 오늘날 정기(旌旗)는 원수(元帥)가는 곳에 있네.” 하였다.
[청덕루중취옥적(淸德樓中吹玉笛)] 이첨의 시에, “비파 소리 속에는 양주곡(楊州曲)이요, 비취 주렴 앞에는 태백(太白)의 잔이로다. 청덕루 안에서 옥적을 부니, 1년에 세 번 돌아가기를 즐기네.” 하였다.
[일구현고다교목(一區縣古多喬木)] 김효정(金孝貞)의 시에, “한 고장 오랜 고을에 큰 나무 많고, 사면 추녀가 트여 좋은 산을 대하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흥해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성내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td></tr>
<tr><td></td><td>제남헌
(濟南軒
_동헌)</td><td></td><td></td><td>아문</td><td></td><td></td><td>영일민속박
물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장시의 발달, 바닷가 사람들의 모습(제영)</td><td colspan="4">경제(흥해시장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경상도읍지 속 흥해
흥해는 풍수지리와 약간 동떨어진 입지에 자리하였는데, 지도에서는 억지로 풍수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주변에는 성황당, 문묘, 사직단이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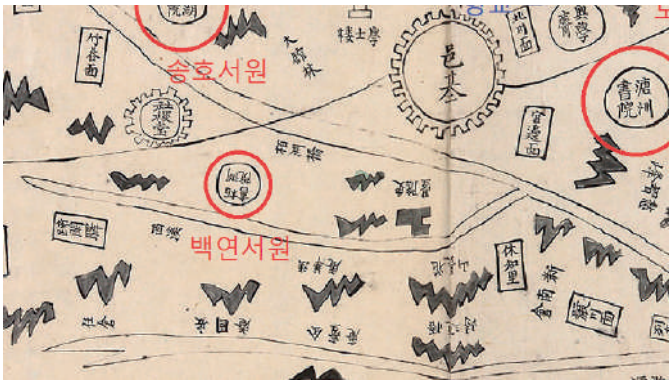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 속 흥해
도로는 황색으로 채색하였는데 대로와 소로로 구분하였으며, 육로와 수로가 만나는 지점인 余川里에는 장시도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래는 평지에 있으나 풍수지리의 명당처럼 표현한 흥해 지도©해동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전유지리대어염(田腴地利帶魚鹽)] 이곡(李穀)의 시에, “밭은 살찌고 땅은 이로운데 어염까지 겸했으니, 다만 백성 다스림 청렴하지 못할까 두렵네. 옛집 어느 사람이 이곳을 피폐했다 말했는가. 썩은 서까래 낡은 기와 앞 처마에 떨어지네.” 하였다.
[해군생애반시염(海郡生涯半是鹽)] 홍여방(洪汝方)의 시에, “바다에 사는 생애 절반은 소금이니, 뉘 있어 혹 염치를 상한다 하리오.” 하였다.
[변민락리자지염(邊民樂利自知廉)] 신인손(辛引孫)의 시에, “못 파고 밭 갈며 바다에 소금 찌니, 변방 백성 이(利)를 즐기고 스스로 염치아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함양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d>X</td><td>X</td></tr>
<tr><td></td><td></td><td></td><td></td><td></td><td>학사루
(學士樓)</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무오사화, 김종직, 지역 고을과의 장시</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1872년 지방지도 속 함양
각 면별로 사창, 의창, 임창, 덕창, 동창, 서창, 남창 등의 창고와 함께 사근장, 옥녀장, 개평장 등 장시가 표시되었다.

학사루와 무오사화
무오사화의 원인 중 하나로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있을 때 학사루에 걸린 유자광의 시 현판을 내리도록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일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선비가 많은 함양, 함양서원
함양에는 서원훼철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남계서원을 비롯하여 구천서원, 도곡서원, 당주서원, 송호서원, 백연서원 등 무수히 많은 서원이 있었다. 현재에도 보존·복원된 서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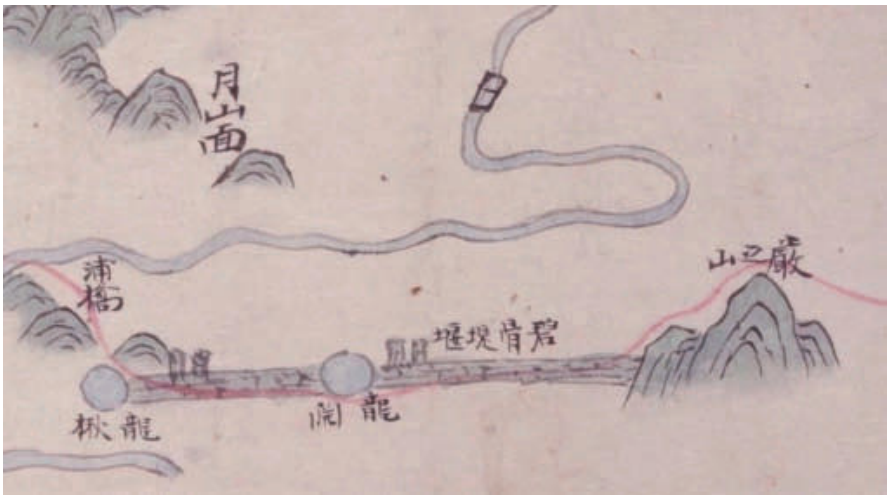
서원이 많은 함양©함양군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학사루(學士樓)
객관 서편에 있다. 최치원이 태수로 있으면서 오르던 곳인 까닭으로 학사루라 이름하였다. 그 뒤에 왜적에게 소실되었는데, 고을 관아를 옮길 때에 누 또한 옮겨다 지었으나 이름은 그대로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함양소현난산심(咸陽小縣亂山深)] 이색(李穡)의 시에, “함양 작은 현은 많은 산이 깊고, 깎아지른 벼랑은 다시 만 길이나 되네.” 하였다.

[함양구물단청산(咸陽舊物但靑山)] 조승숙(趙承肅)의 시에, “함양 옛 물건은 청산뿐이니, 몇 차례 흥망 겪으며 한 고을에 딸렸던가.” 하였다.

[천극두류기반공(天極頭流倚半空)] 신숙주(申叔舟)의 시에, “하늘 끝 두류산은 반공에 기댔고, 호남을 한 번 채운(彩雲) 속에 바라보네. 시험삼아 누 위에서 난간에 기대보니, 천고에 푸른 얼굴 두루두루 같아라.”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김제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북도 김제시 교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 colspan="2">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 colspan="2">O</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r>
<tr><td></td><td colspan="2">근민헌
(近民軒
_동헌)</td><td>김제
내아</td><td></td><td></td><td>피금각
(披襟閣)</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김제 농경문화, 김제평야</td><td colspan="4">행정(김제시청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해동지도에서의 김제 산천 인식
김제는 평야로 유명하며 실제로 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는 산들이 수없이 연결되어 그려져 있다. 작은 동산에 불과한 지형을 이처럼 산과 산맥으로 표현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자연관을 볼 수 있다. 김제평야가 있는 김제는 대표적인 평지고을이다.

김제평야와 벽골제
벽골제는 김제평야의 젖줄로, 농업생산량 증대 등을 이끌어내었다.

김제평야와 벽골제©해동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요곽하화최효우(繞郭荷花摧曉雨)] 이발(李發)의 시에, “성곽 둘레의 연꽃은 비를 재촉하고, 들에 가득한 벼이삭은 가을 하늘에 상긋거리네.” 하였다.
[수락어하국(水落魚鰕國)] 김극기의 시에, “수위(水位)가 낮아지니 고기와 새우의 나라요, 산이 고요하니 호랑이와 들소의 고을이로다.” 하였다.
[일로요련해(一路遙連海)] 옛 사람의 시에, “한 길 아득히 바다에 이어있고, 천가(千家)는 반쯤이나 산에 가려 있구나.”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순창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O</td><td>X</td><td>X</td></tr>
<tr><td></td><td>옥천지관
(玉川之館
_객사)</td><td></td><td></td><td></td><td>귀래정</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신말주, 순창의 풍광</td><td colspan="4">행정(순창군청, 순창초등학교 연계)[7]</td></tr>
<tr><td>자료</td><td colspan="8">신증동국여지승람 속 순창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는 적성진을 소개하고 있는데, 적성산 아래에 있는 적성진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고 하여 날이 기울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 이규보의 시에 “가랑잎 같은 작은 배가 취옹을 태우니, 석양의 행색이 병풍 그림이로다. 평소 화산(적성산)이 좋다고 들었더니 구름 낀 봉우리 이 벽공에 점점이 찍힌 것을 바라보기만 하네.”하였다.

신말주
신숙주의 동생이기도 한 신말주는 단종이 왕위에 물러난 이후 벼슬을 사임하고 순창에 살며 귀래정에서 산수를 즐겼다.</td></tr>
<tr><td>기문</td><td colspan="8">관정루(觀政樓) : 객관의 남쪽에 있다.
○ 최항(崔恒)의 시에, “주렴(珠簾)을 높이 걷고 돌아온 가을 맞이하니, 그림 같은 물과 산이 눈 안에 들어오네. 태수의 맑은 정치를 무엇에다 비길꼬. 누 앞에 시냇물이 푸르게 흐르도다.” 하였다. 북루(北樓) : 객관의 후원에 있다.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충신(忠信)한 고을 예로부터 이름있으니 송사하는 동헌 뜰에 사람이 없고, 푸른 이끼만 끼었도다. 누를 지으니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고, 정사 간이(簡易)하고 사람들 화목하니 물과 같이 맑도다. 천리의 물과 산은 승경(勝景)이 많고 일헌(一軒)의 풍월(風月) 태평성세 이루네. 은근히 남유객(南遊客)에게 말하노니 곳곳에서 현가성(絃歌聲)을 들어보라.” 하였다.</td></tr>
</table>

7. 객사가 순창초등학교 내에 있어, 교육기능 외 활용이 현실상 어려움.

기문	귀래정(歸來亭) : 군의 남쪽 3리에 있다. ○ 서거정의 기에, “내 일찍 들으니, 순창의 남쪽에 있는 산들은 중첩하고 산세는 매우 기위(寄偉)하여 꿈틀꿈틀 하고 낮게 돌아서 혹은 용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범이 뛰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굽히고 혹은 일어나며 혹은 내려앉아 동봉(東峯)이 되었는데 봉우리의 꼭대기는 땅이 아주 평탄한지라 후가 여기에 서너 칸을 지으니, 정자의 좌우에 만죽(萬竹) 단란(檀欒)이 울창하여 사시절 어느 때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달이 뜨나 눈이 오나, 모두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경치가 하나둘로 말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화초를 심으니, 홍백색(紅白色) 주자색(朱紫色)이 서로 이어 피고 져 더위나 추위에 끊임이 없도다. 정자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남원의 보련산(寶蓮山)과 곡성의 동지악(動地岳)의 푸른 것이 연이어 높이 솟아 서로 마주 읍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층층한 봉우리와 첩첩한 산줄기, 긴 수림과 무성한 산록은 연기와 구름이 아련한 가운데 기이한 경치를 가져다가 모두 좌석 아래 와서 제공하고, 물은 그 근원이 적성(磧城)의 북쪽에서 발하여 남쪽으로 꺾여 꾸불꾸불 흘러 두 산협 사이로 나오고 다시 합쳐 동쪽으로 흐른다. 광덕산(廣德山)의 산과 물은 용이 서린 듯 뱀이 또아리를 튼 듯이 봉우리 아래로 감고 돌아 적수(磧水)와 합하니, 그 물이 맑고 깨끗하여 희롱할 만하고 거울삼아 비칠 수도 있고, 촌락과 들판은 백 리가 시원스레 보이는데, 누런 밭둑과 푸른 논이 멀리 가까이 아련히 보이고, 밭가는 자・소먹이는 자・나무하는 자・물고기 잡는 자・사냥하는 자들이 서로 노래로 화답하며, 행락객・나그네・소와 말이 끊임없이 오고가는 것을 또한 앉아서 구경할 수가 있다. … 때로는 개를 끌고 매를 팔뚝에 얹고서 여우와 토끼를 잡기도 하고, 물에 가선 고기 잡으며, 산에 가선 나물캐고, 죽순과 순채를 철따라 먹으며, 국화를 보내고 매화를 맞으니 강촌 사시의 경개가 무궁하여 후의 즐거움도 무궁하였다. ○ 성현의 시에, “보련산(寶連山)은 높아 푸르고 울창하며, 적성(赤城)의 물은 합하여 맑기가 젖빛 같네. 도구(菟裘 고향 별장)의 승지는 기뻐 거할 만하니 헌면(軒冕)을 버리기를 진흙같이 하도다. 천 휴(畦 논 50묘(畝)가 1휴(畦))의 논에는 벼가 익어 누런 구름이 펼쳐졌고, 만 그루의 배와 대추나무 붉은 끈에 꿰어진 구슬이로다. 사방 이웃이 말술로써 서로 노래 부르고 전옹(田翁)과 야로(野老)들은 자리를 함께 하였네. 흔연히 양(壎 흙으로 만든 악기의 일종)을 치며 강구(康衢 요(堯) 임금 때 그의 덕을 노래한 동요)를 노래하니 그 시절이 태평하여 세금을 거두러 떠들며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네. 이 즐거움을 끝내 지켜 변함없기 바라노니, 알지 못할게라.” ○ 강희맹의 시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무엇인고” 6수
제영	[첨봉위사면(尖峯圍四面)] 남재(南在)의 시에, “뾰족한 봉우리가 사면을 에워싸고, 한 줄기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하였다. [추산의구치(追山依舊峙)] 장윤화의 시에, “연속된 산은 옛과 다름없이 솟아있고, 유리알같은 물은 오늘도 흐르네.” 하였다. [객로당산곽(客路當山郭)] 유영(柳潁)의 시에, “길손이 가는 길은 산곽에 임했는데, 계절은 보리가을이 되었더라.” 하였다. [임허견벽류(林虛見碧流)] 김희선(金希善)의 시에, “수림이 비니 푸른 물 보고, 처마가 허하니 밝은 달을 맞네.” 하였다. [운이곡자유(雲移谷自幽)] 최문리(崔文理)의 시에, “바람이 살며시 부니 대나무가 비로소 빽빽하고, 구름이 옮겨가니 골짜기는 절로 깊어 보이더라.”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낙안군</td><td>분류</td><td colspan="2">군</td><td>위치</td><td colspan="2">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X</td><td>O</td><td>O</td></tr>
<tr><td>낙안읍성
낙풍루(동문), 쌍청루(남문)</td><td>사무당 (使無堂_동헌)
낙안지관(樂安之館_객사)</td><td>낙안내아</td><td>옥사</td><td>낙민루(樂民樓_문루)</td><td></td><td>민속마을</td><td>임경업군수비각</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임경업, 민간전설과 신앙, 교통의 요지</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
낙안군수 임경업
조선 인조 때 명장인 임경업은 특출난 활약 덕에 많은 전설을 남겼다. 낙안읍성을 하룻밤만에 쌓았다는 축성 설화 등이 있다.
호남읍지 속 낙안 제사처 : 어느 고을에나 있는 성황당, 여단, 사직단, 문묘라는 4개 제사처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1872년 낙안군지도
남해안을 동서로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로, 바다에 면해있어 수운도 편리하며 순천만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해안방어에도 유리함을 말해주고 있다.

풍수지리의 명당이자 수륙교통의 요지인 낙안©1872년 지방지도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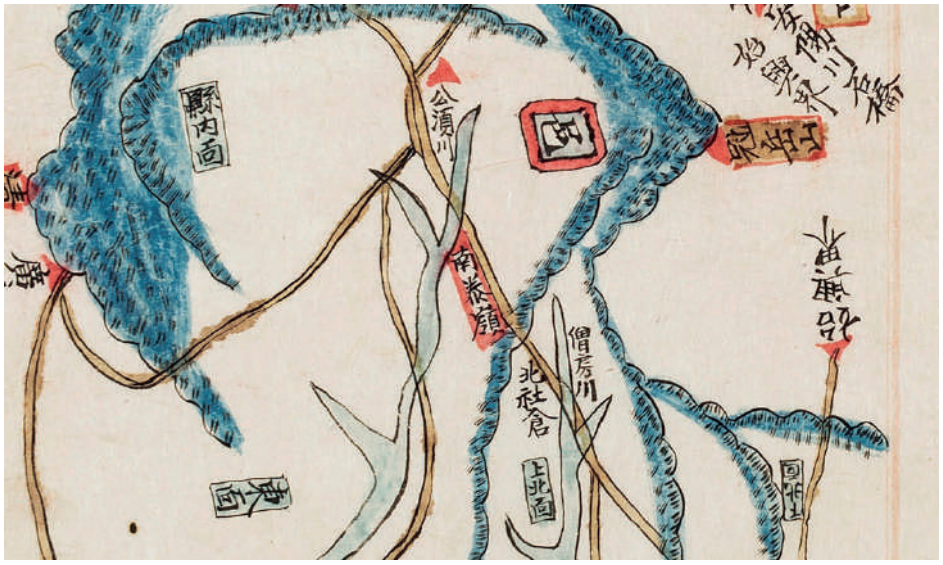
기문	객관(客館) : 경태(景泰) 원년에 군수 이인(李茵)이 세웠다. ○ 이석형(李石亨)의 기(記)에, “낙안(樂安)은 큰 고을이다. 동쪽으로 개운산(開雲山)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금오산(金鰲山)이 군의 끝까지 가며 남쪽으로 큰 바다에 임해 있고 북쪽으로는 금전산(金錢山)을 웅거하고 있다. 땅은 넓고 백성이 많이 살며 한 지방이 평평하게 뻗쳐 있어 남방의 형승지(形勝地)로는 이곳이 제일이다. 전에 왜적이 침입하여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자 기름진 땅이 쑥대밭이 되었다. 땅을 잃게 되고 왜적의 침입은 더욱 심하여 장차 회복하기에도 겨를이 없었거늘 어찌 공관(公館)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 뒤 얼마 안 되어 비록 그 땅은 도로 찾았으나 백성은 아직도 모여들지 않았다. 고을 사람으로 절제사(節制使)가 된 김빈길(金贇吉)이 부민(部民)들을 거느리고 토성(土城)을 쌓았고, 군수 신원절(愼原節)이 옛터에 의거하여 관사를 지었으나, 그때는 초창기여서 규모가 좁고 누추했는데 이젠 세월이 오래되고 보니 무너진 것이 더욱 많았다. 경오년에 하빈(河濱) 이인(李茵) 공이 군에 군수로 왔는데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송사가 간략해서 백 가지 폐했던 것이 모두 일어났다. 그 이듬해에 무리를 모아 묻고 의논하여 옛 제도를 더하고 새롭게 하며 재목을 구하고 기와를 구워 이에 공관을 짓는데 세로 몇 칸이고 가로 몇 칸이어서 화려하지 않고 누추하지 않아 사신을 접대하고 교령(敎令)을 시행하며 아전과 백성들의 모이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할 수 있으니 모두 서로 경사롭게 여겼다.” 하였다. ○ 허종(許琮)의 시에, “맑은 가을 경치 날마다 새로우니, 강호(江湖)에 한가한 몸이 되었으면 하네. 사업은 능히 만년을 전하지 못하나마 문장은 다만 삼신(三辰)을 움직이리. 당년 관해(關海)에 아기(牙旗) 세운 손은 옛날 승명전(承明殿)에서 조서(詔書) 초잡던 신하일세. 혜강(嵇康 삼국 시대 위(魏) 나라 사람으로 죽림 칠현의 한 사람)이 백안(白眼)이 많다고 따지 말라. 예로부터 세상엔 거짓이 참으로 행세한다네.” 하였다. 쌍청루(雙淸樓) : 곧 성 남쪽 문에 있는 누이다.
제영	[현고다기경(縣古多奇境)]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고을이 오래되어 기이한 지경 많으니, 강과 산이 사방으로 연했네. 갈매기 주위에 깊고 얕은 물이요, 기러기 옆에 길고 짧은 연기로세. 이슬 풀 푸른 빛이 처음 물들고, 서리맞은 숲 붉게 불타는 듯. 간 곳마다 석양 경치 볼 만하니, 일찍이 몇 사람이나 이걸 곱게 여겼던가.” 했다.

6. 현(38개소)

1) 과천현
2) 평택현
3) 청안현
4) 연풍현
5) 괴산현
6) 보은현
7) 회인현
8) 문의현
9) 아산현
10) 대흥현
11) 홍산현
12) 부여현
13) 석성현
14) 연산현
15) 직산현
16) 태안현
17) 결성현
18) 해미현
19) 남포현
20) 보령현
21) 진잠현
22) 봉화현
23) 장기현
24) 예안현
25) 문경현
26) 창녕현
27) 삼가현
28) 진해현
29) 거제현
30) 언양현
31) 기장현
32) 고창현
33) 무장현
34) 흥덕현
35) 태인현
36) 흥양현
37) 정의현
38) 대정현

<table>
<tr><td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d></tr>
<tr><td>명칭</td><td colspan="2">과천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경기도 과천시 관문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온온사(穩穩舍_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온온사에서의 휴식, 정조 현륭원 행차,
남태령, 주교 등</td><td colspan="4">교통(객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쉬어가기 좋은 온온사
정조가 현륭원을 참배하기 위해 거동하며 과천의 객사에서 머물며 주위 경치가 쉬어 가기가 편하다고 하여 ‘온온사’라 지었다고 한다.

남태령
본래 여우고개라 했으나 정조대왕이 수행원에게 고개 이름을 물었을 때 속된 이름을 꺼내지 못했던 수행원이 ‘남태령’이라 답한 데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전설. 서울에 올라가는 관문이었기에 ‘남태령에서 긴다’, ‘과천에서 긴다’라는 말이 행인들 사이에 전해짐.

 
과천의 길을 이어주는 남태령©과천군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행궁(行宮)
노량도(露梁渡) 남쪽 언덕에 있는데,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이라 불렀으며, 나루 건너 행차할 때 여러 임금들이 멈추고 잠시 머물렀으므로 좌우에 배다리[舟橋]와 별장소(別將所)가 있었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평택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td><td>팽성읍 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평택농악</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평택 농경생활</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평택농악
평택은 소샛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농산물이 풍부하였고, 이는 평택농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평택 근처의 청룡사(靑龍寺)는 일찍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말기에는 그들의 농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인 동시에 걸립패농악(중들이 꽹과리치면서 염불하고 동냥하는 일)의 성격을 갖는다.

평택농악 무동타기</td></tr>
<tr><td>기문</td><td colspan="8">관가정(觀稼亭)
객관 북쪽 언덕 위에 있다. 본현에는 사방에 산이 없고, 오직 이 언덕이 약간 높아서 조망할 만하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수완산저옥야평(水緩山低沃野平)] 박서생(朴瑞生)의 시에, “물 천천히 흐르고 산 낮으며 옥야는 평평한데, 주민들은 곳곳마다 밭갈이를 일삼는다.” 하였다.
[춘풍원습화여해(春風原隰花如海)] 노숙동(盧叔仝)의 시에, “기름진 들 멀리 손바닥 모양 편편한데, 농부들 도롱이 삿갓 쓴 채 구름 헤치며 밭을 간다. 봄바람 질펀한 들엔 꽃바다 이루었고, 밭머리선 꾀꼬리가 아래 위로 날며 운다.” 하였다.
[지증근해요어해(地曾近海饒魚蟹)]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한 언덕 약간 높게 사면이 편편한데, 날 저물면 돌아와서 외로운 정자에 올라본다. 이 지역 본래 바다와 가까워서 물고기・게가 풍부하고, 들엔 이미 가을 깊어 벼농사로 가득 찼다. 구름 한 점 없는 긴 창공(蒼空)엔 기러기 그림자 머금었고, 조수 돌아온 옛 나루터선 용(龍) 비린내 풍긴다. 내 집에 수경(數頃) 황무(荒蕪)한 밭이 있으니, 어느 날 찾아와서 백조(白鳥)와 맹약할꼬.”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청안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북도 괴산군</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 colspan="2">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안민헌
(安民軒
_동헌)</td><td></td><td colspan="2"></td><td>(내삼문)</td><td></td><td></td><td>괴산 문당리
서낭당</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청안현감 전유형, 민간신앙(성황단)</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청안현감 전유형
전유형은 괴산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조헌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다. 민심수습방안 등을 상소하여 류성룡으로부터 주목받아 청안현감에 임명되어 왜적 격퇴에 노력하였다. 의술에도 조예가 깊어 광해군과 왕비의 병을 고치는 데 참여했으며, 오장도를 그렸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전유형의 의술에 대하여 “(그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1], “의술이 가장 정치하고 밝다.”[2] 라고 표현되어 있다. 해부학에 관심이 많아 선진적인 의학접근을 시도하였다.

지도 속 청안 제사지
성황당, 사직단, 향교, 여단이 표시되어 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석전교각인연소(石田磽确人煙少)]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청안(淸安) 땅 다달으니 날이 저무는데, 관청이 쓸쓸하기 절간과 비슷하네. 돌밭 메말라 사람 사는 집 적고, 모점(茅店) 집 거친데 풀과 나무가 많네.” 하였다.
[경요망산복(逕繞荒山腹)] 신개(申槩)의 시에, “길은 거친 산허리에 둘러 있고, 마을은 푸른 시내 머리에 이어 있네.” 하였다.
[수영입상두(樹影入牀頭)] 이익박(李益朴)의 시(詩)에, “연꽃 향기는 난간 귀퉁이에 들어오고, 나무 그림자는 침상 머리에 들어오네.” 하였다.
[팔경(八景)] 용문송객(龍門送客) / 귀석심승(龜石尋僧) / 난곡목마(亂谷牧馬) / 반계포어(磻溪捕魚) / 추성백우(杻城白雨) / 초령청운(椒嶺晴雲) / 청하계음(淸河禊飮) / 황사한음(黌舍閑吟)</td></tr>
</table>

1.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前牧使全有亨, 以醫術鳴於世者.”
2.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前郡守全有亨, 醫術最爲精明.”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연풍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풍락헌
(豊樂軒
_동헌)</td><td></td><td>연풍향청</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연풍현감 김홍도</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연풍현감 단원 김홍도
김홍도는 중인으로는 드물게 정조의 총애를 받아 외관직에 임명되어 연풍 고을을 다스렸다. 연풍에서 생활하며 본인의 모습을 호귀응렵도(豪貴鷹獵圖), 모정풍류(茅亭風流) 등에 담아내었다.

지도 속의 연풍
4개 제사지인 문묘, 여단, 성황단, 사단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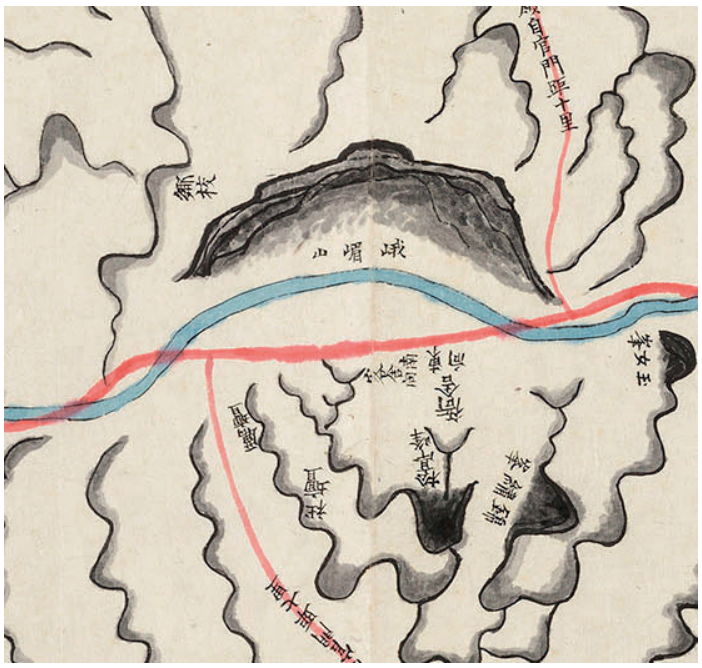
호귀응렵도 ©간송미술관

모정풍류©국립중앙박물관</td></tr>
<tr><td>제영</td><td colspan="8">[산 빛은 난간 앞에 많다]
김분(金汾)의 시에, “물 소리는 수풀 밖에서 급하고, 산 빛은 난간 앞에 많다.” 하였다.
[시내 소리는 땅을 따라 다 한다] 서거정(徐居正)의 시이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보은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상산리</td></tr>
<tr><td rowspan="3">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보은동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td><td colspan="4">산천의 조화(무릉으로 비유, 제영), 역원(원암역)</td><td colspan="4">행정(보은군청과 연계)</td></tr>
<tr><td>기문</td><td colspan="8">삼산루(三山樓) :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

원암역(元巖驛) :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복주(福州 안동을 말함)에서 청주(淸州)에 올 적에 이 역(驛)에서 머물렀다.
○ 이색(李穡)의 〈칠로연집시서(七老讌集詩序)〉에, “… (상략) 8월 병술일에 원암(元巖)에 행차하고 정해일에 속리산(俗離山)에 거둥했는데, 이튿날 큰비가 와서 다시 원암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묵었다. 여러 늙은이들은 이미 평안히 집에 있어 또 환도(還都)할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즐겨하여 이에 술을 들어 서로 권하고 노래를 불러 즐기는데, 대장군(大將軍) 김하적(金何赤)은 피리를 불고 장군(將軍) 김사혁(金斯革)은 쟁(箏)을 타서 창안백발(蒼顔白髮)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수작하는 것이 바라보기에 마치 신선과 같았다. 아, 난리 평정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태평의 빛남이 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 늙은이는 이미 늙었으나 임금께서 부소산(扶蘇山) 남쪽 궁궐 속에 계시지 못한 것을 아프게 생각하여 몸소 갑옷과 화살통을 가지고 번갈아 들에서 숙직(宿直)하며 비바람과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으매, 백관(百官)들도 이것을 법으로 본받아 감히 각각 그 직책을 빠짐없이 닦았으니, 조석으로 주선하는 사이에 인심을 감동시키고 국가의 사체에 유익함이 많게 되어, 조정에 앉아 호령을 내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도연명(陶淵明)과 죽림칠현(竹林七賢)들은 명교(名敎)의 죄인이로되,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읊었거든 하물며 원암(元巖)의 성한 모임이 국가의 원기(元氣)가 됨에 있어서랴. 다만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자가 누구이며, 시를 잘 읊조리는 자는 또 누구인가. 그림을 그릴 적에 비록 자제(子弟)의 역할을 맡아서 쟁(箏)을 타고 피리를 부는 반열에 끼려해도 이미 할 수 없는 일이나, 시를 읊는 데는 불초한 내가 앞장 서지 않고 누가 하겠는가. 이곳 경치를 보면 속리산(俗離山)은 우뚝 솟아 있어 높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우리 후생(後生)들이 우러러볼 바가 아닌가. 여러 늙은이들의 풍류(風流)와 문채(文彩)가 이 산과 서로 높은 것을 다툰다 해도 옳을 것이니, 어찌 시 짓고 그림 그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였다.
○ 황석기(黃石奇)의 시(詩) / ○ 고려 윤택(尹澤)의 시(詩) / ○ 이암(李巖)의 시(詩) / ○ 이제현(李齊賢)의 시(詩) / ○ 염제신(廉悌臣)의 시 등

왕내원(王來院) : 구봉산(九峯山) 밑에 있으니 또한 공민왕(恭愍王)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산천방불무릉천(山川髣髴武陵天)] 권진(權軫)의 시(詩)에, “산과 시내가 무릉(武陵)과 비슷하니, 하필 다시 봉래도(蓬萊島)의 신선을 구하리오.” 했다.
[요양연천휴(沃壤連千畦)] 이맹균(李孟畇)의 시(詩)에, “새벽밥 먹고 회인(懷仁)을 떠나니, 만첩 산을 뚫고 왔네. 갑자기 평평한 들 보이니, 넓적하여 내 마음에 드네. 관사(館舍)는 굉장하고, 여러 봉우리 모두 읍(揖)하는 것 같네. 기름진 땅 천 이랑이 이어 있으니, 백성들 살기 편안하네. 또 듣건대 풍속이 순후하여 불러 음식을 서로 대접한다네. 황홀하게 도원(桃源)에 노는 것 같아서, 다시 찾을 때 길 잃을까 두렵도다. 신라 때 삼년성(三年城)은, 당시에 몇 번이나 습격당했던가. 고려 말년에 바다 도둑이 잦아서, 전쟁이 오랫동안 쉬지 않았네. 지금은 임금의 은택 깊으니, 안심하고 살면서 명절을 즐기네. 왕명(王命) 받들고 와서 무엇하였나, 부질없이 길을 달리네.” 하였다.
[산원취연부(山遠翠煙浮)] 이정령(李正寧)의 시(詩)에, “뜰은 비었는데 푸른 풀 우거졌고, 산은 먼데 푸른 연기 떠 있네.” 하였다.
[유협다기빈주마(幽峽多奇頻駐馬)] 서거정(徐居正)의 시(詩)에, “푸른 산 두 언덕 강물을 끼고 있으니, 나루터에 돌아와 작은 배에 의지했네. 깊은 산골에 기이한 것 많아 자주 말을 멈추고, 석양(夕陽)이 보기 좋아 다시 누(樓)에 오르네. 누런 구름 뭉게뭉게 벼가 처음 익었고, 붉은 비단 나부끼니 단풍이 시름이네. 바쁜 이 한 몸 물에 뜬 나무토막 같아서,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영남(嶺南) 향해 떠나네.” 하였다.</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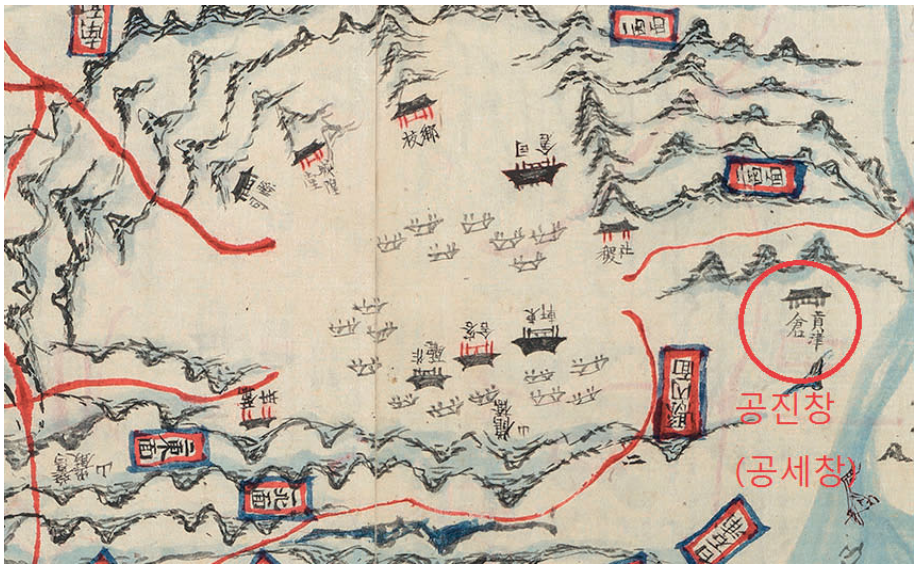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회인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O</td><td>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인산객사</td><td>회인내아</td><td></td><td>아문</td><td></td><td></td><td>풍림정사</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회인 망궐례, 아미산</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의 아미산 : 아미산을 실제 눈썹처럼 그렸다. 향교와 사단, 여단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호산 박문호와 풍림정사 : 조선 후기 학자인 박문호가 회인 풍림정사에 머물며 성리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지금은 박문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여인의 눈썹을 닮은 회인 아미산©회인군 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회인현 객사 중수기 : “읍에 객사가 있는 것은 마치 집에 대청이 있는 것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읍이 있고 객사가 없다면 즉 예로써 망궐례를 올리지 못하고 사신을 높이 받들 수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며 읍과 객사, 객사와 대청, 대청과 망궐례를 단계적으로 비유한 점이 색다릅다. 물론 이때의 망궐례는 전패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8]</td></tr>
<tr><td>제영</td><td colspan="8">[모령유운기(暮嶺流雲氣)] 고려 조운흘(趙云仡) / [현고괴근노(縣古槐根老)] 조운흘 / [만고음추장괴물(萬古陰湫藏怪物)] 이승소(李承召)의 시 등
[영두신우소제반(嶺頭神宇少躋攀)] 이승소의 시에, “작은 고을 깊숙한데 토지는 널찍하니, 고을 집[邑齋] 깨끗하게 시냇가에 서 있네. 남쪽 추녀에 한낮이 되니 따뜻한 기운 조금 생기고, 그늘진 구렁에 봄이 깊은데 아직도 찬 기운 있네. 두메 산골 백성들의 풍속 검소하며 인색하고, 고개 마루 사당에 올라오는 이 적네. 돌밭엔 해마다 서리조차 일찍 찾아와, 조세(租稅) 바치기가 간(肝)을 베어내는 듯.” 하였다.</td></tr>
</table>

8. 충북일보, 2014년 11월 4일 “조선시대 전패(殿牌)와 회인현 객사” 참조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문의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O</td><td>O</td></tr>
<tr><td></td><td>문산관
(文山館
_객사)</td><td></td><td></td><td></td><td></td><td>부용
부강리
민가 등</td><td>문의 문화재
단지</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문의현감 허주의 선정, 풍수지리의 명당</td><td colspan="4">교통(객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문의현감 허주許宙
허주가 문의현감으로 부임할 당시 고을의 토지가 척박하였지만 묵은 땅을 개간하고 병든 사람을 위문하며 제도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비하여 사랑과 용서로 임하였다고 한다. 관찰사가 경내에 염문(廉問)을 나왔을 때 노인과 어린이들이 길을 막고 칭송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은 국조인물고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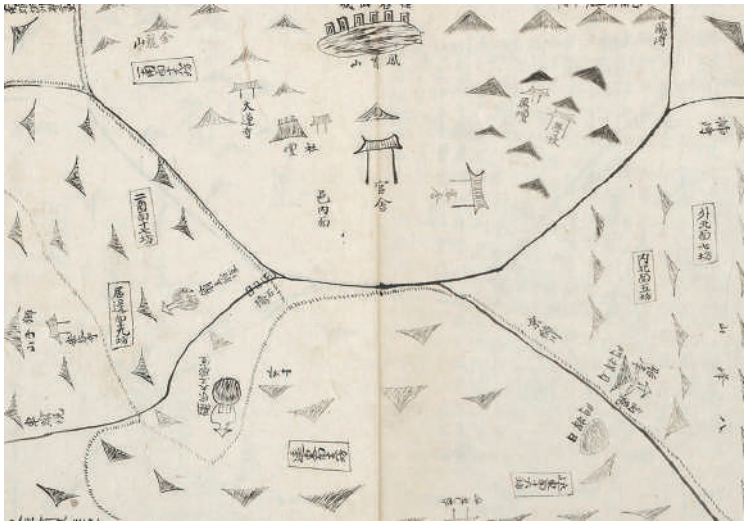
지도 속 문의
문의를 표현한 지도를 보면, 산줄기와 물줄기가 고을을 감싸고 있는 최고의 명당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표현된 문의©충청남도읍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아산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 colspan="2">O</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아산현감 관사</td><td>여민루
(慮民樓)</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지역교류와 장시(공세창, 장시), 천주교 전파</td><td colspan="4">경제(영인면 지역상권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9">공세리 공세창
아산의 공세창이 있었던 곳으로 공세리라고 이름지어졌다. 공세창은 충청도 서남부의 조세를 보관하는 곳으로, 이 지역은 창이 설치된 후 백성들과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상당히 번창했던 곳이다. 또한 한국 최초로 천주교가 전파되어 창설된 곳이기도 하여, 공세리 성당이 지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산 지도에 호서의 조운을 위해 설치된 공세창貢稅倉이 표시되어 있다.
 

아산과 공세창©충청남도읍지</td></tr>
<tr><td>제영</td><td colspan="9">[읍거흥체갱수우(邑居興替更誰尤)]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아산(牙山)은 역시 예로부터 이름 있는 지역으로, 땅이 기름지고 백성 많아 한쪽 지방에서 으뜸 갔던 곳. 풍속의 후박(厚薄)을 어찌 깊이 걱정하며, 시읍의 흥폐를 다시 누구를 원망하랴. 한스럽다 공수(龔遂)·탁무(卓茂 모두 한 나라 시대의 유명한 지방관)와 같은 태수(太守) 없고 노(魯 공자의 출생국) 나라 추(鄒 맹자의 출생국) 나라에 견줄 만한 문풍(文風)을 보지 못하겠네. 저 객관 수십 영(楹)만이 부질없이 날아들어, 뜬구름같이 지나간 일들이 나의 시름 자아낸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대흥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대흥동헌</td><td></td><td></td><td>대흥아문</td><td></td><td></td><td>이성만형제
효제비</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의좋은 형제, 풍수지리</td><td colspan="4">행정(대흥 호장 이성만, 대흥면사무소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조선왕조실록 속 의좋은 형제
세종대왕의 명으로 효자·의부 등이 조사되었는데, 그중 특행이 있는 자 중에서도 맨 처음으로 대흥 호장 이성만(李成萬)과 아우 순(順)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부모를 잘 섬겨 봉양한다는 내용인데, 매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는 형제가 힘을 합쳐 무덤을 지키며, 매양 아침 저녁에 형제가 서로 오고가며 한상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현재 대흥면에는 이성만 효제비와 함께 의좋은형제 공원이 조성되어있다.

지도 속 대흥
주산인 봉수산의 정확히 아래에 위치한 관아 건물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최고의 명당으로 보여지고 있다. 봉수산에는 임존산성이 있음을 표시하였으며, 고을 주변에 사직단, 여단, 문묘를 표시하였다. 충청남도읍지에는 현종대왕 태실과 함께 이미 의미를 상실한 고려태실까지 그려넣었다.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표현된 대흥©충청남도읍지</td></tr>
<tr><td>제영</td><td colspan="8">[관어지북인한천(觀魚池北引寒泉)] 이맹상(李孟常)의 시에, “포정정(布政亭) 동쪽에선 흰 달을 맞이하고, 관어지 북쪽에는 찬 샘물 끌어왔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홍산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제금당
(製錦堂_동헌)
비홍관
(飛鴻館_객사)</td><td></td><td>비홍추청
(飛鴻秋廳
_형방청)</td><td>집홍루
(集鴻樓
_외삼문)</td><td></td><td></td><td>만덕교비</td></tr>
<tr><td colspan="4">활용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이몽학의 난, 장시의 형성</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이몽학의 난
이몽학의 난은 임진왜란 중 홍산현을 기점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몽학은 동갑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반란군을 규합하여 홍산현을 점령하였다. 당시 혼란스러운 세태 속에 ‘안민정국’의 구호를 내세워 백성의 지지를 받아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이 세력은 홍주(홍성) 공략에 실패한 후 권율 등의 추격으로 와해되고야 말았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이몽학을 역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몽학 설화에 의하면 지역에서 민중적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영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으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지도 속의 홍산
장시 형성되어 물물거래가
활발하였고, 종이를 만들던 지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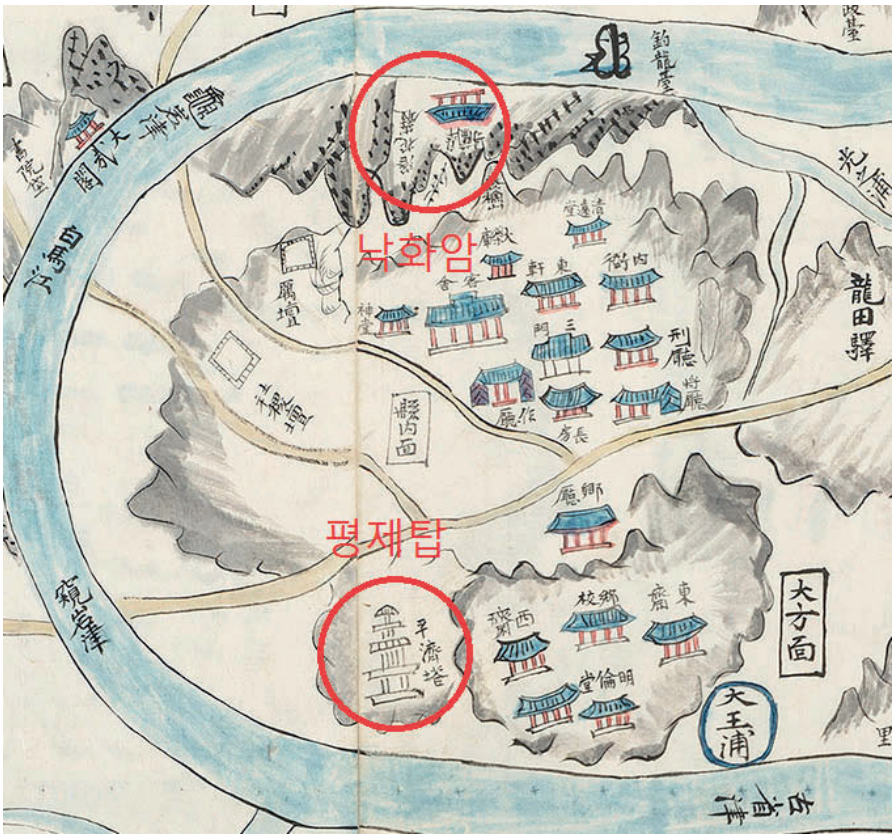
풍수지리의 명당처럼 표현된 홍산
©충청남도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징청루(澄淸樓) : 객관 동북쪽에 있다. 현감 이의석(李宜碩)이 세웠다.

향청정(香淸亭) : 객관 북쪽에 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비홍관 운] 장유의 시(張維) “호남 고을 갈대밭 추색이 완연, 오랜 길손 다급한 일정 아직도 퍼질러 앉았어라. 부러울손 저 기러기 아무런 걸림없이 추워지면 따뜻한 곳 마음대로 찾아가니”
홍산객사 차림당운, 홍가신, “去國偏驚歲月流 山樓寂寂倚殘秋 無端滿目新詩好 客裏都忘半日愁”
정홍명, 비홍관, “鴻飛就暖向南州 一踏泥塗跡尙留 銜得短蘆工避繳 去來猶有稻粱謀”
이명한, 비홍관 “早發飛鴻館 藍田驛路長 雲紅朝上日 草白夜來霜 短夢憑鞍續 歸期屈指忙 鄕書書已久 無使向咸陽”
채팽윤, 夜過九折坂抵飛鴻舘 邑吏不肯出迎,“强佩弓刀號點兵。黃昏無火不堪行。來非邊渚慙公舘。去合回車感地名。野水架虹官道直。踈松糝雪驛村明。燈前覓取圖經看。解說當年樂丈淸.”</td></tr>
</table>

※ 이해준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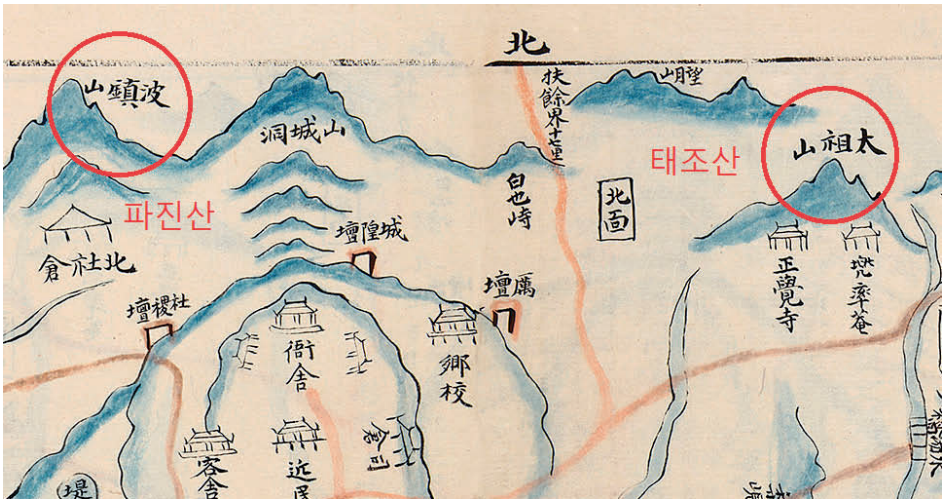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부여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td><td>초연당 (超然堂_동헌)
부풍관 (扶風館_객사)</td><td>부여 내아</td><td></td><td></td><td></td><td></td><td>도강영당 (道江影堂_ 내아 건물 개조)</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부여 백제문화</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부여현감 귀신 체포기
‘불멸의 이순신’의 저자 김탁환의 지괴 소설인 ‘부여현감 귀신 체포기’는 10편의 이야기로 묶인 연작소설이다. 부여에서 괴이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여 현감이 나서서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줄거리 형식을 띤다.

지도 속의 부여
부여현읍지에는 고을 남쪽에 향교, 서쪽에 사직단, 북쪽에 여단이 표기되어있다. 지도별로 낙화암, 평제탑(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삼국시대 유적들이 크고 눈에 띄게 그려져 있다.

삼국시대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여©충청남도읍지</td></tr>
</table>

제영	[대왕포월공추야(大王浦月空秋夜)] 민사평(閔思平)의 시에, “대왕포의 달은 속절 없이 가을 밤이요, 정사암(政事巖)의 꽃은 몇 봄인고. 오늘은 두서너 집 삭막(索寞)하지만, 당시에 10만 호가 태평을 즐겼네.” 하였다. [조룡대하강자파(釣龍臺下江自波)] 이곡(李穀)의 시에, “청구(靑丘) 정기모여 황하(黃河)에 응하니, 온왕(溫王)이 동명(東明)의 집에 태어났네. 부소산(扶蘇山) 아래로 옮겨 나라 세우니, 기이한 상서 이적(異跡)이 어찌 그리 많았는고. 문무의 인물 문물(文物)도 성해, 틈 보아 신라 삼키려고 도모했다. 후대의 미약한 자손들이 덕을 계승 못하고, 화려한 궁궐에 사치만 일삼았네. 견고한 성곽이 하루아침에 와해(瓦解)되니, 천척 높은 바위 낙화(落花)로 이름짓다. 공후(公侯)들의 동산에 농부 씨뿌려 밭갈고, 쓰러져 가는 비(碑) 곁에 동타(銅駝)가 묻혀 있네. 내가 와서 고적 찾고 문득 눈물 닦노라. 옛일이 모두 어부(漁父) 초동(樵童)의 노래 속에 붙였구나. 천년의 아름다운 왕기(王氣) 쓸어간 듯 없어지고, 조룡대 아래에 강물만이 출렁대네.” 하였다. [가루무전수연비(歌樓舞殿隨煙飛)]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해동(海東)의 안팎 산하(山河) 웅장도 하여, 삼방(三方)으로 할거해 나라 세웠네. 보거(輔車) 서로 의지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군사 몰아 나날이 싸움도 많았다. 금성탕지(金城湯池) 하루아침에 소용없으니, 성벽(城壁) 위에 꽂힌 기치(旗幟) 모두가 신라와 당 나라. 노래하던 누각 춤추던 궁전이 연기 따라 사라지니, 주옥(珠玉)이며 비취가 다시 화려함을 자랑하지 못하네. 가련하다 물고기 뱃속에 묻힌 향기로운 그 넋, 화하여 봄바람 강위에 꽃이 되었겠지. 그 당시 성충(成忠)의 계책을 쓰지 않았으니, 아마도 한을 품고 동타(銅駝) 어루만졌으리. 만고흥망(萬古興亡)에 외로운 성만이 있는데, 태평세상 오늘날에 현가(絃歌)를 듣누나. 백마강 위에 달이 비단 같은데, 고기잡이배 점점(點點)이 연파(煙波) 따라 뜨는구나.” 하였다. [흥망이공여동타(興亡已空餘銅駝)] 최숙생(崔淑生)의 시에, “부소산 아래에 큰 강하(江河), 형승(形勝)이 모두 농부들 집에 속했네. 당시 화려한 갑제(甲第) 구름에 연했던 곳에, 해마다 밭갈이에 주옥(珠玉)들 많이 나온다네. 용호(龍虎)가 서로 싸워 삼키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풍경(風景)만은 아직도 삼라(森羅)하다. 여산궁(驪山宮) 속의 양태진(楊太眞)이요, 임춘각(臨春閣) 위의 장려화(張麗華)라. 미색(美色)이 필경 망국의 씨가 되어. 향기로운 그 넋마저 광풍(狂風) 앞의 꽃 되었네. 한덩이 바윗돌이 또한 은감(殷鑑)이라. 흥망은 이미 사라지고 동타(銅駝)만 남았구나. 느지막이 배를 놓아 옛시를 가득 싣고, 강 건너 상녀(商女)의 노래 끝내 듣는구나. 영월대(迎月臺) 앞에 뜬 둥근 달은, 밤이 오면 예와 같이 금물결 펼치누나.”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석성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td></tr>
<tr><td></td><td>석성동헌</td><td></td><td></td><td>(내삼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신령한 산천(태조산, 파진산 등), 백제문화</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1872년 지도
백제 태조가 놀았던 태조산, 도사 전우치가 독서하다 비결을 얻었던 파진산, 읍의 주산인 옥녀봉에는 삼한시대 산성이 남아있는 산성동, 당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군사를 숨겼던 군장동 등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지역을 부각시키고 있다.
 

태조산과 파진산이 부각된 석성©호서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객관(客館)
최숙생(崔淑生)의 시에, “비온 뒤 마루와 창에 찬기운 생겨나니, 나그네 회포 고적해서 홀로 난간에 의지했다. 숲을 뚫으며 희롱하는 까치 날아다니며 서로 쫓고, 섬돌에 눌린 떨기대[叢篁]는 젖어서 마르지 않았구나. 세상일 분분한 것은 원래 정해진 분수 있고, 봄 시름한 것은 까닭도 없어라. 내일 아침 예와 같이 동풍 길에는, 좋은 청산 안계(眼界)가 트이겠지.” 하였다.
○ “황혼에 날리는 비 다시 하늘에 자욱한데, 뚝뚝 떨어지는 처마 물소리 나그네 베개 가에 들려오네. 반짝거리는 파란 등불 때로 어두우려 하고, 짙고 얕은 나그네 시름이 꼬리 물고 찾아든다. 동풍 방초(芳草) 천리에 아득한데, 흰 머리 타향에서 한 해를 보냈네. 만 번 죽을 몸 돌아와서 성군(聖君)을 만났으니, 이몸 어찌 편안히 구름연기 속에 늙으랴.”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상자연심작일촌(桑柘煙深作一村)]
이맹상(李孟常)의 시에,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베를 짜며 아침 저녁을 보내니, 뽕나무 숲 연기 깊은 속에 한 마을을 이루었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연산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td><td></td><td></td><td>연산아문</td><td></td><td></td><td>연산 백중놀이</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연산 농경(백중놀이), 장시의 발달</td><td colspan="4">경제(연산시장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
지도 속의 연산
연산 가마솥이 표시되어있다. 은진미륵(관촉사 석불), 강경 미내다리와 함께 연산 가마솥은 지역 3대 명물로 이야기되고 있다. 고을 주변에 장시가 형성되었다.
연산 백중놀이
연산은 드넓은 평야에 많은 곡식을 재배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고된 농사일 속에서 머슴들이 음력 7월 15일 백중날 하루 휴가를 얻어 흥겹게 놀았는데 이를 머슴날, 백중놀이라 한다. 당시의 머슴과 제례, 농사 등의 풍습을 놀이로 승화시키고 있다. 연산장터에 모여 놀이를 벌였다고 한다.

연산 백중놀이
</td></tr>
</table>

기문	신증동국여지승람 학교조 : 향교는 본현 북쪽 1리에 있다. ○ 정이오(鄭以吾)의 기문에, “연산 명부(連山明府 연산 현감) 박후(朴侯)가 고을에 부임한 이듬해에,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학교는 왕정(王政)의 근본이다. 옛날에는 그 정치의 성쇠를 학교의 흥폐로서 관찰하였던 것이니, 이른바 나라에는 학이 있고, 향(鄕)에는 서(序)가 있으며,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집에는 숙(塾)이 있었다고 한 것은, 삼대(三代)의 융성하던 시대의 제도였다. 이제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유학이 쓰여서 안으로는 성균관과 밖으로는 주군(州郡)에 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 이 고을로 말하자면 전조(前朝)의 태조와 우리 태상왕(太上王 태조)께서 모두 도읍을 정하시려던 곳이다. 산천의 웅장・수려함을 보건대, 인재가 일어날 것을 알 수 있거늘, 유독 학교가 없다면 되겠는가.’ 하고, 옛터를 찾으니, 군(郡) 북쪽에 구름 위 우뚝 솟은 산이 있고, 그 땅은 형국이 높직해 시원하였다. 바로 그 옛터에다가 새로 지을 것을 계획하니, 고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행하게 여겨 분주히 명령에 따라 혹시라도 남에게 뒤지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리하여 산에서 재목을 취하고 폐사(廢寺)에서 기와를 가져다가 모년 모월에 연산의 향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를 개척하여 문묘를 짓고, 그 가운데를 넓게 틔워 당(堂)과 연(筵)의 처소로 삼았다. 석전(釋奠)을 거행하면서 오르고 내린 이곳은 곧 전날에 푸른 연기 흰 이슬이 엉기던 가시밭이요, 학문을 토론하고 예법을 익히는 이곳은 곧 전날에 무너진 담과 끊어진 구덩이로 황폐했던 터였다. 이에 노비 몇 호(戶)를 요역을 면제해 주어 유생(儒生)들의 심부름을 전담하게 하고, 경서(經書)를 모아서 간직하여 유생들의 익히고 읽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는, 고을의 사무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결단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 매양 학교로 와서 자제들을 데리고 강론(講論)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박후(朴侯)는 근본되는 바를 안다고 하겠다. 나의 벗인 전 부여 감무(扶餘監務) 권가균(權可均) 군은 연산 사람인데, 나에게 그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청해 왔다. 아, 내 어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랴. 그러나 내가 들으니 천하에 인재가 적은 것이 아니며, 그 자질의 아름다운 자도 또한 어찌 한이 있겠는가. 다만 학문에 힘쓸 줄을 몰라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물며 궁벽한 시골의 후진들은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수령된 자가 인도하고 열어 주어 성취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파묻혀서 나타나지 못하고 마는 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를 하는 요건은 반드시 학문에 근본을 두어야 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법은 반드시 사람되게 하는 데 근본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진실로 둔한 자를 연마하여 변화시켜서 착한 길로 달려가게 하여,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사람 마음속에 파고 들어간 것이 깊고 간절하여 점점 쌓이게 되면, 예양(禮讓)이 행하여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워질 것이요, 인재의 배출도 또한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열 집[十室] 되는 조그만한 고을에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신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요순(堯舜)이 될 수 있다.’ 하였으니, 대개 자기를 보고 이를 안 것이다. 다만 알지 못할 것은 박후 뒤에 오는 자가 박후의 뜻을 계승할런지의 여부이다. 박후의 이름은 곤(坤)으로 일찍이 호령하던 기절을 꺾어 학문을 좋아하고, 일을 만드는 데 민첩히 한 분이다. 군자(君子)가 말하기를, ‘이 거조가 정사의 기본을 얻었다.’ 하니, 어찌 그 근본을 얻고서 끝을 빠뜨리는 일이 있으리오. 마땅히 이를 써서 장차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또 그 해와 달도 기록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제영	[전다자고칭다가(田多自古稱多稼)] 이색(李穡)의 시에, “연주(連州) 연산(連山)이 평야를 꼈으니, 밭 많아 예로부터 곡식 많다 일러 왔다. 봄바람엔 보리의 푸른 물결 가득히 넘치고, 가을날엔 누른 구름이 파아(穲稏 벼)의 무더기네. 뽕나무 숲 멀리 뻗쳐 여름 그늘 서늘하고, 잠박(蠶箔)은 층층이 집 안에 가득하다. 부부가 근고(勤苦)하여 생계를 꾸려 가니, 촉직(促織 베짱이)이 또 달 밝은 밤에 우는구나. 어린 아이 소 이끌어 우리 밖에 나오고, 큰 아이 말 먹일 제 고삐를 놓아 둔다. 마을 안 늙은이들 번갈아 청해 가니, 취하고 배부름 언제 사양하였던가. 풍속의 순박함을 절로 알겠으니, 용모 의절(儀節)이 깔끔하지 못하다 한하지 않노라. 복사꽃 흐르는 물이 어디에 있다던가. 이 마을 옛 주진(朱陳)과 다를 것이 없도다. 머리 흰 목은옹(牧隱翁)이 기어이 한번 가서, 격양가(擊壤歌) 부르면서 풍화(風化)를 찬미하련다.” 하였다. [황파적설유인적(荒陂積雪留人跡)] 정추(鄭樞)의 시에, “오사모(烏紗帽) 숲 뚫고 나가니, 보일락말락 헤진 낡은 안장은 길 삐그덕 소리가 높고 낮네. 거친 언덕 쌓인 눈에 사람 자취 남겼는데, 얕은 물 밝은 놀 속에 말굽 소리 요란하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직산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O</td><td colspan="2">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직산 동헌</td><td>직산 내아</td><td colspan="2"></td><td>호서계수아문 (湖西界首衙門_문루), 아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직산현감 이신의</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직산현감 이신의
이신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군을 거느리고 참전하였다. 이몽학의 난 때에는 직산현감으로 난을 수습하였다.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호송하였다. 직산현 관아 앞에는 그를 기리기 위하여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직산현 관아 건물
건물의 구조배치 등이 완전히 보존되어 있으므로 지방관아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건물

석탄 이신의 시비</td></tr>
</table>

기문	제원루(濟源樓) : 객관 동북쪽에 있다. ○ 서거정(徐居正)의 시(詩) 서문에, "사신으로 영남(嶺南)에 갈 때, 직산을 지나게 되었었다. 직산 객관 동북쪽에 한 누각이 있기에 올라가서 조금 쉬다가 주인에게 묻기를, '이 누각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주인은 알지 못하여 좌우 사람에게 물으니, 고을 사람이 '제원'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객들은 제원이란 뜻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서거정이 말하기를, '이 고을은 백제의 옛 도읍이니, 이 누각을 제원(濟源)이라 한 것은 백제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대개 백제의 시조 온조란 분은 본래 고구려 동명왕 주몽의 아들로서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했던 것인데, 역사서에 쓰기를 '온조가 부아악(負兒岳)에 올라가서 살 만한 곳을 살피다가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했으니, 이곳을 세상에서 직산이라 한다.' 하였다. 서거정은 일찍이 생각하기를 부아악이란 여기서 2백리나 떨어진 곳이니 어찌 살 만한 곳을 잡을 수 있으리오. 또 이른바 하남(河南)이라는 하(河)는 어느 물을 말한 것인가. 서거정이 이곳을 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길이 급하여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하고, 바라다만 보니, 지세가 편협해서 웅장한 기상이 없으니, 도읍을 세울 곳이 못 되어 맘속으로 깊이 의심하였다. 지난해에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편찬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상고해 보니, 직산이 백제의 첫 도읍이었던 것은 의심할 것이 없었다. 온조왕의 뒤에 직산으로부터 남한산성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이는 곧 지금의 광주(廣州)이고, 또 북한산성으로 옮겼으니 바로 지금의 한도(漢都)이다. 뒤에 금강(錦江)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공주요, 또 사비하(泗沘河)로 옮겼으니 지금의 부여다. 백제는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로부터 당(唐)나라 고종(高宗)때를 거쳐 대개 5백여 년이 걸린 터로서 온조왕은 도망하여 파천(播遷)한 중에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해서 신라 고구려와 더불어 서로 솥발처럼 버티어 삼국을 이루었으니, 호걸스럽고 영특하고 위대한 재주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 그 뒷세대에 와서는 여러 번 그 나라를 옮겨 강한 것을 믿고 군사 쓰기를 좋아하여 순치(脣齒)와 보거(輔車)의 형세를 알지 못하고, 강한 적과 싸움을 얽어 세력이 날로 줄어드는 데다가 더욱이 의자왕(義慈王)은 어둡고 음탕해서 아첨하는 자의 말만 받아들이고, 성충(成忠)의 간언을 거절하다가 당 나라 군사가 바다를 건너오자 나라가 곧 망했으니, 아, 슬픈 일이로다. 이에 이 누(樓)에 오르니 감개를 이기지 못하여 시(詩)를 지어 조상한다. 시(詩)에, '백제 옛터에 풀이 절로 우거졌는데, 내 여기 오니 감개하여 마음이 상하네. 다섯 용(龍) 천안부(天安府)에서 싸워 끝나고, 한쌍 봉황(鳳凰) 위례성(慰禮城)에서 울었네. 시조(始祖)의 사당이 깊은데 단풍나무 가리웠고, 성거산(聖居山)이 옹위했는데 푸른 구름 비꼈어라. 누(樓)에 올라 가을 바람에 나는 생각, 어느 곳에서 철적(鐵笛) 소리 들려오는가.' 하였다." 했다.
제영	[할계언시희(割鷄言是戲)] 성석린(成石璘)의 시(詩)에, "직산(稷山)이 비록 조그만 고을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의 인덕(仁德)을 시험해 볼 만하네.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불쌍한 외로운 이부터 시작하고, 세(稅)를 받는 데는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묻는다. 닭을 잡는다는 것은 희롱의 말이요, 송아지 머물러 둔다는 말 지킬 만하네. 어려서 배운 것, 마침내 어디다 쓰리, 모름지기 혜택을 백성에게 미치게 함이로세." 하였다. [아조고허유(鴉噪古墟幽)] 안숭선(安崇善)의 시에, "소나무 소리 깊은 동산이 고요하고, 가마귀 울어대니 옛터 그윽하도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태안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O</td></tr>
<tr><td></td><td>목애당
(牧愛堂
_동헌)</td><td></td><td></td><td>내삼문</td><td></td><td></td><td>경이정</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동학농민운동, 조운</td><td colspan="4">행정(태안군청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

태안과 동학농민운동
태안은 동학의 주 활동지로 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충청남도읍지의 태안지도에서는 고을 오른쪽면에 “각 관아 건물이 갑오년의 동학(농민운동) 때 불타서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고 표시해두었다.

지도 속의 태안
해안 방어의 요충지, 남북에 창고를 설치하여 조운에 이용하였다. 남창에 호남, 영남의 세곡을 모아 육로로 북창에 운반하여 다시 조운선으로 서울까지 운반하였다.(그러나 폐단이 심하여 중간에 폐지함) 원래 연륙되어있던 안면도는 굴착하여 섬이 되었으며, 섬이 태안 홍주 서산 등으로 쪼개져 소속되어 있는 점도 이색적이다.

태안 지도 속 동학농민운동의 흔적©충청남도읍지
</td></tr>
</table>

기문	객관(客館) : ○ 신숙주(申叔舟)의 기문에, “태안군이 충청도에 있어 해변의 요충지가 되어 국가에서 순성진(蓴城鎭)을 설치하고 지군사(知郡事)로 하여금 이를 지휘 관할하게 하고 있다. 군내의 토지가 비옥하여 화마(禾麻)가 풍부하고,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어 옥구(沃區)로 일컬어 왔다. 전조(前朝) 말엽에 여러 차례 병란을 겪어서 모두 가시덩굴의 숲이 되어 호토(狐兎)와 시호(豺虎)의 터로 변했었는데, 우리 국가가 일어남으로부터 인정(仁政)과 위엄이 먼 변방까지 미쳐서 바다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런 뒤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군민들이 모두 돌아오고, 다른 고을의 백성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도 또한 즐겨 이곳으로 모여 왔다. 무진년에 조정에선 각 도에 영을 내려 지난날 유리하여 없어진 민호를 조사하여 본적지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리하여 군민으로서 그 본 고장으로 돌아가야 할 자가 1백 4호나 되었는데, 그 업에 안착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옮기기 어려운 것이 새로 이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지금의 지군사 동첨절제사(知郡事同僉節制使) 죽산후(竹山侯) 박홍문(朴弘文)이 이 땅에 부임하여 다스린 지가 마침 4년이었다. 개연히 탄식하고 말하기를, ‘이 고을에 사는 백성이 겨우 3백호인데, 부세(賦稅)를 내고 기약을 받들어 행하는 자의 거의 반수가 유리하여 들어와 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처음 올 때에는 그곳에서 편히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이곳에서 의식을 해결하고 남혼여가(男婚女嫁)하여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길러 사람마다 영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찌 다시 소란하게 하랴. 하물며 군이란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백성이 없으면 군이 될 수 없고, 진(鎭)을 설치한 것은 도적을 막자는 것인데, 백성이 없으면 그 누구와 더불어 지키잔 말인가. 이는 조정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곧 고을 사람 전(前) 부사정(副司正) 이숙(李熟)과 호장(戶長) 가택(賈宅) 등을 보낼 제 친히 할 말을 지시하여 도당(都堂)에 아뢰어서 온 군내가 모두 옮기지 않고 전과 같이 편히 살게 되었다. 이리하여 어린아이들과 백발의 노인들까지 모두 환호성을 올리고 감격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기를, ‘내가 추위에 떨 때 원님이 덥게 해주었고, 내가 뼈만 남았을 때, 원님이 살[肉]을 붙였으며, 내가 유리 분산하였을 때 원님이 완취(完聚)하게 해주었고, 내가 위태하였을 때 원님이 편안하게 해주었으니, 원님의 덕을 갚으려 할진대 나의 부모와 무엇이 다르랴. 아름다운 덕 가려내어 영원히 전파하리로다.’ 하고, 드디어 서로 박후에게로 나아가서 박후의 공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해 보이도록 할 것을 요구하니, 박후는 이를 사절하고 돌려보냈다. 박후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도 알지만, 여러 사람들의 뜻도 또한 마침내 억누를 수 없음을 알고는 서울로 달려와서 나를 집현전(集賢殿)으로 찾아와 보고, 그 사실의 전말(顚末)을 써서 영구히 전하게 할 것을 청하는데, 그들의 심정과 언사가 모두 간곡하였다. 내 비록 글을 잘하지는 못하나 사국(史局)의 한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니, 선악(善惡)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직책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일찍이 박후와는 잘 아는 사이인데다가 그 사적의 쓸 만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이랴. 박후는 화락(和樂)하고 평이(平易)한 사람이다. 무예가 뛰어나고, 목민지재(牧民之才)도 겸하여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일찍이 백성도 다스렸고, 또 군사(軍事)도 다스렸는데, 청렴하고 공평하며 위엄 있고 은혜로운 정사를 펴서 이르는 곳마다 이름이 있었거니와, 지금은 백성도 있고 군사도 있어 문·무의 정사가 그 한 몸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라. 의연(毅然)히 안집(安集)과 부강(富强)에 뜻을 두어, 조정에서 유리해 도망한 백성을 조사하여 돌려 보내라고, 기한을 정하고 엄중히 독책하는 데 즈음하여 주군의 수령들이 그 견책을 두려워하여 바야흐로 명령을 받들어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는 데도, 박후는 실정을 건의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서 군(郡)은 이로 말미암아 실하게 되고, 진(鎭)도 이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으니, 박후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며, 백성의 부모로서의 도리도 또한 거의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일찍이 상고해보건대, 옛날에 백성에게 덕을 베푼 자는 그 백성들이 반드시 비(碑)를 세워 그 공적을 기록하였고, 혹은 생사당(生祠堂)까지도 세웠으니, 이는 그 덕을 사모하여 마지않는 성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 군민의 청이 이와 같이 간곡한데,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마침내는 이를 써서 돌려보내는 바이다. 그 판에 새겨 벽에 걸어 군민으로 하여금 대대로 박후의 덕을 알게 하여 길이 잊지 않게 할 것은 그대들의 일이며, 이에 이르면 박후도 또한 거절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 남수문(南秀文)의 기문 등
제영	[풍회도서미경랑(風回島嶼迷驚浪)] 신숙주(申叔舟)의 시에, “고개 위에 외로운 성 낙조(落照)가에 서 있는데, 올라서 바라보니 다만 저 바다 하늘에 떠오르는 듯 보인다. 바람 불어 돌아가니 도서가 놀란 물결에 희미하고, 땅이 궁벽하니 민가에선 묽은 연기 오르네. 포(浦)를 판 지 몇 해에 공을 이루지 못했던고, 산에서 온 한 줄기 끊겼다가 다시 연했구나. 뉘 능히 나에게 조운(漕運) 통하는 계책을 말해 주려나. 다만 술통 앞에서 취하여 망연(惘然)히 잊고만 싶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결성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O</td><td>O</td><td>X</td><td>X</td><td>O</td></tr>
<tr><td>결성읍성</td><td>망일헌(望日軒_동헌)</td><td></td><td>형방청, 책실</td><td>결성아문(潔城衙門)</td><td></td><td></td><td>결성농요</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결성 농경, 광천 특산물(새우젓 등), 장시</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 결성
성황당, 사직단, 여단과 함께 문묘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 그려진 광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구 중에 하나였다. 광천은 새우젓으로 유명한데 그 명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천, 용천 등에서 장시가 열리고 있다.

결성농요
결성농요는 농사를 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이고자 흥을 돋우는 노래로, 용신제, 모내기, 건젱이, 뚝매기, 아시매기, 쉴참, 만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결성농요</td></tr>
<tr><td>제영</td><td colspan="8">[성보갱인연(城堡更人煙)] 이첨(李詹)의 시에, “풍진(風塵) 일어 일찍이 싸움하던 땅에, 성보 쌓아 다시 인가의 연기 오른다. 수자리의 저 피리는 성루(城樓) 위에서 부는데, 고기잡이 하던 배는 언덕 가에 버려 두었구나.” 하였다.

[일심군도외(日沈群島外)] 이안우(李安愚)의 시에, “나그네 길 어언 3월도 중순, 난립한 산봉우리 앞의 석보(石堡)를 찾았다. 울타리 가의 복사꽃은 비 맞아 더욱 아름답고, 교외의 빈 터엔 꽃다운 풀들이 연기처럼 덮혀 있네. 해는 수많은 섬 밖으로 잠기고, 새는 끊어진 구름 속으로 날아 없어진다. 백 년간 흥하고 망한 이 성에, 올라보고 개연(慨然)한 한숨을 절로 지었다.” 하였다.

[창해격운연(蒼海隔雲煙)] 김백영(金伯英)의 시에, “외로운 성에는 일월(日月)도 한가한데, 창망한 바다는 운연으로 막혔구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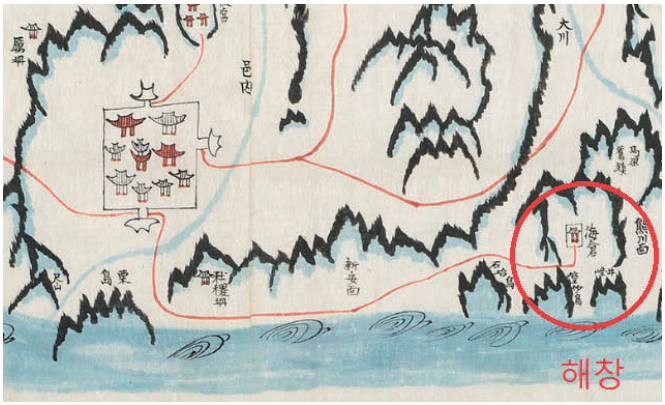
[풍범궤안전(風帆几案前)] 안순(安純)의 시에, “바다 섬들이 마루 창 아래에 깔려 있고, 바람 돛대가 궤안(几案) 앞에 떠있구나. 외로운 성을 쌓인 눈이 안계를 미혹하게 하고, 큰 교목(喬木)들은 찬 연기를 띠고 있네. 백성들을 다스려 구할 술책은 없건만, 어느 때나 임(임금) 계신 곁에 가게 될까. 삼봉(三峯)이 갈수록 점점 멀어지니, 서리 내린 살쩍이 스스로 날린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해미현 / 충청병마절도사영(효종이전) / 호서좌영(효종이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해미읍성 진남문 등</td><td>지성관(枳城館_객사), 해미동헌</td><td>해미내아</td><td>고자실, 책실, 옥사</td><td>읍해루(揖海樓_외삼문= 호서좌영문)</td><td>청허정(淸虛亭_정자)</td><td>민속가옥</td><td>해미읍성 회화나무, 해미성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내상성內廂城, 천주교 순교, 이순신, 이양선</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충청병마절도사영
해미는 왜구의 잦은 침략에 대한 서해안 방비가 중요시되어 1417년 이후 해미에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해미 내상성內廂城으로 불리었다. 해미는 서해안과 접경해있으면서도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병영이 설치된 것이다. 해미에 근무했던 군관 중에 이순신도 있었다.

해미 천주교 순교
당시 해미는 호서좌영이 있던 곳으로 국사범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미와 인근 고을의 천주교 신도들을 압송하여 처형하였다. 해미읍성 내 회화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

성벽 공동제작
각 구간별로 충주, 공주 등 인근 고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작업을 하였다. 작업구간마다 표지석이 남아 있다.

해미읍성 임천, 충주 표지석</td></tr>
<tr><td>기문</td><td colspan="8">청허정(淸虛亭) : 병마절도사의 병영 안에 있는데, 조숙기(曹淑沂)가 세웠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경파부동해징청(鯨波不動海澄淸)] 서거정의 시에, “백마(白馬)가 힘차게 세류영(細柳營)에서 우는데, 웅장한 번진(藩鎭)의 저 절도사(節度使)가 장성(長城)을 이루었네. 늦은 가을 하늘 높이 세워진 큰 기의 그림자가 한가롭게 보이고, 진종일 투호(投壺)하는 소리마저 자세히 들려온다. 아낙네 소라 같은 쪽[螺髻]이 떠오르는 듯 산이 둘러싸 있고, 고래 물결 동하지 아니하고 바다는 맑고 깨끗하다. 서녘 바람이 얇은 솜옷을 한없이 불어 헤치니, 먼 길손 만리 타향의 외로운 정을 견디기 어렵도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남포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남포읍성</td><td>남포 동헌</td><td></td><td></td><td>진서루(鎭西樓_외삼문), 옥산아문(玉山衙門_내삼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남포 해창, 특산물과 장시(대천장) 등</td><td colspan="4">행정(남포면사무소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의 남포
해창은 남포현 관할지역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으는 곳으로, 서울에 옮겨가던 창고이다. 대천 장시, 간치 장시 등이 열려 상업이 활발하였다.
 

남포 해창©충청남도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객관(客館) : 최숙생(崔淑生)의 시에, “우뚝한 새 관우(館宇)에 단청(丹靑)이 타오르는 듯, 안중에 가득한 기관(奇觀)이 저 멀리 접하였구나. 사면으로 싸안은 것이 모두 푸른 산봉우리인데, 반쪽으로 보이는 광대한 물결은 바로 창망(滄茫)한 바다. 봄빛 흐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양쪽 살쩍이 세었고, 나그네 길 분분(紛紛)한 속에 몇 단정(短亭)을 지났던고. 홀로 마루 창가에 의지하여 저 멀리 바라보니, 이 몸이 진정 한 개의 부평(浮萍)이로구나.”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북고운생학(北顧雲生壑)] 이안우(李安愚)의 시에, “북녘을 돌아보니 구름이 깊은 구렁에서 생겨나오고, 남쪽으로 굽어보니 바다 물결이 하늘과 접했구나. 좋은 바람 때마침 스스로 이르니, 마음도 쾌하여 변방의 일을 주획(籌劃)하는 누각에 앉아 있네.” 하였다.

[해근고다풍(海近苦多風)]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만고(萬古)의 외로운 옛성이 있는데, 바깥 바다와 안의 산이 웅장도하다. 산 아지랑이 깊어 항상 비를 지어내고, 바다가 가까우니 바람 많은 것이 괴롭다. 소금 굽는 가마에선 불 때는 연기 하얗게 오르고, 어부의 마을은 반조(返照)로 붉게 물들어 있다. 대나무 숲속을 뚫고 지나가니, 푸른 눈 조각이 분분히 길 가운데 흩어지네.” 하였다.

[하증함담홍(霞蒸菡萏紅)]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옛 고을 남해 가에 자리 잡으니, 안팎의 산과 물이 웅장도 하다. 섬에서 떠오르는 연기는 능히 비를 짓게 하고, 강가에 선 나무에는 바람도 쉬 생긴다. 물은 포도로 물들어 푸르렀으며, 안개는 연꽃을 찌어 붉었나. 흰모래 위 누른 대나무 숲길에, 이 몸 완연히 한 폭 그림 가운데 있구나.”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보령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보령성곽, 해산루(海山樓_남문)</td><td></td><td></td><td></td><td></td><td></td><td></td><td>보령리 오층석탑, 오천수영성 등</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군사 관련 지명, 장시 형성, 이산해, 수군 진영(충청수영)</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이산해와 해산루
해산루의 현판은 이산해가 직접 썼다고 한다. 해산은 이산해의 이름을 거꾸로 한 것만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이산해는 시서화에 능하였으며, 선조 때 대북의 영수로 있었다.

지도 속의 보령
伏兵里, 軍入浦, 冠巖, 蟻坪, 高巒山, 王臺山과 같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특정 지명들이 많이 보이며, 고을 주변에 장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 방비 시설이 보인다. 남포와 비슷한 형국을 가지고 있다.</td></tr>
<tr><td>기문</td><td colspan="8">객관(客館) : 정대(鄭帶)의 〈동헌기(東軒記)〉에, “보령(保寧)이 경인년부터 바다 도적의 해를 입어 우리 태조 경진년에 봉당(鳳堂)에 성을 쌓고는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지(城池)가 얕고 좁은 데다가 험준하고 조격(阻隔)한 공고(鞏固)함과 우물을 보유하는 편리한 점이 없더니, 세종 경술년 가을에 순찰사(巡察使) 최윤덕(崔潤德)이 감사(監司) 박안신(朴安信), 원융(元戎) 이흥발(李興發)과 더불어 다시 성 동쪽 1리 지점인 지내동(池內洞) 당산(唐山) 남쪽을 살펴보고는, 서산 군사(瑞山郡事) 박눌생(朴訥生)과 현수(縣守) 박효함(朴孝諴)으로 하여금 공역을 헤아려 기한을 명하였던 바, 수 개월이 못 되어 낙성(落成)을 고하게 되었다. 내가 신해년 겨울에 박현수를 대신하여 이 고을에 왔고, 다음 해에 비로소 객관과 동서름(東西廩)·제민당(濟民堂)·공아(公衙)·현사(縣司)·어풍정(馭風亭)·병기고(兵器庫)·영어(囹圄 옥(獄)) 등을 지어 이루니, 모두 1백 40여 칸에 달하였다.”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죽오풍경침(竹鳴風警枕)] 유원순(兪元淳)의 시에, “낮에 해풍군(海┌郡)을 출발하여, 저물어서야 보령에 이르렀다. 대가 바람에 울며 베개 가를 흔들어 깨우더니, 구름이 비로 눈물을 뿌려 나의 길을 머물게 했다. 저녁 연하(煙霞) 깊이 끼어 머리가 다시 무거웠는데, 아침해 돋아 오르니 뼈가 잠시 가벼워지는 듯하다. 이 몸이 늙고 병들고 보니, 비로소 음청(陰晴)만을 풀어 점치는 까닭을 알겠도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진잠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 colspan="2">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 colspan="2">O</td><td>X</td><td colspan="2">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 colspan="2">기성관(杞城館_객사)</td><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계룡산과 대둔산(지역명산), 고대로부터 영역이 전혀 변하지 않은 곳, 전라도로 향하는 관문</td><td colspan="4">교통(객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호서읍지 속 진잠
고을의 양쪽으로 계룡산과 대둔산이 쌍벽을 이루며 크게 그려져 있다. 두 산은 지역 명산이자 신령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잠은 고대로부터 영역이 변하지 않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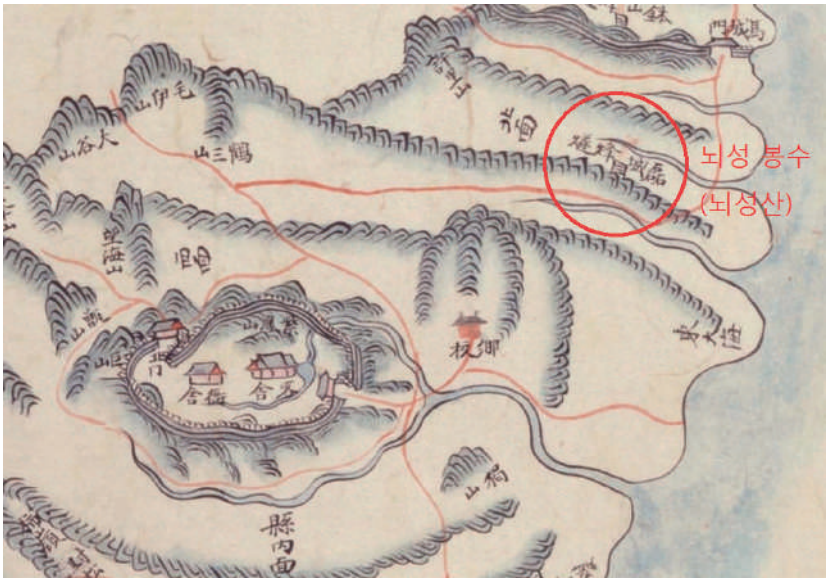
대둔산과 계룡산이 쌍벽을 이루는 진잠 지도©호서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이영장(李營章)의 객사 기문(호서읍지)</td></tr>
<tr><td>제영</td><td colspan="8">[독유산천여구식(獨有山川如舊識)] 김자지(金自知)의 시에, “기성(杞城)은 천고에 아득한 하늘가, 민가는 쓸쓸하고 전지(田地)는 반 묵었다. 홀로 산천만이 옛 친구 같으니, 나루터 길 잃어도 전부(田夫)에게 묻지 않으리.” 하였다.
[야활수여제(野闊樹如薺)]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들이 넓으니 수목들은 냉이같이 보이고, 산이 비었으니 시냇물소리 우레같이 울린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봉화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O</td><td>X</td><td>O</td><td>X</td><td></td></tr>
<tr><td></td><td></td><td></td><td>향방</td><td></td><td>봉서루
(鳳棲樓)</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풍수지리, 정도전</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 봉화
강원도래용(江原道來龍), 소백산주용(小白山主龍) 등과 같은 풍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봉화백 정도전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워 봉화백에 봉해진다. 봉화 정씨가 봉화를 관향으로 정한 것은 정도전의 위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은 풍수지리의 대가로서, 서울 궁궐과 각 읍별로 풍수지리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수지리 용어로 표현된 봉화 지도©1872년 지방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금륜봉올약지천(金輪峯兀若支天)] 강윤(姜允)의 시에, “금륜봉의 우뚝함은 하늘을 받친 듯하고, 도미천(道美川)의 흐름은 바닷가에 닿았다.” 하였다.
[창등찬공수목교(蒼磴攢空樹木交)]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푸른 돌길은 하늘 뚫고 나무를 엇갈리는데, 두세 농가는 노란 띠풀을 덮고 있다. 주민들이야 어찌 알리 강호(江湖)의 맛을, 산나물 조금 캐어 술 안주를 마련한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장기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장기읍성</td><td>근민당</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장기 해산물(특산물) 등</td><td colspan="4">경제(장기시장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장기 특산물(신증동국여지승람)
뇌록(磊綠 회록색(灰綠色)의 도료(塗料)) 뇌성산(磊城山)에서 난다. / 넙치[廣魚]・해삼(海蔘)・상어[鯊魚]・대구(大口)・방어(魴魚)・청어(靑魚)・송어(松魚)・전복[鰒]・홍합(紅蛤)・미역[藿]・김[海衣]・해달(海獺)・송이[松蕈]・마황(麻黃), 정분(丁粉) 동을배곶에서 난다. / 방풍(防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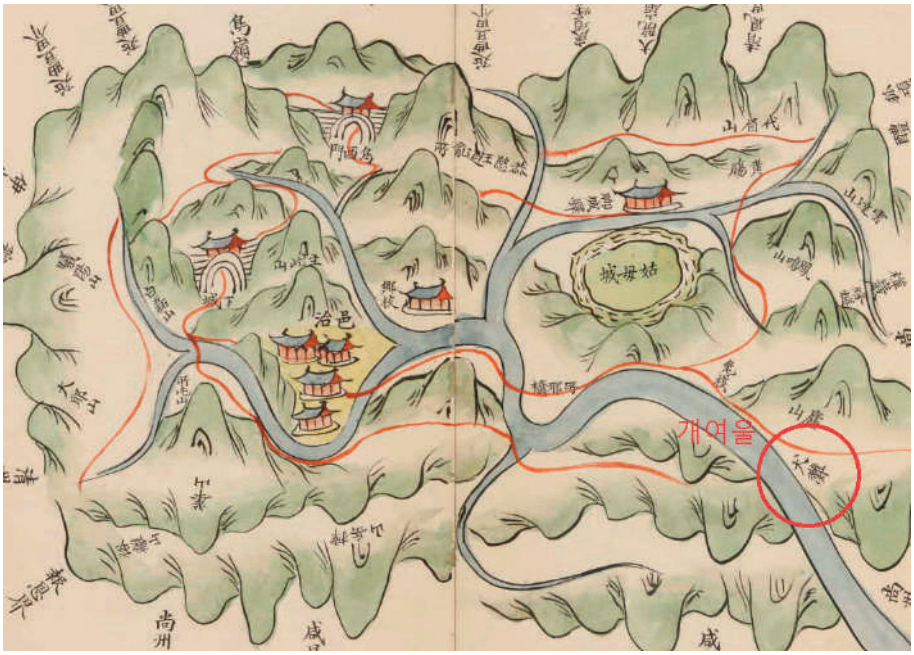
장기 칠보(뇌성산)
뇌성산에는 뇌록(磊綠)・인삼(人蔘)・자지(紫芝)・오송(蜈蚣)・봉밀(蜂蜜)・치달(雉獺)・동철(銅鐵)이라는 일곱가지 특산물이 난다고 하여 이를 칠보라고 하며, 이에 장기현감을 '칠보현감'으로 부르기도 한다
 
'칠보'라는 별칭을 가져다 준 장기 뇌성산©해동지도</td></tr>
<tr><td>기문</td><td colspan="8">자봉정(紫鳳亭)・욕일당(浴日堂) 모두 객관의 동쪽에 있으며, 성화(成化) 신축년에 현감 최영(崔泳)이 지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고헌압해의산성(高軒壓海倚山城)] 홍일동(洪逸童)의 시에, "높은 동헌이 바다를 누르고 산성에 의지해 있는데, 피곤한 나그네 난간에 기대 서니 눈앞이 문득 밝아지누나. 비 개자 맑은 아지랑이 북악(北嶽)에 비껴 있고, 구름 걷자 아침 해가 동해에 솟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예안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td><td>선성현 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안동석빙고</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예안향약, 이황, 청백리 김전</td><td colspan="4">행정(향약 등)</td></tr>
<tr><td>자료</td><td colspan="8">퇴계 이황의 예안향약
예안 출신 이황은 서원향약과 쌍벽을 이루는 예안향약으로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생사당을 세우게 한 청백리 김전(金詮)
조선 전기의 인물인 김전은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청백리로 유명하다. 성종(成宗)이 각 도의 피폐한 고을로 나누어 부임하도록 명하였는데, 김전이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서 나가 현감이 되어 청렴 간결하게 정치를 하니, 고을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생사당(生祠堂)을 세웠다.</td></tr>
<tr><td>기문</td><td colspan="8">추흥정(秋興亭)
객관 동쪽에 있다. 홍희(洪熙) 원년에 현감 박결(朴潔)이 세웠고, 관찰사(觀察使) 하연(河演)이 이름 짓고 기(記)를 썼다.
○ 은여림(殷汝霖)의 시에, “비단 펼친 듯 네 창문엔 산빛이 가깝고, 유리 깔아 놓은 듯 한 지역엔 물빛이 깊구나.” 하였다.

동루(東樓) : 현 동쪽에 있다.

쌍벽루(雙碧樓) : 부진 언덕 위에 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연계일로종산전(緣溪一路從山轉)] 홍여방(洪汝方)의 시에, “시내 따라 한 길이 산으로 돌고, 골짜기에 가득한 숲에 은은한 안개가 깊구나.” 하였다.
[안전산수불수병(眼前山水不須屛)] 김보륜(金輔輪)의 시에, “멀리 바라보면 어렴풋하나 가까이 선 도리어 밝고, 눈앞에 산과 강 있으니 병풍은 필요하지 않네.” 하였다.
[수복산중노굴반(水複山重路屈盤)] 서거정의 시에, “물 겹겹 산 첩첩 길은 구불구불 한데, 풀풀 나는 단풍잎은 가는 말을 보내네. 다른 날 예전에 놀던 곳 내가 기억할 건가, 명구(名區)를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노라.” 하였다.
[협절분천수지진(峽折犇泉隨地盡)] 전인(前人)의 시에, “골짜기가 끊어졌으니 급히 흐르는 샘물은 땅에 떨어져 다하고, 산은 여러 봉우리를 벌였으니 하늘을 찌를 듯하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문경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td><td>관산지관
(冠山之館
_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문경새재</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문경새재, 황장봉산</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의 문경과 문경새재
문경 조령산성은 임진왜란 후에 쌓았다. 조령 방비를 위해 산성, 사찰, 창고를 자세히 그렸다. 특히 사찰 속 스님들의 숫자까지 파악해놓고 있는데, 유사시 방비를 위해 스님을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경 읍내를 그린 지도에도 문경의 군사적 중요성에 의해 다양한 군사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도 속에 표현된 개여울(犬灘)은 물살이 빠르지만 얕아서 대규모 군대가 빨리 건널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황장목 생산을 위한 황장봉산이 표시되었다.
 

개여울 등 군사정보가 담긴 문경©경상도읍지</td></tr>
<tr><td>제영</td><td colspan="8">[분단명협리(奔湍鳴峽裏)] 최수(崔脩)의 시에, “북쪽을 바라보니 산천이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세월만 깊어 간다. 달리는 여울은 골짜기 속에서 울고, 쌓인 눈은 벼랑 음달에 덮었다. 충성된 절조 붉은 마음속에 있으나, 화사한 얼굴엔 백발만이 침노한다. 이름 따르는 길에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고. 부질없이 벼슬자리 싫어하는 노래만 읊었노라.” 하였다.
[팔영(八詠)] 서거정의 시다. 주흘(主屹)의 영사(靈祠) / 곶갑의 사다릿길[串岬棧道] / 창 밖의 오동나무[窓外梧桐] / 뜰 앞의 버드나무[庭前楊柳] / 푸른 벽에 빨간 단풍[蒼壁楓丹] / 그늘진 벼랑에 흰 눈[陰崖白雪] / 오정의 종루[烏井鐘樓] / 용담 폭포(龍潭瀑布)</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창녕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화왕산성)</td><td>하산관
(객사)</td><td></td><td></td><td></td><td></td><td></td><td>창녕
석빙고 등</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창녕 지역특성(람사 습지 우포늪), 곽재우</td><td colspan="4">군사(의병)</td></tr>
<tr><td>자료</td><td colspan="8">곽재우와 화왕산성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우 장군이 화왕산성을 근거지로 적군을 물리쳤다고 한다.

지도 속의 창녕 습지
용호, 목호, 사호, 우호[10] 등의 창녕 습지가 호수처럼 표시되어있다. 이는 현재 람사 협약에 따른 습지와 동일하다.

습지 등이 표현된 창녕©영남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추월헌(秋月軒)
이는 곧 객관의 서헌(西軒)이니 현감(縣監) 박한주(朴漢柱)가 세운 것이다. 헌(軒)의 북쪽에 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으며 돌을 모아 섬을 만들었다.
○ 안침(安琛)의 시(詩)에, “달이 중추(中秋)를 맞으니 빛이 정히 촉촉하고, 작은 못에 연꽃이 고우니 물은 쪽[藍]같이 푸르다. 물결이 흔들리니 소동파(蘇東坡)가 백이 생기고, 그림자를 대하니 참으로 이태백(李太白)의 셋을 이루었네. 얼굴에 부는 좋은 바람 살살 불어오고, 옷을 적시는 서늘한 이슬은 촉촉히 떨어지네. 마루의 맑은 경치 시(詩)로는 형용키 어려워 다 쓰고 나서 우두커니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 하였다.</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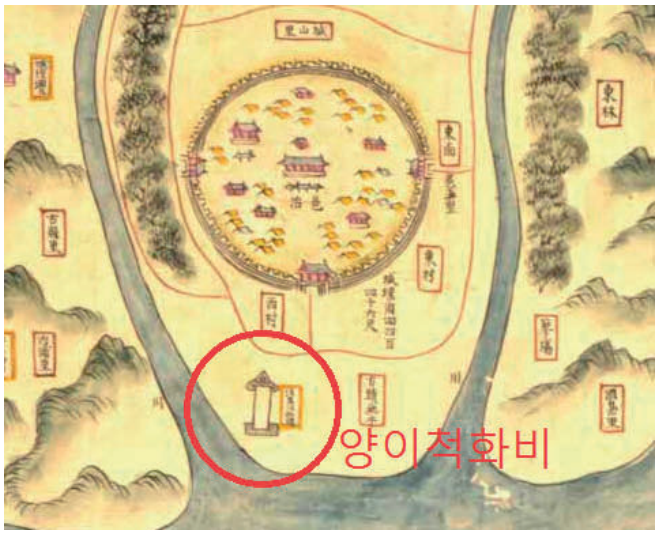
10. 용호, 목호, 사호, 우호의 명칭은 1872년 지방지도를 따름.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2">삼가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3">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td><td></td><td></td><td>기양루(岐陽樓_문루)</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남명 조식</td><td colspan="4">경제(삼가시장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남명 조식
삼가 출신의 조식은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풍을 대표하였다. 정인홍, 곽재우 등 이름있는 선비들이 후학으로 학문을 하였는데, 인조반정 후 정인홍 등이 몰락하며 남명학파는 그 "뒤 세력을 신장하기 어려웠다."

영남읍지 속 4개 제사처
사직단, 여단, 성황단, 문묘가 모두 표현되어 장소를 가늠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정위치와 지도속의 위치는 괴리감이 보이는데, 성황단이 있는 마장산은 삼가현 관아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나 너무 먼 곳처럼 묘사되어 있다. 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정위치보다 멀게 그려졌다.

해동지도 속 인물
향교의 밑에 남명 조식을 표시하였으며, 고현창 부근에는 무학대사를 표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조식, 무학대사가 표시된 삼가 지도©해동지도</td></tr>
<tr><td>기문</td><td colspan="8">쌍명헌(雙明軒) : 곧 객관 동헌이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일도소가나대수(一道疎柯羅代樹)] 이방한(李邦翰)의 시에, “한 줄기 성긴 가지는 신라 때 나무요, 사방 창에 푸른 빛 띤 것은 사공(謝公)의 산이다. 남북으로 보내고 맞이하노라 겨를 없는데, 시냇가 백로만이 한가하구나.” 하였다. 일말계류통북포(一抹溪流通北浦) 이구(李懼)의 시에, “한 줄기 시냇물은 북포(北浦)에 통하고, 두어 마을 뽕나무는 서쪽 밭둑에 그늘졌네.” 하였다.
[남거계성급(南去溪聲急)] 윤자영(尹子濚)의 시에, “남쪽으로 가는 시냇물소리 급하고 북쪽으로 오는 산 형세가 높다.” 하였다.
[백판쌍비영죽리(白板雙扉暎竹籬)] 강혼(姜渾)의 시에, “옆 고을에 까마귀 울어 해가 지는데, 눈 갠 강변 길이 꼬불꼬불하다. 곳곳에 인가는 숲을 의지했는데, 흰 널판, 쌍 사립문이 대 울타리에 비친다.” 하였다.
[이화조옥두견제(梨花照屋杜鵑啼)] 먼저 사람의 시에, “연기는 막막하고 달은 쓸쓸한데, 은하수 비꼈고 북두칠성 나지막하네. 지난 해 따뜻하던 봄밤 생각나누나. 배꽃 피어 집을 비추고 두견이 울었지.”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진해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동헌</td><td></td><td>마방, 사령청</td><td>아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척화비, 수군 진영</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1872년 지도 속 진해
고을 남문 앞 바다쪽에 양이척화비를 일반 건물보다 크게 그려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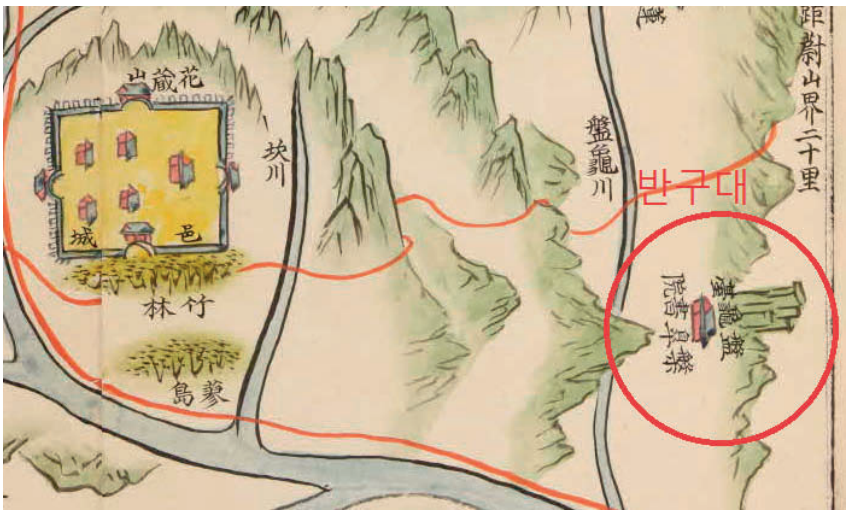
양이척화비가 크게 그려진 진해©1872년 지방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해천고진수기사(海天孤鎭戍旗斜)] 이첨(李詹)의 시에, “바닷가 외로운 진에 깃발이 비스듬한데 말을 몰아 남쪽으로 오니 집에 가는 것 같구나. 저녁 봉화(烽火)가 한 줄기만 전하는 것 보았으니, 고깃배 타고 갈꽃 속에 자고저.” 하였다.
[방변촌점진어가(榜邊村店盡漁家)] 김조(金銚)의 시에, “바닷가 외로운 성에 좋은 경치 많은데, 이웃한 시골 가게는 다 어부의 집일세. 섬 오랑캐 심복하여 싸움 없으니, 곳곳에 격양가(擊壤歌)만 들려오누나.” 하였다.
[월명남포청어가(月明南浦廳漁歌)] 조서강(趙瑞康)의 시에, “푸른 바다 끝없고 여기 저기 산도 많은데, 한 조각 외로운 성에 수십 집이로다. 나그네 밤 깊어도 잠 못 이루고, 달 밝은 남포에서 고기 잡는 노래 듣노라.” 하였다.
[팔진증경전수다(八鎭曾經戰戍多)] 안등(安騰)의 시에, “팔진은 일찍이 전쟁을 많이 겪었고, 밥 짓는 연기 십 리까지 인가가 있구나. 강바람이 두세 곡조를 실어 보내니, 날 저문 어촌에 장단가(長短歌)일세.” 하였다.
[분첩차아진해변(粉堞嵯峨鎭海邊)]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흰 성가퀴가 우뚝하여 바닷가를 진압하고, 새 누각은 불쑥 솟아 봉새가 높이 나는 듯하네. 검 같은 여러 섬이 띠엄띠엄 있고, 고래 같은 물결은 번쩍번쩍 온 하늘을 덮네. 어촌에 해가 지니 한가하게 달을 차지했고, 염점(鹽店)에 밀물 드니 따뜻한 연기가 난다. 멀리 온 나그네 유유한 생각 많아, 난간에 기대어 눈이 뚫어질 듯하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거제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O</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기성관(岐城館_객사)</td><td></td><td>질청</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이순신, 수군 진영,</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이순신과 견내량 : 견내량은 한산도대첩이 일어난 장소이다. 일본의 명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견내량에서 한산도 앞바다까지 유인하여 학익진으로 물리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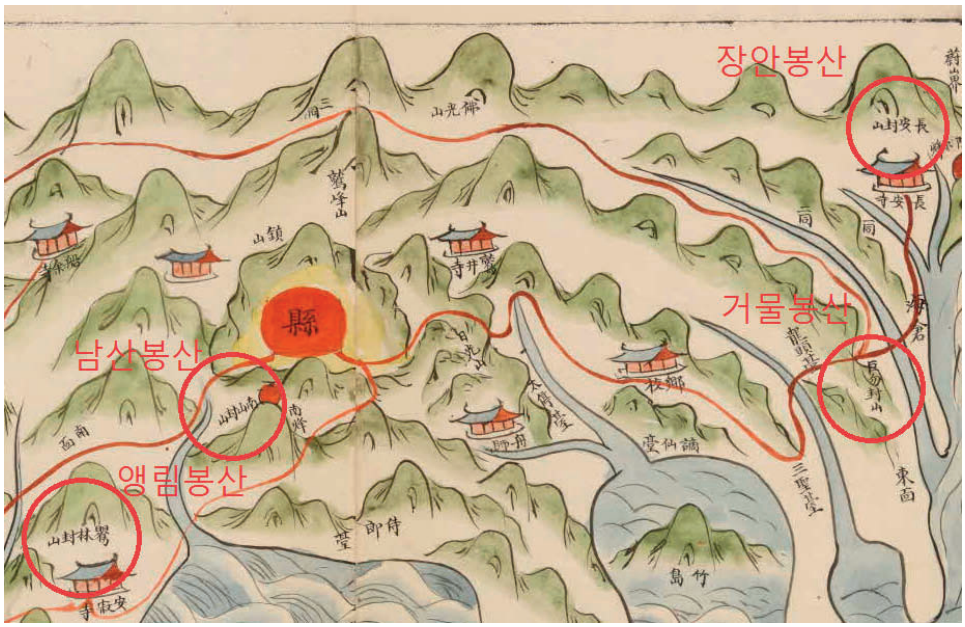
지도 속의 거제 : 남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助羅浦鎭, 玉浦鎭, 知世浦鎭, 栗浦鎭, 加背梁鎭, 永登鎭, 長木鎭 등 진영이 설치되어 있다.

거제의 진형 배치©경상도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무이루(撫夷樓) : 견내량(見乃梁) 동쪽 벼랑에 있다.
○ 하연(河演)의 시에, “옛 섬은 의관이 다르고, 원융(元戎)의 호령은 신(神) 같도다. 갈잎배는 북쪽 길과 통하고, 거친 풍속은 동쪽 이웃과 접했네. 바다가 고요하니 요사한 기운 그쳤고, 시대가 청명하니 교화가 날로 새롭다. 한 구역에 연화(煙火)가 흡족하니 모두 다 태평 성대 백성이어라.” 하였다.

만경루(萬景樓)·청해루(靑海樓)·임해정(臨海亭) ·해안정(海晏亭) : 모두 오아포(烏兒浦)에 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해산추색수(海山秋色秀)] 이범(李範)의 시에, “연화(煙火)는 온 마을에 피어나고, 상마(桑麻)는 사방을 덮었네. 바다와 산에 가을 색이 빼어나고, 물가에 열린 유자는 늦게까지 향기가 새롭네.” 하였다.
[남래접접타비연(南來跕跕墮飛鳶)]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바람은 돛대에 시끄럽고 파도는 하늘에 닿은 듯하네. 남쪽으로 오니, 날던 솔개가 미끄러지듯 떨어진다. 해진 돛은 춤추듯 너울거리고, 딱딱이 소리에 경점(更點)도 깊은데 다시금 잠 못 이루네.” 하였다.
[군산삽해천환심(群山揷海淺還深)] 앞사람의 시에, “여러 산이 바다에 꽂힌 듯 얕았다가 깊었다가, 잠깐 사이 개였다가 또 쉽게 그늘지네. 누군가 밤에 선창(船窓)에 기대어 피리 부는지, 배에 가득한 비바람에 늙은 용이 읊조리는 듯.” 하였다.
[조접부상만리회(潮接扶桑萬里回)] 송처검(宋處儉)의 시에, “산은 견내(見乃)를 따라 천 봉우리가 솟아났고, 파도는 부상에 닿았다가 만리 길 돌아온다.” 하였다.
[연분도구만조회(煙分島口晩潮回)] 이근(李覲)의 시에, “하늘은 해협[海門]에 닿은 듯 가을 물결이 멀고, 연기는 섬 어귀를 가르고 늦은 파도가 돌아온다.” 하였다.
[십영(十詠)] 최숙생(崔淑生)이 이행(李荇)의 시에 화답(和答)한 시이다. 소요동(逍遙洞) / 백운계(白雲溪) / 세한정(歲寒亭) / 성심천(醒心泉) / 군자지(君子池) / 차군정(此君亭) / 운문폭(雲門瀑) / 신청담(神淸潭) / 지족정(止足亭) / 보진당(保眞堂)</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언양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r>
<tr><td>언양읍성, 영화루 (映花樓_남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반구대, 언양 시장</td><td colspan="4">경제(언양시장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언양군읍지 속 언양
고을 주변에 사직단, 여단, 향교 등이 그려져있으며, 반구대(盤龜臺)가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고을의 장시는 읍내장(邑內場)과 유목정장(柳木亭場)이 있으며, 언양의 토산으로 철,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이 있었으며, 공물로 바치는 물품은 인삼, 천문동(天門冬) 등이었다.
 

반구대가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언양 지도©경상도읍지</td></tr>
<tr><td>기문</td><td colspan="8">언양군읍지 궁실 조
객관(客館), 평근당(平近堂), 향사당(鄕射堂) 등 관아 건물의 세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산수반회작일향(山水盤廻作一鄕)] 홍여방(洪汝方)의 시에, “소나무 대나무가 가리고 비쳐서 천 집을 숨겨 주고, 산과 물이 서리고 돌아서 한 시골을 만들었다.” 하였다.
[근곽산고다모애(近郭山高多暮靄)] 이지명(李知命)의 시에, “성에 가까이 산이 높으니 저녁 노을이 많고, 처마에 이웃하여 나무가 빽빽하니 가을 맛이 나네.” 하였다.
[대우신하첩수량(帶雨新荷疊水凉)] 권맹손(權孟孫)의 시에, “바람 머금은 붉은 작약은 뜰에 번득여 연약하고, 비에 젖은 새 연잎 물 위에 포개있어 서늘하다.” 하였다.
[산형북공라도거(山形北拱羅都去)]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산 형세는 북으로 신라 서울 끼고 뻗어 있고, 물 형세는 동으로 울산(蔚山) 바다에 기울어져 흘러가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 colspan="3">기장현</td><td>분류</td><td colspan="2">현</td><td>위치</td><td colspan="2">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 colspan="2">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X</td><td>X</td><td colspan="2">O</td><td>X</td><td>X</td><td>X</td><td>X</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장관청</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기장 4대 봉산 – 전선(戰船)을 만들기 위한 재목</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경상도읍지 속 기장
지도 속에는 장안봉산, 거물봉산, 남산봉산, 앵림봉산의 4군데의 봉산(封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목재의 조달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4대 봉산이 있는 기장©경상도읍지</td></tr>
<tr><td>제영</td><td colspan="8">[해장천욕진(海長天欲盡)] 홍자원(洪子圓)의 시에, “바다가 기니 하늘이 끝나려 하고, 산이 머니 눈이 더 밝은 것 같구나.” 하였다.
[어점취연기(漁店炊煙起)] 이인전(李仁全)의 시에, “고기 잡는 마을 주막에 밥짓는 연기 오르고, 마을 동산에는 죽순이 돋는다.” 하였다.
[낙일동운유념념념(落日凍雲猶淰淰)]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달려 다니는 병과 늙음이 서로 겹쳐서, 동쪽 마루에 와서 앉으니 발[簾] 걷기에도 귀찮구나. 지는 해에 먹구름 아직도 찌푸리고, 산들바람에 이슬비 더욱 가늘게 내리누나. 산허리로 난 길은 양의 창자처럼 험악하고, 개포 어구의 먼 봉우리는 말 귀처럼 쭝긋하다. 적막한 나그네 회포 긴 밤이 구슬픈데, 성문에서 치는 북소리는 밤 늦은 것 알려온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고창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4">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X</td><td>X</td><td>O</td></tr>
<tr><td>고창읍성 공북루(북문), 등양루(동문), 진서루(서문)</td><td>평근당 (平近堂_동헌) 모양지관 (牟陽之館_객사)</td><td>(고창내아)</td><td>옥사, 향청, 장청, 관청, 서청, 성황사(城隍祠)</td><td>풍화루 (豊和樓 _외삼문)</td><td></td><td></td><td>맹종죽림</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상업의 발달, 축성 공동제작,</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축성 공동제작
고창읍성을 건설할 때 인근 고을에서 인력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지었다. 작업구역별로 해당 고을의 표지석이 세워져있다.

지도 속 고창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북문에 장시가 형성되었다.

고창읍성 축성참여 고을기 게양식[11]</td></tr>
<tr><td>제영</td><td colspan="8">[시냇물은 푸른 뱀이 달리는 듯하고(溪水靑蛇走)] 이행(李行)의 시에, “시냇물은 푸른 뱀이 달리는 듯하고, 봉우리는 푸른 병풍을 비낀 듯하네.” 하였다.
[산과 물이 둘러 있는 속(山水縈回裏)] 권진(權軫)의 시에, “산과 물이 둘러있는 속에, 누각이 푸른 숲 가운데 있네. 밤 깊어 시내에 달이 오르고, 앉아 있노라니 못에 가득한 바람일세.” 하였다.</td></tr>
</table>

11. 전북도민일보, 2014-10-2, “고창읍성 축성참여 고을기 게양식”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무장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O</td><td>X</td><td>X</td></tr>
<tr><td>무장읍성, 진무루 (鎭茂樓_남문)</td><td>취백당 (翠白堂_동헌), 송사지관 (松沙之館_객사)</td><td></td><td></td><td></td><td>읍취루 (挹翠樓)</td><td></td><td></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동학농민운동, 무장읍성 축조, 세곡창</td><td colspan="4">군사</td></tr>
<tr><td>자료</td><td colspan="8">동학농민군의 무장읍성 입성
무장에 입성한 동학농민군은 3일동안 머물면서 황토현 싸움 이래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이미 전주에 도착한 홍계훈 초토사가 거느리는 경군의 추격에 대비하여 읍에서 5리쯤 떨어진 여시뫼봉에 진을 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12]

무장읍지
병마사 김저래(金著來)가 여러 고을의 백성과 승려 등 주민 20,000여 명을 동원하여 그해 2월부터 5월까지 만 4개월동안에 축조했다고 전한다.

지도 속의 무장
오리면의 전세창田稅倉과 동음치면의 대동창大同倉은 이 지역의 주요한 세곡창으로 조운선이 정박하던 곳이기도 한다. 무장의 북쪽에 위치한 신령산은 유독 우뚝 솟은 모습을 하고 있어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것만 같다. 신령산은 고려사 악지에도 나오는 선운산곡의 무대이기도 하다.</td></tr>
<tr><td>기문</td><td colspan="8"><동헌(東軒)> 유순(柳洵)의 시에, “10년 전에 이곳을 지났는데, 지금껏 몸과 마음 함께 맑아라. 아관정(迓觀亭) 위에 몸이 또 다시 이르니, 붉은 작약 떨기 가에 눈이 다시 밝구나. 창 밖 청산은 예전 그대로인데, 숲 사이 꾀꼬리는 새노래를 들려주네. 마루에 앉으니 지난해 생각 희미한데, 그 당시 이름 써두지 않은 것이 후회되누나.
○ 얼굴에 부는 훈풍이 집 깊숙이 불어오고, 발에 비치는 한낮의 꽃에 맑은 그늘 드리우네. 공무가 끝난 뒤에 번잡함이 그치니, 앉아서 빈 뜰에 들판의 빛이 들어옴을 알겠네.”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시냇물 소리와 나무 그림자가 함께 맑고 그윽하다.] 이행(李行)의 시에, “시냇물 소리와 나무 그림자가 함께 맑고 그윽한데, 또 백 척 높은 다락에 긴 바람 부네.” 하였다.

[가을 깊은데 북과 호각소리 변방에 울리네.] 신숙주의 시에, “외로운 성 위의 정자에 두 밤 자는데, 서풍이 꿈속에 맑게 불어오네. 오동나무는 남은 잎을 나부끼어 읊는 가운데에 늙어가고, 국화는 새 꽃을 늘어뜨렸는데 특별히 밝구나. 육지 끝 바다 하늘에 먼 생각을 일으키고, 가을 깊은데 북과 호각소리 변방에 울리네. 높은 시에 화답하려 하나 좋은 글귀가 없으니, 어찌 시를 지어 성명을 기록한다 하랴.” 하였다.</td></tr>
</table>

12. 무장읍성 안내판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흥덕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4">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td><td>흥성동헌</td><td></td><td></td><td>아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상업의 발달(사진포 등)</td><td colspan="4">행정(흥덕면사무소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의 흥덕
사진포(沙津浦)는 곰소만의 안쪽으로, 밀물 때면 바닷물이 쑥 들어와 호수처럼 만들어져 배를 대기에 알맞은 곳이며 ≪擇里志≫에도 장삿배가 모여 상업이 번창한 곳으로 나온다. 관아의 부속 건물 구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그려졌으며 성황당, 문묘, 사직단, 여단 또한 상세한데, 고을 주변에 위치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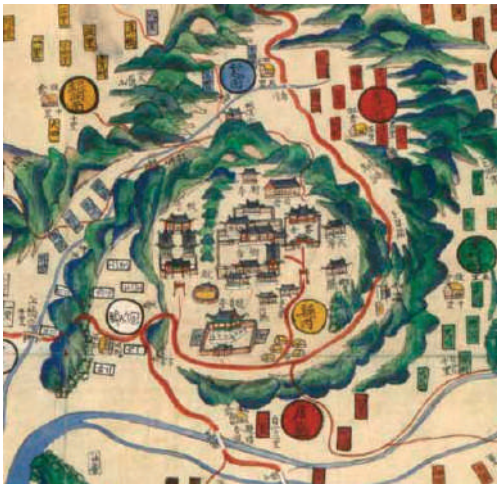
흥덕 사진포와 해창©해동지도</td></tr>
<tr><td>기문</td><td colspan="8">배풍헌(培風軒) : 객관 서쪽에 있다.

○ 정창손(鄭昌孫)의 시에, “바다 곁한 큰 고을[雄藩]은 푸른 산봉우리 대해 있고, 구름 찌를 듯한 누대는 우뚝하게 바람을 임하네. 외로운 배는 사양(斜陽) 밖에 보였다 안보였다 하고, 먼 산 구멍은 구름 속에 아물아물한다. 한밤에 나팔소리 달 그림자 흔들고, 한 난간의 꽃 빛은 봄경치 곱게 하네. 바다는 큰 물결 몰아가서 고요한데, 물 넓고 하늘 길어 보는 눈이 통한다.” 하였다.
○ 남곤(南袞)의 시에, “깎아 세운 듯 잇닿은 천 만 봉인데, 아지랑이 하루살이는 큰 바람에 막혀 있구나. 한 지역 좋은 풍경은 난간 밖 아침이고, 두어 점(點)의 제주(齊州 중국(中國)을 말하는 것)는 눈에 보이네. 별포(別浦)의 조수 소리 어지럽게 떠들고, 석양의 산 기운은 멀리 부옇구나. 채색 붓 없는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 앞의 글제 주워 모아 회통(會通 ; 모아서 하나로 합친 책)을 만든다.” 하였다.
○ 박휘겸(朴撝謙)의 시에, “정정(亭亭)하게 우뚝 솟은 만길 봉우리, 봉 꼭대기 높은 누각 먼 바람에 임하였네. 땅은 봉도(蓬島) 삼청(三淸) 경계에 연하였고, 사람은 소상(瀟湘) 팔경(八景) 가운데 있다. 구름은 산허리를 두르고 아득하게 비꼈고, 물은 하늘 그림자 머금고 뿌연 하늘에 닿았네. 홀연히 먼 포구 바라보니 돌아오는 돛단배 빠르고, 뱃길[水道]은 멀리 이어져 한수(漢水)로 통한다.” 하였다.</td></tr>
<tr><td>제영</td><td colspan="8">[강교분로입연하(江橋分路入煙霞)] 이곡의 시에, “명산(名山) 찾기 위하여 이 곳을 지나는데 강 다리에서 갈라진 길 연기와 안개 속으로 들어가네. 돌아와 죽림(竹林) 밑에서 말을 쉬게하니, 한 그루의 산다화(山茶花) 아직 꽃피지 않았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태인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4">전라북도 정읍시</td></tr>
<tr><td rowspan="4">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X</td><td>O</td><td>X</td><td>X</td><td>O</td><td>O</td><td>X</td><td>O</td></tr>
<tr><td></td><td>청녕헌
(淸寧軒_동헌)</td><td></td><td></td><td>아문</td><td>피향정
(披香亭),
함벽루
(涵碧樓)</td><td></td><td>태인 신잠선생영상,
태인 고현동 향약 등</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신잠, 태인동헌 건축 전설, 고현동 향약</td><td colspan="4">행정(향약 등)</td></tr>
<tr><td>자료</td><td colspan="8">태인동헌 건축 전설
전라감영의 선화당을 지은 목수가 3천냥의 비용으로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지은 건물.[13]

태인현감 신잠
신잠은 태인현감을 역임하며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백성들은 그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우고 성황당을 지어 신잠과 부인, 아들 등을 모셨다고 한다.

태인 고현동 향약
고현동의 향촌 자치규약으로, 임진왜란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0년간을 이어왔다.

 
관아의 배치가 비교적 자세한 태인 지도©1872년 지방지도</td></tr>
<tr><td>기문</td><td colspan="8">객관 : 정곤의 기에, “태인현은 곧 옛날의 태산과 인의 두 고을인데, 우리 조정에서 두 고을의 이름을 아울러서 태인이라 하였다. 읍내는 옛날 태산의 동쪽 구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인의의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병통으로 여겼다. 병신년 가을 8월에 현감 황경돈(黃敬敦)이 두 고을의 중간 지점인 거산역 옛 객관을 현의 객관으로 삼았으나, 너무 좁고 누추하였다. 무술년 겨울에 오치선(吳致善)이 이어 와서 드디어 옛 객관의 서쪽에 지세를 살피고, 기해년 가을에 비로소 후청(後廳)· 동서침(東西寢)· 남청(南廳)· 동서행랑(東西行廊)을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신축년 여름에 안기(安起)가 오공(吳公)의 뜻을 이어받아 좌우랑(左右廊)·좌우마구[左右廐]·대문·고옥(庫屋)·향교·성전(聖殿)을 더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하였다.

함담정(菡㶁亭) : 객관 동쪽에 있다. 현감 장우규(張友奎)가 세웠다.</td></tr>
</table>

13. 태인동헌 안내문

<table>
<tr><td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d></tr>
<tr><td>명칭</td><td>흥양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O</td><td>X</td><td>X</td><td>X</td></tr>
<tr><td>흥양읍성</td><td>존심당(存心堂_동헌)</td><td></td><td></td><td>남휘루(覽輝樓)</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수군 진영, 해창</td><td colspan="4">행정(고흥군청 연계)</td></tr>
<tr><td>자료</td><td colspan="8">지도 속 흥양
흥양은 남해바다에 위치한 탓에 발포진 등 수군 진영이 여럿 위치해있다. 각 수군 진영과 고을 주변에 봉화대가 있어 비상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을 주변에 해창이 있는데 물류를 모아 배로 운송하였다.

수군 진영이 많은 흥양©해동지도</td></tr>
<tr><td>제영</td><td colspan="8">[만호취연간석비(萬戶炊煙間夕霏)] 안숭선(安崇善)의 시에, “꽃잎은 바람 따라 동산 가득 날고, 어린 제비 쌍쌍이 연못에 날개 치고 오르네. 태평한 어진 정치 어디서 보나, 집집마다 밥짓는 연기 저녁노을 사이로 흩어지네.” 하였다.
[송도권지천산동(松濤捲地千山動)]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솔바람 땅을 휩쓰니 온 산이 요동치고, 장마비 서늘함을 나누어서 한 난간이 맑도다.” 하였다. 경도면면설분비(鯨濤面面雪紛霏) 성임(成任)의 시에, “객사(客舍)에 일 없이 술잔 돌리며 시편(詩篇) 쓰노라 붓을 휘둘러 벼루에 의지했네. 읊다가 한번 바라보니 고래등 같은 파도 면면이 눈같이 물방울 흩뿌리네.”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정의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O</td><td>X</td><td>X</td><td>X</td><td>X</td><td>O</td><td>O</td></tr>
<tr><td>정의현 성곽 (성읍민속마을) 남문, 동문, 서문</td><td>일관헌(日觀軒_동헌), 영양관(瀛陽館_객사)</td><td></td><td></td><td></td><td></td><td>민속가옥</td><td>성읍민속마을, 정의 돌하르방</td></tr>
<tr><td colspan="5">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5">민간신앙, 정의 돌하르방
(무뚝뚝하고 촌스러운 인상)</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정의현 돌하르방과 민간신앙
박수머리, 무성목 등 돌하르방이 12기가 있으며, 제주 돌하르방에 비하여 얼굴이 둥글넓적하고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신수를 관장하는 '안할망당', 부인들의 부인병을 관장하는 '광주 부인', 가축의 질병과 양육을 관장하는 '쉐당'등 다양한 민간신앙이 남아있으며, 마을제인 포제가 해마다 열린다.[14]

무뚝뚝해보이는 정의 돌하르방</td></tr>
</table>

14. 두산백과 성읍민속마을 참조.

기문	신증동국여지승람 성곽조 읍성(邑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천 9백 86척이고 높이가 24척이다. ○ 배추(裵樞)의 기문에, '백성의 편리를 들어주는 자와 백성의 마음을 원대한 계책으로 운용하는 자는 만세의 공을 세우는 것이다. 만일 편안한 데 있으면서 미천한 백성의 근심을 구휼하지 않고, 작게 하여 오래고 긴 꾀를 계획하지 않으면 백성의 근심과 탄식은 풀리지 못하고 성대한 공은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전라 한 도의 토지의 넓은 것과 인물의 많은 것이 제주(濟州)가 그 반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곧 예전 탐라국이다. 한라산이 가운데에 웅거하여 제주는 산 북쪽에 있다. 산의 동쪽 서쪽이 모두 90리 거리이고 산의 남쪽은 또 더 멀어서 백성이 왕래하려면 반드시 이틀 밤을 자야 하고 관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며칠 후에야 이른다. 또 한 관리의 귀와 눈으로 항간의 폐단을 두루 살피기란 이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학성(鶴城) 오식(吳湜) 공이 와서 제주를 안무할 때에 사정을 갖추어 조정에 급히 알리매 정리하여 셋으로 만들어서 서쪽에는 대정(大靜)을 두고 동쪽에는 정의(旌義)를 세웠다. 정의의 고을 생긴 것이 동쪽 끝 사람 없는 지경에 위치해서 산 남쪽까지가 8, 90십 리도 내려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이 토산(兎山)·진사(晉舍)인데, 역시 거의 30리가 되니 오상(吳相)이 절충하여 아뢰어 올린 뜻에는 어그러진다. 지금 도안무사 정 상국(鄭相國) 간(幹)이 순시하여 진사(晉舍)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에 현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태수(太守) 송섬(宋暹)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좇았다. 이에 임금께 알려 병부의 공문에 의하여 세 고을 백성을 역사시키고, 주목(州牧)의 판관 최치렴(崔致廉)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최공이 후하고 박한 것을 헤아리고 높고 낮은 것을 따져 인부 쓰는 것을 계산하고, 일의 기한을 헤아려 엄하게 명령을 시행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보았다. 궁가(弓家)를 높이고 삼문(三門)을 세우니, 성터는 2천 5백 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계묘년 정월 9일에 시작하여 13일에 끝났으니 공정이 매우 신속하였다. 정 상국(鄭相國)이 와서 그 완성된 것을 보는데 나도 또한 따라 보았다. 낙성할 즈음에 내게 명하기를, "그 전말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라." 하여, 감히 졸함으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table>
<tr><th colspan="9">관아 문화재 활용 실태 조사</th></tr>
<tr><td>명칭</td><td>대정현</td><td>분류</td><td>현</td><td>위치</td><td colspan="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td></tr>
<tr><td rowspan="5">일반현황</td><td>읍성/성곽</td><td>동헌/객사</td><td>내아</td><td>향/작청/부속실</td><td>아문/문루</td><td>누정각</td><td>주변고택</td><td>관련 문화재</td></tr>
<tr><td>O</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O</td></tr>
<tr><td>대정성지</td><td></td><td></td><td></td><td></td><td></td><td></td><td>대정 돌하르방,
김정희 유배지</td></tr>
<tr><td colspan="4">활용 콘텐츠</td><td colspan="4">활용 유형</td></tr>
<tr><td colspan="4">유배지, 김정희, 천주교(정난주 마리아),
대정 돌하르방(작고 온순한 인상)</td><td colspan="4">문화</td></tr>
<tr><td>자료</td><td colspan="8">대정군고지
성곽 및 주변일대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한라산, 천지연과 목장은 비교적 자세히 표현되고 있다.

정난주 마리아
정난주는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제주로 귀양가게 된다. 이후 주민들을 교화시키며 37년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환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이웃들이 그녀를 대정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추사 유배지
대정현에는 1495년(연산군 2) 환관 김순손(金舜孫)이 연산군의 난폭함을 지적하였다가 충군형을 받고 유배된 이래 조선 왕조 동안 총 60여 명이 유배되었다. 특히 1840년(헌종 6) 대정현에 마지막으로 유배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8년 3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제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대정에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장가이자 서예가인 김정희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15] 김정희의 추사체는 대정 유배 생활 중 완성되었다. 또한 유배 중에 그린 세한도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추사가 유배 생활 중 남긴 시와 서신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대정 돌하르방
대정 돌하르방 역시 제주, 정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박하고 온순한 인상을 하고 있다.

온순해보이는 대정 돌하르방</td></tr>
</table>

15. 추사유배지 대정에 새겨진 추사의 흔적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기문	신증동국여지승람 성곽조 읍성(邑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천 6백 47척이고 높이가 28척이다. ○ 하담(河澹)의 기문에, “무술년 여름 5월에 일이 있어서 이 현에 오니, 현의 원 유군(兪君) 신(信)이 술을 내어 위로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이 현이 설치된 까닭을 아는가. 지금 인녕 부윤(仁寧府尹) 오식(吳湜) 공이 이 섬을 안무할 때에 산 남쪽의 길이 멀어 도적의 방비가 소략하고, 풍속이 거의 고쳐졌으나 아직 다 되지 못하고, 목축이 번성한 것 같으나 증가되지 못함을 염려하여, 마땅히 여러 고을로 나누어 감수(監守)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세히 조정에 알렸다. 임금이 깊이 옳게 여겨, 곧 명하여 병부를 나누었다. 내가 처음 이르러서 가시덩굴을 헤치고 촌집에 우거하였는데 두어 달 만에 오상(吳相)이 소환되고 지금의 안무사 분성(盆城) 이간(李諫)이 뒤를 이어 이르렀다. 통첩하기를, “성곽은 단단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한두 부로와 더불어 이 언덕을 두루 순시하여 흙을 헤아리고 땅을 정하니, 장정들이 자식처럼 와서 공사에 참가하여 한 달도 못 되어 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를 당하여 경영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 한이다.’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술잔을 들고 사방을 바라보니 성지(城池)가 견고하고 관부(官府)가 완비되고 백성은 기뻐하는 빛이 있고 아전은 공경스러운 모양이 있었다. 아, 성군의 덕화를 입음이 이와 같이 빠르도다. 지난날의 풀밭이 오늘에는 동네가 되었고, 지난날 어리석고 어둡던 것이 오늘날엔 예법에 맞는 풍속이 되었다. 고려 말기에, 다스리고 어거하는 것이 방향이 없었고 거둬들이는 것이 한이 없었으며, 또 우리 민족이 아닌 종족이 섞여서 갑인의 변란을 불러서, 무기는 바다를 덮고 시체는 땅을 뒤덮었으니, 말하면 목이 메인다. 바야흐로 이제 밝으신 성상께서 위에 있어 교화가 행하고 풍속이 바뀌어져, 집집마다 순박한 풍도를 회복하고 사람마다 충효의 뜻을 품었다. 하물며 탐라(耽羅)는 신자(神子)의 후손이며, 신라로부터 지금까지 국가를 순수하게 섬김에 있어서랴. 옛적에 제 환공(齊桓公)이 초구(楚丘)에 성을 쌓자 공자께서 아름답게 여겼으니, 그대가 쌓은 성을 훗날의 역사가가 또한 마땅히 《춘추》의 쓴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의(義)로써 백성을 부렸으니 또 무슨 한함이 있으리요. 유군(兪君)이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어 서로 주고받아 취하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써서 기(記)를 삼는다.” 하였다.

Ⅲ. 현장 점검 및 자문회의 사진

2015. 4. 10.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2015. 5. 20.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2015. 5. 20. 현장답사(화성행궁) 및 무예 시범단 자문

2015. 6. 5.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2015. 5. 20. 화성행궁 주변마을(행궁동) 경관정비 점검

2015. 5. 13. 자문위원 수시 자문요청(김종영)

Ⅳ. 참고문헌

1. 고문서 및 옛기록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약용, ≪목민심서≫

오횡묵, ≪총쇄록≫

김종직, ≪점필재집≫

해석문 인용(기문, 제영문 등) :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및 인용

2. 지리지 및 지도, 그림

도별 읍지 : ≪호서읍지≫, ≪호남읍지≫ 등

지역별 읍지 : ≪진양지≫, ≪공산지≫ 등

지리지 : <1872년 지방지도>, <해동지도>, <조선지도> 등

의궤 및 미술 등 : <경기감영도>, <원행을묘정리의궤>, <호귀응렵도> 등

사진활용 :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문화대전 등

지도 해석 : 서울대학교 규장각 참조 및 인용

3. 학위 논문 및 학술보고서

김종영,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硏究>, 1989, 단국대학교 건축공학 석사학위청구논문

문화재청, <읍성의 보존관리 매뉴얼>,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획, 2014

양주시, <양주 관아자 복원 기본설계 및 종합정비계획>

김성윤, 조선시대사학보 53권, <오횡묵을 통해서 본 수령 군현통치의 과정과 전략 -'선정' 목민관의 모델과 관련하여>

이선희, 역사민속학 18, 2004, <우곡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수령의 일상업무>

이선희, 사학연구 제92호, 2008, <조선후기 수령의 출퇴근과 근무방식>

4. 저서

안길정, <관아이야기1,2>, 사계절출판사, 2000년

하남오, <너희가 포도청을 아느냐>, 가나북스, 2001

문화재청, <문화재 유형별 활용길라잡이>, 한국문화전략연구소,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 2010년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의 활용 및 보존방안> 학술심포지엄자료, 2014.4.11

2015년 6월 인쇄
2015년 6월 발행

연구기관 :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편집/제작 :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53 (용강동)
Tel:(02)719-1495 Fax:(02)719-1497

발　　행 : 문화재청